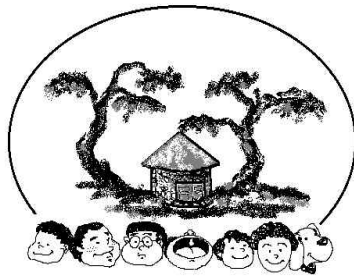


지금 꿈꾸고 있나요?



간디청소년학교



2004년 간디청소녀학교 졸업논문집

지금 꿈꾸고 있나요?



지금 꿈꾸고 있나요?

양희창_ 간디청소년학교장

간디에서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이라고 3년 내내 노래를 불렀지만 '정말 그런 거구나' 하며 마음 속 깊이 새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 배운 것 다 까먹고 먹고 살기 바빠 허둥대다가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다는 아닐 텐데 하는 조바심이 생길 때 조용히 가슴을 타고 울릴 겁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새로운 것을 쫓아 달려가려고 하는지, 안주하기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의미를 찾아 미지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여전히 있는지, 그때서야 우리가 그토록 불렀던 노래의 뜻을 새겨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 날을 지새우며 알토란 같은 열매를 이 곳에 모아 놓아 두었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독창적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비록 서툴긴 하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꿈이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고의 여행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많이 갖지 않아도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배움의 도'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때 나의 어머니였다.”

제가 요즈음 깊이 생각하는 화두입니다. 굴러다니는 낙엽도, 눈발을 헤매는 강아지도 나를 있게 한 어머니였습니다. 바람도 물도 태양도 나의 어머니였고, 때때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존재하게 한 모태였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나를 만들어 가는 나의 어머니이며,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꿈꾸며 다시 만납시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김병삼_간디청소년학교 중 3 담임

여러분들의 논문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간디에서의 삶의 여정이 3년이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낮설고 신기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순 없겠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동료가 밉기도 했고, 별반 존경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선생 때문에 학교가 모두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고 학년이 되어서는 조금 잘해 볼까 하니 철없는 후배들이 도무지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는데다 믿었던 일부 동료들마저 함께하질 않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제 막 학교도 좋아지고 주변의 아이들과 선생들도 이해가 가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니 떠날 때가 다 되어 이렇게 논문집을 앞에 두고 안녕을 고해야 됩니다.

논문집을 앞에 두고 지난 3년을 미소로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한숨 섞인 눈빛으로 멍하니 책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만큼의 의미가 각 개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며칠간의 밤샘과 날아간 문서를 다시 타이핑해야 하는 지루한 시간들도 있었습니 다. 순수하게 글만으로 논문을 완성한 사람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낸 사람들, 멋지게 자신을 표현한 사람들 모두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운 사람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에게도 논문과 함께 지난 3년은 참으로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후회로 점철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담임으로서 송구스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지만 이렇게 버젓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문이 많았다는 논문집을 품에 안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논문집이 여러분에겐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논문집에 있는 글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여기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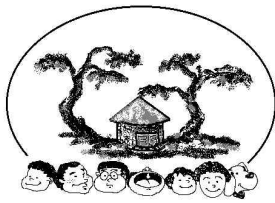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그리고 아주 많이 미안합니다.

차례

- 강안솔_ 일상 속에서 -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추억 / 11
- 강지예_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동화책 만들기 / 19
- 권부연_ 포크아트 / 27
- 김가람_ 한국 영화계 문제점에 대한 고찰 / 35
- 김나눔_ 감 염색 - 감 염색으로 만든 칩구 세트 / 49
- 김민기_ 간디학교가 사회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보, 의사 전달하는 데 따른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 제시 / 61
- 김범린_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용 방안 / 79
- 김보경_ 간디학교에 우울증이 살고 있다 / 101
- 김승안_ 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 119
- 김재은_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연구 / 131
- 김주희_ 나와 국토순례, 그리고 학교 - 내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국토순례 방향 제시 / 153
- 김태규_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그들의 후손 / 171
- 박도일_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에 대한 연구 / 171
- 배유리_ 걸개그림 그리기 / 199

차례

- 양익중_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과 활용 / 209
- 요원지_ 간디학교 속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 조사와 개선 방법 제시 / 223
- 요연민_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 연구 / 245
- 이병건_ 기초 드럼 교본 / 263
- 이병우_ 간디학교의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 295
- 이세벽_ 레코딩 CD로 담아 본 간디 속의 나
- 노래에 깃든 나의 이야기 / 307
- 이승우_ 쿠파 왕의 피라미드 제작 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론적 근거 제시 / 319
- 이에스더_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 / 331
- 정진_ 간디학교의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 345
- 정현석_ 나뭇가지 공예 - 나무와 잡자리, 그리고... / 361
- 지혜_ 규방공예 - 직물회화의 절정을 이룬 보자기 / 369
- 최영안_ 다큐멘터리 진주 시장의 고단한 하루 / 377
- 한수현_ 약 / 391



일상 속에서

-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추억



강하솔

1989년 10월 05일

2녀 중 차녀

한솔유치원(경인여대부속유치원, 정원유치원) - 병방초등학교 - 성지송학중학교(전학) -

제천간디청소년학교(졸업 예정) - 산청간디고등학교(입학 예정)

혈액형 / RH+ AB형

별명 / 보노, 보노보호, 해달, 드봉, 솔강, 강솔, 김강솔, 애교 덩.어.리

취미 / 음악감상, 독서, 영화감상, 사진 찍기

꿈 / '환경을 지키는 여자'

소속 / '안티프라민', '스크린 속의 우상', 2004년 간디 중3, '연가'(연필 가는 대로).

■ 2004년 졸업 논문

『일상 속에서』 -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추억

■ 발표자 : 강한솔

■ 지도교사 : 김윤하 선생님

■ 차례

1. 들어가면서_ 13
2. 왜, 사진인가_ 13
3. 일상의 의미_ 14
4. 다큐멘터리_ 14
5. 사진을 찍는 방법_ 14
6. 과정 /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들_ 15
7. 나오면서_ 17

일상 속에서

-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추억 -

1. 들어가면서

간디학교에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값진 것을 얻었다. 내가 얻은 건 추억과 나의 성장이다. 우리의 지루해서 힘들었던 일상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 추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간디학교에서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 속에 잊을 수 없는 우리만의 추억을 담았다.

우리가 함께 한 3년의 시간 속에는 그 느낌은 다르지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함께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모두 다르게 보인다. 마치 문제를 같이 풀어 가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푸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런 우리의 같지만 다른 하나하나의 모습을 모두 담아 진정한 '우리의 추억(일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2. 왜 사진인가?

사진은 사람이 남기는 흔적이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기도 하고 흘러간 세월을 보여 주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남에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진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있다

사진 말고도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영상매체는 많다 그렇지만 나는 사진을 택했다. 왜냐 하면, 나는 동영상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행동도 좋지만, 정지돼 있지만 솔직함이 묻어나 있는 사진이 더 좋다. 또,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일상의 의미

일상은 평소에 항상 해왔던 것들을 말한다. 평소에 해왔던 일들은 지켜워지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언젠가 이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할 때가 오면 그 힘들고 싫었던 일상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서 절대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다가온다. 일상은 이런 것이다.

4. 다큐멘터리

사진이 단순회화의 대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을 때부터 사진은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러나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전쟁을 기록해야 하거나 사회를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시 느낌과 일상을 기록하는 개인 중심의 성격으로 변했다. 이러한 다큐의 정신에는 개인의 일상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전통이 있다.

5. 사진을 찍는 방법

먼저 사진을 찍을 때에 중요한 요소는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그리고 필름 감도이다. 조리개는 심도(초점을 맞춘 피사체의 뒤 전경과 후경의 선명도) 조절을 해주고, 셔터스피드는 빛의 양을 시간적으로 조절해 준다. 그리고 필름감도라는 것은 일정한 양의 빛에 대해 반응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빠르면 고감도 느리면 저감도, 보통이면 중감도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적절한 노출이 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적절한 노출을 맞췄으면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필름에 사진이 담긴다.

그 다음 필름 현상은 먼저 암백 안에 필름과 릴, 현상탱크(통 비슷한 것), 필름을 넣은 뒤 암백 안에 손을 넣어서 필름을 릴에 감고서 현상탱크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런 다음 통에 넣고 뚜껑을 닫고 현상액의 온도를 정확히 20도로 맞춘다. 탱크에 넣고 현상액으로 교반(뒤집었다가 엮는 행동)을 해서 현상을 시킨 뒤 정지액으로 정지시키고, 정착액으로 필름에서 날아가지 않게 한다.

그 다음 뚜껑을 열어 수세(현상탱크 안에 물을 넣어 행구는 행동)를 하고 나서 필름을 꺼내 린스에 담갔다가 와이퍼로 물기를 닦아 낸 뒤 건조시키면 네거필름이 완성이 된다.

필름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잘라 네거 파일에 넣어야 한다. 그 다음 보통 밀착이라는 것을 한다. 밀착 과정을 살펴보자. 암실(빛이 없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현상액, 정지액, 정착액, 물을 순서대로 놓고, 집게도 놓고, 조리개와 렌즈를 조절하여, 크

기와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나서 인화지의 유제 면이 위로 오도록 확대기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네거티브를 올린 뒤 인화지와 밀착시키기 위해 깨끗한 유리를 네거티브 위에 눌러 덮는다. 그리고 빛을 시험으로 맞춘 시간 동안 준 후 현상액 → 정지액 → 정착액 → 물 순서로 인화지를 교반시키고 말리면 밀착이 끝난다. 밀착을 하면 어떤 사진을 인화해야 할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진을 어떤 사진을 뽑을지 고르고 나서 인화를 시작한다.

인화 과정은 이렇다. 암실에 현상액, 정지액, 정착액을 차례대로 놓은 다음 시험을 해서 얼마나 빛을 줄 것인지 잡아 놓고, 초점도 맞추고, 사진 크기도 정하고, 조리개도 맞춘 다음에 필름을 캐리어에 넣고 인화지를 꺼내서 이젤에 끼우고 빛을 준다. 그 후 현상액, 정지액, 정착액, 물 순서로 잘 교반을 시키고 나서 스퀴지로 물기를 잘 닦은 다음에 말리면 인화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이 나온다.

6. 과정 /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들

8월 16일

김윤하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화도 해보고, 현상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9월 1일(수)

개학하고 난 뒤 모든 학교 정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필름 1통 쓰다.

9월 2일(목)

밖에 있는 모습들을 주로 찍었는데, 우리 학교 풍경은 정말 예쁘다고 느꼈다. 필름 1통 쓰다.

9월 3일(금)

아침운동과 가족회의 탁구 치는 모습, 농구하는 모습, 병삼 선생님 모습을 담았다 윤하 선생님 카메라를 빌렸다. 2스텝 증감해서 사용했다. 카메라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인지 노출을 잡기 힘들었다. 필름 2통 쓰다.

9월 4일(토)

매점 가는 아이들, 돛자리 깔고 노는 모습, 자전거 타는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나조차 즐겁게 만드는 모습들이었다. 필름 1통 쓰다.

9월 5일(일)

잠자는 애들, 기숙사에서 노는 애들, 드럼 치는 병건이, 피아노 치는 모습들 담았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여유로워 보였다. 교회나 성당을 가는 아이들도 찍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쳐서 아까웠다. 필름 1통 쓰다.

9월 6일(월)

노는 애들, 청소하는 애들, 웃는 모습들 조희하는 모습을 담았다 어디서 어떻게 찍든 애들의 웃는 모습은 제일 예쁜 거 같다. 필름 1통 쓰다.

9월 7일(화)

아침운동, 산책, 수업하고 있는 애들,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밥을 먹고 있는 우리 학년은 행복해 보인다. 우리 학년은 정말로 밥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필름 1통 쓰다.

9월 8일(수)

아침운동, 이 닦고 있을 때, 전산실에 있을 때 등등 하루를 담았다. 필름 2통 쓰다.

9월 9일(목)

안나와 케이트와 함께한 문화의 밤과 목요일 하루를 담았다. 한 통은 슬라이드필름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인화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슬라이드필름에 있는 사진 중에 좋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필름 2통 쓰다.

9월 10일(금)

인화하러 갈 때 덕산면을 찍었다. 필름 1통 쓰다.

충무로에서 윤하 선생님을 만나 현상을 했다. 필름 모두를 다 현상하고 밀착했다.

9월 12일(일)

아침에 암실에 가서 12통에 있는 사진들 중에 뽑을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나서 인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보람도 있었으나, 시간이 가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인화는 밖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끝을 맺을 수 있었다.

9월 13일(월)

글 정리를 시작하였다. 그 동안 써 왔던 글들을 다듬기 시작했고, 과정도 쓰기 시작했다.

9월 14일(화)

사진의 순서를 정하였다. 발표 때 어떤 순서로 보여 줘야 하고, 전시회 때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작업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관찰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9월 15일(수)

순서를 다시 짰다. 순서를 짜면서 사진에 흠집이 난 것들이 보여 마음이 아팠다.

9월 16일(목)

순서를 또 한 번 고쳤다. 어색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했다.

9월 17일(금)

이론을 수정하고 과정을 썼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아 좀 고생을 했다.

9월 18일(토)

스캔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빛이 반사가 되어서 포토샵으로 반사된 부분들을 지우느라고 힘들었다.

9월 19일(일)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말할 것들 정리하고 알씨로 사진을 보여 주려고 사진 순서 다 정리했다. 노래도 들려주려고 다운을 받는데 잘 받아지지 않아서 곤란했지만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또 파워포인트를 해서 디스켓에 저장했는데 디스켓이 망가지는 바람에 발표할 때 복잡해져서 아쉬웠다.

7. 작품 후기

학교에 와서 막상 작품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쑥스럽고 너무 어색해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는데, 사진의 매력에 빠져 카메라를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 아이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의식을 하고 피했었다. 그래서 눈치 못 채게 모습을 담아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니 친구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도 해주고 웃어 주기도 해서 너무나 고맙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인화와 현상을 하러 갔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어서 제대로 안 하고 대충해서 몇 개의 사진들을 망친 점이 정말 아쉽다.

마지막으로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한 탓에 담지 못한 애들도 있고, 담고 싶었던 모습들을 놓친 적도 많아서 아쉽지만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 만들기



강지혜 _

1989년 12월 30일 무지개연못 출생

무남독녀 외동딸

갈보리유치원 - 영훈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상 수상

혈액형 / RH+ AB형

별명 / 눈갈신, 강깡, 강지, 캄지, 강지, 요녀, 개구리, 아롱이, 무지개연못초등학교 일진,

말자, 봉자, 볼탱탱, 볼빵빵, 강강, 강갱, 꿍치

취미, 특기 / 요가, 독서, 혼자 놀기, 음악 듣기, 눈 뜨고 자기,

새침하기, 잘 때 스더 괴롭히기

소속 / 역사사랑, 기지개(몸짓동아리), 솔피바람(풍물), 학생회

하고 싶은 말 / "...간디인 모두 사랑해요!"

- 2004 졸업 논문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 만들기』
- 발표자 : 강지혜
- 지도교사 : 이영민 선생님

■ 차례

- I. 서론_ 21
 - 1. 논문(작품) 목적 및 동기_ 21
 - 2. 작품의 과정_ 21
- II. 본론_ 22
 - 1. 동화책에 대한 설명_ 22
 - 1) 동화책이란?_ 22
 - 2) 동화책의 분류_ 22
 - 3) 주제에 따른 분류_ 22
 - 2. 콜라주(collage)란?_ 23
 - 3. 선곡한 음악에 대한 설명_ 23
 - 4. 내가 만든 그림 동화책과 기존에 있는 그림 동화책 비교_ 23
- III. 결론_ 24
 - 1. 작품 후기_ 24
 - 2. special thanks to..._ 25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동화책 만들기

1. 서론

1. 논문(작품) 동기 및 목적

1) 작품의 동기

나의 작품 주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 만들기이다.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어렸을 적에 본 그림 동화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동화책의 그림은 거의 비슷하고 입체감이 없어서 단순해 보였다. 그림이 좀 색다르다고 해도 종이에 인쇄되어 별 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입체적인 그림이 있는 그림 동화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고 싶었다.

2) 작품 목적

내가 생각하는 입체적인 그림은 어린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보면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한지나 천연염색 천, 물감, 마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다.

그래서 그에서 한국적 이미지와 서양적 정서가 하나로 조합되게 한다. 또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촉감을 느끼게 하여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선곡하여 그림 동화책을 읽을 때 같이 듣도록 한다.

2. 작품의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와 방향과는 조금 달라졌다. 그림과 음악은 내가 직접 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향 때 하다 보니 음악을 직접 선곡하고 하는 일이 다소 막막해서 주제를 조금 수정했다. 그림은 원래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음악은 내가 선곡하여 CD에 굽는 걸로 하였다.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작품 주제를 생각해 보니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주제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 동화책의 이야기도 내가 직접 쓰기로 했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동화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기법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내가 직접 선곡한 음악의 장르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론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그림 동화책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림 동화책 만드는 것은 어진이 어머니님이 도와주셨다.

먼저 이야기 주제를 친구와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쓰기로 했다. 일단 내가 이야기를 처음 쓰는 것이라 기존에 있는 동화책들을 읽어 보았다.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썼다.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반복되는 말이나 필요 없는 말은 뺐다. 이야기를 다 쓴 후에는 그림 장면을 대강 생각하면서 글을 나눴다. 그리고 글을 나누는 것을 '페이지 업' 이라고 한다. 글과 그림이 맞는지 맞춰 보았다. 코딱지 그림을 그려 글과 그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했다. 이 때 장면을 글과 그림의 배치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하느라 좀 오래 걸렸다. 그리고 책의 크기를 정했다. 나는 그림을 캔버스 천에 스케치를 구체적으로 한 후에 천연염색 천과 쓰다 남은 자투리 천과 물감과 마카로 그림을 완성했다. 이런 재료를 써서 서양적 이미지와 한국적 이미지 조합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II. 본 론

1. 동화책에 대한 설명

1) 동화책이란?

동화책이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해 지은 이야기책으로 글과 그림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 책이다.

2) 동화책의 분류

- (1) 글이 없는 책 : 글이 전혀 없는 책. 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준다.
- (2) 그림책 : 그림책은 간단한 텍스트와 그림이 있는 책.
- (3) 그림 동화책 : 그림 동화책은 풍부한 그림과 더불어 그림책보다는 이야기의 비중이 높은 책이다.

3) 주제에 따른 분류

- (1) 내적 세계
- (2) 가족 세계
- (3) 사회적 세계

(4) 자연적 세계

(5) 종교적 세계

2. 콜라주(collage)란?

콜라주란 풀 바르기, 붙여 바르기란 말이다.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형겅, 곡류, 금속류, 목재, 플라스틱, 종이, 실, 나뭇잎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조형 표현에 소재로 붙이는 것으로써 시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다.

3. 선곡한 음악에 대한 설명

내가 선곡한 음악의 장르는 퓨전음악과 국악으로 그 가운데에서 곡을 골랐다. 내가 이 장르의 음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어린이들이 클래식 쪽에만 익숙해져 있고, 국악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국악은 어린이(유아)들을 음악적 태도와 리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 반면 국악에 대해서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국악 하면 생소하게 느낀다. 국악은 따분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 국악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만나 퓨전 음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퓨전음악은 실제 요즘에 많이 보편화되고 듣기에도 편한 느낌을 전해 주는 음악으로 자리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의 시기이면서 각자의 선호도가 생기는 시기인 유아기 때에는 어떤 한 쪽의 음악을 접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선곡한 음악〉

- ① 이현의 농 : 하늘빛 그리움, 빛깔 수놓기, 그리움을 접으며, in my heart
- ② 김애라 : 찬란한 슬픔
- ③ 숙명 가야금 연주단 : 키싸쓰 키싸쓰
- ④ 김수철 : 꽃의 동화, 소리길

4. 내가 만든 그림 동화책과 기존에 있는 그림 동화책 비교

내가 만든 그림동화책의 그림은 천연염색 한 천과 한지와 물감, 마카, 색연필 등 다

양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콜라주 기법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서양적 이미지와 한국적 이미지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다. 또 입체적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

기존에 있는 그림 동화책은 대부분 서양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전래동요를 쓴 동화책도 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창조적이지도 않고 별 변화가 없다. 대개 그림 동화책의 겉표지는 대부분 코팅 처리를 한 책이라서 아이들이 만지고 접하는 부분에서 좀 더 색다른 표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수작업을 통한 한지로 동화책의 겉표지를 만들었다. 단점이 있다면 책을 다루는 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재료비가 조금은 비싸다.

IV. 결론

1. 작품 후기

내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만들기라는 주제로 논문을 하게 되었는데, 얼핏 보면 조금 쉬운 주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 그리 만만치 않았다. 특히 손으로 직접 만들고 선곡한 음악과 동화책의 내용이 그림과 매치가 되었는지... 또 논문을 하면 할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힘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쓰는 것보다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웠다. 또 그림 동화를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논문을 하면서 내가 접해 보지 못한 작품을 내 손으로 만들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논문을 다 마치고 나니 훌가분해서 좋다.

2. special thanks to...

마지막으로 저의 논문을 도와주신 분들...

논문 담당 쌤이신 영민 쌤, 동화책 제작하는 것을 도와주신 어진이네 부모님과 친구 분들, 틈틈이 저의 논문을 봐 주신 희숙 쌤, 영란 쌤, 경환 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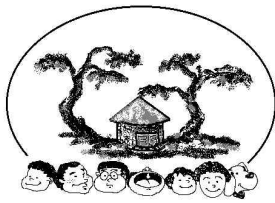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논문 잘 하라고 해 주신 부모님, 제가 논문 기간 중 아팠을 때 간호해 주신 선옥 쌤과 현숙 쌤, 중 3 논문 한다고 옆에서 응원해 준 중 1, 중 2들.

마지막으로 논문 한다고 고생한 병삼 쌤과 중 3 모두 수고하셨고, 저의 논문을 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www.daum.net

www.naver.com



포크 아트



권부연

1990년 02월 28일 대구 '이종길산부인과' 탄생
1남 3녀 중 차녀

백합어린이집 - 월성초등학교 - 매천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역사사랑에서 주최한 '4.19'마라톤 '백두상(2번), 금강상' 수상, 뽕아트상 수상

혈액형 / RH+A형

별명 / 로보뜨, 고철, 고철덩어리, 고철의연금술사, 강통, 뷔야예요, 바보꼬맹이, 바보원숭이,
파괴의신, 기계, 사이보그, 삐약이, 우습, 어버

취미 / 술병에 커피 타 마시기, 기숙사 뛰어다니기, 승복이 목마 타기, 학교 휘젓고 다니기

특기 / 언제나 유쾌하다

장래 희망 / 해적

존경 인물 / 몽키.D.루피

이상형 / 히쇼카, 히루마(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인물... 젠장)

소속 / '낙오자밴드' 보컬, 으르렁개가 주인을 몰다 반 3학년, 개그스쿨 2기

좌우명 / "단순하게 살자."

하고 싶은 말 / "눈곱은 귀지다."

■ 2004 졸업 논문

『포크아트』

■ 발표자 : 권부연

■ 지도교사 :

■ 차례

1. 논문(작품) 동기_ 29
2. 포크아트의 정의_ 29
3. 포크아트의 역사_ 29
4. 포크아트의 활용?_ 30
5. 포크아트의 실제 진행 과정_ 31
6. 진행 과정(증거물)_ 32
7. 내 작품 소개_ 32
8. 논문 쓴 후 느낀 점_ 34

포크아트

1. 논문(작품) 동기

사실 나는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었다. 애교코만도 아니면 과자로 만든 집에 대해서라든지... 무지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한테는 너무 힘들 거라는 사람들의 충고들 때문에 시도를 하던 중 아주 급하게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정하게 된 주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 오고 있었던 포크아트로 하게 되었다.

2. 포크아트의 정의

어느 집이나 낡거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개성이 없어 버리고 싶은 소품들이 있다. 그러한 소품들에게 새 옷을 입혀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포크아트이다.

유럽의 포크아트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하였고, 명칭도 다르다. 나라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집기에 꽃이나 까치, 호랑이 등을 그려 넣은 소박한 서민 미술인 민화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는 미국, 일본의 톨 페인팅과 호주 쪽의 포크아트가 알려지면서, 두 가지 이름이 구분 없이 혹은 애매한 구분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친숙한 이름으로 느껴지는 포크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해 생활예술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 포크아트의 역사

포크아트는 유럽 서민 계층이 가구나 일상적인 용품에 색깔과 장식을 첨가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여가 시간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생겨난 서민 예술이다. 이전의 동굴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세유럽 궁중 가구나 귀족의 생활

용기 등에 볼 수 있다. 그러 놓은 문양이나 그림 등이 전문 장인의 손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하여 점차 서민층으로 퍼졌다. 한편 Jackie Shaw라는 미국 작가는 그의 『Big Book』이라는 책에서 동양아시아권의 도자기 문양, 혹은 건축물의 여러 문양인 붓놀림의 형태인 Stroke(획)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날의 전통적인 포크아트의 원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Rosmaling, 네덜란드의 Hindelooen, Assendelfter, 러시아의 Zhstov, 독일의 renmalerei(Farmer Painting)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포크아트의 형식이 가장 체계화된 곳은 바로 유럽이라 볼 수 있으며, 포크아트의 진앙과 발상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포크아트의 활용

포크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다면, 목재류, 사기류, 유리, 플라스틱, 중금속, 옷감류, 액세서리,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에 활용할 수 있다.

1) 목재류

책상, 우체통, 서랍장, 나무인형, 문, 의자, 책꽂이, 액세서리 함, 시계, 휴지걸이, 영수증 꽃이, 쟁반, 액자, 장롱, 우산꽂이, 화장대, 거울 가, 행거, 찬장, 바구니.

2) 플라스틱

스탠드, 사물함, 마우스, 등

3) 사기류, 유리류

컵, 접시, 주전자, 숟가락, 거울, 찻잔, 창문, 거울, 그릇 등

4) 옷감류

가방, 청바지, 면바지, 티, 신발, 천 인형, 천 지갑

5) 액세서리

열쇠고리, 핸드폰 줄, 귀걸이, 목걸이 펜던트, 벽걸이, 손거울, 장식품, 손목시계, 핸드폰, CDP, 벽화 등

이런 것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응용 방법 중 헤나나 바디페인팅, 네일 아트도 들 수 있으며, 더 많은 곳에 응용할 수 있다. 정말로 포크아트를 응용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5. 포크아트의 실제 진행 과정

- ① 먹지와 도트를 가지고 도안을 그려낸다. ② 기본색을 칠한다.



- ③ 선명하게 명암을 넣어 준다.



- ④ 순색을 섞어 가며 점점 밝게 곱을 밝게 한다. 눈과 코를 비롯해 나머지 부분을 스텐실 붓으로 예쁘게 마무리를 하면 끝!



6. 진행 과정(증거물)

[증거물 입수]



7. 내 작품 소개





직접 만든 포크아트 작품들

8. 논문 쓴 후 느낀 점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포크아트를 취미 삼아 하다 보니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옛날에 하던 포크아트 과정을 완성한다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주제로 논문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제~일 아쉽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계속 해왔던 작품이라 조금은 수월하게 마무리했고, 여유롭게 논문을 준비하고 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재료비 대느라 허리가 지끈거리셨을 부모님, 대충대충 하는 나를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권유라 선생님, 논문 도와주신 안나 수녀님, 같이 놀던 빨간 집 형자들 보경, 나눔, 밤마다 옷만들기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심심하면 와서 놀아준 깜둥이 재훈이, 옆에서 같이 작업한 혜, 포크아트 할 바지를 준 강술, (권)유리, 모텔 해준 (또)강술, 허수, 혜지, 은지, (또)나눔, 힘든 우리를 위해 치킨 사 주신 병삼 쌤, 던킨도넛츠가 아닌 도넛츠 도넛츠를 사 주신 현숙 쌤, 밥을 먹게 해준 사랑스런 식당, 작업할 때 듣던 음악들, 그 외에 3학년 아이들, 열심히 응원해 준 사랑스런 후배들, 그리고 논문 한다는 핑계로 5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흑사시킨 나.

진짜 모두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고마워요!!!

한국 영화계 문제점에 대한 고찰



김가람_

1989년 03월 13일

외동아들, 가족 관계 / 엄마, 아빠, 나

아람유치원 - 방배초등학교 - 광남초등학교 - 장성한마음공동체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 검정고시(중졸)

혈액형 / RH+ A형

별명 / 개구리, 이가람, 그린가람, 왕구리

취미 / 영화감상, 잡자기, 인기 갈구기

특기 / 수학, 평범한 듯하며 튀는 행동

소속 / 여우하품, 스크린 속의 우상, 연.이.말, 웃.대

좌우명 /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이 논문집을 보는 당신! 지금 프로필만 보지! 그치! 내 말이 맞지! 논문도 보렴-_-;”

- 2004 졸업 논문
『한국 영화계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발표자 : 김가람
- 지도교사 : 오필선 선생님

■ 차례

- I. 서론_ 37
- II. 한국영화계 문제점에 대한 고찰_ 38
 - 1. 스크린 쿼터제_ 38
 - 2. 한국영화의 폭력성_ 40
 - 3. 영화 스텝의 열악한 환경_ 42
- III. 결론_ 44
 - 1. 스크린쿼터 보안_ 45
 - 2. 한국영화의 장르 다양화를 위한 제안_ 45
 - 3. 스텝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안_ 46

한국 영화계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서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화감상이 취미였다. 취미로 봐 왔던 영화가 나의 미래를 꿈꾸는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 단순히 영화를 보기만 했었지만, 지금은 발전해서 배우의 연기와 영화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영화에 폭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영화를 자주 접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얼마 전에 많은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다. 실제 영화를 만드는 주역들이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영화가 망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한국영화의 발전에 '스크린쿼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지금 관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보는 영화 대부분이 지나치게 심한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영화의 목적인데 영화의 폭력성은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폭력적이 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폭력적인 영화가 관객들의 선호를 받고 흥행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런 영화만 극장에 쏟아지면서 투자, 배급 그리고 관객한테 소외받는 여러 예술영화들이 속출하면 일부 소수의 영화에만 투자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영화사업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에서도 배우와 감독뿐 아니라 비록 영화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작부, 연출부, 미술부 등 스텝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스텝들은 먹고살기가 곤란할 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스텝들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한국영화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국영화는 예전에 비해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1919년 단성사에서 상영된 <의리적 구투>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80년이 넘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예술성, 상업성으로도 제대로 모습을 못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영화 상영은 외국 영화에 치우쳐 있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영화는 이런 상황이 역전되었다. 한국 영화계는 100년의 시간에서 최대 절정기를 맞고 있다. 영화 제작, 배급, 극장 등 영화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영화에 대해 최근 해외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요 근래에 〈올드보이〉, 〈오아시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취화선〉, 〈사마리아〉, 〈봄여름가을겨울〉 등이 칸영화제와 베니스영화제 등 여러 해외영화제에 초청되고 일부 영화는 상까지 탔다. 한국영화는 이제 외국의 블록버스터 못지않게 화려한 영상과 CG¹⁾, 특수효과 등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특한 소재와 이야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에 ‘극장에서 한국영화를 보면 돈이 아깝다’라고 하던 쓴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현재는 매년 한국 영화의 흥행작이 많이 나와 오히려 외국영화를 극장에서 보기가 더 어려울 만큼 한국영화는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그 기세는 대단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장이다. 그 만큼 한국 영화산업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영화 산업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화들에 비해서 기술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선생 김봉두〉, 〈가문의 영광〉, 〈조폭마누라〉, 〈달마야 놀자〉 등 한국 영화에 대한 리메이크 판매 요구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한국 영화가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스크린쿼터제도, 영화의 폭력성과 소외되는 영화 스텝의 실태를 문헌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한국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1.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계가 ‘스크린 쿼터제’ 폐지 논란에 휩싸여 들끓고 있다. 한덕수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영화 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크게 분노하였다.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 관련 단체 회원들은 99년 7월 20일 스크린 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미, 이태원, 임권택)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30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결의했다. 그리고 누그러질 것 같던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이 2003년 이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크린쿼터란, 극장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말하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를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자국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

1)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의 준말

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지금 우리나라 영화 의무 상영 일수는 한 해에 146일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영국, 일본 등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나라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스크린쿼터를 포기하자마자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10%로 급하락했다. 이 나라들은 스크린쿼터를 포기하고 미국의 권유대로 자국 영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영화 제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채택했다가 현재는 자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화 제작에 돈을 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국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똑똑히 보여준다.

문화 개방 후 버거킹,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 사람들은 전부 짜고 단맛을 내는 패스트푸드에 자기네 특유의 입맛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 이 패스트푸드는 없어질 생각을 안 하고 갈수록 늘고 있고, 당연히 사람들은 빠르게 음식이 준비되고, 맛있는 패스트푸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패스트푸드가 상당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음식과 맛을 모를 뿐 아니라 마치 담배와 같이 영양가는 없고 중독성이 강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입맛으로 변해 가고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면 극장에서는 돈 안 되는 우리나라 영화를 스크린에 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극장은 어느 신인 감독의 야심에 찬 데뷔작보다 당연히 관객들이 많이 드는 헐리웃 영화만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중독성이 강한 패스트푸드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헐리웃 영화들이 우리 영화시장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헐리웃 영화들은 당연히 관객들의 취향을 모두 자기네 쪽으로 유인하고, 사람들은 자기네 영화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할 것이다.

미국 배급사들은 인기 있고 검증된 <반지의 제왕>과 같은 영화를 배급하려면, 자국의 저예산 영화들까지 배급하라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극장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스크린 10개 가지고 있는 극장이 블록버스터 한 편을 산다면 끼워 팔기로 산 미국 저예산영화까지 세 편 정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배급받게 된다.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를 두 개 산다면,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은 많아 봐야 두 편밖에 안 된다.

이것에 관하여 비슷한 실례를 들자면 서울 관객 80만 명이 들며 꾸준히 흥행하던 <여고괴담>과 20명쯤에 머물면서 파리만 날리던 외국영화 <고질라>가 있었다. 당시 강남의 모 극장에서는 평일에는 <여고괴담>을 주말에는 <고질라>를 상영해 문제가 되었다. 극장주들의 입장은 미국 영화사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고질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배급받아야 할 <타이타닉>, <취라기 공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산의 한 극장에서는 평일 관객 수 3천 명을 유지하며 꾸준히 흥행하던 <편지>를 어느 날 갑자기 막을 내리고, 직배사 영화 <자칼>을 건 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 날이 바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아주 정확히 채운 날이기 때문이었다. 극장 측의 입장에서만 보면 <여고괴담>, <편지>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배사들의 요구에 따라 영화를 거는 것이다. 이들 직배사들은 장사가 안 될 영화, 저질 미국영화를 몇 편의 흥행작들과 함께 끼워 파는 장사를 하고 있어 극장주들도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스크린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하물며 스크린쿼터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는 영화의 질의 문제를 벗어나 한국영화를 패스트푸드와 같은 미국영화의 지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가 된다면 우리 영화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가 올려질 극장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공평한 시장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일반 시민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모른다. (솔직히 말해 나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심각성을 알았다.) 게다가 헐리웃에서 제작되는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의 제작비는 수백~수천억대를 호가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제작비가 33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객의 선호도를 7,000원짜리 영화표로 경쟁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불공평한 경쟁이다. 이것은 20만 원이 넘는 유명 브랜드 신발과 값싼 중국산 슬리퍼를 똑같은 가격으로 상점에 내놓고 파는 것과 같은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일반 상품으로 치자면 엄청난 '덤핑 판매'²⁾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도 한국 영화 산업이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영화 주체들의 노력과 희생, 한국 관객들의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스크린쿼터 제도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제도가 없어져서 고스란히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영화인들의 노력만으로 30대 1의 제작비 열세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정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영화를 미국 영화시장에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그리고 영화조차 미국의 상업정신에 물든 후세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

스크린쿼터는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대문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집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스크린쿼터를 미국의 요구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한국영화의 폭력성-흥행을 위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한국영화 장르들

2)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영화가 점점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점 중 하나를 제시하자면 바로 흥행성만을 위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진 한국영화들의 소재들이다. 지금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요즘 영화작품 수준과 흥행 성적이 반비례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감동 있고 작품성이 뛰어난 속칭 예술영화들은 흥행이 부진한 반면에 완성도와 예술성이 낮고 그저 눈으로만 즐기는 오락영화는 흥행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객들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인스턴트 음식을 찾고, 영양가가 풍부한 우리고유 향토음식은 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영화는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영 화 명	배 급 사	서울 관객 동원 수
살인의 추억	CJ엔터테인먼트(주)	1,851,500
동갑내기 과외하기	CJ엔터테인먼트(주)	1,595,370
선생 김봉두	플레너스(주)시네마서비스	854,100
장화홍련	청어람	832,100
와일드카드	플레너스(주)시네마서비스	541,500
색즉시공	쇼박스	536,950
클래식	플레너스(주)시네마서비스	533,905
품행제로	청어람	436,671
이중간첩	쇼박스	364,100
오, 해피데이	플레너스(주)시네마서비스	289,650

<표> 한국영화 흥행베스트 10 : 2002 하반기 - 2003 상반기>

위의 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의 한국영화 중 흥행 베스트 10 영화들을 통계 낸 자료이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와일드카드>, <품행제로>등 60% 이상이 모두 폭력이 빚발치는 오락 영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대부분 거대 배급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조폭마누라>, <친구>등 조직폭력배 영화로 신드롬으로 조직폭력배 코미디 물이 한동안 '똥다'는 것이다. 이 조직폭력배영화들은 거의 폭력과 욕을 대명사로 하면서 조직폭력배들을 미화하고 폭력을 조장하여 억지웃음을 유발해낸다. 그리고 영화의 순기능, 일정한 교육적 기능과 예술성을 무시한 채 단지 흥행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 지금은 조직폭력 신드롬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조직폭력배 신드롬이 유행할 때 청소년들에게 폭력이 정의이고, 긍정적이며, 조직폭력배가 영웅이라는 착각을 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실제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우를 칼로 찔러 살해한 김 모 군은 경찰조사에서 영화 '친구'를 40여 차례나 보았고, 이것이 친구를 칼로 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청소년 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이 접하는 미디어의 폭력

성이 도가 지나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성공한 폭력영화들의 대다수를 보면 폭력장면의 잔혹함이 가면 갈수록 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폭력 매체에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고, 코믹 요소로 인해 접하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있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한 폭력배들을 이성적, 인간적, 지성적, 영웅처럼 보이게 해서 청소년으로 동경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취리〉를 선두로 하여 한국에도 블록버스터 영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어엿하게 허리우드에 버금가는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눈 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영화관의 돈은 영화의 작품성을 짓누르고, 흥행이 우선이라는 절대명제로 감독의 예술성 창의성을 망가트리고, 배급망을 휘어잡고 있다. 무엇보다, 관객들을 작품의 질이 아닌 유명스타 출연 등의 홍보 전략으로 휘어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블록버스터, 오락영화에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예술영화, 실험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의 측면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줄어드는 소외 효과로 인해 대형 영화들은 점점 치솟는 제작비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영화에 투자 한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망하는 영화사가 속출하고 있다. 스케일을 키운다고 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제고 된다는 보장이 없고, 투자가 소수의 상업성 영화에만 집중되어 오히려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는데 장애가 될 공산이 커진다.

요즘 한국영화는 확실히 저급한 취향의 늪에 빠져 버렸다. 위에서 제기한 폭력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섹시 코미디 영화들도 상식을 부정하는 난센스 세계이며 ‘제발 좀 웃어줘’ 하는 억지 웃음이 과잉의 스타일이다. 이러한 영화를 많은 관객들은 한국영화를 보면서 그저 실없는 웃음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영화가 ‘저질이다’라는 평가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영화가 흥행이 되어야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더 많은 투자금의 유입으로 질 좋은 한국영화를 만든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다. 하지만 흥행이 되는 상업적 영화 즉 오락영화나 폭력 일변도로만 영화가 제작되면 저예산 영화나 단편영화 독립영화 같은 예술적 영화 등 본래 순수한 영화의 기능들은 어디서 찾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영화가 꼭 폭력영화, 오락영화만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지구를 지켜라〉, 〈집으로〉, 〈오아시스〉와 같은 영화들이 그러한 장르를 탈피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비록 〈고양이를 부탁해〉와 〈지구를 지켜라〉가 흥행에 실패했지만 재개봉 상영을 요구하는 팬들이 많고 〈집으로〉와 〈오아시스〉는 작품적인 면에서나 흥행적인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던 것을 보면 아직 이러한 장르 편식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3. 영화스텝의 열악한 환경

영화현장의 스텝들은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요구에는 소극적이다. 임금 체불 시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소송 한 번 크게 해서 사회적 이슈

가 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인들의 노동조건은 백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김도학 씨(영화인회의 정책팀장)를 통해 영화 스텝들이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 50%, 관객 1천만 시대’ 등 한국영화에 쏟아지는 찬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요즘,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평균연봉 640만원, 하루 평균 16시간의 노동시간에 4대 보험 혜택도 보장받지 못하는 영화 스텝 노동자들이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3월 27일 ‘영화인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발표 및 공청회’를 열고 ‘스텝들의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 및 스텝(영화인) 노조 결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 후 영화 스텝 연합과 영화 스텝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클럽(www.filmmakers.co.kr), 영화 스텝들의 모임인 ‘비둘기둥지(cafe.daum.net/vidulgi)는 ‘영화인 신문고’를 개설했다. 사이트가 개설되기 무섭게 스텝들의 억울한 사연이 빗발쳤고, 4부(연출·제작·조명·촬영) 연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K씨는 “2002년 7월 1일 매달 급여를 받기로 하고 모 영화사에 입사했다. 입사 후 2003년 1월 4일까지 근무했다. 근무시간 동안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퇴직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 고발, 체불 임금 확인서도 받았다. 수차례 전화 연락과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역시 체불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영화인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P씨도 “2001년 11월 연출부로 합류해 대략 3개월간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그 후 2002년에 걸쳐 50회 정도 촬영을 진행한 상태에서 영화가 제작 중단됐다. 그러나 영화사가 제작중단은 막아야 한다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재계약서를 써 줬고 2003년 여름까지 촬영을 했다. 그러나 결국 영화는 중단됐고, 감독과 영화사는 스텝을 해산 시켰다. 그래서 재계약서 내용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된 임금만 7백만 원이 넘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밖에 2001년 5월 씨네21 303호 특집기사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다도 스텝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n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이씨는 영화 생활 7년이었던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94년 청주대 연극영화과 졸업 직후 A작품의 제작부 막내로 들어갔던 그는 당시 인건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B작품에서는 제작차장으로 ‘승진’했지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50만 원 정도만을 만져야 했다. 곧 C작품의 제작부로 투입됐지만, 6개월 동안 준비하다 기획 단계에서 떨어져 200만원의 소득에 만족해야 했다. 이어서 맡은 D작품은 6개월 동안 40%가량 촬영하다 취소돼 역시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원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E작품에서는 제작실장을 맡아 1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제작사가 흥행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잔금 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곧이어 터진 IMF사태로 10개월 동안 허송세월하던 그는 대기업이 투자했던 F작품을 만났고, 처음으로 애초 계약대로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99년은 그에게 다시 시련의 해였다. 시나리오가 괜찮다고 판단했던 G작품을 1년 가까이 준비했지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시나리오가 다른 제작사로 넘어갔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100만원뿐이었다.

그가 6년 동안 7개 작품을 작업하면서 손에 쥘 돈은 일반 직장인의 1년 연봉에도 못 미치는 185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지난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셈이지만, 그동안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질, 심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나처럼 우둔하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온 것 아니겠냐”며 씩씩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8년 만에 프로듀서 자리에 오른 그는 충무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찌면 운이 좋았던 경우인지도 모른다.

일 년에 1,850만 원이 아니고 6년 동안 고생을 하며 받은 돈이 고작 1,850만원이라니 1년 동안 고작 380만 원으로 살았던 것이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상인가? 이것은 우리영화 문제점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는 틀이 잘 잡혀야 한다. 영화에서의 틀은 바로 스텝들이다. 집을 지을 때 틀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집은 무너질 것이다. 영화판에서도 스텝들을 무시하고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간다면 한국영화는 무너질 것이다.

III. 결론

최근 국제영화제서 상을 받고,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낸 영화가 나타나는 등 한국영화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고 비싼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늘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것이다. 자국영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축구에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하면 그 승패가 뻔한 것처럼 아직 한국영화는 미국영화와 자본, 마케팅 부분에서 겨룰 수 없다. 지금 한국영화가 미국영화와 대등하게 겨룬다고 하더라도 한국영화를 미국영화보다 많이 상영하겠다고 이제는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화의 오락성에 관한 것이다. 영화의 목적은 결코 영화를 보는 동안 현실을 잊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만일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고 영화를 보는 동안 현실을 잊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름이 없을 것이다. 영화는 삶과 사회를 제대로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그 본디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흥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흥행을 위해서 영화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스텝들의 처우 개선이다. 일 년에 500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스텝들이 많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화는 스텝들이 있어야만 만들어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스텝들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한다. 최소한 스텝과 계약한 내용은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1) 스크린쿼터 보안

스크린 쿼터제의 철저한 준수에 따른 극장 측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영화배급, 유통 분야의 현대화, 합리화를 지워야 하고 동시에 극장경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경영사의 세제 혜택도 반드시 주어야 하며, 감시단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 그리고 직배영화의 묶어 팔기 계약을 사전에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화의 질을 높여서 미국의 영화와 맞서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스크린쿼터를 완전히 폐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축소시켜도 극장에서는 우리나라 영화가 더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스크린쿼터가 줄어든다고 해도 미국 영화보다는 우리나라 영화를 더욱더 선호할 것이다.

2) 한국영화의 장르 다양화를 위한 제안

좀 흥행이 될 것 같은 영화들은 스크린이 10개 정도 있는 극장이라면 3~5개정도 걸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당연히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은 개봉 일이 늦어지고 겨우 상영이 되도 스크린을 3~5개 나 가지고 있는 인기 높은 영화에 묻혀서 개봉한지 1주일도 안 되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독립, 예술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술영화 스크린쿼터를 실시하는 것이다. 관객 동원력이 힘든 예술영화들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상영권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는다면 결코 한국영화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런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예술영화 전용관에 주는 혜택인 문예진흥기금 환급도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적인 영화관의 예술영화 스크린쿼터를 통해 일반 상영관에서도 이러한 영화들을 상영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스크린쿼터에서 한국영화의 부족한 편수를 보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객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 영화의 장르를 다양하게 하되 감독의 철학과 세계에만 빠져서 너무 어려운 영화내용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예산 영화도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점차 저예산 영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것을 노릴 수가 있다. 관객의 입맛도 어느 정도 맞추고 흥행에도 성공한 한 예로써 <여고괴담>과 <집으로> 등의 영화를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저예산 독립영화 들이다. 장르도 그다지 인기가 없는 공포와 드라마였는데도 여고시절, 할머니의 사랑 등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잔잔한 감동을 줌으로써 큰 반응과 좋은 성적을 내었다. 하지만 <지구를 지켜라>는 작품성이 상당히 높은 영화였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감독의 철학과 상상력이 너무 커서 많은 평론가들 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도 실패했다. 관객들이 접하기 에는 너무 어려운 영화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예술영화를 관객에게 쉽게 접하게 해서 영화 보는 것의 질을 높여 주면서 예술영화는 무조건 식상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관객으로부터 바꾸어서 예술 영화 지지율을 높여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다.

3) 스텝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안

현재 현장의 스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생활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나 저작권 보장, 영화제작 시스템 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그렇다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원인은 무엇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첫째, 비정규적인 작품별 계약, 도급 계약을 들 수 있다. 현재 영화 인력의 고용은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작품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고정된 사업장과 고정된 사용자를 갖기 어려운 영화제작 현장에서 작품별 계약은 스텝의 다음 일정 계획을 어렵게 하고 도급 계약은 임금 체불시 에도 그 책임주체가 뚜렷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김도학 씨는 “영화 인력들의 실업상태 기간이 1년에 평균 6개월 이상이고, 조사대상자³⁾의 54.8%가 어떤 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임금 피해사례를 경험한 비율이 72%에 달한다. 하루 13-16시간 촬영이 39.4%, 16시간 이상인 경우도 34.8%나 되에도 불구하고 작품별 계약일 경우 시간외 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제작기간을 초과해도 스텝들은 초과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인력의 과잉공급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의 영상 관련학과, 영화아카데미 등 수많은 경로로 매년 1만 5천 명 가량이 영화계로 들어온다. 이런 노동력 과잉은 저임금 일

3) 2004년 3월 27일에 ‘영화인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발표 및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1년간 영화진흥위의 지원 하에 김도학 동국대 경영학 박사, 박형섭 변호사, 안영진 제작부협회 부회장등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용직을 양산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차단한다. 따라서 영화인이 될 수 있는 혹은 지속적으로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적 창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영화는 문화라기보다 산업에 훨씬 가까워졌지만 스텝들에게 여전히 '영화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관행처럼 대물림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본이 움직이고 있지만, 영화 만들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⁴⁾ 발전한 듯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도 스텝들의 저임금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 스텝들은 우선 스타시스템에 의존한 영화제작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영화 평균제작비가 1995년 10억 원(순제작비 9억 원에서 2001년 21억5천만 원, 제작비 15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도, 이중 상당 부분은 소수의 스타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텝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인식을 키워 가고 있다. 스텝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부분의 제작사와 프로듀서, 감독이 체계적인 프리 프로덕션과 치밀한 촬영 진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밤을 세워가며 촬영을 하거나 끝도 보이지 않게끔 촬영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일 촬영에 투입되는 기간이라도 줄여준다면 다른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연평균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체계가 없이 촬영을 하다보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너무 들어가 그만큼 스텝들의 몫도 더 많이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작사의 관점은 조수급 스텝들의 인건비가 생계비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그동안 인건비가 연평균 10%씩 올라왔고, 믿을 수 있는 기준에 의해 각 스텝의 기술 등급이 매겨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텝들이 제작사와 투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합리적 내용의 표준계약서 작성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제작사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내용⁵⁾으로 꾸며져 있고 스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작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연장되거나 캐스팅 문제 등으로 계획이 뒤집혀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그 시간보다 촬영이 길어질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천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들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⁶⁾에서부터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며, 스타의 캐

4) 2001년 5월 씨네21 303호 특집기사에 실린 내용.

5)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본 영화의 제작 완료일까지 모든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고 제공하며……." "관계법규 또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갑'이 본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은 계약금을 즉시 환불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6) 영화의 제작과정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으로 나뉜다. 프리프로덕션은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이야기 한다. 프로덕션은 실제로 영화를 찍는 과정을 말하며, 개봉 전까지의 과정을 포스트프로덕션이라 한다.

스팅이나 파이낸싱⁷⁾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꾸리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도제시스템의 산물인 현재의 ‘일괄계약’ 방식을 ‘개별계약’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각 파트의 감독급인 ‘오야지’나 조감독급이 대표로 계약하는 현재의 일괄계약 시스템에서는 적정한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계약제는 스텝들의 영화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셋째, 런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⁸⁾의 적정한 배분을 요구한다. 한 작품이 성공한 것은 소수의 스타나 감독 뿐 아니라 전 스텝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수익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부 스텝의 논리다. 결국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면 좀 더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스텝 생존권은 개인의 당연한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영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의 꿈을 접고 현실적인 이유로 CF나 방송, 뮤직비디오 등으로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꿈만 먹고 살아온 젊은 영화인들에게 진짜 신명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영화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거나 느낄 수는 없다.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고, 이곳과 저곳의 삶을 이어 주는 올바른 여건이 되고, 바르게 상영된다면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것이며,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영화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함께 노력하여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한국영화의 모습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정현창, “1999~2003년도 한국 영화 관람객의 성향과 변화 분석”, 영화진흥위원회, 2004.7

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영화진흥위원회, 2003.9

<http://www.kofic.or.kr/>

<http://www.pressian.com/>

<http://www.film2.co.kr/>

<http://www.cine21.co.kr/>

www.filmmakers.co.kr

cafe.daum.net/vidulgi

심충면접- 김진수(싸이더스)

7) 작품에 제작비를 투자할 투자자를 찾는 것을 말함.

8) 최초 배우에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하향조정 하면서, 대신 작품의 관객 수가 일정수치 이상 넘어갔을 때 관객1인당 몇백 원씩 추가로 배우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런닝 개런티라 한다.

갑 염색

- 갑 염색으로 만든 침구 세트



김나눔

생년월일 / 1989년 07월 10일

가족관계 / 1남 1녀 중 장녀

혈액형 / RH+O형, 별자리 / 게자리

별명 / 해롱이, 동글이, 동글라미, 김동글, 빙그레, 늬콤, 돼지, 족발, 똥똥이

취미,특기 / 한재원 로직 망치기, 명구 산책 시켜주기, 명구 밥 안 주기, 낙서하기, 먹기, 자기,

먹고 바로 자기, 큰소리로 웃기, 카트라이터하기, 싸이질, 땡깡 부리기, 물고기 생각하기,

프라이팬놀이, 말이 많은 거, 말 빨리 하기, 밤에 잠 안 자기, 내 족발 감상하기

좋아하는 음식 / 싫어하는 음식 빼고 다

싫어하는 음식 / 버섯, 돼지귀, 굴, 닭발, 닭껍질

주량 / 소주 1병 이상 맥주 배부를 때까지

소속 / 여자기숙사 기상 당번, 슈팅스타 회원, 연필가는대로 회원, 개그스쿨 1기,

낙오자밴드 매니저, 간디학교 3학년, 간디학교 2층 여자기숙사 5호방

하고 싶은 말 /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더 적어야 되는데 다 못 적었다.”

■ 2004 졸업 논문

『감 염색 -감 염색으로 만든 침구 세트』

■ 발표자 : 김나눔

■ 지도교사 : 김현숙 선생님

■ 차례

I. 서론_ 51

1. 논문을 쓰게 된 동기_ 51

II. 본론_ 51

1. 천연염색_ 51

1) 감 염색의 활용_ 52

(1) 감 염색이란?_ 52

(2) 감 염색의 장점_ 53

(3) 감 염색하는 과정_ 53

(4) 감 염색 시 주의 사항_ 55

2) 작품 만드는 과정_ 55

III. 결론_ 59

1. 작품을 마치면서..._ 59

감 염색

- 감 염색으로 만든 침구 세트 -

I. 서론

1. 논문을 쓰게 된 동기

천연염색이란 단어는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연상케 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설레게 한다. 동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장성에서 1학년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천연염색 시간에 염색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좋게 남아 있다. 장성을 떠나오면서 천연염색을 할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었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가 논문 주제를 정할 때 작품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제를 정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지역에 많이 나는 감으로 감 염색을 하게 되었다.

현란한 색으로 오래 대하면 피곤해지는 화학염료에 비해, 천연염료는 대하면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어느 빛깔과 함께 두어도 서로 잘 어울려 결코 어색하지 않다. 그것은 재료를 자연으로부터 얻기에 자연스런 색상이 나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천연염색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취미생활이라던가, 자기가 염색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그렇지만 천연의 색 즉, 자연의 색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보통 감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걸 보고 갈옷이라고 한다. 대개 감 염색이 뽀뽀해서 옷으로 만들어 입는데, 옷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홈패션이다.

요즘 천연염색은 색상이 아름다움 뿐 아니라 염색된 직물의 방충선, 항균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II. 본론

1. 천연염색

천연염색이란,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에 의하여 염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천이의 염색이 가능한 물질에 염색하는 것을 천연염색이라고 한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기 시작한 이후에는 천연염색을 실생활에 활용해 왔는데, 현재는 대분의 옷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린라운드의 출범과 함께 환경보호와 자연을 되살리자는 세계적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합성염료보다는 천연염유에 천연 염색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합성염료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법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표 1> 천연염색의 종류

이름	색	이름	색
들국화	회색	라벤더	엷은 갈색
민들레	황색, 카키색	해바라기	황색
뱀딸기	황갈색, 보라색	장미	적황색
쑥	엷은 황색, 녹색, 카키	감	어두운 오렌지
토마토	엷은 베이지	밤	짙은 갈색
갯잎	황색, 엷은 보라	키위	엷은 올리브그린
파슬리	황색, 엷은 녹색	복숭아	베이지색
고구마	베이지, 카키	녹차	짙은 회청색
봉선화	황갈색	커피	갈색

위에 있는 표는 천연염색이 가능한 것들과 그것을 염색하여 나오는 색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위에 적어놓은 것들은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위에 색깔 말고도, 매염제를 다르게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1) 감 염색의 활용

(1) 감 염색이란?

이것은 일명 시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염색법이다. 덜 익은 뽕은 감에 의한 염색법이며, 감물염색이라고 하는 이 염색은 무덥고 습기 찬 지리적 조건에 의해 생겨난 특이한 방법이다. 7~8월에 덜 익은 풋감을 따서 으깨어 즙을 낸다. 그래서 물들인 천을 함께 집어넣고 주물러서 찌꺼기를 덜어내고 강한 햇빛에 잘 말린다. 가끔 물을 축여 주면서 10여 회를 반복해 말리면 점점 진한 적갈색으로 변하여 뽕뽕하게 풀 먹은 천

이 된다. 감 즙의 농도를 매우 약하게 해야 한다. 농도를 약하게 하지 않을 경우 감물이 발색하여 염색한 원단에 영향을 준다. 감은 모든 감을 감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염색의 견뢰도를 높여주는 데 아주 좋다.

(2) 감 염색의 장점

시료명 : 지뽕
2001-아-04발자로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항목 : 시험결과

(1) 항균도 (KS X 0693-2001) : 평균값 : %

	BLANK	SAMPLE
균주1: 초기균수	1.4×10^6	1.4×10^6
18시간후	6.7×10^6	1.3×10^6
항균율	—	99.8
균주2: 초기균수	1.2×10^5	1.2×10^5
18시간후	5.5×10^6	<10
항균율	—	99.9

※ 주) 시료 무게 : 0.4g
 평가법 : 관주1 - 48 배
 관주2 - 46 배
 검증된 농도 : 관주1 - $1.4 \pm 0.3 \times 10^6$ / ml
 관주2 - $1.2 \pm 0.3 \times 10^5$ / ml
 표준균의 종류 (KS (0606-1996)) : 연
 배양용 배양할 수 있는 종류 : TREEN 80 (10.05 %)
 사용공식균주 : 관주1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관주2 -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 = 미검
 별첨 사진 참조

한국원사시험연구원 결과표

더운 여름에 땀이 흘러도 몸에 붙지 않는다. 햇볕을 오래 쬐어도 열이 전도되지 않아 시원하다. 염색한 천은 좁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한국 원사시험연구원의 결과 99.9% 항균력이 나왔다.

(3) 감 염색하는 과정

(1) 풋감을 따서 꼭지 채 분쇄기나 절구에 찧어 즙을 낸다. 양이 적으면 물을 조금 타서 믹서에 간 다음 천에 짜 즙을 낸다.



(2) 감 즙은 염색하기 전에 체나 천으로 한 번 걸러낸다.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염색하고 짤 때 덩어리들이 터져서 까맣게 된다.



(3) 염색하고자 하는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천을 세제를 넣고 두어 번 푹 삶은 다음 햇빛에 말린다. 이 방법도 있고, 가성소다를 물에 풀어서 천을 넣고 5시간 정도 삶고 저어 주면 불순물이 다 빠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성소다 때문에 천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삶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4) 천은 걸러낸 감물에 푹 담가 20분 정도 골고루 물이 들도록 충분히 삶거나 주물러 준다.



(5) 천을 꼭 짤다. 건조는 반드시 구름이 많이 없는 맑은 날 햇빛에서 건조시키고,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준다.



(6) 감 염색을 마치면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물에 담가 강한 햇빛에 말린다. 말릴 때 주름이 지거나 곁치지 않게 잘 널어 말린다. 그리고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을 발색 작업이라고 한다.



(7) 발색 작업까지 모두 다 마치면 작품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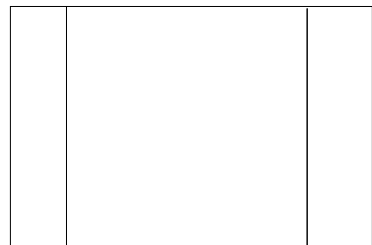
(4) 감 염색 시 주의 사항

정련하는 과정과, 매염 시에는 충분히 잘 저어 준다. 비를 맞지 않게 하고 물을 골고루 충분히 뿌려준 후 반드시 밝은 햇빛에서 건조한다. 건조 할 때는 햇빛을 본 곳만 염색이 되므로 염색한 천이 곁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작품 만드는 과정

(1) 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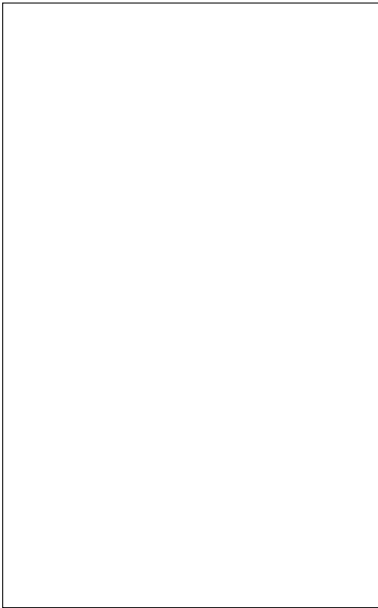
60*40의 크기로 만들었다. 베개와 쿠션은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지퍼를 달았다. 너무 멋있을까 봐 레이스도 달았다. 레이스도 염색한다고 했는데 색깔이 좀 연하게 나왔다.



베개

(2) 이불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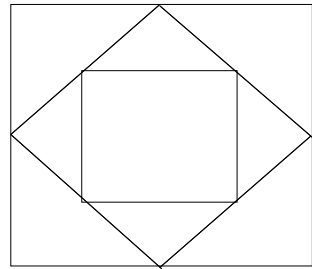
이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 매트라서 누비려고도 생각은 했었지만, 누비게 되면 내가 누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만들었다. 천이 작아서 한번에 폭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천을 이어서 만들었다.



이불매트

(3) 쿠션 1

40cm×40cm의 정사각형 모양. 각각 천을 제도한 다음 안에서부터 겹으로 이어 나왔다. 각 모양의 꼭짓점을 주의해서 박아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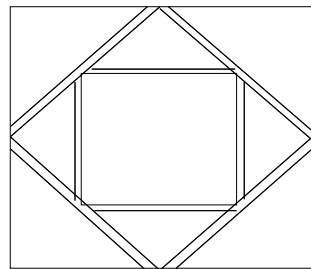


쿠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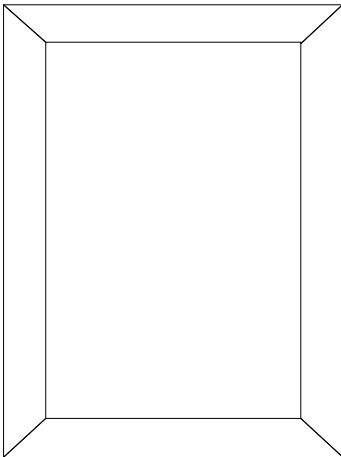
색깔이 조금씩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다.

(4) 쿠션 2

역시나 마찬가지로 쿠션인데, 사실은 쿠션 대신 커튼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만들 자신도 없고 해서 쿠션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쿠션을 만들었다. 이번에 만든 쿠션은 옆에 스티치를 박아서 허접함을 달랬다.



쿠션 2



이불

(5) 이불

총 180cm×220cm의 크기고 '더블사이즈' 테두리 부분은 20cm의 굵기로 둘러져 있다. 크기도 너무 크고 빨리 만든다고 급하게 만들다가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6) 감 염색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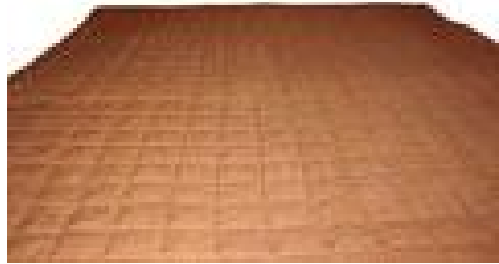
<커튼 1>



<방석>



<모자>



<매트>



<가방>



<커튼 2>



<이불>



<의자 덮개>



<베개>



<쿠션>



<각휴지 덮개>



<덮개>

III. 결론

1. 작품을 마치면서...

장성에서 천연 염색할 때는 경험상으로 해보는 연습이었으므로, 주머니 하나 만들 정도의 크기로 염색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염색은 침구세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으로 염색도 했고 더더욱 손이 많이 가는 감 염색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다.

염색은 감 염색 하나를 했지만 감 염색을 하다가 천연염색에 대한 매력도 찾게 되었고 주위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천연 염색 방법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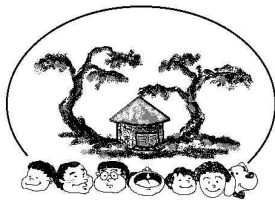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염색을 하면서 매염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다. 매염 자체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매염을 하면 자연스러운 염색보다는 뭔가 화학적이고 인공적일까 봐 안 했는데, 다음에 또 염색을 한다면 매염제도 써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도록 해봐야겠다.

사실 생각했던 작품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커튼도 도안까지 다 해놓고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쿠션을 하나 더 제대로 만들자 해서 커튼 대신 쿠션이 생겨나게 되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일단 먼저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논문 쓴다고 고생 참 많이 한 나를 비롯하여 논문 쓰는 나보다 더 염색을 열심히 한 우리 사랑하는 아빠랑 동희, 감 따 준 우리 가족들...

같이 논문 쓰면서 함께 있어 준 우리 '으르렁개가 주인을 물다'반 막강 중 3들과 병삼 쌤, 담당 쌤으로서 나의 온갖 짜증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 우리 현숙 쌤, 그리고 나 몰래 나 논문 쓰는 거 도와준 분들, 이 논문 끝까지 보고 들어 준 우리 간디인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간디학교가 사회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보, 의견 전달하는 데 따른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 제시



김민기 _

생년월일: 1989. 06. 17

취미 / 운동, 책읽기

학력 / 혜화유치원 - 북가좌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소속 / 엠티, 간디락스타연합

■ 2004 졸업 논문

『간디학교가 사회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보, 의견 전달하는 데 따른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 제시』

■ 발표자 : 김민기

■ 지도교사 : 오필선 선생님

차례

- I. 서론_ 63
 - 1. 논문의 동기_ 63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_ 63
 - 3. 조사 방법_ 63
 - 4. 논문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과 한계점_ 64
- II. 본론_ 64
 - 1. 간디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 내용_ 64
 - 1) 교육철학_ 64
 - 2) 교육 내용_ 65
 - 2. 간디학교에서 진행했던 사회참여 프로그램_ 65
 - 1) 간디학교는 사회참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_ 65
 - 2) 간디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프로그램_ 66
 - 3) 학교에서 진행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각에 끼친 영향_ 66
 - 4) 설문지 결과와 분석_ 67
 - 3. 장점과 단점들_ 69
 - 4. 단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고칠 수 있는 대안 찾기_ 70
 - 5. 간디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_ 72
- III. 결론_ 73
 -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_ 75
 - 부록_ 76
 - 1. 학생 설문지
 - 2. 선생님 설문지
 - 3. 인터뷰 질문지

간디학교가 사회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보, 의견 전달하는 데 따른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 제시

1. 서론

1. 논문의 동기

언젠가 뉴스를 보니 여러 명문대를 비롯한 대학들에서는 면접을 볼 때 9·11테러, 같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기도 한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무조건 공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표현해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때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TV나 기타 대중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문화의 밤이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도 일단 선생님들의 견해의 방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디학교 학생의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관심과 생각, 사회참여(집회) 등에 대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학교가 고쳐야 할 점과 추가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끝으로 학교가 나아갈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위에서 말했듯이 요즘 사회에서도 큰 사회이슈나 사건들에 관하여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얼마나 잘 표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간디학교는 대중매체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문스크랩이라든가 대자보, 문화의 밤 등을 통해 정보를 알려준다. 위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의견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여 좀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3. 조사 방법

이 논문은 일단 학생들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교의 장단점과 학생들의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하여 알아보고 또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학교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볼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설문으로는 객관적이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큰 문제를 자세히 파고들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다

4. 논문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과 한계점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자료에 있다. 이 논문에서의 자료는 설문지와 인터뷰 자료가 대부분 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제한적이다. 특히 설문지를 연구자 혼자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설문분석이 어려운 설문지와 정의 없이 쓴 주관식 설문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아주 열심히 써 준 학생들과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준 설문지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만큼 논문을 쓰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II. 본론

1. 간디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 내용

1) 교육철학

간디청소년학교의 교육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인적인 교육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골고루 성숙되고 조화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둘째, 공동체 교육으로 이웃과 협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셋째, 자연친화적 교육으로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양이 상당히 많아 필요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1) 대안적 삶을 위한 교육

긴 시간(초중고 도합 12년)을 보내고서도 실제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교육에서 벗어나 쓸모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는 한 인간이 독립적이고도 자족적인 인간으로 떳떳이 살아가는 데 진정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나아가 졸업 후에도 대안적인 삶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대한 불복종의 정신

새로운 학교는 기존 교육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시작되며 간디는 이러한 정신을 “불복종의 정신”이라 부른다. 오늘의 기존 학교들이 단순히 대학 입학의 준비 장이나 지배 이데올로기 학습의 장으로 전락해 있는 것에 순응하지 않고 불복종의 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 가야 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장교육을 중시하며 아울러 21세기의 화두인 생명과 평화 교육을 강조한다.

(3) 창의력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

새로운 학교는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자아의 진정한 표현, 활짝 핀 개성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 속에서 창의력과 탁월성을 기대하며, 그것에 맞는 교육 방식들을 끊임없이 실험해 갈 것이다.

2. 간디학교에서 진행했던 사회참여 프로그램

1)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참여의식에 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선생님들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했다. 선생님들은 사회참여 의식이 중요하다고 만장일치로 답하였다.

간디학교는 학교의 철학과 사상, 추구하는 교육을 볼 때, 사회참여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학교철학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일일 경우,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때 선생님들을 보면 이러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답변 중에는 문화의 밤이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는 말도 많이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설문지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이슈나 사건들에 관해 많이 가르쳐 주고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을 해 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간디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사회참여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에게 알려 주거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과연 학교는 이러한 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영양을 끼쳤는지 알아보자.

2) 간디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관해 알려 주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등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를 하였다.

먼저 경기도 부천에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 열리는 미선이 효순이 추모와 SOFA 개정에 관한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던 걸 들 수 있다. 또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화의 주간’으로 선정하여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수업에서 이라크전쟁의 원인과 진상, 상황을 알리고자 했으며, 평화와 관련한 선생님들의 생각 등을 말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문화의 밤’에서는 ‘반전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이라크전쟁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나라의 파병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많은 집회 참여와 문화의 밤을 가졌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해 평화바람을 초청해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제로 문화의 밤을 갖기도 하였고 그 외에 학교 자체 내에서도 반전이나 이라크 파병 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문화의 밤을 가졌다. 또한, 제천이나 광화문 같은 곳에서 반전이나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를 하였다. 그 외에도 사건이 있으면 신문 스크랩이나 대자보 등을 써서 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큰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화의 밤이나 집회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다.

3) 학교에서 진행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각에 끼친 영양

학생들의 설문지를 통해 보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도 학생들의 생각에 상당히 많은 영양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설문지에서, 중학생이다 보니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하는 말에 많은 영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주로 소식을 접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이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알 수 없고, 문화의 밤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4)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설문지를 쓰기 전에 연구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교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것과 선생님들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폭을 좁히고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과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설문지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데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의 밤’과 같은 프로그램이었기에 앞서 말한 문제의식은 중요하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물어보았다. 아래와 같이 설문지를 써서 2, 3학년 학생들에게 돌렸다. 1학년은 아직 이러한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행사, 집회 등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어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1. 당신은 평소에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관심 있음 (2) 관심 있음 (3) 보통 (4) 관심 없음 (5) 전혀 관심 없음
결과 : 1번 5표, 2번 13표, 3번 12표, 4번 3표, 5번 0표

분석 : 간디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사건이나 이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 9·11테러나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이라크 전쟁 등 여러 사회 이슈나 사건들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게 되었습니까?

(1) 인터넷을 통해서 (2) 대자보를 통해서 (3) 선생님을 통해서 (4) 문화의 밤 같은 것들을 통해서 (5) 기타 :

결과 : 1번 18표, 2번 4표, 3번 4표, 4번 5표, 5번 7표

분석 : 정보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접했다고 나왔다.

3. 학교가 위 같은 사건이나 이슈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결과 : 1번 5표, 2번 20표, 3번 6표, 4번 2표, 5번 1표

분석 :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4. 학교에서 실시한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등이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관심과 생각을 어느 정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결과 : 1번 11표, 2번 4표, 3번 13표, 4번 3표, 5번 0표

분석 :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

5. 학교에서 하는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또는 대자보(스크랩)의 잘 된 점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그냥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사건들에 관하여 알게 해 준다.

(2) 이슈나 사건에 관하여 관심과 생각을 갖게 해 준다.

(3) 공연이나 다른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다.

(4) 기타 :

결과 : 1번 16표, 2번 13표, 3번 3표, 4번 1표

분석 : 위와 같은 장점이 있다.

6. 학교에서 하는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또는 대자보에서 모자란 점이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일단 사건을 선생님을 통해 듣게 되므로 선생님의 견해에서 보게 되는 것 같다.

(2) 좀 딱딱하고 흥미가 없어서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3) 가르쳐주고 알려 주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4) 없다.

(5) 기타 :

결과 : 1번 12표, 2번 8표, 3번 13표, 4번 6표, 5번

분석 : 위와 같이 단점에 관하여 결과가 나왔다.

6-1. 위 여러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찬반의견이 나뉘는 경우 양쪽의 의견도 다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 학생들도 좀더 선생님의 말만 듣고 치우치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생각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참고로 아래의 객관식 답을 써 준 학생들이 1, 3번을 주로 선택했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써 주었다 그러나 2번에 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다.

7. 위 같은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에서 선생님들을 거쳐서 우리가 듣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견해에서 보게 되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글도 써 주세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결과 : 1번 1표, 2번 11표, 3번 13표, 4번 3표, 5번 2표

자신의 생각 :

결과 : 많은 사람들이 2, 3번을 선택해 주었다. 객관식을 열심히 써 주거나 써 주기

라도 하는 사람들은 2, 4번을 많이 선택했다. 물론 3번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3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래의 주관식을 쓰기 싫어서 대충 쓴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적는 부분에서 1, 2번 의견이 많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니까 학생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끄덕인다는,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 답하지 못 할 거라는 의견, 좀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의견이, 또 3, 4번의 의견에서는 자기가 주관이 서 있으면 상관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7-1. 만약 7번의 답변에서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신 분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적어 주세요.

결과 : 선생님들이 좀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알려주거나 좀 더 중립적이고 양쪽의 측면을 모두 잘 나타내 준 신문 스크랩 같은 것들을 많이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8.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에 관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학교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예를 들어 위 같은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신문 스크랩 등).

결과 : 좀더 중립적인 입장의 신문스크랩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사회참여 수업을 적극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9.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과 : 적극적이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과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10. 10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결과 : 학생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생각하며, 자기 주관 가지고 사건을 보며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5. 장점과 단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많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파악해서 그 단점들을 어떻게 학교가 보완해 나아갈 것인지를 중점에 두고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물론 학교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장점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것이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건들을 알게 해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 의식이나 사건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사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등은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일반학교에서는 공부나 성적에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부분을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점을 알아볼 차례이다.

연구자는 위에서 말했듯이, 학교가 학교와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학생이 선생님의 견해에 서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항을 넣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단점을 조사해 보니, 많이 나온 대답 가운데 하나가 연구자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 의식이었고, 다음은 학교에서 사건에 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따분해서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좀 있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너무 급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점이 없다는 아주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위와 같이 학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단점들이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과연 학교만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하는 생각에 학생 설문과 선생님 인터뷰에 그런 문항을 넣었다. 그랬더니 학생 측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은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측에서도 많이 나왔다. 선생님들은 학교나 선생님들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사사랑 같은 동아리에서 학생 자체적으로 소식에 대해 알리고 이야기해 보는 좀더 참여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6. 단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고칠 수 있는 대안 찾기

지금까지는 학생들과 선생님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제 위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학교의 단점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많이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연구자가 먼저 제기했던 선생님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우려였다. 또 덧붙여서 선생님들이 '문화의 밤' 때 앞에 나와서 선생님 입장에서 의견을 이

야기하니까 학생들은 잘 모르면서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직접 생각을 물어보면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적다. 또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의견이 학교에서 학교와 선생님의 생각이 아닌 사회적인 생각이나 자료 사건에 대한 기초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부족하고 적다는 의견이었다. 또 그 외에 ‘문화의 밤’ 같은 시간이 좀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나온 의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인 첫 번째 의견은 학생들의 설문지에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인터뷰를 할 때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과 우려에 동의하셨고,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단점은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뒤에 나온 정보와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의 밤’을 두 번을 나누어 처음에는 사건의 원인과 현황, 그 외에 자료나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 되는 말들이나 양쪽의 의견 같은 것을 알려주고 나서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듣고 생각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번에는 학교나 선생님의 의견을 말해 만약 학생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면 시간도 부족하고 두 번이나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루함을 없애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으니 조금 힘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먼저 ‘문화의 밤’을 하기 전에 신문 스크랩이나 대자보를 붙이되,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 지식에 관한 자료와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 양쪽의 입장 등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다음, ‘문화의 밤’에서 학교의 철학에 기초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을 말해서 직접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가능하다면 한번쯤은 아주 큰 사건이 아닌 경우, 대자보에 사건에 대한 것을 써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 남기게 하든가, ‘문화의 밤’에서도 선생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원인이라든가 관련된 일 등을 자세히 말해 주고, 학생의 생각을 듣거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학생이 자기가 정보를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스스로 사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또 학생들이 이런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텔레비전도 못보고, 인터넷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다 다른 사람과 같이 쓰다 보니 자세히 보기도 힘들고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방송부에서 한 주간에 주요 사건과 이슈를 간략하게나마 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인터뷰에서 말씀하기를 간디학교 철학이나 교육이념에 반대

되는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인권이나 평화에 반하는 전쟁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문화의 밤 때 <역사사랑>이라든가 다른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좀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또 한 가지 사건에 관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좀더 사건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사건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새로운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 밖에 다른 일들도 많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좀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함께(<역사사랑>이라든가 그 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우리한테서 잊혀지는 일 등을 대자보나 스크랩으로 한 번씩 다시 일깨워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하였다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관심과 의식,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의견에서 나는 물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사건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학생 나이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능력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심을 토대로 그 위에 의식을 갖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는 등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의 밤' 같은 경우도 위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공연도 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 가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키워 주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시기에 맞게 사회이슈나 사건과 관련한 사회참여 수업을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것들에 관해서 적었고, 이제 다음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하겠다.

7. 간디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먼저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전달과정의 문제와 정보의 양에 관한 해결 방안이다. 3단계를 통한 정보, 이해 습득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3단계란? 1단계 정보 습득, 객관적인 선생님의 설명이나 신문 스크랩 대자보 등 학생들에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사건의 원인, 진행 상황과 배경 지식에 관한 여러 자료와 사회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리고 2단계는 학생들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학생들끼리 이야기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더 좋다.

3단계는 학교에서 학교철학과 관련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런 3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좀더 생각을 하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경우 대자보에 사건에 경위 등을 써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 남기게 한다. '문화의 밤'에서도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관련된 일을 자세히 말해 주고, 학생들의 생각을 듣거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학생들이 더 많은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방송부에서 한 주간에 주요 사건과 이슈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소식을 전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 중요한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보다 재미있고 흥미 있는 '문화의 밤'을 만들기 위해 '문화의 밤'에 선생님들만 준비하고 말하지 않고 <역사사랑>이라든가 여러 동아리도 함께 참여하여 갖가지 퍼포먼스나 공연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키워 주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사회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사회참여 수업을 개설했으면 한다.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집회나 행사에 참여해 다른 사건에 가려져 소외되어 가는 사건이나 문제는 계속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III. 결론

학생들의 설문지를 분석해 본 결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관심과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직접 소식을 접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이 많이 나왔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회적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이 학생들의 생각의 폭이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왔다. 학교가 시기별 이슈나 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문화의 밤'이나 대자보 등이 해당 이슈나 사건에 대해 관심과 생각을 갖게 해주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단점을 말하기 전에 '문화의 밤' 같은 행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말을 하고 의견을 말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생겨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철학과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더 우리가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디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생각을 알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것이 학생들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런 생각으로 설문지에 서는 그냥 물어보고,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물어 보았다.

먼저 학생들이 생각하는 단점으로는 위에서 말했던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볼 수 있는 우려와 선생님과 학교의 의견이 아닌 사건의 자체의 사실 자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추가로 과연 학교에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냐? 하는 생각이 들어 학생들의 문제점도 물어 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 아직까지 학생들의 관심과 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3단계를 통한 학생들의 정보와 의견 이해 습득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

여기서 말한 3단계란? 1단계는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건의 원인이나 진행 사항 등 기초 자료나 배경 지식을 신문 스크랩이나 대자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 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많은 자료와 지식을 통해 사건과 사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2단계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학생들끼리 이야기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면 더 좋다. 3단계는 '문화의 밤'같이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교 철학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이런 과정상의 의견은 어떠한가? 실제로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면서 물어 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찬성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닌 좀 작은 사건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내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만을 들어 보는(방법은 대자보가 되었던, 토론이 되었던)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좀더 시기별 사건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방송부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요 사회적 사건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방송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정리한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도 학생들이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선생님들도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도 물론 의식과 사건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관심을 키워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사랑> 등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려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방송부에서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 주간의 이슈를 방송해 준다든지 해서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생각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다.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

이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를 하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 선생님들은 끝없이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 실천하기까지 학생들을 기다려 준다, 물론 기다린다고 다 싹이 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싹을 위해서 기다려 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사건에 대해 알려서 관심을 키워 주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건 속에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부족하지만 학교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 록〉

1. 학생 설문지

〈학생 설문지〉

학 년 :

저의 논문에서 이 설문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니 성심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 해 주세요)

1. 당신은 평소에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관심 있음 (2) 관심 있음 (3) 보통 (4) 관심 없음 (5) 전혀 관심 없음

2. 9·11테러나 김선일 씨 피살사건 이라크 전쟁 등 여러 사회 이슈나 사건들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게 되었습니까?

(1) 인터넷을 통해서 (2) 대자보를 통해서 (3) 선생님을 통해서 (4) 문화의 밤 같은 것을 통해서 (5) 기타 :

3. 학교가 위 같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4. 학교에서 실시한 사회 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등이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관심과 생각을 어느 정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5. 학교에서 하는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또는 대자보(스크랩)의 잘 된 점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그냥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사건들에 관하여 알게 해 준다.

(2) 이슈나 사건에 관하여 관심과 생각을 갖게 해 준다.

(3) 공연이나 다른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다.

(4) 기타 :

6. 학교에서 하는 사회 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또는 대자보에서 모자란 점이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일단 사건을 선생님을 통해 듣게 되므로 선생님의 견해에서 보게 되는 것 같다.

(2) 좀 딱딱하고 흥미가 없어서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3)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4) 없다

(5) 기타 :

6-1. 위 여러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 위 같은 사회이슈나 사건에 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에서 선생님들을 거쳐

서 우리가 듣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견해에 서서 보게 되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글도 써 주세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자신의 생각 :

7-1. 만약 7번의 답변에서 1 또는 2번을 선택한 분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주세요.

8. 사회적 이슈나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학교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예를 들어 위 같은 사건 관련한 '문화의 밤'이나 신문 스크랩 등).

9. 학생들이 이런 자료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 10번과 관련해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까요?

2. 선생님 설문지

〈선생님 설문지〉

조사자는 간디청소년학교 중3 김민기입니다. 이 논문은 간디학교학생들의 사회적 이슈나 사건과 관련한 사회참여 의식에 대해 학교가 미치는 영양과 장·단점 등을 조사하는 논문입니다. 저의 논문에서 이 설문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니 성심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접하고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주세요

- (1)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중요하게 생각한다 (3) 그저 그렇다
(4)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5)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유 :

2.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에서 선생님들을 거쳐서 우리가 듣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지 못하고 선생님들 견해에 서서 보게 되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3. 이런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해 선생님들이 말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학생들의 받아들이는 자세나 생각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써 주세요.

4. 그 밖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좀더 자세한 정보나 초청 강연, 집회 참여 등 해 주고 싶지만 여건상 못 해 주는 일이라든가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세요.

〈선생님 인터뷰 질문지〉

1. 학생들은 학교에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는 것에 대한 듣고 생각하는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위 같은 사회 이슈나 사건에 관련해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에서 선생님들을 거쳐서 우리가 듣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견해에 서서 보게 되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생들의 생각의 폭의 넓히는 것이 중요한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가?)

3. 학교에서 하는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한 '문화의 밤'이나 '평화의 주간' 또는 대자보에서의 단점은 뭐고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제천 간디청소년학교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용 방안



김범린

1989년 04월 08일 대구동산병원 출생

1남 1녀 중 장남

노엘유치원 중퇴 - 장산초등학교 졸업 - 제천간디학교 졸업 예정, 2004년 4월 대구지대 고입검정고시 합격

제천간디청소년학교 학생회장, 4.19마라톤 백두상 2번 연속 수상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왕짬상' 수상, '분위기 메이커상' 2번 연속 수상

혈액형 / RH+ A형

별명 / 혁재마누라, 보거스, 전국도, 땡땡, 간디계의 땡땡이지존

취미 / 투덜거리기, 싸가지없게 행동하기, 어이없는 개그하기, 김재훈 꿀 반게 만들기, 만화책 읽어주기.

특기 / 잘못해 놓고 당당하기, 서술 글구기, 리스 놀리기, 박태 괴롭히기, 헛소리하고 얼버무리기, 나 아닌 모든

이들을 괴롭히기, 벌짓하기, 땡땡이칠 만한 개러 만들기, 목숨 걸고 재혼이랑 유희왕하기

소속 / '중3밴드' 간디 최고의 락커(간락연), 엠티, 야구동아리, 솔뫼바람(북 치던 상쇠) 전 부회장

좌우명 / "더불어 다 잘살자."

하고 싶은 말 / "애들이 눈문은 지대로야. 열심히 하렴. 그리고 땡땡이 쳐서 나처럼 되지 말고, 나이에 맞는 음료만 섭취하려무나. 리스야 사랑해, 널 잡아먹지 않게, 걱정하지 마렴, 간디가족 모두 사랑해요."

■ 2004 졸업 논문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용 방안』

■ 발표자 : 김범린

■ 지도교사 :

■ 차례

- I. 서론_ 81
- II. 본론_ 83
 - 1. NGO의 개념_ 83
 - 1) NGO 발생 유래_ 83
 - 2) NGO의 실제적 개념_ 84
 - 3) NGO의 특징_ 85
 - 2. NGO의 기능과 역할_ 85
 - 1) NGO의 기능_ 85
 - 2) NGO의 역할_ 87
 - 3) NGO의 분류_ 88
 - 3. 한국 NGO의 문제점과 그 방안_ 89
 - 1) 한국 NGO의 문제점(비판)_ 89
 - 2) 한국 NGO의 발전 방안_ 90
 - 4. 대구 지역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조사_ 91
 - 5. 간디청소년학교 참여 프로그램의 실태_ 95
 - 6. 간디학교 교육과정에 NGO와 관련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안_ 97
- III. 결론_ 99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용 방안

1. 서론

우리 사회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예들을 알아보자.

어느 한 장애인이 필사의 노력 끝에 한국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핸디캡과 사회의 편견을 이기기 위해 그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였다. 마침내 그는 목표를 성취하였다. 그런데 대학에 와보니 강의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대학을 마쳤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교만한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만들어 낸 사회 구조에 분노하면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목숨까지 바쳐야 했을까.

야간에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돈이 없었다. 병원 당국은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였다. 환자는 결국 죽고 말았다. 의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환자 가족은 의사를 원망하였다. 사람들은 의사의 의술을 믿고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의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이다. 환자가 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위급한 환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강릉의 어느 장애인 소녀가 십 년 이상이나 어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계속 발뺌을 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 사실에 분노한 사람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아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도 아니다. 바로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이다. 피켓을 든 여성과 장애인이 비를 맞으면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왜 그들이 비 오는 날 쉬지 않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가.

군산의 미군기지가 수십 년 동안 오폐수를 방출하였다.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었다. 정부는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않고 있고, 미군은 문을 닫아건 채 대답이 없다. 그 앞에서 분노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 단체의 회원들이다. 그 시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단한 철조망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전경들도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

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젖줄을 대고 있는 땅과 강과 바다를 깨끗이 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동사무소로부터 쌀을 한 포 받았다.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 년에 몇 번 나오는 정부보조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거운 쌀 포대를 집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택시는 실어 주지 않고, 트럭을 부르자니 돈이 너무 비싸다.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가서 쌀 포대를 작은 봉지 여러 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보지만, 직원이 응할 리가 없다. 할머니의 쌀 포대를 집까지 옮겨준 사람은 그 지역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였다. 할머니가 직접 자원봉사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연결시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다.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예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지만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NGO가 태동하였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지만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NGO의 역할이다.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집단을 견제하고, 불우한 이웃과 지구촌민을 돕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논리와 국가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것 등의 활동은 그 좋은 예이다. NGO가 하는 일은 끝이 없다. 기본적으로 NGO는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한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지향한다.

간디 철학을 바탕으로 '사랑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육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제천간디청소년학교를 통해 나는 평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참여 수업 시간에 NGO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NGO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특히 미군장갑차 효순이, 미순이 사망 대책 활동, 대통령 탄핵 무효 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NGO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NGO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NGO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큰 이슈가 없는 평소에는 NGO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싶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NGO가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제천간디청소년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세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NGO의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 먼저 살펴본 다음, NGO 단체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좋은 프로그램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NGO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NGO 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NGO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인용한 이론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 대상을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로 자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시간적인 제약 조건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약 2만 개 이상의 NGO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의미가 있는 조사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년 간 우리 학교를 통해 많은 사회참여 학습에 참여하여 경험함으로써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다. 이 논문이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NGO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있는 NGO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를 소개시켜 주는 등 참여 동기를 부여하며, 학교의 사회교과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II. 본론

1. NGO의 개념

1) NGO 발생 유래

NGO라는 용어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우리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된 말이다. 우리말로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조직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45년 UN이 출범 초기에 각종 민간조직, 단체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협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만든 공식 명칭으로 UN의 멤버인 정부들이 아닌, 말 그대로 비정부조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NGO라는 용어는 UN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와 대응되는 위치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좁은 의미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운동 조직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넓게 쓰이고 있다.

NGO는 그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NGO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학술적으로 사용된 지도 몇 십 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NGO라고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은 그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896년에 설립된 독립협회, 1905년에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1906년에 설립된 신민회, 1913년에 설립된 홍사단,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 등은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조직한 단체로서 계몽운동, 구호 활동, 교육운동 등을 전개 하였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NGO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이러한 단체를 NGO라고 부르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1838년에 영국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반노예협회가 설립되었고, 1864년에 결성된 세계적십자사 중립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실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892년 시에라클립이 미국에서 결성되어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영국의 아동구제기금이 1919년에 설립되어 전쟁 후에 고아가 된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NGO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NGO는 1945년 유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50년과 1968년의 개정을 통하여 유엔헌장 제71조에 의하여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두게 되었다. 이때 유엔에서는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공식 조직을 가리켜 NGO라고 하였다. 즉 NGO는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의미하였다. 개념 발생 초창기의 NGO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별 국가나 각종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이었다.

2) NGO의 실체적 개념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과 같이 NGO는 넓은 의미로 비영리 병원, 사립대학, 복지관 등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좁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일반시민들이 NGO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체적 개념이라고 한다.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NGO로 생각한다. 즉 NGO의 실체적 개념은 시민의 자발성, 단체의 자율성과 더불어 그 목적의 공익성을 중요한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NGO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따라서 NGO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흔히 시민단체라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NGO에는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부패추방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장기기증운동단체, 교통문화개선운동단체, 시민의식계몽운동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NGO의 예를 들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반부패국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지구촌나눔운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3) NGO의 특징

한 사회에서 어떤 단체가 NGO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당파성(non-partisan)이다. 비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당에 결합되지 않으며, 정치적 입장에서 보다 중립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NGO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비종교성(non-religious)이다. 비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기반 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활동이 특정 종교의 종교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환경연대, 불교환경연합 등과 같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NGO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익성(for public good)이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사적 이익(기업)이나 친목만을 도모하는 집단이 아닌 이른바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 동기회는 NGO에 속할 수 없다.

넷째, 자발성(voluntary)이다.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필요를 느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고 또는 해산한다는 말이다.

다섯째, 자율성(self governing)이다. 자체적인 행동강령이나 규칙 이외에는 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 영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기준과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배되는 것은 NGO라고 볼 수 없다.

2. NGO의 기능과 역할

1) NGO의 기능

NGO의 개념이 확정되고 적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NGO의 기능은 단지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등 권력 견제의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다. 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정부) 및 시장(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교육의 기능까지 떠맡고 있다.

NGO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겠다.

첫째, 견제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활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G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강제력과 독점력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거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은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NGO는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종 NGO가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고발하며, 정치개혁과 경제정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NGO는 시장의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기업의 부정을 감시·고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구제 활동과 불매운동을 하며, 경제정의를 위하여 기업의 부도덕을 고발한다. 이러한 견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하다. 강대국이나 강대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을 견제하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핵실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국가나 다국적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한다.

둘째, 복지 기능이다. 오늘날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수결 원리에 따라야 하고, 관료제를 통해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복지·교육·문화·환경·국제원조 등이 공적 영역에 편입됨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에 정부 관료제에 의한 전국적인 복지제공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각종 NGO는 정부와 직접·간접적인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을 구호하는 단체, 빈곤한 이웃을 원조하는 단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단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단체 등 NGO의 복지 활동은 다양하다.

셋째, 대변 기능이다. NGO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노예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아동권리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등은 모두 NGO가 주도하였다. 한국에서도 여성, 장애인, 노인, 불우 아동, 동성애자, 에이즈환자 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각종 NGO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시장과 가족에게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념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자나 약자가 권익을 위한 NGO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로비하거나 입법청원을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단체의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넷째, 조정 기능이다. 현대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집

단간의 갈등도 변변하다.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 장치나 효과적인 정부의 중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낮고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자율적 조정이나 정부의 중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때 NGO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규범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간의 갈등 조정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NGO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 발생시에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약분쟁이나 의약분업 분쟁,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GO의 조정 기능은 논쟁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교육 기능이다. 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협력·연대하는 문화가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 정신과 개인 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바로 시민들이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현장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개인의 자율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교육이 지방 수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NGO 활동은 학교의 정규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민주적인 삶을 배우는 일상화 과정이다. NGO들은 이러한 교육 기능에 그 동안 무관심하였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민교육을 하거나, 각종 정보 제공과 참여 확대를 통한 회원의 역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

2) NGO의 역할

NGO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과 조직화를 통해 정책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대한 민간 에너지이다. NGO는 국가 권력의 부패, 시장 권력의 기회주의를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입법청원, 시위, 고발, 항의 방문, 캠페인, 공청회 개최, 서명 활동, 성명서 발표 등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한다. 심지어, 2000년 총선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권이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시민행동을 호소하는 운동까지 벌인다.

각종 NGO를 통한 시민참여는 이기주의나 가족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단순히 개인이 심리적 보상을 받거나 감정을 해소하는 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적의식을 지닌 숭고한 행위이다. 개인이 NGO와 같은 공익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때, 공동체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임을 알게 되고,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친근하게 느끼게 된다. 즉 개인의 일과 공동체의 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병리, 부정부패, 인간차별 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되고, 차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된다.

3) NGO의 분류

NGO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활동 범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미군기지퇴찾기시민모임'처럼 시, 군 단위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현안과 회원에 기반을 둔 단체들은 Local NGOs, 환경운동연합이나 YMCA처럼 전국적(일국적)인 수준에서의 현안과 회원에 기반하며 지부를 갖고 있기도 한 단체들을 National NGOs, 국제 엠네스티, 지구의벗 등과 같이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현안과 회원에 기반하며 국가별 지부를 두고 있기도 한 단체들은 Global NGOs 또는 International(INGOs)로 분류한다.

두 번째로는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NGO는 활동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할 만큼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꼽아보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여성, 인권, 주민자치, 평화, 소비자, 법, 교육, 청소년, 언론, 빈곤과 외채, 빈민, 주거, 교통, 통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위의 활동 내용들 중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우를 단일 과제 NGO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를 종합 NGO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조희연 교수의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NGO를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했을 때, 크게 네 가지(공적 이해를 위한 NGO, 직능단체, 동호회, 기타 자발적 사회 조직들)로 나누고, 그 아래 몇 번 더 분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NGO는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NGO → 사회 행동 지향적 NGO → 시민운동적 NGO → 종합적 시민운동으로 들어가 있다.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NGO	사회행동 지향적 NGO	민중운동적 NGO	반독재 투쟁 운동체,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등
		시민운동적 NGO	종합적 시민운동, 환경운동, 교통운동 등
	사회서비스적 NGO	박애조직, 구호조직, 사회복지 단체 등	
직능집단	이익집단적 NGO	한국출판협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동호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기타 자발적 사회 조직들		위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단체들	

3. 한국 NGO의 문제점과 그 방안

한국 NGO는 그 동안 서구 사회(선진국)에 비해 발전되지 못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권위주의 정치 체제 아래 있던 한국은 억압적 정치권력에 의해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NGO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분화 현상에 의하여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는 이익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NGO는 국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 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NGO는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 NGO는 정치 민주화를 성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 해방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NGO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한국 NGO의 문제점(비판)

첫째, 가장 흔히 제기되는 것은 문제와 비판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다. NGO 활동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에 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은 시민은 거의 없고, 소수 명망가와 상근 운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되고 있다.

둘째, 백화점식 조직화이다. 소수의 대형 NGO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여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NGO들은 특히 중앙에 집중되어 시민운동의 지방 분산을 막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방해한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관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운동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셋째, 이슈 중심의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수 몇 명이 이슈를 제기하고 이것을 언론에 홍보하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능력이 부족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NGO간의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다. NGO들이 상호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역과 같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NGO도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소외받는 NGO가 생기고 있다. 소외받는 NGO는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NGO 간의 연대문화를 파괴한다.

다섯째, 정부에 대항적인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NGO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데, 국가 권력의 감시와 비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보다는 행동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

여섯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재정 의존이다. 이것도 시민 참여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부금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NGO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종속을 초래한다. 더구나 재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일곱째, 국제화의 부족이다. 많은 NGO들이 국내 문제에만 매달려 국제연대에 소홀히 하고 있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 NGO의 국제적인 위상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 NGO도 이제 제 3세계를 원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비판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NGO는 외부의 비판과 문제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개혁을 지속해 가야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제기하는 비판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파악하여 NGO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슈를 제기하는 NGO의 역할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직도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 하는 NGO역할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 한국 NGO의 발전 방안

첫째, 시민사회의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상대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대 성장한 국가는 아직도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는 시민사회에서 개인과 가족,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도록 만든다. 물론 시민사회는 사익과 공익이 혼합되어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시민사회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정부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먼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공선의 증대를 위하여 활발하게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NPO나 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NGO들

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 상근자 재교육,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정보 공개와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세금 면제, 기부금 소득공제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이것이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는 NGO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시각과 정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NGO의 개혁이 필요하다.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없애 버리기 위해 의사 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 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면 회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과의 연락 통신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자원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전략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생명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생태 환경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대안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북한과 제 3세계로 시민운동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NGO와의 국제적인 연대를 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NGO들은 국가와 기업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모든 주요 정책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운영자금과 정책 결정에서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NGO 스스로 내부 규제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

4. 대구 지역 NGO 단체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조사

NGO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해 200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개 NGO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을 대구 지역 6개 NGO 단체로 한정된 것은 대구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제 3의 광역자치단체로 NGO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매우 많은 종류의 NGO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정된 6개의 NGO 단체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NGO 상근자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종합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역사바로세우기운동단체, 청소년운동단체 등 직·간접적으로 현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단체명, 인터뷰 대상자, 단체 소개, 조사 결과를 순서로 정리하였다.

1) 대구여성회(인터뷰 대상자 : 정책위원장 윤정원)

대구여성회는 1988년 1월 23일 지역 여성들이 모여 대구 지역의 여성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이다. 대구여성회는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노동 사업, 지방자치 사업, 교육 사업, 환경 사업, 성 평등 문화 사업, 성매매 여성인권 지원 사업, 홍보 사업, 회원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여성회에서는 어린이 현장학교를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였으나, 3차례 정도 한 뒤로는 못하였다고 한다. 올해 청소년을 위한 정치 체험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4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청와대 견학, 국회의사당 견학, 여성 국회의원과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 정치에 대해 느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아쉽다, 국회의원과과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 등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다음부터는 내용을 확고하게 하고 흥미 있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에 있다.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활성화할 계획이고, 우리 간디학교 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언제든지 강의의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2) 대구참여연대(인터뷰 대상자 : 시민감시팀·편집위원회 간사 한은영)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진보적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진보적 소장학자 그룹, 인권운동 변호사 그룹, 원로 민주적 인사들, 청년 운동가들이 주를 이루어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진보적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여연대는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개혁센터,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 사회복지센터, 주민자치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 내에서는 한 적이 없었다. 대구 지역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이 든다.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연대에 대해 알려 주고 사회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으나 호지부지되었고, 내년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연대를 알릴 것이고, 대구 지역 부모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활동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학교를 열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하였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NGO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회를 하였다. 요즘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고 예전과는 색다른 것이 매우 좋았고, 이제는 딱딱하다거나 어렵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연대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3)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인터뷰 대상자 : 사무국장 박정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97년 12월 29일 피해자의 문제와 복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NGO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홍보 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증언 간담회라고 해서 할머니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와 친구 맺기라는 프로그램을 하였다. 자원 활동가를 중심으로 스스로 알아서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준 가운데 고등학생들도 같이 동참해 주었다.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은 정말 친할머니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과거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스스로가 깊게 생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평화 캠프라는 것을 열어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청소년과 할머니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다.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아는 것,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간디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던니 우리 학교에 직접 할머니와 오셔서 만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에 대해 일깨워 주시겠다고 하셨다.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실어 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사회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일깨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다.

4) 대구환경운동연합(인터뷰 대상자 : 사무국장 이은정)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4월에 전국 주요 8개 환경단체와 통합해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걸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조사 활동, 정책 활동, 대외 연대 활동, 국제연대 활동, 환경기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청소년 푸르미 학교이다.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하여 대구 지역 및 안동 습지 교육과 쓰레기 체험학교를 하고, 공원과 갯벌을 다니며 환경현장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신문 보도 자료에도 넣어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목적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푸르미 학교를 열었다. 6년 간 푸르미 학교를 해왔고, 푸르미 학교를 경험했던 학생들은 환경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진로도 환경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푸르미 출신들이 환경운동가로도 성

장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학생들 모으기가 힘이 든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돈을 내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 경비가 많이 들기도 한다. 이제는 학교와 연대하여 꾸준히 했으면 한다. 그리고 장점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격이 변함으로써 교육을 하면서 좋은 면이 많이 보인다.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육을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더 언제든지 좋다. 그 곳은 주위 환경이 좋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하신다.

5) 반딧불이(인터뷰 대상자 : 사회참여국 김주욱)

반딧불이는 2003년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억눌려 있는 청소년들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 단체로 설립되었다. 반딧불이는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참여국, 역사체험국, 매체국으로 나누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딧불이는 올해 단체가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상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이다. 청소년 단체인 만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편이며, 프로그램을 3개국으로 나누어 국별 활동을 한다. 사회 참여국, 역사 체험국, 매체국으로 나누어 활동을 한다. 또 청소년 기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에게 기자는 무엇인지에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 단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억눌려 있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표출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와 비슷한 것 같았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나 역사체험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사회참여 수업과 문화유적 답사와 같은 프로그램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을 매우 좋아하고 벽 없이 지낸다고 한다. 올해 단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크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할 계획이며,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연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다. 이처럼 여러 단체와 연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6) 우리세상(인터뷰 대상자 : 사무국장 류민정)

우리세상은 1996년 7월 20일 청소년들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한 다채롭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우리세상은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청소년 교육 사업, 청소년 동아리(연합) 사업, 학교 지원 사업, 교육주체 사업, 청소년 독서 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세상은 대구에 있는 청소년 단체이다. 청소년 단체인 만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주로 큰 행사로는 대구청소년문화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경연

마당과 동아리마당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연마당에서는 대회 부문과 경기 부문이 있다. 대회 부문에서는 가요제와 백일장을 하고 경기 부문에서는 풋살, 3on3농구를 한다. 동아리마당에서는 동아리 박람회 작품전시, 이벤트, 동아리 홍보, 동아리 미팅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동아리 연합축제라고 해서 3회 대구청소년수화동아리 연합콘서트, 대구청소년창작단막극제, 대구청소년영화제, 대구청소년풍물연합한마당, 청소년만화거리, 락페스티벌, 힙합페스티벌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사마당, 체험마당도 있는데, 교사들도 공연에 참가하고 다양한 놀이 체험과 우리 문화 체험을 하고, 행사에는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행사에 참여한다. 또 청소년 문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 유적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려 한다. 또 농촌체험 활동이 있다. 농업과 농촌 생활을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교사와 우리세상이 함께 만드는 중학생 방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방학을 뜻있게 보내게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우리세상 교사들과 함께 방학을 멋지게 만들어 나간다. 우리세상은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는데 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모임 장소가 없어 힘들어한다. 활동을 위한 장소는 우리세상에서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런 점을 굉장하고마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사귀는 법과 공동체 활동에서 중요한 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것을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세상 선생님들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세상 출신들이라고 하니, 학생들을 이해하기 쉽고,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5. 간디청소년학교 참여 프로그램의 실태

-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1) 총선 수업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조사해 보고, 모의총선을 통해 총선이란 무엇인지 직접 참여할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함으로써 모의총선이 딱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사회참여 체험하기

모둠을 이루어 모둠원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분야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부하며 직접 참여함으로써 머리보다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주제 : 정신대할머니 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 간디학교 내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문제, 이라크 파병 반대 문제 등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사회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다.

3) 2003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집회에 참여하였다. SOFA 개정을 외치고 효순이, 미선의 억울한 죽음을 집회를 통해 몸으로 느끼면서 여러 감정들을 배우게 되었다. 관련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학교가 사회 참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 2003년 반전평화주간(수업+문화제)

200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반전평화주간으로 잡아 평화에 대해 수업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함으로써 간디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반전평화를 외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전평화를 외치다 보니 기억에 남는 것이 매우 많고, 학생들에게 반전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반전평화 전쟁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5) 2004년 평화순례

부안에서 평택까지 1학년과 2학년이 중심이 되어 순례를 했다. 3학년은 이 시간에 중국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있었다. 1학년과 2학년은 평화를 생각하며 걸었다. 나는 평화순례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화는 무슨 평화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민중가요도 배우고, 문화적 행사를 통해 일반 학교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할 많은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6)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와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는 3~4회 정도 참가하였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중가요에 맞춰 몸짓을 하면서 문화적인 접근을 하였다. 학생들은 이라크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다 알 정도로 수업시간에 공부하였고, 문화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용기가 생기고 사람들과 같은 뜻으로 모인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간디청소년학교에서 해 왔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디 청소년학교에서 한 프로그램들은 유익하였다. 하지만 이슈적인 것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문제는 수없이 많다. 그것에 대해 다 알아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이런 점을 사회참여 수업에 적극 반영하고, 이것이 사회참여 수업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좀더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 된다. 우리학교 사회참여 수업은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교육의 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어느 단체를 찾아가더라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참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계획 중이다. 나는 우리학교 사회참여 수업에 유익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수업에 반영하였으면 한다.

6. 간디학교 교육과정에 NGO와 연관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안

첫 번째로는 대구여성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치체험 기행을 제안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스스로 공부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만 가질 뿐 깊게 공부해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여성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치체험 기행에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참여해 여학생 스스로가 주체 의식을 갖고 양성평등 정치에 대해 현장교육을 통해 느꼈으면 한다. 대구여성회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언제든지 강의해 주신다고 한다. 이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면 재정상의 문제로 하루밖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으로 정해 2박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청와대 견학, 국회의사당 견학, 국회의원 만나기, 각 정당 견학 등 프로그램을 좀더 여유롭게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올바른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

두 번째로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증언간담회 할머니와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사회참여 수업시간 때 정신대할머니 문제에 대해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과거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과거사는 관

심이 있다고 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우리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할머니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의 밤 시간에 할머니와 단체 활동가를 직접 모셔오거나 서울에서 하는 수요 집회 참여, 나눔의 집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푸르미 학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지구특공대라는 동아리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환경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시간을 내 이 푸르미 학교에 참여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배운 것을 토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성과를 알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대구환경연합운동에서 우리 학교에 직접 오셔서 환경운동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한다. 과학 수업시간과 사회참여 수업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학시간에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수업시간에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깨닫고 일깨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세상에서 주최하는 대구청소년문화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큰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동아리가 많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엉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동아리를 알리고 일반학교 학생들은 어떤 동아리를 이루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직접 참가하여 큰 무대에 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은 것 같다.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년문화한마당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서도 문화의 밤 시간과 두 달에 한 번씩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발표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 네 가지를 제안하면서 적극 추천한다. 3년 간 사회참여 수업을 통해 많은 참여를 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유익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교육의 장을 체험하였으면 한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많은 프로그램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NGO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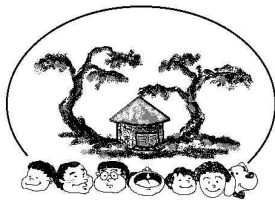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NGO 단체와 연대하여 많은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NGO의 기초적 이론에 대한 이해와 NGO 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간디학교의 사회참여 수업에 실태를 알아보고, NGO 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교육의 장을 열어 주기 위해서는 NGO 단체와 연대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 학교에서는 큰 이슈가 된 사건을 가지고 수업을 해 왔다. 물론 그 수업을 통해 얻는 것도 많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좀더 넓은 교육의 장을 열어 주기 위해서는 NGO 단체와 연대해 많은 교육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NGO 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몸으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에 이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지식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험 학습을 좀더 늘리고 NGO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현실이 그렇다. 일반학교 학생들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기가 매우 힘이 들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배우기가 매우 힘이 든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많은 사회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아 왔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면서 계획할 수 있다.



간디학교에 우울증이 살고 있다



김보경

무남독녀 외동딸

현재 하버드 석사 과정 준비 중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1999년, 2000년), 피아노 콩쿨 특상(2000년),
조선일보 주최 미술대회 최우수상(2000년), 속독대회 대상(2000년) 외에도 화려한 경력이 있음

혈액형 / RH+ P형, 별명 / 박규, 에일리언 천재

취미 / 독서, 공부, 음악 감상

특기 / 그림 그리기와 피아노 치기와 공부

소속 / 'MENSA', 낙오자밴드

하고 싶은 말 / “내 이름은 하버드 어머니 에리하버드의 외동아들이다. 하버드 신부인교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어린이집에 다녔으며, 하버드 유치원을 졸업한 후 하버드 초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하버드 중학교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고 하버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 졸업 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 그 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음. 하버드 연구소 조수 예인하버드와 6년간의 열애 끝에 회장 하버드의 주례로 하버드 교회에서 축복받으며 결혼 3년 후 부연 하버드를 낳음. 부연 하버드를 유치원에 차를 태워다 주고 돌아오던 도중, 하버드 대학 간판에 맞아 사망. 현재 하버드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음. 04년 12월 10일 금.”

- 2004 졸업 논문
『간디학교에 우울증이 살고 있다』
- 발표자 : 김보경
- 지도교사 : 양희창 선생님

차례

1. 서론_ 103
2. 우울증이란?_ 103
 - 1) 우울증의 정의_ 103
 - 2) 원인_ 103
3. 우울증의 분류_ 104
4. 우울증의 증상_ 106
5. 치료 방법_ 106
 - 1) 약물치료_ 106
 - 2) 인지행동치료_ 108
 - 3) 대인관계치료_ 109
6. 설문조사_ 109
7. 치료 및 예방_ 113
 - 1) 정상 심박동 유지_ 113
 - 2) 운동요법_ 114
 - 3) 안구운동요법_ 115
 - 4) 식이요법_ 116
8. 결론_ 117
 - 1) 마무리_ 117
 - 2)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_ 117
 - 3) special thanks to_ 117
 - 4) 참고자료_

간디학교에 우울증이 살고 있다

1. 서론

내가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그야말로 의무이기 때문이다. 난 이 논문에서 그저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싶을 뿐이고, 이 논문으로 인해 몇몇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이나 우울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좋겠다.

2. 우울증이란?

1) 우울증의 정의

우울증이란 울증, 울병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늘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데, 성인 10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적어도 한번은 우울증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이 아니며, 개인적인 나약함도 아니며, 또 자기의지로 좋아질 수 없다. 우울증의 증상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데,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울증은 신체, 기분, 사고 및 모든 면에서 나타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하면 80% 이상이 호전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착각하기도 하는데, 우울한 기분은 단기적이지만 우울증은 저하된 기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2) 원인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나뉜다. 유전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 나누어진다. 아무런 외적인 이유 없이 우울증에 걸린다면 유전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 유전적 원인은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것을 말한다. 만약에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5% 정도 높아진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쌍둥이 연구에서도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쌍둥이가 함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3%~90%인 반면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5~25%로 낮아 유전적 원인은 매우 중요하다.

또 생물학적 원인은 중추 신경계에서 세로토닌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생화학물질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신경호르몬의 조절 이상, 뇌의 구조적 변화 또는 신체적 변화가 원인이 된다.(신경계에서 신경호르몬)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증에 잘 걸린다. 사회 심리학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를 조사해 보면, 발병 중 상당 기간 동안 생활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11세 이전에 부모를 잃는다거나 배우자 상실, 죽음, 이별, 실패, 실망, 중요한 사람과의 논쟁이나 불화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의 원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생기는 특정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존적 성격, 강박적 성격, 히스테리성 성격에서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우울증의 분류

우울증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개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슬픈 느낌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생의 의욕도 사라진다. 또한 항상 피곤해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며, 평소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생활의 즐거움이나 흥미도 없어지고, 집중력이 줄어들며, 불안과 우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결정을 못 하고 우유부단해진다. 게다가 신체 증상도 현저하게 나타나면 경미한 우울 기분으로 분류한다.

신체증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두통과 수면장애가 생긴다. 변비에도 걸릴 수 있으며, 건강 염려증이 생긴다.

그 중 비교적 심한 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인데,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상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미한 우울 기분과 비슷하지만 정서적인 고통이 더 심하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며 무표정하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이마에 주름이 패고 아래만 쳐다본다. 체중이 줄고, 성적 욕구도 감소한다. 수면 장애가 심한데, 잠이 얼른 들지 않고 훨씬 빨리 깨게 된다. 흔히 저녁때보다. 아침에 우울기분이 더하기 쉽다.

사고 진행에 억제가 일어나 말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무력감, 고립 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 기분저하장애는 가벼운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신

경성 우울증이라고 한다. 증상은 신경이 과민하고, 흥미 상실, 식사와 수면장애, 성욕장애, 건강에 대한 강박적 집착, 활동 감퇴, 가정 및 사회생활 장애, 생산성 감퇴 등이 있고, 내성적 경향이 관련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우울증들이 있는데, 우울증의 반대로 흥분되고 말이나 행동이 많아지는 조증과 그 반대인 우울증이 반복되는 경우인 양극성 우울증(조울증)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성 사건(이혼, 이사, 이직, 실직, 배우자의 죽음, 발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이 감보하게 되는 외인성 우울증, 일사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에 일어나는 우울증인 계절성 우울증도 있는데, 보통은 초봄이 되면 증상이 사라진다. 대부분 기분이 저조해지고, 기력이 감소하며, 수면이 과다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므로 다른 우울증과는 다르다.

겨울이 길어 밤 시간이 유난히 긴 북유럽 지역이나 안개가 많아 햇빛을 보기 어려운 지역에 계절성 우울증이 많고, 이 경우 광선치료가 적용된다.

또한 주로 여성들이 걸리는 우울증 중에 갱년기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이 있다. 갱년기 우울증은 월경이 끝남으로써 특히 여성호르몬 작용의 변화, 임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격상실 등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운 40~50대 중년기에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융통성이 적고 급하며 예민한 성격을 가진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하는데 사회 활동에 대한 상실감,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반복되는 가사 활동, 좌절, 폐경으로 대변되는 젊음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초조, 걱정, 심한 건강 염려증, 후회, 죄책감, 절망감, 편집증적 경향 등이 많이 나타나며, 흔히 갱년기 증후군으로만 인식해 호르몬 치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갱년기에는 누구나 다소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나 심각한 우울감과 함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갱년기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산후우울증의 경우는 출산 경험 여성의 10~20%에서 발생하는데, 대개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병한다. 여성에 따라 우울기분 또는 불안감, 강박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우울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노년기에 많이 걸리게 되는 노인성 우울증이 있다. 노년기는 가장 상실이 많은 시기로 은퇴나 이별, 가족이나 친구의 사망, 질병, 경제적인 곤란 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비교적 빠르게 시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신체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혹은 치매처럼 기억력 저하가 심하거나 망상이 두드러진다. 즉 기분적으로 우울하다는 것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에 신체적 증상이나 건강 염려 또는 질병에 대한 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을 가면성 우울증, 가면성 치매로 불리기도 한다.

또 어떤 특정한 사고나 사건으로 신체적인 손상이 있는 후에 흔히 발생하는 외상 후 우울증,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성공한 이후에 우울증이 발병하는 성공 우울증,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흔히 일어나는 아동 우울증 등 우울증은 종류가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분류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것을 분류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분류

가 확실하지 않다.

4. 우울증의 증상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과 절망적인 느낌과 염세적 사고,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 또 한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과 흥미가 사라지며, 불면증이 생기거나 과다수면증이 생긴다. 식욕이 감소하기도 하고, 과식하기도 하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 또 피로하고 힘이 없고, 몸이 처지는 기분이 들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며 초조하고 쉽게 짜증을 낸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고,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또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두통, 소화기 장애 등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증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우울증의 경우는 증상이 조금 다른데, 가출, 무단결석, 알코올 남용, 성적 문란, 폭력 등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마구 야단을 칠 경우에 우울증이 더 심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치료 방법

1) 약물치료

대부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데, 때에 따라 항불안제도 첨가할 수 있다. 항우울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와 삼환계(TCA), 세로토닌 노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SNRI), MAO 억제제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삼환계 항우울제인 TCA는 항우울제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고, 고전적인 약물로서 현재 다수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대개 화학구조상 서로 유사하고, 작용기전이나 약리작용 역시 유사하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우울기분을 개선시킨다. 항우울제 효과는 투여 후 2~3주 만에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돼 뒤에도 3~4개월 정도 계속 투여하는데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콜린성 반동 현상 즉, 오심, 구토, 소화 장애, 두통, 발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 SSRI는 신경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우울증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화학적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데, 세로토닌이 신경세포로 재흡수 되는 것을 차단하여 몸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한다.

TCA에 비해서 항우울 효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지만 부작용이나 내약성 면에서는 우수하다. 그러나 TCA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다 중단하면 불면, 오심, 초조 등의 부작용

이 일어날 수 있다.

SSRI계 항우울제에는 플루오세틴, 플루복사민, 파로세틴, 시탈로프람, 세트랄린이 있다. SSRI의 흔한 부작용은 구역, 설사, 불안감이나 자극과민성(신경과민, 불안정감, 근육의 긴장, 불면증), 두통, 불면, 진정, 발한의 증가 등이다.

또 MAO 억제제는 모노 아민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대사시키는 효소인 모노아민 산화효소를 억제시켜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한다. 흔히 TCA에 듣지 않는 우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TCA보다 다소 효과가 떨어지고 간혹 부작용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선택 된다. 부작용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흥분, 불면, 걱정 등 신경계 자극 효과가 있다.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작용 과정을 설명해 보겠다.



(태 썸 수용체가 머리카락 신경전달 물질을 붙이려고 한다.)



(태 썸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둔다.)



(태생 수용체를 더 늘리기 위해 약물을 투여했다.)



(그 결과 신경전달 물질이 안 남아 돈다. 치료됐다.)

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맞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도중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빨리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복용해야 한다.

2)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현재와 어린 시절의 외적인 사건들에 대한 감정적, 지적 반응들에 근거한 정신 역동적 치료의 한 형태로 인지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인지행동치료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친다.

인지행동치료는 특수한 규칙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치료사가 환자에게 많은 과제를 준다. 환자는 긍정적인 체험들과 부정적인 체험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체험들은 도표로 그려지기도 한다. 치료사는 각 치료마다 의사일정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하며 끝날 때는 성취물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를 한다. 이 때 치료사는 사실들에 대해 언급하거나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 환자는 하루 중에서 즐거운 순간들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인식을 할 때 부정적인 형태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런 경우엔 덜 해로운 형태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 모든 활

동은 훈련이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자기 인식의 기술을 가르친다.

3) 대인관계치료

대인관계치료는 현재의 삶이라는 당면한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이력 전체를 포괄해서 다루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대인관계치료는 환자를 더 심오한 인격체로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가르치며, 분명한 경계와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단기 치료이다. 대인관계 치료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유발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 요인들은 타인과의 분별 있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치료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 환자는 자신의 우울증이 외적인 고통임을 배우고 자신에게 어떤 증세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아픈 사람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회복 과정을 인정한다. 환자는 자신이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목록을 만든 다음, 치료사와 함께 각 관계에서 그가 얻는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정의한다. 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환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상의 전략들을 마련한다.

마지막 단계로 치료사와 환자는 몇 가지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기간을 정한다. 대인관계치료는 당신의 삶을 공평하고 분명하게 정리한다.

6. 설문조사

이 설문지는 간디학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들린 것이다. 이 설문지는 연세리정신과에서 가져왔으며, '백우울증 척도'라고 한다. 각 설문지는 번호가 있으며, 설문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번호를 외우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 설문지는 청소년을 위한 설문지가 아니므로 일반적일 수는 없다.

점수는 1번이 0점, 2번이 1점, 3번이 2점, 4번이 3점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57명 중 각 문항에 답한 응답자 수를 적었다.

1. (1) 나는 슬프지 않다. - 28명
- (2) 나는 슬프다. - 25명
- (3)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 4명
- (4)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0명

2.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33명
-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 19명

- (3)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4명
 (4)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2명
3. (1)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38명
 (2)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12명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 8명
 (4)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 0명
4. (1)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 28명
 (2)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 25명
 (3)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명
 (4)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 1명
5. (1)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22명
 (2)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 24명
 (3)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 5명
 (4)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 1명
6. (1)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23명
 (2)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 29명
 (3)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 2명
 (4)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3명
7.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 26명
 (2)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 28명
 (3) 나는 내 자신이 싫다. - 2명
 (4)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 1명
8.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 26명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 26명
 (3)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질책한다. - 4명
 (4)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 내 자신을 질책한다. - 1명
9. (1)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 43명
 (2)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 12명
 (3) 나는 자살하고 싶다. - 2명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4명

10. (1)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 39명
 (2)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 12명
 (3) 나는 요즘 항상 운다. - 2명
 (4)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 4명
11. (1)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 30명
 (2)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 14명
 (3)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 12명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1명
12. (1)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32명
 (2)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18명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 5명
 (4)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 1명
13. (1)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 24명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 21명
 (3)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11명
 (4) 나는 더 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 1명
14.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34명
 (2)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 12명
 (3)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 모습이 변했다. - 2명
 (4)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 9명
15. (1)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28명
 (2)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 26명
 (3)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 3명
 (4)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 0명
16. (1) 나는 전처럼 잘 잔다. - 41명
 (2)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 13명
 (3)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2명
 (4)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 0명
17. (1)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 17명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 32명

- (3)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 7명
 (4)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1명
18. (1)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 42명
 (2)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 13명
 (3)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 2명
 (4)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 0명
19. (1)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 38명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 16명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 3명
 (4)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 0명
20. (1)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 30명
 (2)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 26명
 (3)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2명
 (4)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 0명
21. (1) 나는 요즘도 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 63명
 (2)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 18명
 (3) 나는 요즘 성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 5명
 (4) 나는 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 2명

유형	해당번호	명
우울증이 아닌 사람 0~9점	5, 9, 17, 18, 19, 28, 34, 35, 42, 49, 51, 54, 59, 60, 64, 66, 68, 70, 75, 79, 84, 86, 88, 91, 92	25명
가벼운 우울증 10~15점	8, 14, 20, 27, 31, 33, 37, 41, 43, 50, 72, 77, 81, 82, 85, 87, 90, 94, 95	19명
중한 우울증 16~23점	10, 21, 22, 23, 55, 56, 89	7명
심한 우울증 24~63점	7, 16, 38, 73, 74, 93	6명

설문에 응답한 57명 중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 가벼운 우울증인 사람은 19명으로 33%, 중한 우울증은 7명으로 12%, 심한 우울증은 6명으로 11%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청소년우울증이 70%인데 비해, 비교적 우리 학교는 우울증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원인은 기숙사에서 항상 함께 지내는 만큼 소속감을 느끼므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인 소외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쉽게 불안감이나 절망, 무의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울증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중한 우울증과 심한 우울증인 사람이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일 함께 있어야 하는 친구들과의 충돌, 논쟁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숙사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는 불가능하다. 약물치료도 있지만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이 잘 듣지 않을 경우 자주 바꿔 줘야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로 약을 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7. 치료 및 예방

약물치료와 정신과 상담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더러 자주 의사에게 가 봐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아래의 치료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꼭 우울증이 걸린 사람만이 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상 심박동 유지

이 방법은 심장박동 간격을 넓혀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상 심박동 연수센터인 하트메쓰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을 거친 것이다.

요가나 명상 아니면 모든 형태의 긴장 이완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 관심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 이 훈련을 할 때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몇 분 동안이라도 일상의 걱정과 근심을 잊도록 해야 한다. 걱정 거리를 잠시 내버려두고, 심장과 뇌의 균형과 더불어 둘만의 내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숨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흡법은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생리학적으로 <역제작용> 쪽으로 기울게 한다. 숨을 들이쉬게 될 때 잠시 몇 초 동안 숨쉬기를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날숨이 부드럽고 가벼운 숨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내버려 두

어야 한다. 명상법에서는 크게 숨을 내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심장박동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초에서 12초 가량 안정을 한 뒤, 의식적으로 관심을 심장 부위로 집중해야 한다. 이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상상하는 일이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지속적으로 숨을 쉬면서 각각의 들숨과 날숨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머릿속으로 그려 봐야 한다. 들숨이 심장을 통과하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가져다주고, 날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더러운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심장이 신선한 공기로 채워지고 맑아지며 안정을 찾아간다고 상상한다. 심장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기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가슴이 뜨거워 열기로 차오르면서 확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과 숨쉬기를 통해 더욱 이 느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이 직접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심장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트메쓰연구소의 연구진들은 기억이나 상상의 한 장면만으로도 빠르게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한다.

정상 심장박동은 빠르게 감정 뇌에 전달되어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모든 생리적 현상이 정상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지속하면서 약간의 훈련을 계속하면 최적의 심장박동리듬을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심장과 감정 뇌의 일치감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준다. 이 균형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감정 뇌는 보다 직관적이 되고, 인지 뇌를 통한 사고력과 추상력 추리력 그리고 예지력은 커지게 된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 주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은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

2) 운동요법

규칙적인 운동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욱 어렵다. 몸을 좀더 많이 움직이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운동량 자체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량은 일주일에 세 번, 20분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느냐이지, 운동의 양이나 강도가 아니다. 운동의 강도는 달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일부 약물들의 경우처럼 그 효과가 운동량과 비례적일 수는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세가 심할수록 그만큼 더 규칙적이고 강도 있게 실시해야 한다. 일주일에 세 번보다 다섯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분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보다 한 시간 사이클을 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사이클을 탄 뒤, 숨이

차고, 피곤해 다시는 운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경우, 오히려 20분 간 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몸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 없다. 두 가지 운동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그룹으로 하는 운동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운동을 할 때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비 오는 날이나, 운동에 조금 늦었을 때, 또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방영할 때 등등 여러 이유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그룹으로 하는 운동일 때는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룹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흥미를 느끼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더 쉽게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체운동이 감정 뇌에 이런 기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무엇보다, 엔도르핀의 영향 때문이다. 감정 뇌에는 수많은 엔도르핀의 수용체가 있다. 감정뇌가 즉각적으로 평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마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극을 받으면 수용체가 더더욱 민감해진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기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운동과 정상심박동 훈련 같은 경우도 환자 스스로 규칙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안구운동 요법

안구운동 요법은 눈앞에서 손을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REM 수면단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안구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을 끌어내서 몸 전체에 새겨져 있는 아픈 기억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구운동의 기본은 정확하게 말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정적 충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제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담당전문의들은 이 기제를<정보처리 적응기제>라고 부른다.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오토바이 사고처럼 우리는 여러 크고 작은 충격을 경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소화기관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신경계가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신경계가 필요한 정보나 교훈만을 취하고 사고가 일어난 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 그리고 심리학적 활성화들은 며칠 내에 처리해 버린다. 그러나 충격적

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이 잘 소화되어 받아들여지는 대신에 신경계에 갇혀서 처음 충격을 받았을 때처럼 그대로 입력되어 남는다고 한다.

안구운동의 힘은 무엇보다 여러 감각들을 통해 충격적인 기억을 되살린 뒤, 그때까지 비활 성화된 흔적을 소화해내지 못했던<정보처리 적응기제>를 자극하는 것에 있다.

꿈을 꾸는 동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운동과 비슷한 안구운동은 외부의 도움 없이 뇌의 자연적 치유기제가 해낼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4) 식이요법

음식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느낌을 만든다. 음식을 바르게 먹는다고 우울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식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고 주의 깊은 식이요법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다.

당과 탄수화물은 뇌 속의 트립토판의 흡수를 증진시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백하지 않은 곡물과 감귤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합성에 중요한 약용을 하며 비타민B6의 결핍은 우울증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갯가재와 초콜릿 무스를 충분히 섭취하면 기분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파민 합성도 비타민 B군에 의존하며 특히 B12(생선과 유제품), 엽산(송아지 간과 브로콜리), 마그네슘(대구, 고등어, 맥아)이 그러하다. 우울증 환자들은 아연(굴, 꽃상추, 아스파라거스, 칠면조구이, 무), 비타민 B3(계란, 맥주 효모, 가금류), 크롬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 세 가지는 우울증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아연결핍증은 산후우울증과 관계가 깊은데, 임신 말기가 되면 산모의 체내에 비축된 아연이 모두 태아에게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연 섭취를 늘리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지중해 지방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은 건 그들이 비타민B가 풍부한 생선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이며, 생선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수치를 높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 기분에 이렇게 작용한다는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식품들이 있는가 하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식품들도 있다.

음식 알레르기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당과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과 탄수화물의 과잉섭취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 단것과 정크 푸드로 끼니를 때워서 하루 종일 혈당량이 아래위로 요동치면 수면장애를 겪게 되고, 이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아랑까지도 제한한다.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커피가 에너지를 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커피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불안 반응을 자극할 뿐이다.

위와 같은 치료법들을 쓸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 없이도 우울증을 예방,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1) 마무리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우울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벼운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청소년 때 일시적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위의 설문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선 우선 운동기구를 늘리고 망가진 운동기구를 고쳐서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식단을 균형적으로 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화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교우관계나 교사와 제자간의 허물없는 대화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좋을 것이다. 음악을 듣는 것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좋다.

우울증은 해마다 5,000명이 자살하는 심각한 병이다. 또 우울증은 방치하게 되면 자신의 생활과 인간관계 모두가 파괴되고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우울증임을 알았을 시엔 초기에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우울증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취할 수 있다면 우울증은 사라질 것이다.

2)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다. 지금도 수정하라고 하면 막막하겠지만 그랬었다. 다음에 또다시 쓴다고 하면 절대로 안 한다.

쓴다고 해도 다른 주제로 쓰겠다. 뭐 그래도 쓰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학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3) special thanks to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던 절 도와주신 지도교사 양쌤(죄송해요 전 돈이 없어요.),

정신건강에 대한 작은 책을 빌려준 나눔이, 기꺼이 사진 제공을 해주신 태 쌤, 빨간집 행사 부연 씨, 옆에서 계속 시비 거는 이시마루 정진(참고로 내 톨마니), 설문지 통계를 도와준 용안이, 전산실 바다만큼 더러운 비닐 씌지 말라고 말려준 승안이, 빵 한쪽 나눠준 형만 너부리, 날 위해 작품을 주겠다고 한 혜, 내게 엄청난 즐거움을 준 핑클, 강타, 문희준, 동방신기, 놀리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새벽, 날 배신한 뼈꾸네, 내게 친절한 답변을 해준 KISTI 정보서비스실, 정보마케팅실, 한 개도 안 도와준 하느님(즐), 소리

없이 날 응원해 준 엄마, 이불 터번 쓰고 다니는 은지새, 커다란 눈깔의 소유자 눈깔신 깡뽕, 충혈된 눈의 노년해탈 강보노, 매일 싸이질 하는 주희, 똥똥이 고양이 스더, 육상부 이시마루처럼 명칭하게 생긴 고래, 내 딸마니의 딸마니 유리, 우리 못생긴 젤라비 예인, 그리고 끝까지 버텨 준 내 천재적인 뇌, 그 외의 도움 안 된 사람들도 모두모두 감사해요.

4) 참고문헌

한낮의 우울 - 앤드류 솔로몬
치유 -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
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어떤 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네이버 지식인 등등

간디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김소안

1989년 03월 20일 부산 세강병원 분만실 출생
외동아들

경남지구 검정고시 합격(고입)

혈액형 / RH+O형

좌우명 /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은 말 / "...될 대로 되라."

■ 2004 졸업 논문

『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 발표자 : 김승안

■ 지도교사 :

■ 차례

I. 서론_ 121

1. 목적 및 동기_ 121

2. 연구 방법과 내용 및 제한점_ 121

II. 본론_ 17

1. 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의의_ 122

2. 설문지_ 122

1) 설문 조사의 기저_ 122

(1) 항목 선정 기준 및 타당성_ 122

(2) 결과 및 분석 방법_ 122

2) 설문 결과 및 분석_ 122

(1) 기숙사 부분_ 123

(2) 수업 부분_ 124

(3) 인간관계 부분_ 125

(4) 문화 부분_ 126

(5) 시설 부분_ 127

III. 결론_ 130

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1. 서론

1. 논문 목적 및 동기

지금까지 간디학교에서 매 학기말에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들었다. 그리고 그 설문지의 만족도는 항상 낮은 편이었다.⁹⁾ 거기다 매 학기 설문지만 돌리고 방안을 찾지 않고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가 낮거나 높은 원인과 그에 따른 방안을 찾고자 이 논문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큰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조사해 원인을 분석해 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간디학교 학생들이 보다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논문을 쓴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및 제한점

연구 방법은 크게 서적을 통한 연구와 설문을 통한 연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서적을 통한 연구는 학교요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을 통한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음을 아울러 밝힌다.

첫째, 간디학교 학생이 73명인데 55명이 답변을 하였다. 설문지를 내지 않거나, 논문에 관련해 집에 간 학생들을 제외한 55명이 답변을 했다. 따라서 전체에서 24.7%인 18명이 설문에 응하지 않아 완벽한 통계는 되지 못했다.

둘째, 설문지를 작성한 시점이 개학 후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이 때의 만족도가 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대표하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9) 설문결과 : 03년 1학기- 교육과정 : 3.6 2학기 - 교육과정 : 3.3 04년 1학기 - 교육과정 : 3.3
(5점 만점) - 학교문화 : 3.6 - 학교문화 : 3.2 - 학교문화 : 2.8
 - 시설교재 : 2.7 - 시설교재 : 2.8 - 시설교재 : 2.5

II. 본론

1. 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의의.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은 '사랑과 자발성' 교육으로 압축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행복한 인간'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생활의 만족이 충족된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학교요람 중에서).

따라서 학교생활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방안 제시는 학교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한 인간'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으며, 앞날의 간디학교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2. 설문지

1) 설문조사의 기저

(1) 항목 선정 기준 및 타당성

이 논문에서는 항목을 총 5가지로 나누었다. 기숙사 부분, 수업 부분, 인간관계 부분, 문화 부분, 시설 부분이 그것인데, 기숙사와 인간관계, 문화 부분은 기숙형 학교라는 점과 대안학교라는 점이 고려되어 구분되었으며, 그 외 수업과 시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다섯 가지 구분은 간디학교에서의 만족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각 항목마다 다시 적합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되도록 했다.

(2) 결과 및 분석 방법

설문지의 각 문항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중 하나에 표시를 하고, 각 답변마다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균을 내고, 그에 따른 이유를 검토한 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다.

2) 설문결과 및 분석

다음은 간디학교 학생 73명 중 답변을 한 55명을 대상으로 이 논문 주제와 내용을 쓰기 위해 조사한 설문지의 결과를 통계한 것이다.

일시 : 2004년 9월 14일 화요일부터 2004년 9월 15일 수요일까지.
 2004년도 만족도 관련 설문지(55명 답변)

(1) 기숙사 부분

내용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 불만(1점)	평균
1.기숙사 입소, 퇴소에 대한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남 : 2명 (8%)	남 : 7명 (27%)	남 : 11명 (42%)	남 : 4명 (15%)	남 : 2명 (8%)	3.50
	여 : 0명 (0%)	여 : 8명 (28%)	여 : 15명 (51%)	여 : 3명 (10%)	여 : 3명 (10%)	2.96
	합 : 2명 (4%)	합 : 15명 (28%)	합 : 26명 (47%)	합 : 7명 (23%)	합 : 5명 (9%)	3.23
2. 현재 기숙사의 벌칙과 규칙에 만족하십니까?	남 : 1명 (4%)	남 : 5명 (19%)	남 : 8명 (31%)	남 : 9명 (35%)	남 : 3명 (12%)	2.69
	여 : 0명 (0%)	여 : 7명 (24%)	여 : 8명 (28%)	여 : 10명 (35%)	여 : 4명 (14%)	2.62
	합 : 1명 (2%)	합 : 12명 (22%)	합 : 16명 (30%)	합 : 19명 (35%)	합 : 7명 (13%)	2.65
3. 기상 및 아침운동을 하는 것과 하는 시간에 만족하십니까?	남 : 0 (0%)	남 : 3명 (12%)	남 : 14명 (54%)	남 : 6명 (23%)	남 : 3명 (12%)	2.65
	여 : 2명 (7%)	여 : 3명 (10%)	여 : 13명 (45%)	여 : 8명 (28%)	여 : 3명 (10%)	2.75
	합 : 2명 (4%)	합 : 6명 (11%)	합 : 27명 (50%)	합 : 14명 (26%)	합 : 6명 (11%)	2.70
4. 간식 및 식단에 만족하십니까?	남 : 5명 (19%)	남 : 5명 (19%)	남 : 12명 (46%)	남 : 4명 (15%)	남 : 0 (0%)	3.42
	여 : 4명 (14%)	여 : 16명 (55%)	여 : 6명 (21%)	여 : 3명 (10%)	여 : 0명 (0%)	3.72
	합 : 9명 (17%)	합 : 21명 (37%)	합 : 18명 (34%)	합 : 7명 (23%)	합 : 0명 (0%)	3.57

기숙사 입소 퇴소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다. 하지만 기숙사의 벌칙과 규칙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상 및 아침운동에도 불만이 약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간식 및 식단에 관해서는 만족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항의 2번 문항의 기숙사 벌칙과 규칙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작년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규칙과 심해진 벌칙이라고 여자 12명, 남자 10명이 답했다. 만약 하루아침에 모든 규칙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벌칙과 규칙에 대한 만족도는 대폭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지켜 오던 학교 질서의 모든 것이 깨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잘 지켜진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풀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

이므로, 기숙사 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번 문항인 기상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불만의 원인은 할 일 없이 30분 동안 아까운 시간만 때우는 것이라고 여자 9명, 남자 4명이 답했다.

요즘 들어 아침운동 시간에 체조가 끝나면 운동하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작년에는 매일 배드민턴 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등 많았는데, 학교에 배드민턴 도구 등 학생들이 함부로 다뤄 없어지거나 망가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학교에서 작년처럼 운동 도구를 사고, 학생들이 학교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쓴다면 아침 운동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수업 부분

내 용	매우 만족(5점)	만 족(4점)	보 통(3점)	불 만(2점)	매우 불만(1점)	평균
1. 현재 학점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남 : 5명 (20%)	남 : 4명 (16%)	남 : 12명 (48%)	남 : 2명 (8%)	남 : 2명 (8%)	3.32
	여 : 4명 (14%)	여 : 10명 (35%)	여 : 10명 (35%)	여 : 5명 (17%)	여 : 0명 (0%)	3.44
	합 : 9명 (17%)	합 : 14명 (26%)	합 : 22명 (42%)	합 : 7명 (18%)	합 : 2명 (4%)	3.38
2. 현재 개설된 교과의 과목에 만족하십니까?	남 : 4명 (16%)	남 : 4명 (16%)	남 : 13명 (45%)	남 : 3명 (12%)	남 : 1명 (4%)	3.28
	여 : 0명 (0%)	여 : 8명 (28%)	여 : 15명 (52%)	여 : 5명 (17%)	여 : 1명 (3%)	3.03
	합 : 4명 (8%)	합 : 12명 (22%)	합 : 28명 (49%)	합 : 8명 (15%)	합 : 2명 (4%)	3.15
3. 현재 교사의 수업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남 : 6명 (12%)	남 : 12명 (24%)	남 : 4명 (56%)	남 : 4명 (8%)	남 : 0명 (0%)	3.92
	여 : 0명 (0%)	여 : 12명 (21%)	여 : 8명 (62%)	여 : 7명 (14%)	여 : 2명 (3%)	3.03
	합 : 6명 (6%)	합 : 24명 (23%)	합 : 72명 (59%)	합 : 12명 (11%)	합 : 2명 (2%)	3.47
4. 체험학습 (국토순례, 약산종주)에 만족하십니까?	남 : 6명 (24%)	남 : 3명 (12%)	남 : 8명 (32%)	남 : 3명 (12%)	남 : 5명 (20%)	3.08
	여 : 3명 (10%)	여 : 5명 (17%)	여 : 10명 (35%)	여 : 5명 (17%)	여 : 6명 (21%)	2.79
	합 : 9명 (17%)	합 : 8명 (15%)	합 : 18명 (34%)	합 : 8명 (15%)	합 : 11명 (21%)	2.93
5. 無학년 수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남 : 3명 (12%)	남 : 6명 (24%)	남 : 12명 (48%)	남 : 3명 (12%)	남 : 1명 (4%)	3.28
	여 : 0명 (0%)	여 : 6명 (21%)	여 : 12명 (41%)	여 : 8명 (28%)	여 : 3명 (10%)	2.72
	합 : 3명 (6%)	합 : 12명 (23%)	합 : 24명 (45%)	합 : 11명 (20%)	합 : 4명 (7%)	3

현재 학점제 수업, 개설된 과목, 수업 진행 방식에는 불만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체험학습과 無학년 수업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번문항인 체험학습 관련 문항에서 여자들의 불만 원인은 힘들고,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것은 몸에 밴 게으름과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좀더 부지런한 생활습관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체험학습을 바라본다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다. 실악산 종주, 국토 순례 등 여러 가지 체험학습들이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값진 경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분열을 초래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자기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사상이 '모두'를 먼저 생각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5번 문항의 無학년 수업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만족도가 낮았다. 불만이 학생들의 경우 '수준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3학년은 2학년보다 반 학기 정도 더 배웠고(장성에서 1학기 지냄), 거기다 검정고시를 친다고 중학교의 기초적인 부분은 다 배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과의 차이는 당연하다. 만약 지난 학기에 모든 것들을 배우고, 반 학기 정도 먼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보다 성취도가 낮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전에 수업 준비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 단계별 수업을 강화하며,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학년이 2학년보다 성취도가 높다면 2학년은 3학년들이 1번 더 배우고 복습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여기고, 2학년이 3학년보다 성취도가 높다면 3학년은 그냥 자신의 수준을 한탄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고 저학년이 말하길 수준차 때문에 수업만 하면 짜증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수업에 3학년보다 뒤처지지만, 그래도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노력한다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수업에 임한다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인간관계 부분

표에서 보다시피 인간관계는 모두 보통이거나 만족이 약간 높았다. 현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관계 부분과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가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 부분에서는 여자의 경우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이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교사와 상호 관계 부분에서 불만의 원인은 차별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고, 인간관계 부분과 선후배 관계 부분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서로 이해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부분들의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와 선후배 간에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및 시간을 만든다면 해결될 것이다.

내용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	평균
1.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남 : 5명 (19%)	남 : 4명 (15%)	남 : 13명 (50%)	남 : 3명 (12%)	남 : 1명 (4%)	3.34
	여 : 0명 (0%)	여 : 7명 (24%)	여 : 16명 (55%)	여 : 4명 (14%)	여 : 2명 (7%)	2.96
	합 : 5명 (10%)	합 : 11명 (20%)	합 : 29명 (53%)	합 : 7명 (13%)	합 : 3명 (6%)	3.15
2.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남 : 2명 (8%)	남 : 2명 (8%)	남 : 18명 (69%)	남 : 2명 (8%)	남 : 2명 (8%)	3
	여 : 0명 (0%)	여 : 5명 (17%)	여 : 16명 (55%)	여 : 7명 (24%)	여 : 1명 (3%)	2.86
	합 : 2명 (4%)	합 : 7명 (13%)	합 : 34명 (62%)	합 : 9명 (32%)	합 : 3명 (6%)	2.93
3. 지금 현재의 선후배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남 : 2명 (8%)	남 : 5명 (19%)	남 : 12명 (46%)	남 : 6명 (15%)	남 : 1명 (4%)	3.03
	여 : 0명 (0%)	여 : 6명 (21%)	여 : 18명 (62%)	여 : 5명 (17%)	여 : 0명 (0%)	3.03
	합 : 2명 (4%)	합 : 11명 (20%)	합 : 30명 (54%)	합 : 11명 (16%)	합 : 1명 (2%)	3.03

(4) 문화 부분

내용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	평균
1. 지금 현재의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남 : 0명 (0%)	남 : 1명 (4%)	남 : 15명 (58%)	남 : 9명 (35%)	남 : 1명 (4%)	2.61
	여 : 1명 (3%)	여 : 3명 (10%)	여 : 16명 (55%)	여 : 9명 (31%)	여 : 1명 (3%)	2.89
	합 : 1명 (2%)	합 : 4명 (7%)	합 : 31명 (57%)	합 : 18명 (33%)	합 : 2명 (4%)	2.75
2. 지금 현재의 기숙사 문화에 만족하십니까?	남 : 0명 (0%)	남 : 1명 (4%)	남 : 17명 (65%)	남 : 7명 (27%)	남 : 1명 (4%)	2.69
	여 : 0명 (0%)	여 : 2명 (7%)	여 : 20명 (69%)	여 : 6명 (20%)	여 : 1명 (3%)	2.79
	합 : 0명 (0%)	합 : 3명 (6%)	합 : 37명 (67%)	합 : 13명 (24%)	합 : 2명 (4%)	2.74
3. 가족회의, 학급회의를 하는 데 만족하십니까?	남 : 4명 (15%)	남 : 6명 (23%)	남 : 12명 (46%)	남 : 2명 (8%)	남 : 2명 (8%)	3.3
	여 : 3명 (10%)	여 : 7명 (24%)	여 : 13명 (45%)	여 : 5명 (17%)	여 : 1명 (3%)	3.2
	합 : 7명 (13%)	합 : 13명 (24%)	합 : 25명 (46%)	합 : 7명 (13%)	합 : 3명 (6%)	3.25

문화 부분은 가족회의와 학급회의를 하는 데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하지만 언어생활

과 기숙사 문화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

1번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남녀 공통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문항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욕을 너무 경우 없이 쓰고 말에 예절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고’라는 일을 저질러 놓고 회피하려는 언어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208호 방에서는 말하는 것 중에 30%가 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욕을 많이 쓴다. 이러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제천으로 오고 나서 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듯 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예전에 우리 학년에서 했던 이러구 없애기 운동과 욕 줄이기를 한다면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불만족 의견에서 몇 명의 의견이었지만 여자들은 욕을 거의 쓰지 않는데, 남학생들만 욕이 입에 붙어 있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캠페인을 벌여 남학생이 욕할 때마다 여학생이 쓰지 말라고 한다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

예전에 했던 이러구 없애기 운동으로 한때 이러구가 조금씩 사라져 갔었던 걸 기억한다. 그런데 새 학기 시작이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때부터 급속도로 다시 퍼졌던 것 같다. 매학기 이런 언어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면 욕이 없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번 문항의 기숙사 문화에 관한 항목에는 보통이 37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평균적으로 만족은 약 2명인데 불만은 약 8명으로 6명 정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12명이고 모두 보통 아니면 불만이였다. 불만인 사람들의 의견은 “빚겨나간 걸 바로 만들려고 하면 사방에서 태클을 걸고,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너그럽게 여기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고 또는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막 대하고, 남학생의 경우 피라미드형 계급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규칙과 벌칙의 증가로 많이 살벌해졌다”고 대답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면 그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다. 트러블이 많은 청소는 부족한 부분을 남에게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3학년에게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만약 내가 그 처지에 놓였더라면 어떻게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 행동으로 옮긴다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해결될 것이다.

(5) 시설 부분

시설 부분은 모든 문항에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만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1번 기숙사 시설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이 만족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용	매우 만족 (5점)	만 족 (4점)	보 통 (3점)	불 만 (2점)	매우 불만 (1점)	평균
1. 기숙사의 시설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남 : 1명 (4%)	남 : 4명 (15%)	남 : 15명 (58%)	남 : 4명 (15%)	남 : 2명 (8%)	2.92
	여 : 0명 (0%)	여 : 1명 (3%)	여 : 12명 (41%)	여 : 13명 (45%)	여 : 3명 (10%)	2.37
	합 : 1명 (2%)	합 : 5명 (9%)	합 : 27명 (50%)	합 : 17명 (30%)	합 : 5명 (9%)	2.64
2. 교실과 같이 수업에 관련된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남 : 0명 (0%)	남 : 3명 (12%)	남 : 20명 (77%)	남 : 2명 (8%)	남 : 1명 (4%)	2.96
	여 : 0명 (0%)	여 : 2명 (7%)	여 : 21명 (72%)	여 : 5명 (17%)	여 : 1명 (3%)	2.82
	합 : 0명 (0%)	합 : 5명 (9%)	합 : 41명 (74%)	합 : 7명 (12.5%)	합 : 2명 (4%)	2.89
3.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남 : 2명 (8%)	남 : 3명 (12%)	남 : 10명 (39%)	남 : 8명 (31%)	남 : 3명 (12%)	2.73
	여 : 0명 (0%)	여 : 5명 (17%)	여 : 11명 (38%)	여 : 7명 (24%)	여 : 6명 (21%)	2.51
	합 : 2명 (4%)	합 : 8명 (15%)	합 : 21명 (39%)	합 : 15명 (28%)	합 : 9명 (17%)	2.62
4. 학교에 있는 교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남 : 0명 (0%)	남 : 3명 (12%)	남 : 19명 (73%)	남 : 3명 (12%)	남 : 1명 (4%)	2.92
	여 : 0명 (0%)	여 : 3명 (10%)	여 : 18명 (62%)	여 : 5명 (17%)	여 : 3명 (10%)	2.72
	합 : 0명 (0%)	합 : 6명 (11%)	합 : 37명 (68%)	평균 : 8명 (15%)	평균 : 4명 (7%)	2.82

여자의 경우 16명이 불만이고, 1명이 만족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보면 “청소도구, 보일러, 부서진 기물들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학생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학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며 또한 학생의 경우에는 불만을 말하기보단 자기는 청소도구, 학교에 부서진 기물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남자기숙사 208호 방의 경우, 작년에 드롭킥 연습한다고 하다가 화장실 문을 박살내 버리고, 자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자 짜증난다면서 방송 스피커를 뜯어 버리기도 하였다. 청소 도구는 그저 징벌, 또는 고문 도구 외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예들은 좀 심한 경우이지만, 남자기숙사의 많은 방들이 문틀이 박살나거나 문이 박살나서 손잡이가 망가지거나, 문틀의 나무가 뜯겨나가 손잡이에 잠금 버튼을 눌러도 문이 잠기지 않는다. 우리가 함부로 다루놓고 지금은 고쳐주지 않는다면 모두 불만을 말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청소도구를 장난감 취급하지 말고, 학교의 문과 벽 등 큰 기물을 완전무

적의 장갑차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더 이상 기숙사의 시설이 부서질 일도 없고, 고쳐야 할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학생 기숙사 시설의 만족도는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따라서 이후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리라 본다.

3번의 수업 관련 시설 부분도 표에 나타났듯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만이 약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의 원인은 공장 시간에 어디를 가 봐도 할일이 없고, 편안히 쉴 곳이 도서관과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 사이의 휴게실뿐이라고 답했다. 해결책으로는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책이 없지만, 책이 들어오면 불만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쉴 곳이 없다고 했는데, 도서관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업이 없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 쉬어도 될 만큼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많다. 하지만 잠을 잘 만한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도서관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버스는 잠을 자기에 좀 불편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 사이의 휴게실이 있긴 있지만 그 곳에는 방송 때문에 조용하지도 않고, 거기다 기타 등 악기를 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잠을 청하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해결 방안은 귀찮겠지만 악기 치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매우 작게 치거나 아니면 강당에서 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휴식 시설에는 방송을 매우 작게 틀거나 아니면 아예 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시설인 수면실이 완성될 수 있다면 불만을 더욱 줄여 줄 것이다.

4번 문항의 교구 부분은 보통이 매우 높게 나와 있다. 그리고 만족이 약 2명, 불만이 6명인데, 여자의 경우는 만족과 불만이 5명 이상 차이가 났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수업에 관련된 도구가 부족하다고 답했는데, 가장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과학 도구였다. 그리고 컴퓨터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다.

컴퓨터... 나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사양을 보면 우리 집보다 용량 3배, CPU 4배, 메인보드, 파워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집보다 훨씬 높다. 전산실에서 게임을 해 보면 우리 집에서 할 때는 끊김 현상이 많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윈도우가 뜨는 속도라든지 게임 외의 모든 면에서는 우리 집 컴퓨터가 약간 더 우세한 경우를 보인다. 로딩이 느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컴퓨터를 함부로 다루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는 프로그램들을 마구 인스톨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로 컴퓨터에 꼭 필요한 것만 인스톨하고, 컴퓨터를 끌 때, 귀찮다고 스위치를 눌러지 말고 몇 초 더 걸리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끈다면 교무실만큼은 아니라도 빨라진 컴퓨터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 도구 부분은 아직까지 감이 잘 잡히지를 않는다. 설문지에서 불만, 매우 불만을 선택한 원인을 상세히 적어 놓지 않아서 과학도구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과학과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구입하면 불만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결과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기숙사 관련된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던 기숙사의 벌칙과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겠다. 기숙사 생활에 관련해서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사회의나 가족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상 및 아침운동 부분에도 불만이 많았었는데, 해결 방안으로는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학교에 건의한다(배드민턴 라켓 등).

둘째, 수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체험학습과 無학년 수업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험학습의 해결 방안으로는 하기도 전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면 해결될 것이다.

無학년 수업의 방안으로는 소풍과 단합대회 등 학년끼리의 활동을 늘이고, 수준차가 난다는 부분에서는 단계별 수업과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어생활과 기숙사 문화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 먼저 언어생활의 해결 방안으로는 욕 줄이기, 이러구 없애기 운동 등 캠페인을 여는 방안이 있고, 기숙사 문화의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설 관련 부분에서는 기숙사시설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 교구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기숙사 시설의 방안으로는 우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원인을 찾아 시급히 해결하기를 학교에 적극 건의하며, 학생들에게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도 최대한 소중히 다루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한다.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고, 일정 장소를 수면실로 지정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거나 동상 근처 풀밭에 벤치를 좀더 늘이는 등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연구



김재은

1989년 07월 06일 부산 탄생

1남 1녀 중 장남

상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상남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 2004년 4월 경남지교

고입검정고시 Pass.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분위기 메이커' 상 3번 연속 수상

혈액형 / RH+ A형

별명 / 아프리카, 대신 맨, 연탄, 프링글스, 숯, 해달남편.

취미 / 공부, 독서, 창 밖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 주접떨기, 갱깁 괴롭히기,
김범린 신경질나게 만들기, 권부연이랑 K1 하기, 태현, 릭스 싸움 붙이고 보면서 즐기기,

서솔이 불러서 릭스랑 싸움시킴, 태현이랑 '숫자송' 부르기

특기 / 독서, 대신맨놀이, 화장실 문 따기,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 걸기,
입으로 탁구 치기, 목숨 걸고 범린이랑 유희왕하기, 묵학 때 자고 취침 시간에 일어나기

소속 / '중 3밴드' 베이스스트(간락연), 엡지(에이스), 야구동아리

좌우명 / "자기 감정에 충실하자."

하고 싶은 말 / "논문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울 거야. 나를 봐,
모두들 노력하면 나처럼 될 거야!!"

■ 2004 졸업 논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연구 -

■ 발표자 : 김재훈

■ 지도교사 : 손진근 선생님

■ 차례

1. 논문을 쓰게 된 목적 _ 133
2.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용어 이해 _ 133
3. 우리나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얼마나 되고 그들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_ 134
4. 우리나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_ 135
5. 고용허가제와 그 문제점 _ 136
6.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어떤 인권 침해가 있는가? _ 140
7.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_ 146
8.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_ 147
9. 내가 만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_ 149
10. 결론 _ 150
11. 이 논문을 마치면서 _ 151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연구 -

1. 논문을 쓰게 된 목적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소위 '3D 업종'에서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y), 위험스런(Dangerous), 일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접받고,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강제로 추방될 수 있는 불법 내지 편법적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내지 편법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온갖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구타 및 폭행, 강제노동, 성폭행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 국적, 성, 피부색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없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에 부딪친다. 살기 위해서 이들은 노동을 결심한다.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다. 하지만 인권 침해로 인해 울부짖는 함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 침해의 실태를 이해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각종 문제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논문을 쓰면서 주로 문헌 연구를 하였지만, 문헌 자료보다 더욱더 확실한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해 보았다.

2.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용어 이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초과체류(통칭 '불법체류') 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2~3년 전부터 미등록 노동자라고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온 이주 노동자를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그렇지만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또한 초과체류(불법체류) 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흔히들 불법 체류자라고 하지만, 이는 출입국법상 허가 받지 못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초과(불법) 체류자이면서 노동 현장에서 취업하는 노동자들은 체류 자격은 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업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들의 취업도 자칫 불법적인 행위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불법 체류자라는 호칭보다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한 노동자라는 의미의 '미등록 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부르는 불법 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로 사용한다.

3. 우리나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얼마나 되고

그들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체류 자격에 따라 합법 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 및 미등록 노동자 등으로 구분된다. 합법 취업자와 산업기술 연수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자격 외 취업자, 밀입국자를 포괄한다. 경남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 406,271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미등록 노동자로, 전체의 24.3%로 166,540명이나 된다.

1) 합법 취업자

합법 취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유입국의 사전 심사 과정을 거치거나 일정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노동자의 정식 신분으로 입국하여 들어오는 취업 인력을 말한다. 합법 취업자에는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직업, 연수 취업 자격인 등록 외국인들이다.

2) 산업기술 연수생

산업 연수를 목적으로 한 등록 외국인으로 산업기술 연수생은 기업체에서 산업상의 기술 기능을 연수받는 자를 말한다. 산업기술 연수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 수단일 뿐 실제로는 연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은 합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3)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자격 외 취업자와 체류 기간 초과 취업자 및 밀입국 취업 등 합법 취업자와 산업기술 연수생을 제외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격 외 취업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취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이다. 예를 들면, 체류 유효 기간 3개월 이내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기간에 취업하는 일,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는 것, 혹은 산업기술 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자격 외 취업으로 미등록 노동자에게 속하게 된다. 체류 기간 초과 취업자는 체류 기간을 초과해 취업하는 외국인으로 미등록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밀입국 취업자는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어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4. 우리나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독일 탄광 등지에서 노동자로, 간호사로 일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당 막노동, 서비스 업종 등 현장에서 살아가는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이 넘는다. 일본 역시 막노동 노동자로 일하려고 나가는 경우도 아직 허다하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은 이제 합법적인 이주민으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3~4대를 이어 재산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의 물결을 따라 노동자 투쟁 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광업 등 기피 직종이 생기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직종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생산직 인력난에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1991년 10월 26일부터 해외투자 기업 산업기술 연수생

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업체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해외투자기업 산업 연수생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법 적용 대사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작업 환경, 인권 유린으로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이 50%에 이르러 미등록 노동자들의 급증과 3D 업종의 인력 부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92년 6월부터 94년 5월까지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자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개월 간 취업을 보장해 주고 출국시켰다.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는 줄어들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94년 6월 해외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면서 5만 명의 산업연수생을 송입하였다.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제도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 국내 취업에 대하여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단순 기능 인력 송입은 금지하였다.

계속적으로 미등록노동자는 증가하였다. 1995년 당시 월급 200달러(한화 16만원)에 감금 노동, 강제 적금, 산재보험 미적용, 여권 압류, 폭행 송출 비리 등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2월 취업연수생제도를 시행했다. 연수생을 8만 명으로 늘이고 입국 후 처음 2년은 연수를 받고 1년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취업연수제도이다. 그 후 2001년에는 1년 연수, 2년 취업 형태의 연수 취업 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가 28만 8천 명으로 증가하고 각종 인권 유린 문제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2002년 7월 15일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연수생 제도의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업종을 확대한다.

둘째, 음식종업원,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의 서비스 업종에 외국 국적 동포(중국동포)에 한해 '취업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셋째, 미등록 노동자 중 자진신고로 출국 유예조치 중인 25만 6천 명은 2003년 3월까지 전원 출국 조치 후 새로 도입하는 인력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대체한다.

이와 같은 외국인 인력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미등록 노동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5. 고용허가제와 그 문제점

1)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국내 취업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 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미등록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 고용허가제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2004년 8월 17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송입하고 1년 단위로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 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사업자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한다고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단기 순환의 원칙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민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일정 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취업 기간 중 가족 동반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인력에 대한 단기 로테이션 정책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단기간(3년) 단위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한다.

(2) 두 얼굴의 노동 3권

노동 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노동 3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복지가 향상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 된다. 노동 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다.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는 노동 3권이 보장되나, 3년 단위로 인력순환, 작업장 이동의 불가,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으로 인해 사실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3) 산업재해

단기 순환이 계속될 경우 3년간 일을 해서 일에 숙달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송입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일을 배움과 동시에 노동을 한다. 원활한 언어 소통과 기계 숙련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력이 대거 도입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율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4) 강제근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작업장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아무리 부당한 작업 지시를 한다고 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연수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시간 강제 근로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작업장에서의 폭언, 폭행

그 동안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작업장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퇴사를 하여 자기 방어를 취해 왔다. 그러나 작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에서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자구책이 없다. 물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노동부나 경찰서를 찾아가는 일조차 힘들 것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내의 폭언이나 일상적인 구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6) 주거 문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비싼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지금과 같이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장 안에 임시로 마련된 숙소나 난방장치나 온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 등과 같은 곳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므로 주거 조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7) 의료 문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

사소통의 문제로 원활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고,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 병원 갈 시간을 얻지 못해 병을 방치하거나 더 키울 수 있다. 특히 만성적인 개인 질병일 경우 회사 측에 의해 고용을 거부당할 우려가 높아 강제출국을 우려한 환자들은 병을 참아가며 일하게 될 우려가 높다.

(8) 성희롱, 성폭행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여성 인력이 젊고 건강한 여성이 대부분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후에도 작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하기 어렵고, 여성 스스로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 대부분이 성희롱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며, 간혹 성희롱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한국 남성들은 한국인의 정서에 호소하는 변명을 하며,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유분방함이 원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이런 핑계가 사실상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여성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관리자들이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성폭행을 가할 것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9) 모성 보호, 임신

여성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임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출국보다는 1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자동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적용되는 모성 보호권은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

(10) 더 열악해질 환경의 불법체류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으로 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최악의 근로 조건을 감수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단속 이후 미등록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데, 특히 임금이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장에서는 50%까지 삭감한 사례도 있다.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속을 피한 야간작업의 동원으로 크게 건강을 해치고 산재 발생률도 증가할 수 있으리라 추측되며, 불법체류자의 신분적인 약점을 이용한 각종 착취적인 노동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단속 이후 일선 현장에서 출국을 앞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단속 받는 가운데 근로 조건 악화와 노동권 침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해결된 직후 바로 강제 출국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금껏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은 한없이 높아질 것이다.

6.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인권 침해가 있는가?

1)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고, 1주당 근로 시간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당사자 합의 아래 1주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1주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하루 노동 시간은 대개 10~12시간이다. 그러나 이 이상 노동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주말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56시간을 훌쩍 넘긴다. 여성들이 누려야 할 월 1회 생리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월차, 연차휴가도 물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례 1)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례

2000년에 한국에 온 파키스탄인 알리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일이 많아 늘 잔업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5월 25일 연속하여 36시간 일을 하게 되었고, 피로한 중에 그만 산재사고를 당했다.

사례 2) 야간작업을 26일간 휴일 없이 일한 사례

2001년에 입국한 이란인 호센은 1일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였다. 이 대가로 호센이 받기로 한 월 급여는 70만원. 호센은 26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견디다 못한 호센은 공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호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미성년자 고용

최근 들어 미성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한결같이 거액의 브로커를 지불 하고 나이와 이름을 위조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한눈에 보면 청소년인 걸 알 수 있지만 업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용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채용 자체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근로 시간도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야간작업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근로기준법처럼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은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 1) 17세의 나이에 입국하여 4년간 취업한 사례

파키스탄인 아빳의 나이는 현재 21세이다. 그는 한국엔 온 지 4년이 되었다. 한국어

도 아주 잘 하는 그는 파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다. 물론 여권상의 나이와 이름은 위조하였다. 아빏 역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입국하였다.

3)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60-70%의 수준이다. 3D 업체에서의 임금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명목 임금만으로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들의 임금 수준보다 높고 한국인 노동자의 임金的 70-80% 정도 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80-90% 정도 된다.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보다 근로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 명목 임금만으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8시간 기준의 노동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 태반이다. 때로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도 드물다.

사례 1) 1일 8시간 노동에 월 급여 39만원

태국인 여성 두 명은 2000년 부천시 소재 공장에 입사하였다. 입사한 첫날 두 사람의 여권을 압류하였다. 이들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8시간 노동에 월급 39만원을 받았다. 1년이 넘는 기간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거부했다. 이들은 2001년 8월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사업주는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권마저 돌려주지 않았다.

4) 임금 체불

임금체불은 이 땅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위법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금품 청산이 되어야 하나 이 역시 다른 근로 기준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종이쪽에 불과하다. 2000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1,008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11억 6천여 만 원이 체불되었다. 노동부에 고발 하지 않은 사례, 외국인 지원단체를 알지도 못해 임금체불을 호소하지도 못하는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수만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 경우다. 사업장은 폐쇄되고 사업주는 도주한 상태에서 고스란히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하는 협박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드물다.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사업주와 타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 1) 두 곳의 산업연수업체가 부도나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1998년 한국에 온 카자흐스탄인 카타는 2년간 연수업체 두 곳

에서 일을 했는데, 두 업체가 모두 부도가 나서 총 78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70만원을 채불한 채 문들 닫은 첫 회사는 사업주가 도주한 상태이고, 610만원을 채불한 두 번째 회사는 사업주 도주 후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기계를 가압류했으나, 그 중 한 동료가 기계를 몰래 빼돌려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카타는 사후 관리업체와 중기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5) 산업기술연수생의 강제적립금 문제

중소기업조합협동중앙회를 통해 입국한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중소기업조합협동중앙회의 지침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매월 은행에 적립하고 있다. 이런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니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적립하게 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강제저금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강제 저금 금지 조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 열람 또는 반환 요구 시 사업주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연수업체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의 이탈을 막는 방편으로 이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산업기술 연수생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도 처벌도 하기 힘들다. 강제적립금은 현대판 족쇄라고 볼릴 만큼 산업연수생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강제적립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연수생이 이탈했을 경우, 이를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고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적립금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회사가 부도나고 적립금은 회사에서 횡령한 사례

스리랑카인 마흐무드는 1999년에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이탈하였다. 이탈 당시 마흐무드의 적립금은 375만원이었다. 이탈 얼마 후 마흐무드는 자신의 적립금은 돌려받고자 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소에서는 적립했던 은행을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본인이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대신 은행에서는 잔액을 조회해 주었다. 그런데 통장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 놀란 마흐무드와 상담원이 은행 직원을 설득해서 인출 내역을 뽑아보았다. 375만원의 적립금은 두 달 전에 인출되어 있었다. 상담원이 회사로 전화해 보니, 회사는 이미 부도난 상태였다. 회사가 부도난 시점은 적립금이 인출되고 난 직후였다. 노동부에 진정해 보았지만 사업주로부터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6) 산업재해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높다. 특히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영세 업체, 3D 업체, 공해 유발업체라는 점이 이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도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가 없다. 중기협에서 도입하는 산업기술 연수생조차 불과 3일간의 한국어 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상황이니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례 1) 치료비가 비싸다고 강제 퇴원시킨 사례

필리핀에서 입국한 칼스는 일산에 있는 공장에 취업하였다. 처음 해 보는 프레스가공 일이 서툴러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심한 구박과 함께 빨리빨리 하라는 독촉을 받으며 밤 늦게까지 일하다 급기야 산재사고를 당하였다. 왼손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압괴, 절단되어 공장 트럭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칼스 씨는 사업주에 의해 강제로 퇴원 당하였다. 절단 부위가 괴사 상태에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치의가 말했음에도 사업주가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퇴원시킨 것이다. 사업주는 손가락이 잘려나간 손이 퉁퉁 붓고 진물이 흐르는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면서 200만원을 줄 테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였다. 칼스는 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소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치료를 촉구하였으나 사장은 현재도 치료비로 수백만원이 들어간 상태라며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상담소에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산재요양 신청서의 날인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이마저 완강히 거부하였다. 어쩔 수 없이 사업주날인을 받지 않고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불승인통보를 하였다. 불승인의 이유로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시기가 칼스의 사고 이후이고, 그 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000년 7월 이전의 산재보험 강제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소에서는 어떻게든 치료를 받게 해야 하겠기에 공장을 재차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7) 사업장 내 폭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구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폭행은 계속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폭행은 이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1) 사장이 불렀는데 늦게 움직였다고 폭행한 사례

방글라데시인 아민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조금 떨어져 있던 사업주가 아민을 손짓으로 불렀다. 작업 중이던 아민은 하고 있던 일을 마

치고 사업주에게 가려고 조금 지체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갑자기 아민에게 달려와 다짜고짜로 아민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 아민은 꿈쩍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이를 보던 한국인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사업주를 말려 아민은 간신히 사업주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상담소는 사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아민의 치료비와 사과를 받아냈다.

8) 인신 구급

인신 구급은 고전적인 인권 침해 사례이다. 인신구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연수생의 경우이다. 사업주들은 산업기술 연수생이나 해외투자 기업 연수생의 이탈을 막고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외출금지 등의 인신구급이다. 인신이 구급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역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는 역시종이쪽에 불과하다.

사례 1) 외출 통제 및 야간 감금

1994년 9월부터 스리랑카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경북 구미 공단 내 OO 섬유회사는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면서 연수생들의 외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었다. 1996년 8월 스리랑카 연수생들이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전혀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상담소에서 노동부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을 약속받았다.

9) 단속과 추방

단순노동 인력 도입 불가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 당국은 편법적으로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는 한편으로 관광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하였다가 취업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존재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 그런 한편 급증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왔다. 평상시에는 묵인하다가 특정 기간을 정해 단속, 추방하는 정책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미등록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끼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지고 있던 막대한 빚 때문에 어떻게든 단속을 피하려 한다. 2001년 단속 기관에 전국에서 2,000명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졌다. 심지어 산재로 치료 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 자체에서도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내세웠지만,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사례 1) 산재치료 중인 환자를 체포한 사례

방글라데시인 샤갈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건너편에서 다가온 세 남자에 의해 손에는 수갑을 채이고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샤갈에게 한국에 언제 왔냐고 물었고, 92년도에 왔다고 하자 “야 왜 이렇게 오래 있냐?” 면서 머리를 때렸다. 샤갈은 퇴직금과 산재 문제로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 허리수술도 한 번 더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을 얘기하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증빙서류 복사본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복사 본은 믿을 수 없다며 샤갈을 차에 태워 끌고 갔다. 자동차는 인천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였고, 샤갈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샤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전화를 한 후에야 샤갈을 보내 주었다.

10)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압류

여권 등 신분증 압류 행위는 수많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두고자 여권을 압류한다. 그러나 신분증의 압류는 산업연수생의 이탈 방지에는 효과가 적다. 반면에 연수업체에서 이탈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자신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명서도 없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의 사례가 발생해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주의 위법한 여권 압류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연수생은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내어 주고 만다. 사실상 압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주가 본인 몰래 여권을 가져가는 일도 있다. 명백히 절도행위가 되지만,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가져 이를 형사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사례 1) 여권이 없어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한 사례

안산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인 산업연수생 에미는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여권을 주지 않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조차 처음 4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아무런 신분증이 없어 불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회사 측에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하자, 그 때서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주었다.

11) 입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수수료

현재의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연수협력단의 주관 아래 중기협에서 지정한 현지 송출회사에 의해 연수생이 모집된다. 입국 후 중기협에 연수생으로 신청한 업체로 배정됨과 동시에 중기협에서 허가한 송출기관의 한국사무소에 해당하는 사후 관리업체에 의해 관리된다.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송출회사에 340~1,3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산업기술 연수생의 68.5%가 1,500불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송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입국한다. 그래서 연수생은 빚 청산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폭행과 임금체불, 강제 추방 협박 등의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라도 가능한 한 장기 체류하게 되며,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나면 이탈하여 미등록

노동자로서 이 땅에 체류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의 물정에 어둔 상태에서 브로커가 소개하는 회사에 첫 취직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산재,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수수료 1만 달러를 주고 입국한 미등록 노동자

한국에서 5년 동안 취업했던 이란인 알리는 체불된 퇴직금 때문에 상담소를 찾았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던 중에 알리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알게 되었다. 1만 달러라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리는 빚을 많이 졌고, 빚을 갚기 위해 한국을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1만 달러의 빚도 다 갚았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이 해결되면 즉시 이란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러자 알리는 이란으로 귀국하였다.

7.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1) 참정권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지역에 일어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참여할 수 있다.

2)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는 찬반이 있으나, 외국인도 그들이 갖는 기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허가제법 상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의 경우에도 직장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3)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노동 3권의 행사가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법에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의 행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기본권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또한 그 제한은 헌법에 의하여 공공복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가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가 소수자의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집회 참가자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표적단속의 경우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차별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형사절차상의 권리

형사절차상 이주노동자는 인식상의 부당한 차별, 경제적인 무능력, 문화적 차이, 언어 차이 등의 요소로 인해서 형사절차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처우의 개별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보장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산재보험법과 다른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입자임을 규정하였고, 다만, 법에는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은 강제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임의 가입 대상자이며, 희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연수생도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은 임의 적용 대상자였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4일 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이 강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 대상자)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국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조문 상으로는 국민에 한정한다는 표현이 없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으로 볼 때 적용 대상이 국민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국민에 한정하여 집행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가 더욱 진행되어 외국인도 공공부조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8.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1) 반만 년 역사의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인 생각에서 세계화 속에 더불어 살아야 함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미등록 노동자 14만여 명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고 우리 국민의 노동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40만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밑바닥 경제를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산업연수를 시키지 않으면서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중소기업조합협동중앙회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고, 1년 연수 후, 2년 취업제도를 도입했지만 귀국을 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노동자를 양상하고 있다.

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개인의 적성과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선택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3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더욱더 강력한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 근로로 인한 장시간 근무, 최저임금법 위반, 열악한 근무 조건, 폭력적 언어, 성추행, 성폭행, 인종차별, 임금 체불, 귀국 요청 거부, 주변친지의 출입국 위반 건에 대한 고발 강제출국 압포, 배상 요구 등의 정신적 압박에 못 이겨 발생한 사건 등은 단순 개인 문제로 산재 불승인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의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6) 자녀교육, 부모초청 등 인간적인 제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영역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시빈민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은 모두 중고제품이고,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린 것을 주워다 쓰고 있다. 월세방, 기숙사 등지에서 경찰이나 주민의 신고를 의식하며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간적 자유를 선포하고, 한국에서의 재산권 보장과, 인간적인 배려를 위해 자녀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의료 지원, 주거권, 재산권 등에서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그들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각종 부과세를 내고 임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되고 있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자로 주어진다면 그들은 한국의 의료보험 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히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7월 2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전용 병원이 개원했다. 한국인에게는 아무런 병도 아닌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병들은 방치하게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까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이 없었다. 이런 병원이 더 많이 생기면 아무런 병도 아닌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9. 내가 만난 외국인 이주 노동자

2004. 9. 12

하루 종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창원, 김해 시내를 다녔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인터뷰가 이뤄지지 못했다.

2004. 9. 13

창원에 있는 수덕산업기계주식회사에 취업 중인 인도네시아 사람 프리(28세)를 만났다. 프리는 2003년 3월에 입국한 산업연수생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었고, 하루 8시간 일을 하며 월 64만 2천 원을 받고 있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는 시간이지만, 엄청난 저임금을 받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2004. 9. 13

창원에 있는 경남 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중국 인 양휘(34세), 파키스탄 인 알

리(26세), 샤(29세)를 만날 수 있었다. 양씨는 합천정기라는 회사에서 취직 중이다. 1999년에 입국하였고, 2005년에 출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류 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이다. 하루 노동 시간은 13시간이고 한 달 임금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하루 노동 13시간에 비하면 100만원이라는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알리는 1999년에 입국하였고, 2005년에 출국할 것이라고 한다. 체류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미등록 노동자이다. 하루노동 시간은 14시간이라고 한다. 근로 기준법의 8시간을 훨씬 넘기는 시간이다. 한 달 임금은 120만 원이라고 한다. 샤는 실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그래서 한 달 전 그 회사에서 겪은 일을 얘기했다. 2002년에 입국했으니 아직은 합법 체류 중이다. 한 달 전 회사에서 하루 노동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8시간을 훨씬 넘기는 14시간이었다고 한다. 한 달 임금은 120만 원이었다고 한다. 샤는 실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지만 아직 회사에 130만 원이라는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내가 만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회사에 취업 중인 사람들로 대부분 합법 체류자이므로 이들로부터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대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각종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이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례로 미등록 노동자들은 단속을 우려하여 대부분이 숨어 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터뷰는 실시하지 못했다.

91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13년이 지나는 동안 민간 사회단체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인권 향상을 주장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족 동반 입국, 한국에 실질적인 정착 및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직업 선택의 자유, 노동 3권 등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 결론

21세기의 인구이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력이 없는 국가는 신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다국적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인간화는 없고 자본만 자유롭다. 여기서 경제적 질서는 결코 평등치 않으며 결국은 대량 궁핍 현상이 일어난다. 빈곤이 심해져 생계에 위협을 느낀 빈민국가의 국민들은 생계를 위해 이주 노동을 선택한다.

지금 세계에는 8,600만 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한 해에 외국인 이주 노

동자가 600만 명 가량 생기고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1억 8,000만 명 가량이 있다. 이들의 국적은 대부분은 살기 힘든 빈민 국가들이다. 이들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고 생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웃처럼 대해 주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전면 합법 화해 주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폭넓게 적용해 주며, 자녀교육, 부모 초청 등 인간적인 제반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 인권 단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1. 이 논문을 마치면서

힘들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내 자신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논문을 쓰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끝내고 나니 마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은 것 같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간디학교에서 지낸 3년 생활 가운데 뜻 깊은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논문을 마치고 나니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먼저 같이 힘들게 논문 쓴 중 3들에게 수고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으로 이 논문에 같이 고민해 주고 신경 써 주신 손 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신 담임선생님이신 백삼 쌤, 그리고 학교에 계신 모든 쌤들,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집에 있을 때 오라버니 논문 열심히 쓰라고 밥 차려 주고 설거지해 준 사랑스런 동생에게도 고맙다. 그리고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밤 11시 넘어 들어가서 불을 켜도 아무 말 없이 잠 잘 자고, 청소 대신 해 준 우리 방원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다. 여기에 못 쓴 분들도 있지만 모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간디인들 사랑합니다.

[참고 문헌]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년
- 장준요,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
- 김경태, 「이주 노동자의 인권 현실과 인권 운동」
- 설동훈(전북대 교수, 사회학), 「한국의 이주 노동자 운동」
- 최홍엽(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주 노동자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 이철승 목사(경남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 소장),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양혜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 정정훈(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

나와 국토순례, 그리고 학교

- 내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국토순례 방향 제시



김주희 _

1989년 11월 12일 부산 출생

2녀 중 장녀

다윗선교원 - 강신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 2004년 4월 경기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혈액형 / RH+ O형

별명 / 도우너, 페리카나

취미 / 책 읽기, 음악 듣기, 여려 학우들과 수다 떨기

특기 / 선천적인 눈웃음

소속 / '지존막강중3' 女人, '여.우.하.품' 부회장, '지구특공대' 회원, '기지개' 회원

좌우명 /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학교 싶은 말 /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다."

■ 2004 졸업 논문

『나와 국토순례, 그리고 학교방안』

- 내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국토순례 방향 제시

■ 발표자 : 김주희

■ 지도교사 : 김병삼 선생님

■ 차례

I. 서론_ 155

1.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_ 155

II. 본론_ 156

1. Walking_ 156

2. 국토순례를 가게 되기까지_ 157

3. ‘어깨동무’ 국토순례에 대해서_ 158

4. 일곱 번 다녀오는 동안의 그 과정과 나의 느낌_ 161

5. 제천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는..._ 165

III. 결론_ 167

1. 국토순례를 다녀오면서 변한 내 모습과 습관들_ 167

2. 앞으로 ‘어깨동무’ 국토순례와 제천간디청소년 학교의

3. 국토순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_ 168

☼ 논문을 마치면서_ 169

나와 국토순례, 그리고 학교방안

- 내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국토순례 방향 제시 -

I. 서론

1.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

나는 재작년 선배들이 논문발표를 할 때 논문의 뜻만 알고 있었고, 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 때는 내가 1학년 때이어서 사실 실감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작년 선배들이 논문 발표를 했다. 선배들이 부리나케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직도 난 희희낙락 놀고 있었다. 당장 눈앞에 닥칠 고입 검정고시에 논문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선배 언니, 오빠들이 “너네 1년 남았어, 1년.” 하고 말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눈앞에 논문 통과란 관문이 들이닥친 것이다.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 그 시일까지 정말 많은 고민에 고민을 했다. 관심 있다면 다 관심 있고, 그렇다고 뭐 하나 딱히 고를 것도 없어서 참 많이 걱정했었다. 가정학습 때 집에 갈 때 마다 엄마, 아빠는 “논문 뭐 할 건지 정했어?”라고 나에게 계속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셨다. 그래도 난 그 때까지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국토순례였다. 오랫동안 다녀서 경력이 쌓였을 뿐더러 내가 국토순례에 빠지게 된 매력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이것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 좀 재미나게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논문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II. 본론

1. Walking

난 국토순례를 많이 다녀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왜 중요한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TV나 인터넷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았을 거다. 걷기 운동이 왜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1) 걷기 운동이 가져다주는 10가지 효과

걷기 운동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주요 생활습관 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은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효과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폐기능 향상, ② 비만 방지, ③ 고혈압 예방, ④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동맥경화증 예방, ⑤ 당뇨병 예방과 치료, ⑥ 면역력 증강, ⑦ 다리와 허리 근력 강화, ⑧ 골 밀도 증가 및 골격 강화, ⑨ 스트레스 해소, ⑩ 정신적 안정 및 숙면

걷기 운동을 계속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심장병에 걸리는 비율이 낮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연령을 비교하면 사망률도 낮아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걷는 것쯤이야.”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걷는다면 이런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걷기 운동은 기구나 돈이 필요 없는 운동이라서 부담이 적다. 조깅이나 줄넘기를 하게 되면 땀이 나고 지치게 되어 운동을 했다는 기분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뛰는 것은 속보 정도의 스피드일지라도 걷는 것과 비교하여 몇 배의 차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충격이 크고 관절이나 근육이 상할 수도 있다. 또한 운동은 안전해야 하며, 나이를 먹어도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이다.

2) 걷기의 바른 자세

상체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로 서서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든 자세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시선은 바닥을 보지 말고 정면을 보면서 걷고, 팔은 90도 정도 구부리며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이 반대가 되는 바른 걸음을 걸도록 한다. 팔의 움직임을 크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여 미는 듯이 발 앞부분으로 지면을 차며 발뒤꿈치-발 중앙-앞꿈치의 순으로 앞으로 내딛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반면 걷기 운동은 조깅에 비해 시간이 보다 많이 걸려 지루한 감을 가질 수 있어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인내심이 요구되며, 과다 체중자나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성급하게 속도나 거리를 증가 시키게 되면 근육이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걷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우리가 차를 타고 쉽게 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5분이면 되지만, 그 거리를 우리 다리로 직접 걷는다면 걸리는 시간은 5분이 아니라 배 아니면 그 이상이 된다.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차로 쉽게 가는 거리를 우리 다리로 직접 걷는다면 ‘아, 원래 이만큼 걸리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조금만 힘든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지쳐한다면 운동을 하는 셈치고 국토순례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내가 언젠가 틱낫한 스님¹⁰⁾이 지은 『화』라는 책을 한 번 읽어보았는데, 거기서는 화를 풀어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 운동임을 말해 주고 있다. 화가 날 때 이 ‘걷기’ 운동을 하면 육체가 정신을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으로 화가 풀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레베카 솔닛¹¹⁾이 지은 『걷기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실내의 연속(집, 차, 체육관, 사무실, 상점)에서 살아간다. 실내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걸으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걷기가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옛날의 여러 철학자들도 걷기는 정신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걷기를 처음으로 신성한 이데올로기(Ideologie 독일어로서,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이념’으로 순화. ≒ 관념 형태.)로 만든 장 자크 루소는 “걷는 것에는 생각을 자극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뭔가가 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신을 움직이게 하려면 육체가 움직여야 했다.”라고 걷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도 “정신적 긴장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큰길이나 골목길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통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간디 이후 비폭력은 약자가 강자에게서 변화를 끌어내는 특별한 도구가 되었으며, 걷기는 비폭력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한다.

정말 이 논문을 쓰면서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이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난 단순히 걷고 뭐 이런 것만 알았는데, 논문이란 걸 쓰게 되면서 걷기가 왜 좋은지, 걷기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걷기’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걸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논문으로 인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모르던 것을 알게 되어 기쁘기도 하다.

2. 국토순례를 가게 되기까지

4~5세 때 급성폐렴으로 아팠던 뒤로, 나는 아주 약골이었다. 후유증으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거렸고, 약 냄새도 이제 내게는 익숙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엄마, 아빠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런 약골이었던 나에게 엄마, 아빠는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10) 틱낫한 스님이 지은 『화』는 한때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서적이며, 이 책을 통해 화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 레베카 솔닛은 예술, 문화 비평가 및 큐레이터이며 환경운동가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걷기와 생각하기, 걷기와 문화에 대한 관련 고리를 찾아내었으며, 또한 자동차와 속도 위주의 현대인에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국토순례 취재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다. 난 그 방송을 끝날 때까지 주시해서 봤고 엄마, 아빠가 “왜, 너도 한 번 가보고 싶어?” 하고 장난으로 던지시 물어보셨을 때, 바로 “갈래요!” 하고 당차게 대답해 버렸다. 내 대답에 놀라신 엄마, 아빠께선 내가 진심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셨고, 내가 진심인 걸 알고는 고민을 하셨다. 그러다가 날 보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내 건강에 때문에 많이 걱정하신 듯했고, 14박 15일의 여정이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었기에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깐 보내기로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국토순례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그 때 사진을 보면 난 정말 조그만 꼬마였다.

3. 어깨동무 국토순례에 대해서

내가 갔던 국토순례를 주관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어깨동무’였다. ‘어깨동무’는 69년 4월 24일 재단법인 육영재단으로 공익 법인 설립되었고, 설립자는 육영수 여사라고 한다. 90년에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어깨동무 국토순례단을 발족하였고, 97년 IMF 전까지 해외순례 350명 유럽, 백두산 등정, 98년까지 13회차 4,500명이 천리대장정을 수료했다고 한다. 또한, MBC에서 10회, KBS 1, KBS 2에서 10회 이상, iTV 특집에서 1시간 다큐 2회와 4회, 신문에서 500회 이상 보도되었다고 한다.

사단법인 ‘어깨동무’의 〈걸어서 천리 국토순례 대장정〉은, ①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떠나보내라는 선인의 말씀(부모의 저녀양육철학), ②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의 실천(시작과 끝의 약속), ③ 내 나라, 내 땅을 내 발로 걸으면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 동량이 되기 위한 호연지기의 기상을 기른다(풍요로 인해 잃어버린 정신문화 재창출, 인내, 극기, 실천력 배양)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 이런 설명들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 아래의 내용은 ‘어깨동무’ 국토순례 행사를 진행할 때의 일정표이다.

〈여름 일정표〉

04:00	기상
04:00 ~ 05:00	장비점검 및 출발준비
05:00 ~ 08:00	도보
08:00 ~ 08:30	조식
08:30 ~ 10:00	도보
10:00 ~ 10:20	휴식(조간식)

10:20 ~ 11:30	도보 완료
11:30 ~ 12:30	휴식
12:30 ~ 01:30 PM	중식
01:30 ~ 04:00	물놀이, 휴식
04:00 ~ 06:00	편지, 공부
06:00 ~ 07:00	석식
07:00 ~ 08:00	정비시간
08:00 ~ 09:00	대화 및 토의
09:00 ~ 익일 04:00	취침

〈겨울 일정표〉

06:00	기상
06:00 ~ 06:30	장비정리
06:30 ~ 07:30	조식
07:30 ~ 08:30	출발준비
08:30 ~ 12:00	도보
12:00 ~ 12:30	중식
12:30 ~ 05:30 PM	도보
05:00 ~ 06:00	숙영지 정리
06:00 ~ 07:00	석식
07:00 ~ 08:00	씻고 말리고
08:00 ~ 11:00	편지, 기행문 · 수양록, 공부
11:00 ~ 익일 06:00	취침

위의 일정표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다. 여름에는 오후 2시경에 제일 덥기 때문에 더운 시간은 피해서 행진을 얼른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겨울에는 여름과는 비교적 늦게 일어나서 그나마 따뜻한 시간에 행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름 국토순례가 좋다. 왜냐면 여름에는 더우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시원한 과일도 가끔 먹을 수 있고, 도보 중에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땀이 나도 제대로 씻을 수가 없고 딱히 놀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눈싸움도 하고, 얼음을 깨고, 세수도 하는 등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나는 처음을 여름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더 당기는 것 같다. 누구나 다 처음으로 한 것이 더 인상적이고 끌리기 마련이니까.

1) 편지 주고받기

참가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1일 1통 이상씩의 편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상황에 따라 우표를 붙여 부칠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팩스로 보낼 경우 '어깨동무' 사무실의 팩스를 통해야 한다. 부모님의 편지를 처음 받은 그날 밤 참가한 단원들은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만다. 물론 집에서야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

고, 편한 잠자리에서 곱게 자고, 찻집하면 얼른 씻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이 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생활이 서럽고 부모님과 집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한다. 참가한 단원들은 각자 “엄마!~!”,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바다가 된다. 한때는 나도 그랬다.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해지다 보니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가끔 가다 보면 부치거나 팩스로 보내는 게 성가시니까 편지를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다녔던 국토순례에 참가하게 되면 편지는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부모님들의 편지를 못 받게 된 단원들이 우는 경우도 꽤 보았다.

2) 편성

팀은 학생단과 지원단으로 나뉜다. 학생단은 대장정에 참가하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팀이고, 지원단은 학생단이 행군할 때 숙영지 정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팀이다. 지원단은 훈육팀·안전팀·관리팀·취사팀·양호팀·촬영팀·수송팀·상황실본부 등의 여러 조로 나뉘어져 있다. 학생단만 해도 보통 300명~400명 정도인데, 지원단까지 합세하면 실로 그 수는 어마어마해진다.

백두대간			태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기준 : 학생단 본부, 기수단, 비만, 봉사단			기준 : 여학생으로 편성			기준 : 초·중생			기준 : 초·중생			기준 : 초·중생		
인원 00명			인원 00명			인원 00명			인원 00명			인원 00명		
백두산	단대 지휘부	명	태백산	산맥 지휘부	명	무등산	산맥 지휘부	명	계룡산	산맥 지휘부	명	소백산	산맥 지휘부	명
천마산	기수단	”	일월산		”	운장산		”	용문산		”	속리산		”
한라산		”	청태산		”	조계산		”	서대산		”	덕유산		”
마니산		”	금강산		”	두류산		”	공작산		”	수도산		”
금정산		”	오대산		”	백암산		”	칠갑산		”	월악산		”
북한산	중1~3 특공대	”	설악산	중1~3 특공대	”	월출산	중1~3 특공대	”	치악산	중1~3 특공대	”	지리산	중1~3 특공대	”
흑색			적색			청색			녹색			노란색		

내가 갔던 경우만 해도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학생단만 따져서 404명이었으니까. 학생단에서도 팀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백두대간, 태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으로 크게 다섯 팀이다. 그 중에 태백산맥은 여자로만 이루어진 팀, 이 다섯 팀도

여러 산으로 작게 또 나누어져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 계급

편성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참가한 머릿수들이 워낙 많이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크다. 게다가 ‘어깨동무’ 국토순례는 애초부터 목적에 극기 훈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합도 많이 받는데다가 계급도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횟 수	계 급	보 직	임 무
2회차	▮▮	부대장	대장 보좌
3회차	▮▮▮	대장	1개산 지휘
4회차	☼☼	선임대장	2개산 지휘
5회차	☼☼☼	지역대장	총대장 보좌
6회차	☼☼☼	총대장, 부총대장	1개 산맥 지휘
7회차	☼☼☼☼	총대장, 부단장	부단장 학생단 본부 분야별 임무 수행
8회차	☼☼☼☼		
9회차	★	부단장	
10회차	★★	학생단장	학생단 총지휘

학생단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생단의 최고참 계급으로서 학생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게 된다. 정말 책임이 막중해 어깨가 무거워지는 직분이다. 나는 14기 출신으로 20기까지 다녀왔다. 그래서 현재 계급은 총대장이고, 다음번에 간다면 부단장이 된다.

4. 일곱 번 다녀오는 동안 그 과정과 내 느낌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처음 다녀오고 나서 나는 ‘국토순례’라는 것에 맛을 들었다. 기합 받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래도 나는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 때 두 번째로 다녀왔고, 5학년 여름에도, 6학년 여름에도, 겨울에도, 중 1 여름에도, 중 2 여름에도 갔습니다. 이리하여 총 7번의 국토순례를 완주했다. 아무래도 나는 이 ‘국토순례’라는 것에 중독된 것 같다.

국토순례가 시작되고 나서 3일에서 5일은 항상 고비였다.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와 엄마, 아빠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가고 또 가도 힘들고 고되고 집이 그리워지는 건 매한가지였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면 14박 15일의 대여정이 금방 끝나 버린다. 다 끝내고 나면 ‘시간 참 빠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걸어냈을까'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보람도 느껴지고 했다.

가끔씩 내가 걸었던 그 구간을 가족끼리 차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의 한계령을 저는 두 번을 넘었다. 두 번 다 겨울이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엄마, 아빠, 동생과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이 낯설지가 않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몇 킬로미터 남았나...' 하는 마음에 계속 보던 표지판과 가파른 경사의 오르막길, 주위 풍경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낯설지가 않아 아빠한테 여쭙어 보았더니 정말로 그 길이 맞았다. 국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 정말 느낌이 묘한 것이 감회가 새로웠다. '차로 가면 이렇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을 나는 얼마나 힘들게 갔던가...'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정말 뿌듯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어깨동무' 국토순례에서는 '예절교육'이란 것을 하는데, 허리를 90도씩 굽혀 가면서 인사하는 거다.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로 모두 여덟 가지이다. 인사 시작하는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가 인사말의 끝자릴 말할 때 올라오는 거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라면 '안녕하십니까...'까지는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까' 할 때 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1번 하는 데 8번 허리를 굽히니까 열 번만 해도 허리를 80번 굽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예절교육'이란 것은 가끔씩 숙소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장님 앞에서 한다거나 군수님 앞에서 해 보인다가나 한다. 때로는 이 '예절교육'을 기합의 일종으로 하기도 하는데, 하고 나면 허리 뼈근해 죽어난다.

처음 와서 단원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걷고 놀고 그랬는데, 점점 계급이 높아져만 갈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점점 더 커졌다. 부대장 때는 단원들이 남긴 밥을 내가 대신 먹어야만 했고, 대장이 됐을 때는 한 산의 책임자로서 못 걸겠다는 애들 달래면서 걸어야만 했고, 선임대장, 지역대장 때는 총대장을 잘 보좌하며 많은 애들을 돌봐야만 했다. 또한 총대장 때는 한 산맥을 책임지고 걷게 하고, 씻기고 먹이는 등 온 생활을 맡아야만 했다. 지위가 사람을 바꾼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단원 때는 계급자 언니, 오빠들이 시켜도 시키는 거 안 하고 말 안 듣다가 꼭 사고 쳐서 고위층 계급자들 기합 받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생각하면 지금 그 언니, 오빠들한테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때의 그 계급자 위치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사고뭉치었고, 계급자를 고생시켰는지 그 때서야 몸소 느꼈다.

아래 내용은 여태까지 내가 다녀오는 동안 적은 수양록이나 엄마, 아빠와 나눈 편지를 발췌한 것이다.

〈'99 하계 제 14기 걸어서 천리 국토순례 대장정〉

○ **엄마, 아빠와 주고받은 편지**

- 전혀 두려움 없이 시작했듯이 모든 일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희 구호가 '인내' 이듯이 참고 굳세게 이겨내기 바란다.
- 오늘은 양구를 떠나 간척리 화천이에요. 너무 다리가 아파요.(편지 내용 일부 발췌)

〈'00년 동계 제 15기 걸어서 천리 국토순례 대장정〉

○ **수양록**

- 단체생활의 중요성 : 지난 번 14기 하계 국토순례 때 경험해 봤지만, 단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또다시 깨달았다. ... 한 명 한 명이 잘해야 단체(또는 단체 생활)가 잘되고 단체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 위대한 부모님 : 한계령을 넘는 도중에 난 너무 힘들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났다. 지금 이 때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편하게 쉬게 해주는 데 말이다. ... 우리를 낳아 주시고, 건강하게 길러 주시고, 아프면 잠도 안 자고 시간 맞춰서 꼬박 꼬박 약 챙겨 주시고, 나는 동생을 조금만 봐 줘도 맥이 빠지는데, 정말 부모님은 위대하시다!!

○ **엄마, 아빠와 주고받은 편지**

- 주희도 집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네, 인천자유공원까지 남았지만, 주희는 고생이라고 생각했을까 좋은 경험과 좋은 교훈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할까?
- 괜히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냐. 점점 높은 계급장을 달수록 책임감과 임무도 점점 많아지는 거야. ... 이제 이틀 남았다. 15기 국토순례도 거의 막바지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수양록과 편지 내용 일부 발췌)

〈'03년 하계 제 20기 걸어서 천리 국토순례 대장정〉

○ **엄마, 아빠와 주고받은 편지**

- 저 부단장 일 병행하게 됐어요. 급수랑 통신인데, 총대장 일이라 이중으로 하려니까 좀 많이 벅차네요.
- 너는 그렇지, 지휘부는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세상이 그래. 나이를 먹어 가고 경력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그거야. 아랫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경력자, 선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지.
- 이제야 겨우 총대장 역할이니, 통신에 급수 등의 부단장급 일이니, 선두 안전관리니 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려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4일밖에 안 남았네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걸 보면, 내가 후회 안 할 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밑에서 바라보는 위쪽은 항상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면 또 그 자리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편지 내용 일부 발췌)

위의 내용을 보면 편지 주고받기를 어떻게 하는지, 국토순례 생활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고생하고 힘들어 할 때 엄마, 아빠의 편지가 참 위로가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나이에 저런 걸 생각했을까...'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국토순례 기간 동안에 내가 쓴 수양록의 내용은 다 나의 진심을 적어 놓은 기록들이다. 나는 솔직히 필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한다. 말 하긴 빛 하지만, 그래서 수양록을 안 쓰고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사단법인 '어깨동무'의 회장님이 '일생에 남는 것은 단 기록뿐'이라고 하시면서 쓰라고 하셔서 쓴 거다. 그 때 당시에는 '아, 짜증나. 이런 걸 도대체 왜 쓰는 거야, 귀찮게!~'라고 생각하면서 무지 무지하게 귀찮아하고 싫어했다. 그런데 그 수양록의 내용이 이렇게 내 논문에 실릴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일생에 남는 것은 다 기록뿐'이라고 하셨던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고위층 계급자의 위치에 서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결단식이 끝나고 버스에 올라타면 한 단원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리 00 좀 많이 챙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태백산맥이요? 어이구, 계급장 달았네. 우리 00 좀 잘 챙겨 주세요~." 하면서 부탁조로 당부하지는 부모님들이, 버스 안에서 단원들 인원 점검하는 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여러 부모님들의 그 기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낄 때면 늘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내 걱정을 털어 놓았고 엄마, 아빠께서는 그 때마다 편지에 위로와 희망을 보내 주셨다.

언젠가는 내 바람으로 소포로 동생 사진을 동봉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동생이 내가 국토순례 간다 그러면 별로 울고불고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막 찢찢 짜고 그랬었다. 그 때 내가 동생 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던지... 국토순례 행사 중에 그걸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걸어서 꼭 완주해야겠다고 결심하곤 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농땡이 치면서 놀려고 할 때도 내 나름대로는 죽을 둥 살 둥 하며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 때문인지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땀땀하게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나 내 동생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꼭 완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국토순례를 다니는 목적이 내 몸을 튼튼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정신건강도 같이 튼튼히 하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변했다. 또한 교통편한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를 싫어하게 되었다. 강원도 길을 걸을 때면 코를 풀어도 투명하게 나오는데 반면 서울에서 시가행진을 하다가 코를 풀면 거무튀튀하게 휴지에 묻는다. 그 휴지를 본 나는 경악했다. 아무리 도시가 환경이 더러워졌다고는 하나 이 정도

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다. 그러니 생명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걸까?...

강원도 산길을 걸을 때면 차라리 아스팔트길을 걷겠다고 생각한다. 강원도는 하도 산이 많아서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꼬불꼬불 꼬부라진 길을 가야 했다.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사가 많이 진 그런 길을 행진하자면 난 정말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게다가 계급이 높아지고 고위층 계급자가 되면서부터 어깨에는 무전기를 걸쳐야 했고, 너무 힘들어서 앞 사람과의 거리가 떨어지는 단원들을 아무리 오르막이라 해도 그 곳까지 뛰어올라가서 뒤쳐진 단원들을 밀착시키고 대열을 맞춰야 했다.

18기 국토순례, 즉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갔던 국토순례 때 이런 일도 있었다. 가뜩이나 전날 기합 받은 것 때문에 다리가 아팠는데, 그 날따라 경사가 좀 많이 진 오르막을 엄청나게 걷게 됐다. 그것도 한 시속 5Km의 속도로. 내가 맡았던 산의 대장 언니가 “지역대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 걸어요? 많이 와 봤으면 좀 잘 걸어야 할 거 아냐!~” 하고 나한테 소리친 적이 있었다. 솔직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힘들고 그런 것인데, 내가 계급장 좀 달았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그 언니가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억울하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도 옛 시절에 그 언니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더니 딱 내가 그 경우였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빴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계급장을 단 만큼 나보다 더 힘들 단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고, 그 언니는 내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내 행동을 꼬집어 준 것뿐이었다. 다만 좀더 좋은 말로 돌려서 말했어도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난 힘들어도 참고 견디게 되었다. 아무래도 내 지위도 있고 하다 보니 나보다는 단원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대변이 급해도 나보단 단원들이 먼저니까 다 보내 주다가 시간이 없어서 정작 나는 화장실도 못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평, 불만을 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내 주셨던 편지를 보니 이미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일반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어깨에 짊어지는 책임이 달라진다고, ‘어깨동무’ 국토순례야 극기 훈련 식이고 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하는 것이지, 일반 사회 같았음 조그만 잘못 하나에도 자신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는 그런 냉정한 곳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어깨동무’ 국토순례에서는 아무리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계급이 자신보다 높으면 존댓말을 써야하는 규칙이 있는데, 현재의 사회에서도 지위가 자신보다 높으면 어린 사람한테도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악용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5.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는...

위에서는 내가 다니고 있던 국토순례의 이야기를 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는 어떤 형태를 이루었을까. 아래의 내용은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를 설명한 것이다.

〈간디청소년학교 평화순례 2004〉¹²⁾

“우리 걷는 걸음, 평화의 씨앗이어라”

1. 제목: 간디청소년학교 평화순례 2004
2. 주최: 간디청소년학교
3. 주관: 간디청소년학교, 간디청소년학교 학부모
4. 협조 : 각 지역단체(시·군청, 읍·면·동사무소, 5.18기념사업회, 한마음공동체 등)
5. 기간 : 2004년 5월 9일(일) ~ 5월 29일(토)(20박 21일)
6. 인원 : 종주인원 60-70명(학생 47명, 교사 7명, 학부모 4-7명, 자원봉사 2-9명)
7. 주제 : 생태, 인권,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평화를 실현한다.
8. 목적
 - 1) 현장학습(움직이는 학교)
각 지역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눈을 키운다.
 - 2) 공동체 정신
 - 힘들게 걷는 여정 속에서 서로 배려, 양보하고 도와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체 정신을 느끼고 배운다.
 - 평화운동 : 소외된 곳에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희망을 나눈다.
 - 생태적 삶 : 생명의 원천 '자연'을 통해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자신감과 성취감 부여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걷기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9. 걸어간 길

부안 - 정읍(동학혁명지 답사) - 백양 - 장성(한마음공동체 생태체험) - 광주(5.18 성지순례)
- 담양 - 순창 남원 - 실상사(작은학교와 생명) - 산청(간디학교) - 영동(노근리 민간인 학살터, 차량 이동) - 상주 화동 - 상주 가은 - 문경새재 - 월악산 - 제천간디학교 - 평택(평화축제 참가, 차량 이동)

12) 자료 출처는 간디청소년학교 평화순례 2004 자료집.

이처럼 제천간디청소년학교에서의 국토순례는 평화를 주제로 한 국토순례였다. 자료집에서 보면 양희창 선생님께서는 ‘평화를 원하거든 먼저 평화가 되어라’고 하셨다.

‘슈마허 칼리지’라는 세계적인 생태학교를 만들고, 부엌과 도서관이 중심이 된 ‘하트랜드’학교(간디학교를 처음 세울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던 곳)를 세운 사티스 쿠마르 선생님은, 고령의 나이에도 지금까지 세계적인 환경잡지를 만들어 오시면서 훌륭한 세계의 영성 지도자라고 한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거쳐 아메리카까지 약 6천 5백 마일을 오직 걸어서 여행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양 선생님은 한국을 방문한 사티스 쿠마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먼 거리를 걸어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이 땅에는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평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없지.”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제천간디청소년학교에서 실행했던 평화순례도 사티스 쿠마르 선생님의 느낌을 공감하고 싶어서였을까. “우리 걷는 걸음, 평화의 씨앗이어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평화순례를 했다. 3학년들이 중국체험을 하고 있을 때, 1, 2학년들은 평화순례를 했는데, 과연 어땠을까. 정말 사티스 쿠마르 선생님의 느낌과 공감대를 이뤘을까, 아니면 그냥 단지 걸어야 하니까 걸은 것이었을까.

III. 결론

1. 국토순례를 다녀오면서 변한 내 모습과 습관

국토순례를 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내 건강 때문이었다.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면 목적 달성을 한 것 같다. 지금의 나는 기숙사 벌칙으로 운동장 뛰어도, 체력장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고, 길으로 보기에 난 이미 충분히 건강해 보인다. 결정적인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의 성장인 듯하다. 과연 7번의 국토순례 끝에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 힘든 과정 속에 얻은 것은 튼실해진 내 무 다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일 것이다.

예전의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님께 떼쓰고, 눈물이나 짜내고, 금방 포기해 버리는 나약한 꼬마아이였다. 하지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속담처럼, 참고 견뎌내야 그 달고 단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국토순례를 7번이나 갔다운 나는 변화했다.

크게 아프고 난 뒤의 후유증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나는, 너무 잘 먹어서 탈일 정도로 밥도 골고루 잘 먹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힘차게 돌아다니는 그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 힘들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는 부모님과 집이 그리워도 견뎌 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에서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은지도 대강은 터득하게 되었다.

이제껏 많이도 치러 왔던 국토순례가 한순간의 내 시간 때우기용 행사였는지, 아니면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을 행사였는지... 난 당장이라도 대답할 수 있다. 국토순례가 냉정한 사회의 모습도 보여 주면서 나에게 인내심을 심어 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줬다.

나는 학생단장이 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기왕에 계급장 단 거 단장까지 하고 끝낼 것이다. 학생단장 자리에 올라서서 선대 학생단장 선배들의 그 고충도 직접 겪어 보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돌보고 수련할 것이다. 아직 나는 단장감이 될 그릇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이 끝낼 것이다.

2. 앞으로 '어깨동무' 국토순례와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 '어깨동무' 국토순례와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의 국토순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깨동무' 국토순례에서의 굳기 잡는 문화는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사랑과 자발성, 비폭력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화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 더러 이해할 수 없다. 참가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굳기를 잡는다는 것은 기합을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폭력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것 또한 남녀 차별일지 모르겠지만, 여자 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나 남자 팀에서는 굳기를 잡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여자 팀은 남자 팀에 비해 수도 적고 하니까 기합 주는 것도 더 적고 하다. 게다가 여자라고 봐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에 비해 남자 팀에는 굳기 잡는 문화가 많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최악의 상황인 경우 이외에는 기합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마다 코스가 똑같아서 질릴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다. 내가 다닐 때는 여름에는 '강 따라 물 따라', 겨울에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게 매년 슬로건이 똑같다 보니 너무 질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무엇이 유래라든가 설경이 예쁜 곳이라든지 테마를 계속 바꾸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재밌고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항상 국토횡단만 하다 보니까 간 코스를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니 프로그램이 짧더라도 국토종단과 국토횡단을 번갈아서 하면 그래도 지루한 감은 좀 덜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서 행사했던 국토순례는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아서 제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토순례란 것은 처음 실행해 본 것이다. 아직은 그래서 시작

단계라고 손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 그래도 처음 시작을 잘해 놓아서 앞으로 할 국토순례의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 다음부터는 주제를 평화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토순례를 했으면 한다.

예를 들자면 '환경'을 주제로 한 국토순례라면 쓰레기 소각장 피해 현장이라거나, 핵 폐기장 지역, 공장 폐수 피해 지역 등을 찾아 도보여행을 하는 것이다. 만약 '가족'을 주제로 한 국토순례라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입양소라거나 고아원, 미혼모 시설,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테마가 있는 국토순례를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다.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스도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테마에 따라서 코스도 달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평화순례 때는 도보를 하다가 가끔 조별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는 길에 조별로 보물찾기를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별 활동을 응용한다면, 사랑과 자발성,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행하는 국토순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난 생각하는 바이다.

내가 다녔던 국토순례나 우리 학교의 국토순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국토순례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곳에서는 식단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고소 신청이 되어서 그 단체가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토순례에 있어 식단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충 때우려고 너무 아무거나 막 쥐도 안 되지만, 고기 종류를 너무 자주 쥐도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고기 종류는 소화가 늦어서 도보할 때 배에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화가 잘 되는 콩보리밥과 김치, 국 종류로 식단을 짜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본다.

국토순례를 하려는 취지와 목적, 짜여진 프로그램, 식단 등이 탄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행사를 치러내는 데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3. 논문을 마치면서

난 정말 논문이 졸업과제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가끔씩 감 잡혀서 한 장, 두 장 써 내려가다가 이따금 막혀서 내용의 진전이 없을 정도로 쓰지를 못했다. 그럴 때마다 난 절망도 하고 굉장히 많이 속상했다. 이 논문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내 경험이 주가 되는데, 그래도 자료를 얻을 게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나오질 않고 해서 참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뒤지다가 결국은 원하던 자료를 찾게 되었고, 양 쌤이 빌려 주신 『걸기의 역사』라는 책을 참고해서 그 부분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다. 나 자신이 국토순례를 그렇게 많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 논문은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참 기쁘다. 앞으로는 국토순례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와는 반대로 난 이 전산실이 너무도 지긋해졌다. 컴퓨터 열기 때문에 뜨뜻했던 전산실이 이제는 별로가 돼 버렸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쓴 내가 너무 대단하고, 논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던 병삼 쌤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 논문을 쓸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나와 같이 이 어려운 논문을 써낸 우리 중3 애들한테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그들의 후손



김태규 _

1990년 03월 06일 경기도 광명시 출생
외동아들

2004년 4월 경기지구 고입검정고시 합격.

혈액형 / RH+ AB형

별명 / 비밀

취미,특기 / 비밀

소속 / 간디학교 3학년

하고 싶은 말 / “입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2004 졸업 논문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그들의 후손』
- 발표자 : 김태규
- 지도교사 :

차 례

1. 머리말_ 173
2. 독립운동가_ 174
 - 1)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우당(友堂) 이회영_ 174
 - 2) 왕산(旺山) 허위_ 175
 - 3) 석주 이상룡_ 176
3. 독립운동가의의 후손_ 177
 - 1) 이종걸_ 177
 - 2) 허도성(허위의 자손들)_ 177
 - 3) 석주 이상룡의 증손 이항증_ 177
4. 친일파_ 178
 - 1) 방응모_ 178
 - 2) 이완용_ 180
 - 3) 송병준_ 182
5. 친일파의 후손_ 183
 - 1) 방상훈_ 183
 - 2) 이운형_ 183
 - 3) 송돈호_ 184
6. 결 론_ 184
 - [참고자료]_ 185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그들의 후손

1. 머리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가 나라를 침략하는 데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국가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자들도 많이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슬프지만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일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까지 호위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대의 잘못을 감추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 재산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독립 운동가들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 더 슬프다. 괜히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대대손손 잘 산다는 말이 생겼겠는가?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일제시대에 언론을 이용해 친일을 한 조선일보와 고위직에 있으며, 나라를 위협에 빠뜨린 이완용, 송병준, 방응모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특히 그 시대의 본인이 가진 재산이나 직위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항일 투쟁에 뛰어들었던 3대 명문가라 불리는 우당 이회영, 왕산 허위, 석주 이상룡 선생의 대략적인 정신을 훑어보고 이회영의 손자 이종걸, 허위의 손자 허도성 및 증손자 증손녀, 이상룡의 아들 이항중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독립운동가

1)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우당(友堂) 이회영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인 이튼스쿨은 2차대전 당시 한 학급 출신 전원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또 80년대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 때는 심지어 영국의 왕자가 직접 헬기 조종을 하며 미사일을 밋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는 영국 상류층의 책임 의식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항복의 11대 후손인 이회영의 집안이 바로 그렇다. 이 집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양반 집안으로 이항복부터 시작해서 8대 동안 계속해서 판서를 배출하였다. 재상의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집안은 화려했으나, 한일합방 이후 그 화려함은 치열함으로 바뀌었다. 나라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그 많던 재산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이다. 이항복의 10대 후손인 이유승은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냈는데, 그에게는 6명의 똑똑한 아들이 있었다. 첫째 건영, 둘째 석영, 셋째 철영, 넷째 회영, 다섯째 시영, 여섯째 호영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명망가 집안에서 자란 6형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1910년 12월 흑한 속에서 만주벌판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을 결행한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조선 왕조에서 8대 동안 판서를 지낸 집안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호방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했던 넷째 아들 이회영이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내린 결단이었다. 6형제에 딸린 가솔들을 전부 합하면 6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다고 한다. 60명 가운데 데리고 있던 노비들도 일부 포함됐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씨 형제들은 노비들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하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망명하기 전 노비들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분 해방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노비들은 행동을 같이 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내게 되는 시영은 일찍이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다. 김홍집의 사위였던 그는 평안도 관찰사라는 고위벼슬에 있었는데, 형의 권유에 따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망명길에 따라나섰다. 형제들이 집안의 전 재산을 처분한 현금이 40만원(현재 가치로 약 6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독립을 위해서는 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관 양성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11년에 만주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최초의 독립군 양성소가 됐다. 1920년 폐교될 때까지 10년 동안 약 3,000명의 독립군을 양성했다. 만주 일대에서 이 학교에 물려든 학생들의 수업료와 식비는 무료였다.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려는 청년들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 경비는 이회영 집안에서 가져간 돈으로

충당되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고국에서 가져온 자금까지 바닥이 나자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끼니도 못 잇고 학교에 다니던 딸 규숙의 옷까지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이회영은 1932년 지하 공작망을 조직할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다롄으로 가는 도중, 일본 경찰에 붙잡혀 심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6형제의 자식들도 대부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독립운동을 하였다. 6형제 가운데 시영만 제외하고 5형제는 모두 중국에서 숨을 거두었다.

2) 왕산(旺山) 허 위

경북 선산에서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던 이름 높은 학자 집안이자 독립운동 가문에서 출생한 왕산 허위는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수학한 유학자로서,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을 갖고 있었다. 1895년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만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수련한 학문으로 서당을 차려 오로지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그 이유는 권문세도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조정, 특히 외척의 횡포가 심한 조정에는 들어갈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도 조정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왜놈들이 대궐에 침입하여 국모인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자, 1896년 경북 김천에서 “저들의 만행이 아무리 심하기로서니 어찌 국왕 폐하가 계신 대궐을 범하여 일국의 국모를 시해한단 말인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면 이 백성이야말로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다. 설령 일본의 뒤 조종을 받는 조정이 우리의 갈 길을 막는다 해도 우리가 흘리는 피는 애국의 피요, 우리의 의기와 충절은 만고에 빛날지어다.”라는 창의문을 써서 곳곳에 게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300명의 급조된 병력으로 1,200명의 관군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리였는데, 그 때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회유하였다. 비록 그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대항하여 싸우기는 했지만 그의 충절만은 높이 샀던 까닭이다.

그 뒤 허위는 출사하여 1899년 영회전봉사에 임명됐다. 그 때부터 1904년까지 그가 평리원의 수석 판사를 역임하는 등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봉건적인 유림에서 근대 지향적인 유림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였다. 1904년 8월에 의정부 참찬으로 있을 때 신식학교 설치, 화폐제도 개혁, 신분제 폐지 등 개혁적인 안을 조정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07년 경기도 연천 적성 등지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서울 진공작전을 폈으나 혼란되지 않은 민병이었고 무기 또한 창과 방패 등 낡은 것들이어서 신무기를 소지한 관군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그의 부대는 결국 패퇴하였고, 그 후 임진강 쪽으로 이동하여 임진강과 한탄강을 무대로 일본군 진지 공격, 관공서 습격, 전신선 절단, 친일파 처단 등 강력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08년에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해 55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그가 의병을 이끌고 그토록 밟고 싶어 했던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3.3km 도로 이름을 왕산로

라 명명하여 그를 기리고 있다.

3) 석주 이상룡

석주 이상룡은 1858년 99칸짜리 저택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그는 퇴계 이황의 학동을 이은 연남의 유학자 서산 김홍락 문하에서 사숙한다. 그러나 물밀듯이 밀려오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조성왕조의 붕괴라는 세기말의 격황은 이상룡을 시련으로 몰았다.

1895년 을미사변은 조선 유림을 뒤흔들어 놓았고, 38세의 나이에 의병대장인 외삼촌 권세현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본격화되자 안동지역 우국지사들과 의기투합해 민중계몽운동에 뛰어들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해 고루한 안동유림사회의 천지개벽한 공산주의자의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교육운동에 매진하다 한일합방으로 해산을 맞는다. 영남의 한 이름 있는 유학자로 출발하였으나, 제국주의 침략과 반봉건적인 변화의 시대에 부흥하여 유림의 개혁과 청년교육에 매진하게 된다. 유림 출신이면서도 한말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루소, 몽테스키외 등을 탐독해 유교 인습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서양 문물에만 빠져 있던 다른 개화파 지식인들과는 달리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1910년 일제가 조선 금광들을 유린하자 이상룡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각지를 다니며 동지를 모은다. 그 때 서울에서 신민회를 이끌던 서고 이동녕, 우당 이회영 등이 사람을 보내 신민회가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알렸고, 이들과 뜻을 함께한 이상룡은 다음 해 주위 유림들의 만료를 뿌리치고 수많은 가산과 선영을 뒤로 한 채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고 50여 식구를 인솔하여 돌아올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른다.

53세의 나이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만주로 망명한 김동삼, 이회영, 이동녕, 이시영 등 여러 동지들과 뜻을 합해 경학사를 창건한다. 발 같고 공부한다는 이름 그대로 정착사업과 청년 교육을 내세운 경학사는 만주지역 최초의 항일 단체였고, 이상룡은 초대 사장으로 추대된다. 경학사는 그 뒤 부민단을 거쳐 한족회라는 이름의 큰 단체로 바뀐다.

1920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족회는 산하 군사조직으로 서로군정서를 거느린 채 상해 임시정부와 손을 잡게 된다. 그 후 이상룡은 서로군정서 초대 독판(최고 책임자), 상해 임시정부 수반인 국무령(주석) 등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민족해방을 위해 한시도 두 다리를 뺀고 자지를 앓았던 이상룡은 독립운동 단체들의 분규를 수습해 가면서 만주 지역 무장투쟁의 최고 책임자로 한 생애를 마쳤다. 이 일들은 이상룡이 아니 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만주 길림성 서란현 소고전자에서 숨을 거둔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이 달려와 고향으로 모시고 가려 했으나, “조선 땅이 해방되기 전에는 데려갈 생각을 마라. 조선이 독립되면 내 유골을 유지에 싸서 조상 밭치에 묻어 달라.”며 단호히 뿌리쳤다 그의 유해는 흑룡강 성 아성 시 취원창의 묘

소에 묻혔다. 그러다 1990년 9월 5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임정 묘역으로 옮겨져 묻히게 되었다.

3. 독립운동가의 후손

1) 이종걸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국회의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귀 있는 자 들어라!”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며 학생운동에 가담했고, 대학 진학 후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투신하면서 종로 경찰서의 학생담당 정보과 형사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 위해 하숙집에 할아버지의 동지가 찾아왔다 가면 여지없이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와서 괴롭혔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또 고등계 형사들의 감시를 받는 참담한 시절이 왔구나.” 하면서 슬퍼했지만, 만류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해서 인권변호사로서 사회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작으나마 미력을 인권을 위해 바칠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그 후 국회에 진출한 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품어 왔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정,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였다. 그는 여성, 인권과 복지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개혁과 경제개혁과 국정 전반의 개혁, 참다운 정치개혁의 실현으로까지 관심과 활동의 폭을 계속 넓혀 가고 있다.

2) 허도성(허위의 자손들)

왕산 허위 선생이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 개설 후 제 1호로 교수형을 당한 후, 유족들은 고향에서 일본 순사와 밀정들의 등쌀에 견디다 못해 1915년에 만주로 야반도주 하다시피 망명길에 올랐다. 만주로 망명했던 유족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허위의 자손 중 손자 허도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은 허씨 후손들이 러시아에서는 부로코피, 슈라, 나타샤가 되었고, 그의 후손마저도 로버트 허, 벤 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59년 기념행사에 허위 선생의 항일 전적지인 남북 경기도 연천 일대와 남북 분단의 현장인 휴전선 답사 행사를 가졌을 때 이 모임에 참석한 왕산 후손들은 러시아에서 증손녀 미라와 기라리이샤가 참석했고, 국내에서도 다른 후손들이 참석했으나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씩씩한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3) 석주 이상룡의 증손 이항증

삼대가 독립운동을 한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중은 선대가 만석꾼 집안이었지만, 독립운동을 한 탓으로 학교를 고아원에서 다녔다. 하지만 그가 한 고생은 더 고생한 사람에게 비하면 행복한 축에 든다며 만주에 이름도 흔적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조상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음을 감사하였다.

그리고 이번엔 이상룡 선생이 태어난 임청각을 나라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라에 헌납 청원 했다. 임청각은 현재 보물 182호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로나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으로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크기에 다음 세대에 애국 애족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임청각 전부를 소유하여 관리해 주도록 후손들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 헌납을 청원했다. 이완용의 후손은 땅도 찾아갔는데, 이번 헌납 청원은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건물의 역사적, 문화재적 의의를 감안하여 흔쾌히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국가에 헌납하였다.

4. 친일파

1) 방응모

일제 당시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오늘날 신문 재벌 방씨 일가를 이루고 있는 방응모는 그가 조선일보 경영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거의 무명 인사였다. 실지로 그가 사회 저명 인사로 활동한 기간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1950년 남북될 때까지 17년 정도다. 그러나 일제 당시 그는 양대 민간지의 하나였던 조선일보의 사주이자 손꼽히는 자산가 중의 한 사람이었으니, 그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그가 처음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23년 나이 마흔이 되던 해 동아일보 정주지국을 인수, 운영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워낙 소자본으로 시작한데다 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온갖 고통을 겪었고, 이 때 당한 수모와 시련이 훗날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2년 만에 이 일을 그만두고 새 사업을 모색하다 광산 사업을 시작해 금맥을 발견하면서 광산 재벌이 탄생한다. 광산을 처분하고 조선일보를 인수한 후 1935년 경기도 수원에 97만평 규모의 간척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조선일보 인수 비용인 50만 원과 동일했다.

다음 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 무려 3200만평 규모의 조림사업을 벌이는데, 장차 신문용지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한다. 자매지로 종합월간지 <조광(朝光)>, 여성지 <여성(女性)>, 소년 월간지 <소년(少年)> 등을 창간했다. 재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기업가의 기본적인 생리라고는 하나 재벌의 언론사 경영은 이미 이 당시에 조선일보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방응모가 친일행각을 시작한 것은 꼭 당시의 시국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친일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총독부와의 거래가 불가피하였

고, 중일전쟁 이후 일제 당국의 압력이 가중되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친일행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을 했다는 변명은 될 수 없다. 그의 친일은 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신문의 사주였던 그의 친일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신문의 논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여타 친일파들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후 드골 정부가 나치정권에 협조한 언론인을 숙청하면서 언론사 사주에 대해 가혹한 처단을 내린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 동안 그의 친일 행각은 조선일보의 민족지 간판에 가려 거의 축소 은폐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이후 친일파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더러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도 소상히 조사된 것은 아니다.

그의 친일행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일전쟁 이후 생겨난 각종 친일단체에 참여하여 일제통치와 군국주의를 찬양한 대목과 또 조선일보 폐간 후 자매지 <조광>을 통해 친일논설을 직접 쓰거나 발행을 주도한 점이다. 그가 공개적으로 친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개전 이듬해인 1938년 6월 당시 총독부가 결성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이 단체는 조선문예회, 조선방송협회 등 59개 단체와 김활란, 김성수 등 개인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전시 체제 구축을 적극 홍보한 단체다. 9월에는 다시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 등과 함께 총독부가 결성한 제2차전선 순회 시국강연반에 동원돼 '조선명사 59인 각 도 순회 강연'을 다니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1940년 8월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그는 자매지 <조광>을 본격적인 친일잡지로 개편하고는 그 자신이 직접 친일논설을 기고하는 등 친일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일제가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건 시책 중의 하나는 국어 상용이었다. 여기서 국어는 당연히 일본어를 말한다. 44년 당시 통계로 보면, 조선 내에서 일어 해독자는 3백2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6%였다. 이와 관련 <조광>은 '국어를 상용합시다!'라는 권두언을 통해 "영문을 들어서는 징병자와 내지의 노무자들이 국어를 해득치 못하는 데서 오는 곤란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대만의 일어 해독자 6할에 비하면 이는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친일어용지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창간 초기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로가 있었다고는 하나 <조선일보> 폐간 후 <조광>은 대를 이어 친일보도를 한 셈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 정국의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우리 현대사의 주역들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살아 왔다. 그들의 삶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동안 대부분의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방응모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하 그의 친일 행적은 그가 발행한 매체 곳곳에 잘 기록돼 있다. 그러나 80년에 간행된 그의 전기 <계초 방응모>의 서문 첫 줄은 '암흑기의 민족에게 언론의 횃불을 밝혀 민족의 길을 비추었던 선구자'로 시작하고 있다. 과연 몇 사람이

나 이를 수궁할지 궁급할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민족과 독자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

2) 이완용

경술국치(흔히 한일합방조약이라고 한다.) 체결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으로, 매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완용은 당시 유일무이한 서양식 교육기관이었던 육영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통의 외교 관리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친러시아파, 친일파로 변신해 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882년 과거시험에 병과로 합격하여 주로 군 관련 하급관리로 관직을 시작했다. 과거에 합격하기 한해전인 1881에 육영공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는 등 서양학문을 학습한 몇 안 되는 관리였던 탓에 세자시강원 겸 사서를 지내면서 나중에 순종의 측근으로 일하기도 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 미국으로 가려다가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사이에 아관파천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불려간 그는 그때 친러파로 변신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을 전쟁터로 만드는 한편, 화폐정리 사업 등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아 갔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그 뒤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을사조약 체결을 주동한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의정대신 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가 되었다가, 을사조약의 결과 조선의 통감이 된 이토의 추천으로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었고, 곧이어 의정부 를 내각으로 바꾸게 되자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다.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게 되자 일본은 이토로 하여금 고종의 양위를 요구했다. 이완용은 이에 동조하여 양위를 건의했다가 두 번씩이나 거절당했으나 계속 강압하여 결국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분노한 군중들이 남대문 밖 약현에 있던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가재와 함께 집이 전소하여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의 보호로 몇 달 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 있다가 저동의 전남영위궁으로 옮겨 살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고종을 양위시킨 이토는, 통감이 한국 정부의 시정을 지도하는 권리를 가지며, 법령을 제정하고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고급 관리나 외국인의 임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가담했다.

이완용은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토의 요구에 따라 새 황제 순종으로 하여금 민정시찰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이에 동행했다. 이 해 10월 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살해되자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지시키고 한국 정부 대표로 다롄까지 가서 조문한 후 장춘단에서 추도회를 열고 일본에서 있는 장례에 정부 대표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파견하면서 은사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냈다.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서울 종현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이재명의 의거로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렸으나,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완용은 한일합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동경에서 일어난 수재를 위문한다는 핑계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여 합방조약의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 같은 날 오후 내각회의를 열어 그것을 통과시킨 후 다시 어전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그 날로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넘긴다.”는 합방조약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인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고종이 죽고 그 장례를 이용하여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한 이른바 <경고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경고문>에서 이완용은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이요 망동”이라면서, 일제 당국이 이 운동을 ‘무지몰각한 망동’으로 보고 관대하게 회유하지만, 그래도 자각하지 못하면 필경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경고문>이 발표되자 매국노 이완용을 규탄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이에 대해 그는 “천만인 중에 한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 강변했다.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에 게시한 [경고문]을 민중들이 모두 찢어버렸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 [경고문]을 발표했다. 세 번째 [경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강변했다. 3·1 운동이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서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 동종동근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이다,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 가히 민족반역자로서의 극명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 아들 항구도 남작을 받았으며, 손자 이병길, 이병희 등도 모두 귀족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는 등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8·15 후 그 후손의 손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없어지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민

죽해방운동전선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친일파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과정에서 그것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졌다.

3) 송병준

친일행위만 따진다면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송병준은 탁월한 처세술과 풍채로 미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입지전적 인물이다. 신분이 낮은 그는 충정공 면영환의 은고를 입어 그 맥 식객이 되어 충정공의 천거로 출셋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수문장을 거쳐 강화도 조약 때 그 접견사 수행원으로 일본전권 구로다 일행을 접대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의 친일의 단서가 풀리고, 그 뒤 그는 칩락과 승려 오쿠무라와 함께 1877년 9월 입선한 죽음의 상인 오쿠라와 손잡고 부산에 상관을 차렸으나 반일 민중에게 곧 박살이 났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성난 반일 군중에 의하여 부산의 상관이 소실될 때까지의 몇 년 동안 송병준은 상당한 축재를 하였다. 이 일로 인해 일본의 보호가 없이는 조선의 백성들 틈에서 돈도 생명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는 친일을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이준 열사의 헤이그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송병준은 칼을 차고 어전회의에 들어가 고종에게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천황에게 사죄하든가, 통감 이토에게 무릎을 꿇어 사죄해야 하는데, 이토에게 사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만일 그럴 경우에는 폐하를 죽이고 자살하겠습니다.”고 엄포를 놓은 뒤, 둘 다 불가할 경우는 순종에게 자리를 양위하도록 협박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고종은 왕위를 순종에게 양위하고 영친 왕을 일본에 인질로 보냈다. 송병준의 이와 같은 무례함은 역사상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후 내무대신이 되고 나서 순종의 순행 문제로 순종에게 질책을 받자, 순종의 왕위를 영친 왕에게 넘기려는 공작을 획책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하였다.

사상이나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리나 지조가 있었던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상황에 맞추어 처신하는 처세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렇기에 신분사회에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고아처럼 자란 그가 관직에 오르고 백작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충정공 민영환이 순절한 직후 그의 재산을 횡탈하려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는 민태호의 애첩 홍씨가 자기의 생모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찾으려 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또한 친구 김시현이 죽은 후 그의 재산 관리를 맡고서는 친구의 부인까지 농락하고 재산을 가로챘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송병준은 이 일을 낭설이라 보도하면 사례하겠다고 <국민신보>에 제의했다가, 이마저 배신하는 바람에 <국민신보>의 이강호가 그 진상을 폭로하였다고 한다. 가히 파렴치범이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거리낌 없이 해치우던 그는 결국에는 1억 엔에 나라를 흥정하는 짓거리까지 하게 된다.

그가 1904년께 일본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조슈 군벌을 대표하던 수상 가스라와 말을 주고받던 중 가스라가 “가령 한국을 병합한다고 하면 웬만큼 돈이 필요할 터인데 얼마쯤 있으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송병준은 당장 되받아 “1억 엔은 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병합을 무난히 실행시켜 보이겠다.”고 한다. 이런 그에게 개인적 양심은 물론이고 민족적 양심을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 것이다. <조선귀족열전>에 “송은 일본을 흠모하여 신변의 의식주는 물론,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풍을 모방, 추호도 일본 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도 있듯이, 파렴치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반민족 범죄자로서도 그는 제 1의 서열에 오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친일 매국노 제 1호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1925년 12월 1일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뇌일혈이라곤 하지만, 매판 실업가 한상룡이 주최한 연회에서 누군가에게 독살된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송병준의 백작 작위는 아들 송중현이 물려받았다. 1945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추원리에 있던 송병준의 집 마당의 벚꽃 나무와 그의 묘역에 있던 일본송이 전부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한다. 죽고 나서도 일본과의 인연을 끊지 못한 기묘한 일이라 하겠다. 한일 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 1등 자작과 매국공채 10만 원을 받았다. 1920년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급한다.

5. 위 친일파의 후손들

1) 방상훈

일제 하에서 친일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사과나 반성은커녕 항일 민족지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창간 84주년을 맞는 조선일보는 보도 태도나 운영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꺾은 층 불참을 유도한 듯한 사례, 자전거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관측을 했다. 또 일제에 부역하고 독재에 유착해서 성장한 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형평에 어긋난 판결이지만 탈세범이라는 부끄러움은 지워지지 않고 남을 것이다.

2) 이윤형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 일대 712 평(시가 30억 원대)을 돌려달라는 2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완용 후손의 재산 되찾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92년. 93년에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이 당시 경기 여주군 북내면 일대 758평의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각 독립유공 단체를 비롯해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국회의원들도 ‘반민족행위자

재산물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93년 12월 상정했다.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자 재판에서 재산을 찾을 경우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승소하자 곧바로 매각한 뒤 캐나다로 도주했다

3) 송돈호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환 운동을 펼친 끝에 미군기지 이전 결정을 따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해당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 7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20 미군부대 땅 13만 3천 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가운데 2,956평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을 내 4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송병준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군부대 터는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미군기지 이전 운동으로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곳이며, 이전 뒤엔 학교와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송병준이 임야의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아 취득했는데도, 1945년 해방된 뒤 미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원 소유주인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송병준 후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만 평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아 평당 220만 원씩, 440억 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전에도 송병준의 후손들은 1990년대 이후 국내 곳곳에 있는 땅에 대해 4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내 3차례는 패소하고, 경기도 양주군 일대 1,800평에 대한 소송에선 승소한 적이 있으며, 1993년 이완용의 증손자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들의 재산물수를 위해 '반민족행위자 재산 물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3대 항일 명문 우당 이회영, 왕산 허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짝막하게나마 업적에 대해서 썼고, 또 그 분들의 후손인 이항중, 이종걸, 허도성에 대해서도 썼다.

친일파로는 이완용, 송병준, 방응모와 그들의 후손은 방상훈, 이윤형, 송돈호에 대해 썼고, 다른 송병준 후손들에 대해서도, 또한 이완용, 송병준이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땅을 그 후손들이 찾기에 나섰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썼다.

세상의 모든 친일파, 독립유공자 분들을 다 찾아서 쓰자면 이걸 쓰는 데만도 이렇게 영성해지는데, 다른 분들까지 쓰면 아쉽지만 분량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자료를 찾는 것만 해도 나 하나의 역량으론 감당하기가 어려울 듯했다. 그래서 독립유공

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3명 정도만 선정해서 그 분들의 업적이나 역사적 진실을 살펴보고, 친일파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3명을 정해 친일 행각, 또 그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약간이나마 대비시켜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참담하기 까지 했다. 이렇게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 이 정도면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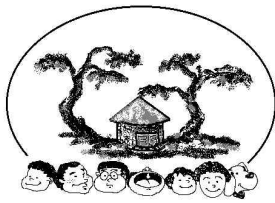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엔 친일에 대한 반성과 청산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친일파들, 그들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했고, 그들의 후손 역시 선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세를 등에 업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사회로 편입해 부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바로서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곤 한다. 민족 반역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는 기타 범죄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다. 나라 팔아먹은 것도 일본 앞잡이 노릇 하던 것도 다 용서가 되고 잘 살면서 평평거리는 세상에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이 무슨 죄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미 늦었지만, 역사의 사실만은 제대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리고 요즘 친일인명사전이니 뭐니 해서 잠깐 시끄러웠었는데, 친일파에 대한 진상을 밝혀거나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대책도 따로 다르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참고 자료

- 친일파 99인 - 반민족문제연구소, (돌베개), 1993
- 친일파 II - 김상용, 정운현, (학민사), 1992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20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 이이화, (한길사), 2004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21 해방 그날이 오면 - 이이화, (한길사), 2004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22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 이이화, (한길사), 2004
-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 이덕인, (웅진출판)
- 한국사 시민강좌 - 일조각, (일조각), 2001
-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 민족문제연구소; 독립기념관; 국회도서관 자료 들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에 대한 연구



박도일

1990년 01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출생
1남 1녀중 장남
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산초등학교-아양초등학교 졸업-제천간디청소년학교 졸업예정
2004년 4월 대구지구 고입검정고시 Pass.
아름다운 마음 간디인상 수상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갑고면력', '발전향상', '고진감래' 상 수상
혈액형 / RH+A형
별명 / 따옥이, 박돌, 돌돌 굴러가유, 책벌레, 범생이
취미 / 왕따 놀이하기, 전 과목 공부하기, 책읽기, 아이들 눈 가리기,
구석에서 울기, 음악 듣기, 사진 찍기, 논문 쓰기
특기 / 독서, 서술이 약점 잡기, 땡땡이 안 치기, 말 잘 듣기, 게임
소속 / '영화감상부', 야구동아리
좌우명 / "양심 있게 살자"
하고 싶은 말 / "간디여러분 사랑해요, 쌤들 너무 고마워요"

■ 2004 졸업 논문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에 대한 연구』

■ 발표자 : 김태규

■ 지도교사 : 손진근 선생님

차 례

I. 서론_ 189

1. 논문 목적_ 189
2. 연구 방법_ 189

II. 본 론_ 190

1. 빈곤이란_ 190
 - 1) 빈곤의 세 가지 측면_ 190
 - 2) 빈곤의 정의_ 191
2. 신빈곤이란?_ 192
 - 1) 신빈곤의 속성_ 192
3. 빈곤의 원인_ 194
 - 1) 심리주의적 관점_ 194
 - 2) 기능주의적 관점_ 195
 - 3) 구조주의적 관점_ 195
4. 간디학교에서 바라보는 빈곤_ 195
 - 1) 인터뷰 내용_ 195
 - 2) 인터뷰 분석_ 195
 - 3)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의 대물림 이유_ 196
5.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 해결 방안_ 197

III. 결론_ 197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에 대한 연구

1.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다들 TV에서나 신문에서 보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빈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 논문을 통해서 좀더 빈곤이 어디서 오고 왜 오는지 빈곤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몇몇 제 3세계 나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제 3세계 나라 연구로 하는 동안에 저는 빈곤은 전쟁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타당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우리나라 빈곤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주제를 바꾸었다. 시간상 빈곤 문제를 다룬 기사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간추리고 정리하여 논문을 쓰려고 했으나, 책의 내용만 간추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좀더 기억에 남는 나의 논문을 만들기 위해 또 한번 논문 주제를 바꾸어 이렇게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이 논문을 통해 빈곤과 신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뷰를 통해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에 대해 생각을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빈곤의 개념과 빈곤의 정의 등 이론적인 부분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한다.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논문을 쓰고, 또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여 그 결과로 통계를 내고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을 쓴다. 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다.

3. 이 논문의 한계점

1)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에게 빈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의 개념이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견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2) 우리 전교생 73명 중 1학년 아이들은 빈곤에 대한 지식과 자신만의 주장이 없고, 빈곤에 대한 지식이 다른 학년보다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1학년 아이들을 제외한 2, 3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하였으므로 간디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딱 정해 말할 수 없다.

II. 본론

먼저 간디청소년학교 학생에 빈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빈곤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자.

1. 빈곤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주로 물질적인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을 말한다.

1) 빈곤의 세 가지 측면

빈곤은 사회복지학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일어나고 있다. 빈곤은 인간사회와 더불어 존재하여 왔으며,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빈곤은 세 가지 측면, 즉 ① 집단적 빈곤, ② 순환적 빈곤, ③ 개인적 빈곤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집단적 빈곤

'집단적 빈곤'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집단이나 국민이 겪는 빈곤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가 나쁘다든지 지하자원이 고갈되었다든지 황무지와 같은 황폐전답이 많다든지 하는 국민이 처한 조건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곤에 머물게 된다는 견해이다.

(2) 순환적 빈곤

'순환적 빈곤'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으로 닥쳐오는 빈곤을 말한다. 춘궁기에 먹을 것

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 빠진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경제적 공황이나 갑작스런 기후의 변화에 의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 인구의 실직, 시기적 빈곤 상태 등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3) 개인적 빈곤

‘개인적 빈곤’은 개인적으로 지닌 불우한 처지를 말한다. 즉 자신이 무능력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이고, 가정적으로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는 경우이며, 난치의 질병에 걸려 활동이 어렵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넘마주이, 구두담이, 껌팔이, 구걸 등의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 빈곤에 해당되는 것 같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차원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빈곤은 개인과 가족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다. 예컨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결하며, 유해하고, 학력이 없어서 경제활동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부적절한 영양섭취로 건강을 잃고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비행, 범죄, 마약, 알코올 중독 등 많은 사회병리 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빈곤의 정의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은 ‘개인과 집단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개인과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절대적 빈8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빈곤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을 ① 절대적 빈곤, ② 상대적 빈곤,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자원과 생활양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영국의 라운트리는 빈곤연구에서 절대적 빈곤은 전체 소득이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준을 획득하지 못한 가정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최저수준은 생계비 또는 영양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은 기준이 되는 빈곤선, 즉 최저생활의 기본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스트리턴과 버어키는 생활의 기본수요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최저생활 수준은 최저생존을 위한 수준으로 보고, 2단계 최저생활 수준은 지속된 생존을 위한 수준으로 보며, 3단계 최저생활수준은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수준으로

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상대적 빈곤은 자원이나 생활양식에 의한 상대적 관점으로서 불평등과 불균등한 배분의 결과인 상대적 박탈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빈곤은 기아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이러한 것이 해결된 상황에서 불평등을 의미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결정되지만, 상대적 빈곤은 중간계층의 가족 소득 비율을 빈곤선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순수상대빈곤과 유사상대빈곤이 있다. 즉 순수상대빈곤은 전체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유사상대빈곤은 전체 사회에서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2. 신빈곤이란?

신빈곤이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에 의해 연유되는 빈곤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신 자유주의적이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혁명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평등을 수용하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과감하게 수정한다. 그것이 사회민주주의고, 복지자본주의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평등이 배제된 약육강식의 18,19세기 초기 자본주의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

1) 신빈곤의 속성

(1) '노동빈곤'으로서 신 빈곤

먼저 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물질적 박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 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 상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이 확산되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유연적인 고용체제 하에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인 불완전 고용층, 이른바 '비정규직노동자층'이 늘어나면서, 단순취업을 통해 빈곤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빈곤 탈출의 의지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도 다소나마 열려 있는 차상 위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빈곤층으로 적체되면서, 빈곤층의 외연이 확장되는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빈곤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빈곤이 신빈곤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2) '상대적 빈곤'으로서 신 빈곤

구빈곤이 총체적 결핍상태에 처한 절대적 빈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면, 신 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 물론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완전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빈곤 문제의 새로운 전망가능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 문제의 무게중심이 절대적 빈곤에 놓여졌던 시절에는 상대적 빈곤은 빈곤문제의 중요성으로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절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점차 완화되기도 했지만 자산소유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크게 벌어졌고,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는 임금소득에서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 격차의 증폭' 문제가 빈곤문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 '복합적 빈곤'으로서 신 빈곤

빈곤 문제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물질적 결핍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빈민의 생활 전반을 다각적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적 부조 등을 통해 경제적 결핍 상황을 모면하면 곧바로 빈곤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 상황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배제, 문화·심리적 차원의 소외, 공간적 차원의 격리 등이 경제적 차원의 결핍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사회적 배제나 문화·심리적 소외가 완화되지 않고는 경제적 결핍 상황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최근의 빈곤 상황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예컨대, 빈곤층의 내부구성을 보면 빈곤층은 독거노인, 여성 가구주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심신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배제나 이들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사회적 배제나 문화·심리적 소외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주거 빈곤을 해소해서 빈곤층의 경제적 사정이 다소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낙오자'라는 오명은 이들을 빈곤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이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문화·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된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보여 준다. 즉 빈곤 문제가 과거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의 결핍만을 뜻하던 기존의 빈곤 개념으로는 현 단계 빈곤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의 복합성과 다차원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빈곤 개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서 신 빈곤은 구 빈곤과 달리 물질적 빈곤에 심리적·문화적 소외, 공간적 격리 등이 결합된 상황을 가리킨다.

(4) '심리적 고립'으로서 신 빈곤

빈곤이 소수의 못 가진 자들의 문제로 범위를 일정부분에 한정하게 되고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태도는 점차 사라지고 이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등 빈곤층과 비 빈곤층 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빈곤층에 대한 공간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층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한 빈곤층의 심리적 고립이 신빈곤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있다.

3.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꼭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답은 불가능하다. 빈곤에 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많은 학자들은 저마다 그 원인의 분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빈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영역 밖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성이나 개인의 심적 태도, 정신적 빈곤 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① 음주, ② 질병, ③ 부상, ④ 직장불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음주를 살펴보면 음주의 심적인 근원은 너무나 극심한 육체노동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빈곤자는 질병이 많은 자, 발병 우려가 있는 자일 경우가 크다. 이로 인해 직장의 결근율이 높고 결국 빈곤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가 부상이라는 상황에서 항상 직면해 있다. 한 번의 실수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빈곤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불만과 함께 정신력이 감퇴되어 생활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빈곤의 원인을 분류해 보면, 1) 심리주의적 관점, 2) 기능주의적 관점, 3) 구조주의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1) 심리주의적 관점

빈곤 원인을 개인의 동기 부족, 낮은 열망 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 출산, 부적응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2) 기능주의적 관점

빈곤 원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저교육 수준, 부적응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것은 상호작용적이거나 기능적 부적응을 중요시한다.

3) 구조주의적 관점

빈곤 원인을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 등의 비소유와 중속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현존의 자원 배분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4. 간디학교에서 바라보는 빈곤

간디청소년학교에서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디청소년 학교 학생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1학년 아이들은 빈곤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 1학년을 뺀 중2 20명, 중3 12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1) 인터뷰 내용

- * 빈곤한 사람은 왜 빈곤한가?
- *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 *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논문의 주제가 간디학교에서 생각하는 빈곤 문제이므로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과 가장 주제에 잘 맞는 질문이라서였다.

2) 인터뷰 분석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결과 빈곤은 개인적 책임에 있다는 심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심리주의적 관점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다. 인터뷰를 응하여 준 32명 학생 중 8명의 학생들이 의견을 내 주었다.

(1)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본 심리주의적 관점

심리주의적 관점으로서는 대부분 개인의 동기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간디청소년학교 8명의 학생들이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주었다.

-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니까 빈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중2, 3명).
- 갑작스런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한 회사 부도로 인한 많은 부채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중2, 3명).
- 개인의 사치생활로 인해 빈곤이 일어난다(중3, 1명).

- 도박으로 인해 빈곤생활을 하게 되었다(중2 1명).

이렇게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리주의적 관점을 보면 모든 것이 대부분 자신의 동기부족이나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한 빈곤의견이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빈곤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터뷰를 응해 준 32명의 학생 중 24명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의견을 내주었다.

(2)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본 구조주의적 관점

- 부유한 사람과 빈곤층의 사람이 같은 시간을 두고 일을 하여도 부유한 사람이 훨씬 많이 벌어들여 돈이 부유층에서만 돌게 되고, 빈곤층의 사람들을 언제나 조금 밖에 벌 수 없기 때문에 빈곤이 일어난다(중2 14명).

- 사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공부를 하여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출세하고 조금 뒤쳐지는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서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일어난다(중2 2명 중3, 6명).

-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적성이 맞지 않으면 빈곤이 일어난다(중3, 1명).

- 부유층과 빈곤층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일어난다(중2 1명 중3, 2명).

- 사회에 살면서 운이 없으면 빈곤생활을 하게 된다(중3, 1명).

- 자본주의의 지나친 산업 발달로 인해 빈곤하게 된다(중2 1명).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은 거의 의견이 하나로 뭉치다시피 부유층 사람들의 욕심과 일자리 부족으로 볼 수 있었다. 처음에 설명하였듯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단순한 의견들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3)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의 대물림 이유

빈곤에서도 빈곤의 대물림 때문에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에 자식도 가난하고 또 그에 자식도 가난하고 왜 빈곤이 대물림되어야 하는지 간디청소년학교 학생 중 2명의 학생의 의견이다.

- 부유한 사람들의 자기 욕심과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커다란 정책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중 겨우 몇%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TV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불우이웃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가난의 대물림은 끊을 수 없을 것이다(중2 1명).

- 빈곤한 사람은 계속 빈곤하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건 부유층의 욕심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기 때문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기부를 하지 않으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쉽지 않다(중2 1명).

4) 빈곤 문제를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간디청소년학교 학생 남·여 29명을 상대로 빈곤의 문제를 어디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았다.

- 자신의 생각(중2 5명 중3, 8명 총13명).
- TV나 인터넷(중2 7명 중3, 5명 총12명).
- 책이나 잡지, 신문(중2 4명).

보통의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얼핏 들은 것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내 주었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이들도 꽤 적지 않게 있었다. 그 밖에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된 아이들도 있었다.

5.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빈곤 해결 방안

1) 개인적 차원

자기 자신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열심히 노력을 한다.

2) 사회구조적 차원

나라에서 대대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 같고, 너무나도 심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부제도나 다른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 미국의 경우처럼 많은 부유층이 연간 아주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게 하며, 실직자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빈곤의 기초적 이론과 빈곤의 정의에 알아보고 간디학교에서 생각하는 빈곤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빈곤은 자본주의가 형성되며 사회적 배제의 한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빈곤층이 점점 소외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빈곤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간디학교 학생들의 의견들을 보면,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저마다 자기 자신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둘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미국처럼 기부제도 활성화,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아직 빈곤층에서 일어나는 빈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논문을 통해 좀더 빈곤층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며,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빈곤층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을 완전히 소외시킬 수는 없어도 상당히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마우신 분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저의 담임선생님 병삼 Teacher and, 지도교사 선생님 진근 Teacher,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 희숙 Teacher, 전산실에서 언제나 같이 논문을 쓴 우리 중3 아이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논문 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참고문헌]

도서명 : 빈곤과 자립

지은이 : 박용순

출판사 : 학지사 펴냄

도서명 :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지은이, 출판사 :

걸개그림 그리기



배유리 _

1989년 05월 23일 서울 (정확히는 포항) 출생

1남 1녀 중 차녀

안평초등학교 - 장평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태뺨사랑상' 상 수상

혈액형 / RH+ A형

별명 / 배울장군, 갈아만든 배(쓰덕), 울배, 그지같은 삼장(부야), 바보(통칭),

야배(이시마루), 배울, 대총통(부야), 성룡(짹짹), 아빠(딸짹짹)

취미 / 낙서+아끼는('아끼는'이라고 쓰고 '쓸데없는'이라고 읽는다) 것들로 가방을 묵직하게

만들고 난 뒤 산책으로 가장하고 만화책방을 향해 간다.

특기 / 낙서+쓸데없는 일에 진지해져 보기

소속 / 연가, 영감님, 배씨가문, 중3(사실은 별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

좌우명 / “어느 쪽이든 될 대로 되니까 적당히 잘 하자(되도록 열심히).”

하고 싶은 말 / “아무쪼록 잘 살자.”

- 2004 졸업 논문
『걸개그림 그리기』
- 발표자 : 배유리
- 지도교사 : 오영란 선생님

■ 차례

- I. 서론_ 201
 - 1. 이 논문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_ 201
- II. 본론_ 201
 - 1. 걸개그림에 대해서_ 201
 - 1) 걸개그림의 정의_ 201
 - 2) 걸개그림의 역사와 특징_ 201
 - 2) 다른 작품 소개_ 202
 - 1) 민족해방운동사_ 202
 - 2) 오월에서 통일로_ 203
 - 3) 한열이를 살려내라_ 204
 - 4. 나의 작품 소개_ 204
 - 5. 진행 과정 소개_ 204
- III. 결 론_ 206
 - 1. 느낌 정리_ 206
 - 1) 논문을 쓴 후 느낀 점_ 206
 - 2) 끝으로_ 207

걸개그림 그리기

I. 서론

- 이 논문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교실 뒤쪽 벽에 벽화가 있기는 하지만, 복도나 운동장, 강당은 너무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장 근처, 도서관 밖의 벽이나 조희대, 복도에 벽화를 그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으나, 장소도 마땅치 않고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외보다는 차라리 문화의 밤이나 축제 등 여러 행사를 하는 건물 내의 강당 앞쪽 벽(초록색 부직포를 붙여놓은 부분)에 벽화와는 달리 필요할 때에만 따로 걸 수 있는 걸개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 그림으로 학교와 학교 행사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바꿔 놓을 수 있다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II. 본론

1. 걸개그림에 대해서

1) 걸개그림의 정의

각종 집회나 행사장, 시위 현장 등에 내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의 내벽이나 외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든 그림. 주로 반체제적인 내용을 특별한 형식 없이 표현한다.

2) 걸개그림의 역사와 특징

걸개그림은 민화, 불화 등 전통미술 양식에서 발전된 것으로, 불교의 괘불화에서 이름을 따서 괘화라고도 한다. 주로 공동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미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민중미술의 한 형태로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열기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시장 밖의 현장미술로 표현되며, 판화, 벽화 등과 함께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민중에게 쉽게 다가서서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형식이다. 대중의 의지와 집회의 성격, 목적 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강렬하면서도 선동적인 색채로 시각적 효과가 강하다.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장점이 있으며, 무대미술이라고 표현될 만큼 대형 작품이지만 벽화와는 달리 바로 떼어낼 수 있는 용이성이 있다. 요즘에는 학교 등의 행사 분위기를 위한 걸개그림을 만들기도 한다.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선명성, 투쟁성을 보다 강조하는 미술의 사회 실천이 본격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동시에 대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걸개그림의 기본 형식이 마련되었다. 특히 오윤의 목판화 형식을 비롯하여 판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굵은 선을 사용하는 걸개그림의 틀이 만들어진다. 걸개그림은 80년대 민족, 민중미술운동의 실천적 성과의 한 요약체라 볼 수 있는데, 깃발, 벽보, 플랜카드 등과 함께 선전, 선동의 목적으로 대중투쟁 속에서 그 현장에 모인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걸개그림이 최초로 선을 보인 것은 84년 광주문화 큰잔치 등에 사용된 <민중의 싸움>이었다. 또한 걸개그림 중에서도 굵은 선을 더욱 간결하게 처리하고 내용을 압축하여 한두 인물을 부각시키는 양식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작품은 5.18 광주항쟁 8주년 기념 5월 제 기간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걸렸던 <오월에서 통일로>였다. 그 후로 각 대학의 집회나 행사 때에는 언제나 대형 걸개그림이 걸리게 됐다.

걸개그림은 대중 집회나 시위 등 그 현장에 모인 목적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단기간 내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미적 측면보다 지나치게 선동성이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이 아닌 선전도구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으며, 예술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전문적인 창작 소집단이 만들어지고 미술작품으로서의 질적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php?id=702353>)

2. 다른 작품 소개

1) 민족해방운동사

이 그림은 걸개그림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갑오농민전쟁에서부터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를 민중사적 관점에서 형상화한, 세로 2.6m, 가로 77m의 대형 걸개그림이다. 이 그림은 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국 6개 지역의 미술 단체와 학생 미술패



연합 산하 30여 개 대학 미술패 동아리가 함께 연대해 제작했다. 11폭으로 구성된 이 그림은 각 미술패가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안배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광주시각매체 연구소에서 제작한 ‘광주민중항쟁’ 부분은 80년 5월의 상

황들이 서술적 방식으로 밀도 있게 표현돼 있다. 계엄군의 잔인한 살육만행과 그에 죽어가는 임산부와 분노하는 시민들, 햇불시위, 시민들의 항거 및 무장 투쟁, 그리고 해방공간의 공동체적 삶과 문화선 전활동 최후까지의 저항 등 비교적 안정된 묘사력으로 5 18 민중항쟁의 전 과정을 극적 효과 없이 균열하게 나열해 놓고 있다.

(위의 사진은 <민중해방운동사> 중 ‘광주민중항쟁’ 부분이다.)

(출처: http://altair.chonnam.ac.kr/%7Ecnu518/data/data7_4533.html)

(사진 출처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69704&rel_no=1)

2) 오월에서 통일로



5 18광주항쟁 8주년 기념 5월제 기간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걸렸던 그림. 높이 11m, 너비 37m에 달하는 그 크기부터가 대단하다. 엠보싱 천을 이어 만든 노랑색 바탕에 유성도료로 그린 이 그림은 아래쪽에는 광주항쟁을 압축해서 그려 넣고, 성조기를 잡아 찢는 두 남녀의 등 돌린 모습에서 느껴지는 힘찬 표정은 벽화적인 박진감이 넘쳐흐른다.

(출처 : http://altair.chonnam.ac.kr/%7Ecnu518/data7_4533.html)

3) 한열이를 살려내라

1987년 6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 이어진 6월 시민항쟁 때 여의도의 어느 행사장에 내걸렸던 그림. 당시의 원본 작품은 우리나라 걸개그림의 효시로 인정되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http://www.nongbalge.or.kr/choi/choi.html>)



4. 나의 작품 소개

강당 앞쪽 벽에 걸 것으로, 광목천에 아크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 길이는 가로 약 4m 70cm, 세로 약 110cm 정도이다. 주제는 사계절의 꽃들과 구름이며, 교내의 많은 행사에 무난하게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그렸다.

5. 진행 과정 소개

■ 9/8 水

주제는 자연과 동심을 위주로 한 사계절로 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그림에 들어갈 사계절 꽃(봄-개나리, 진달래, 여름-해바라기, 가을-코스모스, 국화, 겨울-동백꽃)의 사진을 찾아보고 스케치. 아이들의 사진도 조금 찾아보았다.

■ 9/11 金

도안 그리기 시작. 학생들에게 동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 동심을 떠올리는 그림으로 중점을 두고 그렸지만 색깔이 단색이라서 그런지, 애초에 구성을 잘못된 것인지 너무 산만한 느낌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찝찝하다. 맨 처음부터 다시 도안하고 싶기도….

■ 9/14 火

선생님과 얘기해 보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린 도안이 걸개그림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을 4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가로로 길게, 주제나 분위기

를 바꾸어서 그리기로 결정하고 처음부터 새로 도안을 그렸다. 여전히 사계절의 꽃을 위주로 하고 바람 등을 그렸다. 대충의 색감 등도 정했다.(위쪽 그림이 새로 그린 대충의 도안, 아래쪽 그림이 제대로 열심히 그린 도안.)



■ 9/15 水

광목천에 시접을 덧대고 미싱. 천이 길어서 좀 고생했다.



■ 9/17 金

젓소 칠 첫 번째. 낮에는 날씨가 맑아서 금방 말랐는데, 저녁에 갑자기 비가 와서 잘 마르지를 않았다. 도안은 그림을 너무 빡빡하게 채워 버려서 그릴 때 조금씩 수정하기로 했다.

■ 9/18 土

젓소 칠 두 번째. 처음엔 비가 와서 잘 마르지 않았지만 보일러를 틀어 놓으니까 굉장히 빨리 말랐다. 밑그림까지 완료. 도안을 8구역으로 나누고 천도 나누어서 표시한 후에 8구역의 부분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무척대고 그리는 것보다 쉬웠다.



■ 9/19 日

색칠 시작. 꽃을 잘 관찰하지 않고 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크릴 물감이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충주에 나가는 선생님이 있으면 부탁해야 한다.

■ 9/20 月

해바라기 등을 자세히 그렸다.

■ 9/21 火

바탕 색칠. 해바라기 쪽은 아쿠아 마린 톤으로, 코스모스 쪽은 주로 파란색으로, 진달래와 동백꽃 쪽은 하늘색으로 칠했다. 구름을 칠하기 시작했다.



■ 9~

앞막, 구름에 열게 색을 넣는 등의 마무리 작업, 논문 발표



논문 발표 장면

III. 결론(끝나고 나서의 느낌)

1. 느낀 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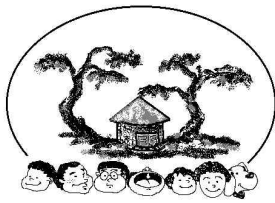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1) 논문을 쓴 후 느낀 점

문서상의 이론은 어느 정도 미리 어렵지 않게 써두었지만, 정작 작품은 선생님과도 미리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준비도 잘 해두지 않아서 후반에 가서야 발표가 가

까워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그렸다. 아아, 정말 한시가 바쁘다! 평소의 게으름이 이런 곳에서 나타날 줄은... 그만큼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하늘을 찔렀지만..., 역시, 졸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번 논문이 학교 행사에도, 앞으로 내가 그릴 그림들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

2) 끝으로

이번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느낀 것은, '아아, 간디학교는 입학도 입학이지만 졸업하기 진짜 어렵구나 하는 것이었다.'... 전산실에서 새벽까지 논문 쓰느라 중 3들 죄다 진짜 많이 고생했고 사랑해(이봐, 이제 논문의 악몽도 끝났어) 영란 쌤도 감사, 느끼적거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기는 했지만 어떻게든(정말 어떻게든) 끝냈으니 잘 된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p



디지털피아노의 기능과 활용



양원준

1989년 05월 02일 대구 출생

1남 1녀 중 차남

아기스포츠팀단 - 삼덕초등학교 - 부상초등학교 - 은곡초등학교 - 신안초등학교

간디청소년학교(졸업 예정), 간디청소년학교 부회장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초등6), 한글날삼행시특별상 수상, 간디인상 수상

혈액형 / RH+ O형

별명 / 원숭이, 원돌이, 원중구라모토, 아가원숭이, 비, 양손이, 마시마로, 양재수

취미 / 드라이브, 창 밖 멍하니 바라보기, 뱀 잡기

특기 / 간지럽히기, 눈 안 뜨고 걸어다니기, 자빠지기, 줄넘기, 춤추기, 흙물거리기

소속 / '솔뫼바람', 병아리, 개그스쿨1기, 아가길드

좌우명 / “눈감고 느끼며 살자.”, “병건이 어디 갔니???”

하고 싶은 말 / “나의 말에 99.9%는 구라요, 0.1%는 진답이니라, 구라모토 만세!!!!”

P.S 84륜 자동차 구라다 ㅋㅋㅋ

- 2004 졸업 논문
『디지털피아노의 기능과 활용』
- 발표자 : 양원중
- 지도교사 : 이영민 선생님

■ 차례

1. 논문 동기_ 211
2. 디지털피아노란?_ 211
3. 디지털피아노의 기능_ 211
 - 1) 음색 채널_ 211
 - 2) 리듬_ 212
 - 3) 자동반주_ 212
 - 4) 시퀀서_ 212
 - 5) 녹음_ 212
 - 6) 디스크_ 212
 - 7) 미디_ 213
4. 디지털피아노의 활용과 작품 설명_ 213
5. 하고 난 소감_ 215

디지털피아노의 기능과 활용

1. 논문 동기

평소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만 골라서, 악보도 대충 보면서 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좀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을 이용해 피아노학원으로 열심히 배우러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논문과 연관지어서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로 논문을 정하면 좋겠다고 마음먹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냥 피아노를 논문으로 쓰기보다는 기능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피아노를 주제로 삼게 되었다.

2. 디지털 피아노란?

디지털피아노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넓은 음악의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색을 가질 수 있다. 리듬은 물론 자동 반주 등 각종 특수 효과 기능이 반도체에 입력되어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으며, 전문 연주자의 섬세한 감정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악기이다.

특히 연주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 재생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과 표준 미디 파일로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 편집, 재생할 수 있는 시퀀서 기능 등, 뮤직라이브러리를 통한 시범 연주곡과 미디를 통한 연주로도 즐길 수 있는 악기다.

3.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

1) 음색 채널

이 악기에는 128가지의 기본 악기 음색과 드럼 채널에는 8개의 드럼 키트가 내장되어 있다. 음색 채널에는 고음부, 저음부, 음색 혼합, 드럼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원하는 음색 채널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음색 채널을 건반에 할당시켜서 배열하며, 선택된 음색 채널 표시등에 불이 켜진다. 고음부, 저음부, 음색혼합 채널은 복합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드럼 채널은 다른 음색 채널과 복합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2) 리듬

48가지의 기본 리듬과 함께 각 기본 리듬에 대하여 반주 형태들의 Standard, Room, Power, Electric, TR808, Jazz, Brush, Orchestral을 곡의 장르나 분위기에 따라 변화된 반주로 선택할 수 있다.

3) 자동반주

자동반주 버튼을 누름에 따라 인텔리전트, 화음 연주, 피아노 모드 기능이 있다. 인텔리전트 및 화음 연주 기능을 선택하면 피아노 건반은 반주 건반 및 멜로디 건반으로 분리되며, 피아노 모드 기능을 선택하면 피아노 건반은 반주 건반인 동시에 멜로디 건반으로 사용된다.

(1) 인텔리전트- 리듬이 연주되는 동안 반주 건반을 누르면 가장 근접한 코드를 기본으로 한 화음이 반주 음과 함께 연주된다.

(2) 화음 연주 - 연주자가 화음에 맞는 반주 건반을 모두 누름으로써 배경화음이 반주 음과 함께 연주된다.

(3) 피아노 모드- 연주자가 화음에 맞는 피아노 건반 모두를 누름으로써 배경화음이 연주음과 함께 연주되도록 할 때 선택된다.

4) 시퀀서

시퀀서 기능을 통해 디스켓으로부터 미디호환 파일들을 읽어 들여 재생할 수 있으며, 녹음한 곡들을 재생 및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다.

5) 녹음

실시간 녹음 기능과 스텝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시간 녹음 기능은 녹음 대기 상태에서 리듬 반주를 시작하여 빠르기 및 실제 연주되는 정보를 실제의 시간에 맞추어 녹음하는 방법이며, 스텝 편집 기능은 각 스텝의 편집 화면에서 원하는 지점의 연주 정보를 편집하는 방법이다.

6) 디스크

IBM 호환 기종의 MS-DOS 상에서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시퀀서에서 만들어진 미디 파일에서 규정하는 표준 미디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

(1) 미디 파일 열기(Load Song) - 디스켓에 있는 SMF 형식의 미디 파일을 메모리로 읽어 들일 때 사용한다.

(2) 미디 파일 저장(Save Song) - 녹음 또는 편집된 미디 파일을 디스켓에 저장할 때 사용된다.

(3) 유틸리티

(4) 디스켓 초기화 - 디지털피아노에 사용하는 3.5인치 디스켓을 초기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3.5인치 디스켓에는 2DD와 2HD의 두 종류가 있으며, 2DD의 경우에는 20KB로 2HD의 경우에는 1.44MB로 초기화된다. 디스켓을 초기화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삭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등록 정보 파일 열기(Load Reg) -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6) 등록 정보 파일 저장(Save Reg) -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의 등록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7. 미디(MIDI)

1) 입력 채널

미디 단자를 통하여 입력되는 16개 채널의 정보를 각각의 음색, 음색 2, 반주, 베이스, 드럼, 채널로 인식할 것인지 유무를 결정한다.

2) 출력 채널

미디 출력 단자를 통해 연주자가 건반을 정보 및 반주 부분의 정보를 외부기기로 전달한다. 외부의 시퀀서 프로그램이나 다른 제너럴 미디 악기를 이용해 정보를 받으면 작곡이나 편곡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음색으로도 연주를 즐길 수 있다. 연주 정보를 출력하는 3개의 채널의 값을 '출력무시(OFF)' 또는 '01'에서 '16'까지 설정할 수 있다.

3) 미디 환경 설정

디지털 피아노의 미디 출력 단자를 통해 연주 정보를 외부기기로 전달할 때 미디 관련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4.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과 작품 설명

연주곡 '구노의 아베마리아'

'J. S Bach 의 평균율 1권 C장조 Prelude'

구노의 가장 대중적인 음악인 아베마리아는 바하의 평균 1권 C장조에 붙인 선율이

다. 그는 소프라노, 바이올린, 풍금을 위한 이 곡에 <바하의 1번 프렐류드 위에 얹은 명상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사로는 아베마리아가 붙여졌다. 마치 한 사람이 작곡한 듯 무리 없이 작곡된 이 곡은 세계적으로 널리 연주되어 영화를 누린 만큼 <순수하지 못한 음악>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나는 이 곡을 디지털 피아노를 이용하여 두 가지 색채로 보여주고자 한다.

1) 'J. S Bach 의 평균율 1권 C장조 Prelude' -Andante Con moto- 1 / 연주환경

이 곡은 디지털 피아노를 일반 피아노로서의 활용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일반 피아노 음색으로 연습하던 도중 단조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음색 혼합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보던 중 일반 피아노로서의 활용인 만큼 피아노의 음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단조로움은 피할 수 있는 음색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슬로우 스트링과 혼합했더니 피아노의 음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색이 풍부해졌다.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단조롭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망설이는 듯한 연주가 되기 쉽다. 그러나 슬로우 스트링과 음색을 혼합한 덕분에 곡 전체가 풍부하고 섬여림의 표현도 쉬워졌다. 또한 잔향 효과 기능을 소리의 울림도 넓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구노의 아베마리아

1 / 연주환경

(1) 리듬

Jazz T/140. 재즈의 요소 자체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퓨전 음악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무거운 멜로디의 느낌을 다른 색깔로 표현하기 위해 Jazz의 리듬을 선택하게 되었다. 140의 템포가 문제가 되었다. 재즈의 비트를 살리려니 멜로디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템포를 늦추니, Jazz 답지 못했다. 고민하던 중 Tempo는 그대로 140을 유지하면서 멜로디 연주를 배로 늘렸다. 실제 연주 속도가 T/70인 셈이다. 즉 8박을 한마디로 잡았더니 전혀 멜로디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 더러 Jazz 특유의 비트를 살릴 수 있었다.

(2) 음색

이 곡은 두 번 반복되어 연주되는데, Jazz 리듬과 이 곡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음색을 찾던 중 비브라폰과 테너 색소폰을 선택하였다. 두 번 반복하여 연주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음색으로 연주하였더니 조금은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혼합 기능을 이용하여 고의 후렴부 부분부터는 슬로우 스트링과 혼합하여 연주해 보았더니 멜로디의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후렴부의 클라이맥스가 더욱더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3) 저장

쉽고 편리하게 연주하기를 돕고자 저장 공간을 사용하였다. 이 곡은 4가지 공간 (A1~A4)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리듬과 자동반주 등의 연주환경을 설정한 후 필요한 음색을 차례로 선택하여 저장한다.

비브라폰은 A1에, 비브라폰과 슬로우 스트링을 혼합하여 A2에, 테너 색소폰은 A3에, 테너 색소폰과 슬로우 스트링을 혼합하여 A4에 저장하였다.

5. 하고 난 소감

디지털 피아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논문 때문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좀더 나 자신을 잘 알게 되었으며, 음악에 대한 나의 지식도 많이 폭 넓어졌다고 생각 되어진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틈틈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디지털 피아노의 터치감과 소리의 깊이 등 아직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아주 조금 못 따라 가는 면은 있지만, 언젠가는 시대에 맞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악기로 자리잡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

코쌤, 큰 이모, 병건, 병우, 현민, 엄마, 아빠(?)

병삼쌤

<참고 자료>

인터넷: www.naver.com

www.dume.net

자료 : 조상익 16주 반주 완성

사진모델: 파워가람, 지백

개구리

울챙이 적 김가람

생각 못한다.



아버지 마리아

Bach-Gounod

Andante semplice

Violin

Piano

p sempre legato

Mit Ausdruck

Mit Ausdruck

p

pp

pp

dim.

cresc.

dim.

pp

The image shows a page of a musical score for 'Ave Maria' by Bach-Gounod. It features a Violin part and a Piano part. The tempo is marked 'Andante semplice'. The Piano part is marked 'p sempre legato'. There are several performance markings such as 'Mit Ausdruck', 'p', 'pp', 'dim.', and 'cresc.'. The score is written in G major and 3/4 time. There are various annotations in red and blue ink, including fingerings, slurs, and dynamic markings. The page is numbered 216 at the bottom left.

This page of musical notation contains ten systems of staves, each with a treble and bass clef. The music is heavily annotated with pink highlights and red markings. Handwritten notes in Korean and English are present throughout. Dynamics include *p*, *pp*, *dim.*, *cresc.*, and *tutta forza*.

System 1: Treble clef starts with *p* and *cresc.*. Bass clef starts with *pp* and *pp*.

System 2: Treble clef has *dim.* and *p*. Bass clef has *pp* and *cresc. molto*.

System 3: Treble clef has *cresc.*. Bass clef has *dim.* and *f*.

System 4: Treble clef has *cresc. molto*. Bass clef has *p* and *cresc. molto*.

System 5: Treble clef has *dim.*. Bass clef has *più f* and *tutta forz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piano, consisting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has a treble staff with a melodic line and a bass staff with a rhythmic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ece with similar notation.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f' (forte), 'dim.' (diminuendo), and 'p' (piano). There are also first and second endings marked '1.' and '2.'.

Handwritten notes and diagrams below the score:

- A3
- F
- 가
- 나
- 다
- C dim.
- 가
- 나
- 다
- ←
-
- ↑
- ↓
- 후 +
-
- ←

음사

J. S. 바흐는 1725~1744년 사이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The Well - Tempered Clavier)이라는 2권의 책을 작곡하였습니다. 각 권은 프렐류드와 푸가로 된 24쌍의 곡들이 정조와 단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균율은 어떠한 조성의 곡이라도 연주할 수 있는 조율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조율방법은 몇 개(2~3개)의 샷이나 플랫을 갖고 있는 조성에만 사용되어졌으며 샷이나 플랫이 많이 사용된 조성에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율방법은 결국, 현대의 조율방법 즉, 각 이웃한 빈음사이의 음 높이를 모두 같은 음 높이로 조율하는, 같은 진동수의 조율방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 1권은 다음 프렐류드로 시작됩니다. 이곡은 바흐의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슨교재 6권의 12쪽에 소개된 특별한 페달 사용방법으로 연주하는 곡과 이 프렐류드는 잘 부합됩니다.

다장조의 프렐류드(Prelude in C Major)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 1권으로부터

Andante con moto* Johann Sebastian Bach

* Con moto(콘 모토)는 “움직임을 갖고”의 뜻입니다. 망설이거나 지루하게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First system of musical notation. The right hand (treble cle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fingerings 1, 3, 5 and 1, 2, 5. The left hand (bass clef) has a bass line with fingerings 3 and 2. Dynamics include *mp* and *p*.

Second system of musical notation. The right hand continues with fingerings 1, 2, 5. The left hand has fingerings 3 and 5. Dynamics include *p*.

Third system of musical notation. The right hand has fingerings 1, 2, 4 and 1, 2, 5. The left hand has fingerings 3 and 3. Dynamics include *poco cresc.*

Fourth system of musical notation. The right hand has fingerings 1, 3, 5 and 1, 2, 5. The left hand has fingerings 4 and 3. Dynamics include *dim.*

System 1: Treble clef, 4/4 time. Right hand: 1 3 5, 1 2 5. Left hand: 4, 2. Dynamics: *pp*.

System 2: Treble clef, 4/4 time. Right hand: 1 2 5. Left hand: 3, 5. Dynamics: *poco cresc.*

System 3: Treble clef, 4/4 time. Right hand: 1 3 5, 1 2 4. Left hand: 3, 3. Dynamics: *dim.*, *p*.

System 4: Treble clef, 4/4 time. Right hand: 1 2 4, 1 2 4. Left hand: 5, 5. Dynamics: *poco cresc.*

System 5: Treble clef, 4/4 time. Right hand: 1, 1 2 4. Left hand: 4, 5. Dynamics: *cresc.*

* 어떤 번역판에는 이 세로줄과 다음 세로줄 사이에 다른 마디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J.S 바흐의 원본이나 그의 가족들이 쓴 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piano, consisting of five systems of staves. Each system includes a treble clef staff and a bass clef staff. The notation features eighth and sixteenth notes, often beamed together, and rests. Performance markings such as *poco*, *poco a*, *f*, *dim.*, *poco*, *p*, and *poco ritardando* are interspersed throughout the score. Fingering numbers (1, 2, 3, 4, 5) are placed above specific notes to indicate fingerings. The scor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ritard.* marking. Below the final syste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rackets spanning across the measures, likely indicating phrasing or performance techniques.

간디학교 속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 조사와 개선 방법 제시



오은지 _

생년월일 / 1989년 10월 01일 상계동에서 태어남

혈액형- Rh+ A

학력- 성립 아기사포츠단 - 나태유치원 - 퇴계원초등학교 - 간디청소년학교

- 2004년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별명 / 옹, 옹지, 은지새, 은금지, 짹짹이, 장진영,

이혁재(이새벽, 이에스터 전용), 달, sexyAmy

특기 / 웃기, 웃기기, 음식 천천히 먹기, 이새벽에게 맞서기

취미 / 얘기하기, 노래 부르기, 만화 보기, 웃기, 웃기기

소속 / 영감님 :: 스크린속의 우상, 연(필)가(는대로), 기지개, 도서위원, BN

장래희망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좌우명 / 좋은 게 좋은 거, 흐르는 강을 잡을 수 없다면 바다가 되어 기다려라.

하고 싶은 말- 어떤 일이든 그것은 경험이다

■ 2004 졸업 논문

『간디학교 속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 조사와 개선 방법 제시』

■ 발표자 : 오은지

■ 지도교사 : 장희숙 선생님

■ 차례

I. 서론_ 225

- 논문을 시작하며(논문 선택 동기 및 목적)_ 225

II. 본론_ 225

1.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정의_ 225

2.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원인과 착한아이의
성향_ 226

3. ‘착한아이 콤플렉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_ 230
(착한아이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모습)

4. 간디인들의 ‘착한아이 콤플렉스’ 성향_ 232

5.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대안과 극복법 분석_ 241

III. 결론_ 242

- 논문을 끝내며_ 243

간디학교 속의 ‘착한아이 콤플렉스’ 성향 조사와 개선 방법 제시

I. 서론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냥 막연한 ‘심리학’이라는 것이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 수 없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분석하고 이해하는 심리학이라는 멋진 학문에 예전부터 매력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심리학이라는 광대한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하나 선정하기란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제 선정 때문에 한참 곤란해 하고 있던 중,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일단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는 이름에 끌렸던 것도 있지만, 이것을 주제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게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구절이 아니었을까 한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아이다워야 할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자라 어른이 되어 버린 아이들은 과연 사회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착한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해 보고 싶었다.

일반적인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발생 과정 과 상반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간디학교 학생들에게도 내가 알고자하는 문제를 대입시켜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정의와 성향을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특징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또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 ‘착한아이’가 훗날 자라서 착한 어른의 모습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조사하고, 간디학교 재학생 58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성향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정의

1) 정의

자신은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

2.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원인과 그들의 성향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자기만 남겨두고 사라지는 것, 버림받는 것은 교류 분석학의 대가 뮤리엘 제임스(Muriel James)가 제시한 '아이가 처음 느끼는 불안'이다. 이 중 자기만 남겨두고 사라지는 것과 버림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 중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느끼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인 이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러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성향과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추측한다. 욕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 혹은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스스로를 정립하려 한다. 즉 스스로 다른 이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 '착한아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등등. 이를 두고 라캉¹³⁾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란 사실 근원적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망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근원적 결핍의 (환유적인¹⁴⁾)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그 노력조차 너무도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자신의 상처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해 끝없이 헌신한다. 이것이 착한아이 콤플렉스요, 만들어진 '착한아이'인 것이다.

1) 아이에게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하는 부모의 미숙한 행동

(1) 잘못된 칭찬이 아이를 착한 아이로 만든다

뉴욕의 정신분석과 의사인 웨인버그(G. Weinberg)의 책에는 부모의 잘못된 칭찬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레네라는 아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레네는 새로 태어난 남동생에게 부모의 애정이 옮겨가는 것을 보고 당황함과 동시에 상처를 받게 되어, 어떻게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떼를 쓰고 피병을 부리는 등 여러 행동들을 해 보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일을 돕는 착한아이같이 행동해 보니, 그제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레네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고,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채 성장한다. 아이가 부모를 돕

13) 라캉(Lacan, Jacques, 1901. 4. 13~1981. 9. 9) : 프랑스의 철학자·정신분석학자.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M. 푸코 등과 함께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도 평가받았다.

14) 환유(換喩) : 어떤 낱말 대신에 그것을 연상하는 다른 낱말을 쓰는 비유.

는 것, 말을 잘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만, 부모를 만족시켰을 때에만 아이를 칭찬해준다면 아이는 칭찬받지 못하는 때의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더 나아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상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바라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순수하지 않은 도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웬지 모를 부담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오직 칭찬받았을 때에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면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

(2)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자기중심적 부모).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아이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과 다를 경우 아이를 나무라며 자신의 규칙을 강요한다. 아이는, 부모가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 나쁜 아이로 여겨져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기준에 어긋나 부모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을뿐더러 자아의 성취보다는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한다. 남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동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자아¹⁵⁾성찰에 좋지 않다.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해 연구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 Maslow)¹⁶⁾는 “자기실현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 성장 동기와는 달리 결핍 동기는 소속감, 애정 등의 기본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결핍 동기에 의해 행동하게 되면 아이는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본래의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 이라고 결핍동기로 인한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말하였다. 자기중심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자신'보다, 부모가 기쁘게 여기는 '마땅한 자신'이 되기 위해 연기하며 실제의 자신을 등한시하게 된다.

(3)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과도한 사랑)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원하고 동경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식들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지 못했던 일류대에 아이를 보내고자 한다거나, 배우지 못하고 포기해야했던 피아노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등, 부모 자신의 이루지 못한 소망을 아이에게 투영 시키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부족하게 지낸 만큼 아이에게는 부족하지 않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를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취해 주는 욕구 충족의 대리물로 대하게 된다면 아이는

15) 자아 : 성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16) A. 매슬로(Maslow, Abraham H. 1908~1970) : 미국의 심리학자·철학자.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요구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못 알 수 있다.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아이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려 한다. 자기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부모의 욕심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다.

(4) 자녀를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 해소하려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감을 경험한 부모일수록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신의 위엄과 존엄성을 강조하여 그들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서는 훌륭한 부모이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한다. 이러한 부모는 본인 스스로의 열등감 처리에 급급하여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는 아예 무시당할 뿐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권위욕을 채워 주기 위해 부모의 요구를 모두 실현해야만 한다.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부모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아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없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2)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

(1) 무조건 순종을 한다.

무조건적 순종은 착한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무시한 채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아이는 상대가 바라고 마음에 들어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자기실현의 능력을 상실해 가며, 혼자서는 어떠한 결정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게 된다. 버림받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복종하는 방법을 습득한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2) 남의 눈치만 살핀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부모가 받아들인다는 기본적인 안도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안색을 살피곤 한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데, 이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를 먼저 생각하는데서 나오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 착하게 볼 것이라 생각되는 쪽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면, 무기력해지고 쉽게 절망하게 된다. 항상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남의 승인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체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남의 요구만 따르며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행복조차 묵살하는 것이다.

(3) '싫어'라고 말하지 못한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히 살지 못하는 아이는 '싫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아이에게, 부모의 요구에 싫다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싫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금지된 말이었다. 그러나 '싫어' 라고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나는 '싫었다.'" 라고, 과거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적 있으며,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대해 연구한 일본의 교수 가토 다이조¹⁷⁾는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싫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고 있을 뿐 아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곤란하다.

(4) 매사에 주눅 들어 있다(자기 탓을 하며 죄의식을 느낌)

부모는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은 욕심에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움을 요구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부모의 욕심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부모의 욕심에 미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항상 주눅 들어 있게 된 아이는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5) 항상 우울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이다. 겉보기에는 그저 부지런하고 눈치가 빠른 기특한 아이로 보이지만 사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겸손과 성숙함을 강요받기 때문에 본래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진짜 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된다.

(6) 자신감이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일의 반복됨에, 또 다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아이는 부모의 칭찬을 듣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

(7) 폭력을 휘두른다.

가끔 등장하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과거 "모범생에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라는 보도가 많다. 부모를 폭행한 사람 중 이러한 사람은 그 동안 '착한아이'라는 순종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안도감을 유지해 왔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충분한 애정을 얻지 못한 것에 마음 속으로 부모를 원망해 왔던 것이 더 이상 억눌러지지 못하고 한순간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아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 순종적인 착한 아이가 된 것 모두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소홀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억압되어온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7) 가토 다이조 : 자녀교육과 관련되어 아이의 심리를 분석한 책 다수 집필. 현재 와세다 대학 교수.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도 순종적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는 애정 결핍에 시달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애정을 구하는 수단이 달라졌을 뿐 내면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8) 즐겁게 놀지 못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놀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부모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즐겁게 놀지 못한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대해 꾸짖는다면 아이는 놀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를 놀게 해주어도 등교거부와 같이 '놀고 싶은 욕구'를 억압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아이가 정말, 즐겁게 노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는 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라 할 수 없다. 놀 때는 자신조차 잊고 주위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놀이를 해야 하며, 그 정도로 놀아야 비로소 마음의 성장을 돕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놀이의 경험이 아이의 정신적 성장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9) 세상을 믿지 못한다.

어린 시기의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한다. 그 시기에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부모가 아이의 심리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를 해주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나 세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거듭 경험하면서, 아이는 자신을 비롯해 사람들을 신뢰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아이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안도감을 갖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남의 호의와 애정을 믿지 못하는 것 따위의 심리적 결함을 갖게 된다. 그 때문에 내면에 무력감이 쌓임에 따라 모든 것이 자신을 적대하고 있다는 느낌 또한 가지게 된다. 자신을 지켜 주리라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며 기댈 곳을 잃은 이라면 힘 있는 자에게 빌붙어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의식하지 못한 사소한 말과 행동이 계속되다 보면 아이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결여된, 마냥 착하기만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주위 환경이나 부모의 기대감 또는 강요에 이끌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성향을 갖기 쉬우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 아이의 자발성이나 잠재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심할 경우에는 말을 더듬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장애를 나타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난히 주눅이 들어 있고 소극적인 아이는 혹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부정적)

1) 긍정적 영향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순종적, 수동적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에 별다른 이의 없이 잘 따르며, 나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욕먹을 일도 적어 어느 일이나 잘 따르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다.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인 만큼,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해 주위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며 미움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면 덕분에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면과 수동적 성향의 장점을 살려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기에 적합하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의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 개인 각자의 일을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는 덕분에 이 사회의 구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을 지위하며 지지하는 자가 아무리 빠져나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줄 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묵묵히 따라주는 이가 있어야만 작고 큰 여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2) 부정적 영향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모범적이고 성실한 ‘착한 아이.’ 혹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채 성장한 어른에게 뭔가 창조적인 새로운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에겐, 특별히 반대의 이유가 없더라도 자신이 당연히 여겨 왔었던 기존의 생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엔 어려운 일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여태껏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아이’의 틀에 자신을 맞추어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다 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부정이며, 주위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틀에 맞춰서 착한 아이를 연기했던 아이는 자신이 맞춰왔던 그 틀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비롯한 자신을 억압해왔던 것들에 순종하고 순응하던 ‘착한 아이’는, 마땅히 독립된 사고를 가져야 할 사회인이 되어서도, 여태껏 그래 왔듯이 사회에 순응하는 ‘착한’ 어른이 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개척 정신과 용기, 본인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이 착한 어른에게,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형적인 회사원이 가장 적성에 맞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듯 누군가의 지시에 말없이 따르는 것이, 착한 아이에게 오래된 습관처럼 편안한 것이다. 착한 어른은 성실하다. 하지만 발전하지 못한다. 타의에 의한 순종과, 열정 없는 성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 전력을 만들어 내어도 결국, 인간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착한 아이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타인의 의지에만 따르다 보니 주도적인 판단이 어렵다. 착한 어른은 자신이 세상에 순응하며 만들어 놓은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반론을 제기하면, 그들은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그들을 배타시키려 하며,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변화할 수 없는 착한 아이. 그 아이가 자라 착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자신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지 간에 그들은 끝없는 자기 합리화로 자신 안의 변화의 가능성과 세상에 찌들어 있는 무력함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나 바보 같은 세상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평화 안에 살 것이다.

4. 간디인들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 조사

1) 연구 방법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자료와 그 통계
(이 설문은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한 문항들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설문이 아님.)

〈여자〉

1학년 11명 중 9명 응답 응답률 24%
 2학년 12명 중 7명 응답 응답률 19%
 3학년 15명 중 14명 응답 응답률 45%
 그 외 학년을 체크하지 않은 2명 응답 응답률 5%
 ∴ 여자 전체 37명 중 32명 응답 응답률 88%

〈남자〉

1학년 11명 중 6명 응답 응답률 17%
 2학년 11명 중 9명 응답 응답률 24%
 3학년 13명 중 11명 응답 응답률 30%
 ∴ 남자 전체 35명 중 26명 응답 응답률 71%

전체 72명 중 58명 응답

∴ 응답률 80%

1. 나의 행동은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느껴야 하는'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다.(ex: 나는 슬프지 않지만 그 분위기로 보아 울어야 할 것만 같아서 울려고 노력한다.)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1	1
거의 그렇다			2				
종종 그렇다	6	3	2		2	1	2
약간 그렇다	1	3	3	1	2	5	3
그렇지 않다	1	1	7	1	1	2	5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4(7%), 거의 그렇다 2(3%), 종종 그렇다 16(28%), 약간 그렇다 18(31%), 그렇지 않다 18(31%)

1.-1.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

설문에 응답한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약간 그렇다' 와 '그렇지 않다' 로 각각 18명이 선택해 주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18명은, "남들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건 싫다.", "그런 행동은 가식적이다.",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등이 있었다.

'약간 그렇다' 17명, '종종 그렇다' 16명 등 문항에 대한 긍정의 대답을 한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눈치 봐서 행동한다."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답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즉,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느낄 여지가 있는 어색함과 소외감, 부당한 대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돋보이는 점으로는, 3학년이 여자 7명과 남자 5명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그렇지 않다'에 눈에 띄게 집중되어 있다.

2.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했으면 하고 남이 바라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ex: 부모님이 원하셔서 내가 배우기 싫어하는 것을 배웠다.)

2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2	1
거의 그렇다			1		1		1
종종 그렇다	4		2		1	2	2
약간 그렇다	2	5	6	1	2	3	2

그렇지 않다	3	2	5	1	2	2	5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3(5%), 거의 그렇다 3(5%), 종종 그렇다 11(19%), 약간 그렇다 21(36%), 그렇지 않다 20(34%)

2-1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대답은 '약간 그렇다'로 21명이 선택해 주었다. '그렇다'의 의견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다.", "가끔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의 대답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수동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20명이 대답한 부정적 대답 '그렇지 않다'의 의견으로는 "나는 나다.", "난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못 한다.", "그런 일이 없었다." 등이 있는데, 위의 긍정의 대답들이 수동적 성향을 띄는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친구들, 혹은 부모님 등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억지로 노력한 적이 있다.(ex: 친구 때문에 화가 났지만 화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3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5		1		
거의 그렇다	1	3	2	1		1	2
종종 그렇다	5	2	5		3	2	2
약간 그렇다	3	2	1	1	1	4	6
그렇지 않다			1		1	2	1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6(10%), 거의 그렇다 10(17%), 종종 그렇다 19(33%), 약간 그렇다 18(31%), 그렇지 않다 5(9%)

3-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많은 의견으로 19명이 답해 준 '종종 그렇다'의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등의 대인관계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대답들이 대부분으로, 자신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돋보이는 점으로는 여자와 남자의 성격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여자들의 표는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종종 그렇다'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자들은 '종종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에 표가 집중되어 있다.

4. 진로 문제 등 앞으로 있을 문제 선택에서는, 내게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보다는, 주위에서 원하는 안정적인 일을 선택할 것이다.(ex : 난 장사를 하면 잘 할 것 같지만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

4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2
거의 그렇다	1	1	1		2		2
종종 그렇다	1	1	1	1	1	2	
약간 그렇다	2	1	7			2	
그렇지 않다	4	2	5	1	3	5	7
모르겠다		1					

매우 그렇다 4(7%), 거의 그렇다 7(12%), 종종 그렇다 7(12%), 약간 그렇다 12(21%), 그렇지 않다 27(47%), 모르겠다 1(2%)

4-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은 문항은 28명이 선택한 ‘그렇지 않다’인데, 이 의견으로는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다.”, “내 인생 내가 살 거다.” 등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려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나타내는 대답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체크한 ‘약간 그렇다’는 “주위의 의견 때문이라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 “불안한 미래가 싫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미래가 더 갖고 싶다.” 등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의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돋보이는 점으로 다른 의견들에 비해 ‘그렇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런 점으로 보아 간디 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누가 내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별로 들어 주기 싫은 일이라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ex : 난 내 그린비 빌려 주기 싫는데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 준다.)

5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2		2		1	1	1
거의 그렇다	4	4	5		2	3	4
종종 그렇다	2	2	4	2	2	1	4
약간 그렇다	1	1	3		1	2	2
그렇지 않다						2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7(12%), 거의 그렇다 22(38%), 종종 그렇다 17(29%), 약간 그렇다 10(17%), 그렇지 않다 2(3%)

5.-1 그렇게 한 이유는?

표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의견은 22명으로 ‘거의 그렇다’인데, “거절하면 괜히 미안하다.”, “욕먹을까 봐” “내가 쩌쩌해지는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5번째 문항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신이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6. 내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으면 상대가 뭐라 안 해도 먼저 해명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6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3	1	3			3	1
거의 그렇다	2	2	2		3	1	2
종종 그렇다	2	1	1	1	1	1	4
약간 그렇다	2	2	6	1	1	3	4
그렇지 않다		1	2		1	1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11(19%), 거의 그렇다 12(21%), 종종 그렇다 11(19%), 약간 그렇다 19(33%), 그렇지 않다 5(9%)

6-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번 문항에서는 ‘그렇다’ 쪽으로 의견이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제시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명을 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쪽의 의견으로는 “오해받게 싫다. 확실히 해놓고 싶다.”, “그 동안 내가 쌓아 온 이미지가 오해로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상대방이 혹시 나에 대해 오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따돌림 받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의 의견으로 5명이 답해 주었는데, “오해는 오해일 뿐.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7. 내가 내린 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기 전엔 내 답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편이다.

7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2
거의 그렇다	1		3			1	2
종종 그렇다	4	1	3		3	3	4
약간 그렇다	3	4	5	2	2	3	
그렇지 않다	1	2	3			1	3
모르겠다	0						

매우 그렇다 4(7%), 거의 그렇다 7(12%), 종종 그렇다 18(31%), 약간 그렇다 19(33%), 그렇지 않다 10(17%)

7-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약간 그렇다’라는 의견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틀리면 창피하니까”, “나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와 같은 대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대답으로 볼 때 이 역

시 타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10명은, "내 의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다.", "일단 말하고 본다.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해주었다.

8. 나를 아는 사람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된다.

8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2		1				
거의 그렇다	3	2			1		3
종종 그렇다	3	3	3		2	3	3
약간 그렇다	2	1	6	1	3	2	3
그렇지 않다	1	1	4	1		4	2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3(5%), 거의 그렇다 7(12%), 종종 그렇다 18(31%), 약간 그렇다 20(34%), 그렇지 않다 12(21%)

8-1. 그런 이유는?

'약간 그렇다'라는 대답이 20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자책까지는 하지 않아도 신경 쓰인다는 말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 않다'로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으로 여자들의 응답을 보면 1학년들은 '매우 그렇다'와 '거의 그렇다'에 의견이 있고,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2학년은 '종종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3학년은 '약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많은 의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이 지낸 시간들에 비례된 편안함으로 서로 무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그러한 모습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해 본다.

9. 난 어리광을 잘 피우지 않는 편이다.

9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1	2	2
거의 그렇다	1	3	4		1	1	2
종종 그렇다	4	2	5		1	1	1
약간 그렇다	1	1	1	2	2	3	4
그렇지 않다	2	1	2		1	2	2
모르겠다			1				

매우 그렇다 7(12%), 거의 그렇다 12(21%), 종종 그렇다 14(24%), 약간 그렇다 14(24%), 그렇지 않다 10(17%)

9-1. 그런 이유는?

‘약간 그렇다’, ‘종종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수가 같게 나타났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의견으로 ‘어리광을 피우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어리광 피우는 게 창피하다.”, “어리광 피울 데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로 어리광을 피운다는 의견도 1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막내라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학교에서는 잘 안 그러지만 집에서 부모님께는 피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10. 나는 상대의 의견을 알 때 지 내 의견을 잘 밝히지 않는 편이다.

10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거의 그렇다	1	3	3	1	2	3	4
종종 그렇다	3	1	3	1	2		4
약간 그렇다	4	2	7		1	3	1
그렇지 않다	1	1	1			2	2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2(3%) 거의 그렇다 17(29%)

종종 그렇다 14(24%) 약간 그렇다 18(31%) 그렇지 않다 7(12%)

10-1. 그런 이유는?

‘약간 그렇다’가 18명, ‘거의 그렇다’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었는데, “내가 상대방과 다른 얘기를 하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의견 대립은 귀찮다.” 등으로 자신과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있을 수 있는 마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되도록 자신의 의견은 숨기고 무난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내 의견은 확실히 하는 편이다.”와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

11. 사람들과 잘 지내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은 없다.

11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2	1	2				3
거의 그렇다	3	2	2	2		1	2
종종 그렇다	3	1	4		5	3	3
약간 그렇다	1	2	5		1	2	2
그렇지 않다	1	1	1			2	1
모르겠다						1	

매우 그렇다 8(14%), 거의 그렇다 12(21%), 종종 그렇다 19(33%), 약간 그렇다 13(22%), 그렇지 않다 6(9%), 모르겠다 1(2%)

11-1.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그렇다’라는 의견이 19 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세한 의견으로는 내 비밀을 말해 줬는데, 얼마 후에 모든 아이들이 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내 믿음을 깨트려서” 등 상처받았던 일들이 큰 영향이 되어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조금씩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그렇다’의 의견에는 극단적인 예로 “난 인간이 싫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믿을게 못 된다.”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으며, 이에 반대되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아무하고도 같이 못 지낸다.”, “난 모두를 믿고 사랑한다. 그들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이라 하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아주 상반되는 의견과 여자들은 1, 2, 3학년 전부 조금씩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한 반면, 남자 기숙사는 3학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매우 그렇다’에 의견이 없으며, ‘거의 그렇다’에도 의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차이를 알 수 있다.

12. 나는 살아오면서 주위로부터 양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12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거의 그렇다	1	2	1		1	1	
종종 그렇다	4	4	5			2	3
약간 그렇다	3		4	2	5	2	5
그렇지 않다	1		3			2	3
모르겠다		1				1	

매우 그렇다 2(3%), 거의 그렇다 6(10%), 종종 그렇다 18(31%), 약간 그렇다 21(36%), 그렇지 않다 9(16%)

12-1. 그렇게 선택한 이유와, ‘그렇다’를 선택하셨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말한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약간 그렇다(21명)와 종종 그렇다(18명)라고 말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예로 든 강요받은 양보는 여학생의 경우 “오빠나 남동생은 쉬고 여자가 일해라.”와 같은 남녀 차별적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동생에게 양보.”, “노약자, 장애인에게 자리 양보”를 들어 보였다.

13. 나는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달라도 ‘싫어.’ 혹은 ‘아니야.’라는 말은 잘 하지 않고(못 하고) 주로 동의해 주는 편이다.

13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거의 그렇다	3	1	2		1	2	
종종 그렇다	3	3	5	1	4		7
약간 그렇다	3	2	4	1		6	2
그렇지 않다		1	3			1	2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1(2%), 거의 그렇다 9(16%), 종종 그렇다 23(40%), 약간 그렇다 18(31%), 그렇지 않다 7(12%)

13-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종종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각 23명과 18명으로 높은 수치를 얻었는데, 이것을 선택한 이유로는, 10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경우인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화낸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창피해 할까 봐”라는 의견도 많이 볼 수 있었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편이다.

14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2	1	6		2	2	1
종종 그렇다	3	3	1	1	2	2	3
약간 그렇다	3	2	6	1	2	4	2
그렇지 않다	1	1				1	4
모르겠다			1				1

매우 그렇다 14(24%), 거의 그렇다 15(26%), 종종 그렇다 15(26%), 약간 그렇다 20(34%), 그렇지 않다 7(12%), 모르겠다 2(3%)

14-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20명이 답한 ‘약간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라는 식의 대답이 많았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위한 어느 정도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가볍게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선의의 거짓말 정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15. 난 내 주위의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5	여자				남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매우 그렇다	1		1			2	
거의 그렇다	1			1	1		5
종종 그렇다	2	2	3		3		4
약간 그렇다	4	3	4	1		5	
그렇지 않다	1	1	6		2	2	2

모르겠다		1				
매우 그렇다 4(7%), 거의 그렇다 8(14%), 종종 그렇다 14(24%), 약간 그렇다 17(29%), 그렇지 않다 14(24%)						

15-1.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약간 그렇다’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었는데, 이런 긍정의 이유로는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끔은 답답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었다.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라도 어느 정도의 억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다.

1) 설문지로 본 간디 학생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도(설문 전체 정리)

(이 설문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문항들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설문이 아니다.)

총 58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각 문항마다 각각 선택하는 평균적인 사람의 수를 내 보았다.

문항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종종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평균	5	10	16	17	11

본 설문의 문제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이 많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가깝도록 만들어져 있다. 간디 학생의 설문통계 결과 ‘매우 그렇다’는 5명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답해 주었다. ‘거의 그렇다’는 10명, ‘종종 그렇다’는 16명, ‘약간 그렇다’는 17명, ‘그렇지 않다’는 11명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거의 그렇다’가 ‘약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려했었던 간디인들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종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성향은 보통 일반인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정도이고, ‘그렇지 않다’는 어느 정도 이기적일 수도 있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는 거리가 먼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간디 학생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은 일반적, 정상적이며, 오히려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앞으로의 개선 방안

1) 착한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모들이 개선할 점

(1)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준다.

‘착한 아이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도 아이 그 자체의 모습으로 충분히 인정해 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주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아이가 항상 ‘착한 아이’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아이도 인간이다.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개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반항하거나 정리정돈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란 원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던 '착한 아이'라는 틀을 깨 버리고 아이를 지켜 봐 줘야 한다.

(3)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아이를 사랑해 주리라는 확신을 준다.

어느 상황에서나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아이가 어쩌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라고 그 아이의 인성을 정의해 버리는 멍청하고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는다.

(4) 아이의 욕구가 부모의 욕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아이를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너무 다그치지 않는다. 부모의 성급함보다는 세심한 배려가 아이에게 더 필요하다.

2) 아이가 노력할 점

(1)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면 어떠한 일도 스스로 해낼 수 없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 자신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본인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하겠는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가장 첫 걸음은 그 동안 등한시 여겼던 자신과 똑바로 대면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소한 장점들을 적어 나가거나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숨기고 싶었던 점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타인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2) 억압된 진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타인에 대한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면 자기부정적인 자세가 강해지고 긍정적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자신의 긍정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리 없다.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서 자신에게로 돌렸던 분노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 오히려 상대가 먼저 질러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면 그 행동을 지적하라. 그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출하고 지적한다면 상대도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은 피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무시해 왔던 당신의 긍정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당신은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가면을 벗고 하나의 얼굴로 살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페르소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페르소나.¹⁸⁾당신의 가면은 몇 개 인가? 상황에 맞추어 때마다 다른 '나'를 연기하는 착한 아이는 본디 자신의 모습

18) 페르소나 :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쓴 분장을 대신한 가면. 심리학 적인 뜻으로는 사회적인 역할 혹은 겉으로 보이는 '나'를 말한다. 외적인 인격.

은 알지 못한다. 거짓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적어도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라. 당신은 당신의 모습일 권리가 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다.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마음들을 무시하며 연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어 있지 않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당신의 모습이 모두 다르지 않도록 당신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4) 자신의 마음을 표출해야 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흔히 다른 이들의 시선에 눌러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그 동안 숨겨왔던 본인의 의지를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농구나 축구 등 각종 운동을 비롯한 연극이나 노래 등, 활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과 작문, 일기 등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사회는 똑같은 사람을 둘이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뚜렷한 의견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고만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도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사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자신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III. 결론

1. 정리하면서- 사소한 거짓말에 대한 해명

꼭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논문의 사소한 거짓말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착한 아이를 만드는 대상을 부모라고 지칭한 경우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착한 아이를 강요하는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부모의 예를 들었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겠지만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강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 혹은 이웃이나 선생님일 수도 있다. 간디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보다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압박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설문지에 나타나 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이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착한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간디학교 내에는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였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억압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의 우리들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의 반도 안 되는

숫자 인데다가 거의 모든 대안학교는 전 학년 수가 일반학교의 한 학년 수보다 적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착한 어른의 대부분을 일반학교 출신으로 본다면, 평화로운 착한 어른의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계는 누군가의 이의 제기에 의해 개혁되어왔다. '이 사회의 구세주가 되자' 같은 사이비 교주다운 마음이 아니다. 다만, '우리들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착한 아이를 싫어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 마당에 착한 아이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칭찬하고 방치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나는 착한 아이가 불쌍하다. 언젠가 자신의 행동들의 이유를 알았을 때 느껴질 허망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학교 학생들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아이. 다른 사람만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은 텅텅 비어 버리는 착한 아이는 싫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빈 자리를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잃어버린 자기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찾아다니는, '착하기만한' 바보 이반 같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갈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논문을 끝낸 느낌

기쁜하고, 아쉽다. '이제야 마음껏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쁜한 마음과 아직도 많이 부족한 논문에 대한 아쉬움, '이제 졸업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논문 쓰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졸업하고 싶지도 않은데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이 자꾸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다. 설문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 어딘가 논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한다. 여러 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논문이라 내놓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후련하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며.

✦ 고마워요,

무엇보다, 이 논문을 쓰기까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담당 선생님인 장희숙 쌤.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을 써 준 가토 다이조 님. 이 논문을 쓸 수 있게 지금까지 키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 가끔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우리 오빠 오찬수, 간디학교 3년 동안 언제나 곁에 있어 주신 우리의 담임, 사랑하는 병삼 쌤을 비롯한 간디학교의 모든 쌤들, 논문 소재

선택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수덕이네 아저씨. 청소 검사해 주러 돌아다니는다고 정작 내가 맡은 청소는 제대로 안 했는데도 싫은 티 안내준 성실했던 빨래당번 민채, 다정, 홍시. 논문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언제나 이불 깔아 놓고 반겨 주던 우리 사랑스런 5호방 다정, 이정, 언제나 시비 걸지만 가끔 나잇값 하는 고마운 티몬 노영규, 상큼발랄깜찍한 우리 1학년, 보기만 해도 기운 나는 사랑스런 우리 예쁜 2학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학년.

혜, 진, 스더, 깡지, 강솔, 새벽, 보경, 나눔, 유리, 부연, 주희, 용안, 현민, 수현, 범린, 태규, 도일, 현석, 승안, 원중, 병건, 재훈, 병우, 가람, 민기, 승우, 그리고 보고 싶은 배솔, 주나,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잘 살자.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 연구



오현민

1989년 03월 28일 화요일 서울 태능성심병원 탄생.

1남 1녀 중 차녀

혈액형 / RH+ O형

별자리 / 양자리

별명 / 너구리, 오형만

좋아하는 것 / 포도이, 송송이, 캥캥이, 하늘, 구름, 무지개, 보라색, 카메라, 사진, 목도리,

하림, 성시경, 양동근, 케이크, 호박오리, 달, 별, 그림, 노래, 젤리, CD, 편지, 사랑

싫어하는 것 / 피망, 벌레, 더운 거, 추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좌우명 / “행복과 웃음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하고 싶은 말

- 2004 졸업 논문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 연구』
- 발표자 : 오현민
- 지도교사 : 장희숙 선생님

■ 차례

- I. 서론_ 247
- II. 본론_ 248
 - 1. 웃음의 개념_ 248
 - 2. 웃음의 중요성_ 248
 - 3. 웃음요법의 개념과 역사_ 251
 - 4. 웃음요법의 실태_ 252
 - 5. 웃음요법의 방법 _ 252
 - 6. 사례를 통해 알아본 웃음요법의 효과_ 255
 - 7.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방법_ 257
- III. 결론_ 260
- special thanks to_ 261
- * 자료 출처_ 262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 연구

1. 서론

이번 논문 주제를 정하다가 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낫게 한다는 웃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웃음의 효능을 이용하여 병을 치유하는 웃음요법은 대체의학에 속하는 하나의 의학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람들의 병을 예방 및 치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발전함에 따라 많은 약이 나오지만 효과가 빠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부작용이 없다는 웃음요법의 효능은 나를 쉽게 끌리게 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이 생겨 스트레스도 받고 학교와 기숙사에서처럼 여럿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많은 트러블도 생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건강도 쉽게 나빠지게 된다. 사람들을 마주칠 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고민과 갈등,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붙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웃음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만이라도 웃음요법에 대해 적게나마 알게 되어, 웃음요법을 알고 전문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만큼 웃음요법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론의 처음에서 웃음요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웃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넘어가기 위해 웃음의 사전적 의미와 웃음의 효과를 통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웃음요법의 개념과 역사에서는 웃음요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옛날 사람들이 웃음요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옛날의 웃음요법의 배경부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다. 웃음요법의 방법에서는 웃음요법의 종류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웃음요법의 실태에서는 웃음요법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 웃음요법의 현황을 조사하여 본다. 5번, 사례를 통해 알아본 웃음요법의 효과에서는 웃음요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본 사람들을 예로 들어 웃음요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근거를 찾아본다. 6번,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에서는 우리가 학교생활을 통틀어 모든 생활 속에서 웃음요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II. 본론

1. 웃음의 개념

웃음은 안면근육을 함께 움직여서 일정한 표정을 짓는 반응으로 미소, 대소, 고소, 냉소, 조소, 실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미소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만족하였을 때 생기며, 점차 타인으로부터의 자극에 의하여 웃게 되는 사회적 미소가 나타난다. 얼마 뒤 물리적인 자극을 돌발적으로 가할 경우 대소한다. 웃음의 종류에는 유아기의 어린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지럼을 타는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적 자극에 의한 웃음이 있고, 기쁘다는 감정에 수반¹⁹⁾하는 반응인 기뻐서 웃는 웃음과 함께 신체적 자극에 의한 웃음을 웃음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스워서 웃는 웃음은 기지²⁰⁾, 익살, 해학²¹⁾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별된다. 겸연쩍은 웃음은 남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경우의 웃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연기로서의 웃음의 대표적인 경우는 인사할 때의 웃음인데, 내심으로는 기쁘지도 우습지도 않지만 타인에게 예의상 미소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병적인 웃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헛웃음과 웃을 만한 이유도 없이 나타나는 짧은 웃음인 웃음발작 등이 있다.

2. 웃음의 중요성

“웃는 사람은 실제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건강은 실제로 웃음의 양에 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제임스 월쉬’의 말이 있다. 웃음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웃음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웃음의 중요성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웃음의 효과를 통해 웃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10가지만 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한다.

첫 번째,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미국 로마 린다 의대 리버크 교수와 웨스틴 잉글랜드대 캐슬린 박사 등은 사람들이 코미디프로그램을 보고나면 우리 몸의 저항 균인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²²⁾은 많아지고, 면역을 억제하는 코티졸과 에프네 피린이 줄어드는 현상을 밝혀냈다. 쉽게 말해 웃음이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감

19) 수반 : 어떤 일과 함께 일어나거나 나타남.

20) 기지 : 기발하고 뛰어난 지혜.

21) 해학 : 익살스러우면서 풍자적인 말이나 짓, 유머

22) 글로불린 : 단순 단백질의 한 균의 총칭.

염질환은 물론 암이나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인다고 한다. 실제로 암도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람이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 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해 보면 암을 일으키는 중앙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killer cell)'가 많이 생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웃음은 식욕을 돋우고 운동효과를 준다.

웃음은 땀 흘리지 않는 조깅이다. 한번 배꼽잡고 웃으면 노 젓기 운동 2~3분 한 것과 같은 운동효과가 있다. 실컷 웃다 보면 배가 아프게 된다. 실컷 웃으면 횡격막²³⁾이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게 되어 충분한 호흡이 되고 평소 쓰지 않은 복근이 움직이게 되어 충분한 호흡이 되고 평소 쓰지 않은 복근이 움직이게 되어 내장의 운동이 늘어나게 된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실컷 웃으면 하루 권장 운동량에 해당하는 만큼 운동이 된다. 실컷 웃고 나면 기분 좋은 편한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심장이나 호흡, 그리고 내장이 편한 상태로 돌아오고 편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배꼽잡고 웃다 보면 소화는 저절로 되고,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운동하기가 싫을 때 친구들과 모여 앉아 실컷 웃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세 번째, 웃음은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웃음은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감정 표현이다. 웃음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사실 스트레스는 일종의 긴장 상태로 문제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도망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 몸속에 코르티솔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간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 해결 후에도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웃음을 짓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된다.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정상을 찾는다.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억지로라도 실컷 웃어라. 그러면 기분이 한층 나아질 것이다.

네 번째, 웃음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노트를 타면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여서 심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혈액은 세포의 생장, 소멸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여 주고 세포 대사 후에 발생하는 온갖 노폐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몸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다.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은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23) 횡격막 : 흉강과 복강을 구획하는 근육성의 막.

다섯 번째, 웃음은 수명을 연장시킨다.

일노일로(一怒一老), 일소일소(一笑一少)라는 말은 화를 낼 때마다 늙어지고,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는 뜻이다. 또, 하루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 표정이 매력적이고, 잘 웃는다.

다음은 남자와 여자의 웃는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양성 관계	이야기 횟수	화 자	청 자
화(남) 청(남)	275	75.6%	60.0%
화(여) 청(여)	502	86.0%	49.8%
화(남) 청(여)	238	66.6%	71.0%
화(여) 청(남)	185	88.1%	38.9%
총 계	1200	79.8%	54.7%

(출처 : 버나드 쇼의 웃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잘 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머, 쾌활하고, 낙천성이란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가설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7.5년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 아닐까?

여섯 번째, 웃음은 노화를 방지시킨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몸 안에 일으키게 되어 노화가 방지되는 것이다. 피부가 나이와는 다르게 늙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신경 쓰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크게 한번 웃어 보자. 스트레스는 물론 피부노화까지 방지될 것이다.

일곱 번째, 웃음은 고민을 잊어버리게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 고민이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 성장의 밑거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할 방도가 없는 고민에는 약이 없다. 바로 이런 때 웃음으로 고민거리를 날려 보내야 한다. 웃음의 효용 중에는 정화작용이라는 것이 있다. 즉, 웃음이 고민을 잊어버리게 하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웃으면 체내에서 생겨나는 마약성분을 먼 모르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엔도르핀이 생성된다. 고민이 많아 우울하고 화가 나면 짜증을 부리기 전에 억지로라도 활짝 웃어 보이면 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웃음은 불안감을 없애 준다.

앞에서 웃음의 효용 중 하나가 '정화 작용'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초조와 불안 등

의 독소를 정화시키는데 웃음이 큰 작용을 한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다. 초조하게 가슴을 죄는 일이 많이 있을 때면 진한 위액이 분비되어 위벽을 상하게 한다. 반대로, 웃음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홉 번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친구들과 사소한 농담이라도 표정을 밝게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만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에도 무표정하게 '안녕'하고 지나가는 것과, 밝게 웃으며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이다. 대화를 나눈 후 가장 기억나는 것은 태도이고 그 다음이 목소리, 그리고 내용이라고 한다. 대화에서 웃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면 이미 절반의 점수는 얻고 들어간 셈이다.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든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밝게 웃으며 대화하면 훨씬 더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성격을 밝게 만든다.

기분이 좋아서 표정이 환해지고 웃음이 나오지만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우울한 얼굴의 표정은 세계 어느 곳이나 같고 기분 좋은 얼굴의 표정도 세계 어느 곳이나 같다.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울할 때 나타나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웃음을 띠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편안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사람은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낄 수 없고 웃음과 화를 동시에 느낄 수 없다. 얼굴에 웃음을 실으면 몸은 웃음의 영향을 받아 편안한 상태가 되고 얼굴에 찡그림을 실으면 몸은 찡그림에 영향을 받아 우울해 지거나 불쾌해진다. 근육이 운동으로 길들여지듯이 성격과 마음도 표정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 웃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밝은 성격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웃음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표현이다. 동물에게 사람처럼 여러 가지의 표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웃기지만 그래도 웃음을 동물처럼 꼬리나 몸짓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정으로 예쁘게 활짝 웃어 보이는 우리의 웃음은 정말 축복받은 웃음이다.

3. 웃음요법의 개념과 역사

웃음요법은 대체의학의 하나로, 대체의학의 특징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의학을 설명하면서 웃음요법의 개념과 역사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질병이란 것은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로 일어나며, 이러한 부조화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오염물질 섭취, 잘못된 식생활 등에서 기인한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인체의 면역체

계가 약화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단 병이 발생하면 그 병의 증상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체요법은 병 그 자체의 증상을 요법으로 보고, 스스로 인체의 면역체계가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설사를 하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설사를 중지시키려 약물을 투여하지만, 대체·자연요법은 설사를 촉진시켜 체내의 노폐물을 가능한 많이 제거시키려 한다. 만약 현대의학에서처럼 설사를 중지시키면 증상은 일시 완화되지만 근본적으로 노폐물은 더 축적되고 부패되어 전보다 더 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대체요법은 체질을 개선시켜 면역체계가 질병을 고쳐 나가게 하는 궁극적인 요법이다. 웃음요법은 병으로 인해 웃음을 잃은 환우들을 위해 잃었던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치료로 면역증강이 목적인 치료법이다.

웃음요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즐거움을 찾아보면 “마을에 좋은 광대들이 오는 것은 당나귀 20필에 실은 약보다 건강에 더 좋다.(토마스 시던햄 의사)”, “웃음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젊음과 활기를 주어 건강을 증진시킨다.(영국 로버트 버튼)”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옛날부터 웃음의 효과를 알고 웃음의 효과를 실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약 1백 년 전에는 새의 깃털로 환자를 간지럼 태워 치료하였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매일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일해야 하는 임금을 위한 전속개그맨인 ‘웃음내시’가 있었다. 웃음내시는 임금에게 웃음거리를 이야기해 주며, 또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임금의 스트레스와 근심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했다. 웃음내시를 통해 임금이 웃게 되면서 임금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91년 영국 보건국에서는 ‘웃음소리 클리닉’을 허가하였으며,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유머치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²⁴⁾이 열렸다. 현대에는 각 병원에서 웃음을 암 치료, 고혈압, 심장병,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치료에 이용하고 있으며, 유머문고 개설과 코미디치료단까지 발족²⁵⁾하였고, 각 기업에서는 편 경영을 위해서 웃음치료 연수에 참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4. 웃음요법의 실태

웃음요법의 실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는 없지만,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웃음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내가 찾아 본 어느 곳에서도 웃음요법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웃음치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웃음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찬밥신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곳의 병원에서는 웃음을 접목시켜 암 환자를 포함한

24) 심포지엄 :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토론회.

25) 발족 : 기관이나 단체 따위가 첫 일을 시작함.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실태를 돈과 관련짓기에는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지만 웃음치료사들은 강의를 할 때 시간당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웃음요법의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는 상태이다.

5. 웃음요법의 방법

웃음치료의 방법에는 웃음명상법, 안면 스트레칭, 웃음피드백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누구나 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웃는 것이 어색해서 환하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료방법을 다루기 전에 그들을 위해 좋은 미소를 짓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일단 자가진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손거울로 자신의 웃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도록 하자. 웃을 때 입이 옆으로 충분히 벌어지는지, 입 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활짝 웃어 이가 충분히 드러나 있는지, 잇몸이 지나치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웃음에 대한 진단이 나왔으면 훈련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웃는 근육을 풀기 위한 기본 체조.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소리를 내어보는 것이고, 입을 옆으로 짹 짹 ‘히히히’하고, 입을 앞으로 쭉 내밀고 ‘후후후’하는 것이다. 기본 체조를 할 때 빠근하고 힘들다면 평소에 웃는 근육을 잘 쓰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좋은 미소를 지니려면 이 운동을 하루에 5분씩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입 모양을 바로잡는 훈련이다. 입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면서 보기 좋은 웃음을 지어 보고, 마음에 드는 순간 두 손으로 입 꼬리를 짚어 입 모양을 고정시키며 하나부터 열까지 센다. 이를 몇 번 반복하고는 의식적으로 그 모습을 다시 지어 보도록 하는 것이 미소 만들기 훈련의 전부이다. 이를 매일 잊지 않고 반복하여 준다면 당신은 어색하지 않은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 안면 스트레칭 (웃음 스트레칭)

웃음 스트레칭은 웃기 전에 안면의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다. 이목구비 모두를 골고루 풀어주는 운동으로 보다 자연스런 웃음유발과 뇌에 골고루 자극을 주어 두뇌발달과 엔도르핀 등 좋은 호르몬분비를 유도한다.

주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귀를 움직인다던가, 한쪽 볼만을 찡긋거리다던가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진화가 덜 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안면근육을 풀어서 얼굴표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보고, 입을 크게 벌리거나 조그맣게 오므려 보는 연습을 반복하는 등 얼굴을 이용하여 지을 수 있는 표정들을 많이 지어보는 것이 좋다. 얼굴 근육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 이, 우, 에, 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 “하와이, 와이키키, 김치, 치즈”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해 준다면 당신도 좋고 많이 웃어도 어느 때보다 힘들지 않는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웃음명상법

경건하게 자신만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명상 중간에 크게 한바탕 웃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련법이다. 수련법이라고 하니 거창한 것 같지만 단지 박장대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한번 웃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 웃음은 그 날 하루 당신의 기분을 좋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웃어 보자. 그리고 한번은 인상을 써보자. 인상을 쓰는 순간 가슴이 확 막혀 버리고 뇌가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얼굴을 활짝 피며 웃었다가 다시 찡그리는 것을 반복하자. 이것을 3분 동안 계속 반복한 후 본격적으로 웃기 시작하자.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웃을 때 몸에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다. 웃기 시작하면서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펴지고 가슴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보다 조금 더 활짝 웃어보도록 하자. ‘기’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뇌로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웃음은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시켜 준다. 기쁨에 겨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 보자.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 2분 정도 지나면 미친 사람처럼 온몸을 흔들며 소리 내어 웃자. 뒀굴면서, 혹은 마주보며 웃어도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웃음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생각조차 끊어지고 오히려 이런 웃음이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3) 크레이지 웃음운동법

웃음은 달리기와 같이 하나의 운동이다. 크레이지 웃음운동법 신체와 감정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과 신체를 이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는 운동법이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입을 최대한 옆으로 벌려 웃는 얼굴을 만들고, “기분 좋아.”라고 반복하며 말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용하고 길게 “하~ 하~ 하~.”라고 말 하면서 숨을 배꼽에서부터 내쉬도록 하는 것을 서서히 입을 벌리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도록 한다. 최소한 15초 정도 배가 출렁거리도록 미친 듯이 크게 웃는 것을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하여라. 웃음은 운동이므로 반복해야 몸에 붙어 효과를 볼 수 있다.

4) 웃음 피드백

웬지 모를 우울한 감정에서 웃음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어

개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동작을 취해도 좋으니 주먹을 쥐고 허공을 향해 내리친다. 예를 들어 아자나 파이팅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마디를 크게 외치도록 한다. 그리고 온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5) 웃음소리를 통한 치료

웃음치료사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웃는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곧바로 웃음에 전염된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따라 웃는 그들의 웃음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런 웃음을 의도적으로 계속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웃음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웃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 TV,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머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하루에 400회 이상 웃는 것에 비해 어른들은 15회조차 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아이들과 자주 접촉하고 줄 웃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행복한 때를 떠올리고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웃는 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걸리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마음껏 웃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웃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얼굴이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아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6. 사례를 통해 알아본 웃음요법의 효과

“웃음요법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어떻게 웃음으로 병을 고치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지만, 웃음요법으로 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한 웃음요법의 효과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웃음요법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유방암을 이겨낸 크리스틴의 이야기이다.

크리스틴은 마흔 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지 4주일이 되던 날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낮에 찾아온 친구와 실컷 웃은 덕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수술 뒤 이웃들이 따뜻하게 대해 줬지만 크리스틴은 웃어 본 적이 없었다. 그 때부터 그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화학 요법과 살에 물집이 생기는 방사선요법을 웃음요법으로 견뎌내고 끝내 암을 물리쳤다. 크리스틴은 수술을 받으며 두렵고 힘들었지만 친구와 함께 웃게 되면서 웃음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웃음요법으로 암을 이겨내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암 클럽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전한다고 한다.

암 환자의 스트레스는 항암주사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탈리아 우딘대학의 소니아 조르젯은 쥐를 암에 걸리게 한 다음 항암주사의 효과를 확인했다. 암에 걸렸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은 쥐는 치료받지 않은 쥐보다 더 오래 살거나 완전히 치료되었다. 하루 1시간씩 다리에 플라스틱판을 묶어 스트레스를 준 쥐는 주사를 맞지 않은 쥐처럼 빨리 죽었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지만, 편하고 밝은 마음은 면역체계를 강하게 한다. 편하고 밝은 마음이 좋은 치료방법과 어우러지면 암도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던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의 이야기이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뼈마디 마디에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혀지지도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육체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며 부신 호르몬을 마르게 하여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웃음요법을 실시해 보기로 했다.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는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트린 후에는 2시간 정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면 33배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같이 웃었다. 웃음요법의 자가치료를 통해 8일 후에는 엄지손가락이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통증 없이 테니스나 골프를 칠 수 있었고, 승마를 즐겼으며, 손을 떨지 않고서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세 번째, 구소련의 샤란스키의 이야기이다.

구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샤란스키도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체험한 사람이다. 샤란스키는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9년 동안 지냈으며, 그 중에 16개월은 사형선고를 받고 독방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소련 비밀경찰에게 총살당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이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방에서 그가 발견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웃음이었다. “자유로울 때 유머는 하나의 사치스런 것이지만 감옥에서는 유일한 무기이다. 그들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자유하다.”고 그는 말한다.

여섯 번째, 위암을 이겨낸 강순애 씨의 이야기이다.

서울 큰 병원에서 위암 3기 판정 후 제거 수술을 받은 의정부 강순애 씨가 임파절로 전이되면서 주치의의 앞으로 6개월간 35차례 항암치료 제안을 보류하고 웃음치료 등 천연치료를 8개월간 받은 후 1달 전 주치의의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섯 번째, 위암을 이겨낸 김상태 목사의 이야기이다.

김상태 목사는 위장이 없다. 1992년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3차례에 걸친 대 수술을 받으면서 위뿐만 아니라 비장, 담낭 등을 잘라내었다. 대신 식도에 작은 창자를 직접 연결해 음식을 소화하고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잘 살고’있다. 항암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 그보다 10개월 먼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아내 정운금 씨도 무척 건강해 보였다. “뭘 먹었느냐

고요, 특별하게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불안해하지 말자, 무조건 웃자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내가 며칠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아내와 나는 태평했어요. ‘왜 하필 나야’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모든 스트레스를 불러오거든요.”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위가 없어 누우면 먹은 것이 모두 역류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앉아서 잠자는 고행을 겪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3~4번씩 설교를 하고, ‘암을 이기는 이들의 모임’을 만들어 암 환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여섯 번째, 웃음을 통해 행복해진 영국의 캐롤라인의 이야기이다.

영국의 한 여인 캐롤라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친정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불행을 느꼈다. 그는 엄마를 돌보는 게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엄마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돌본다고 말한다. 영국 BBC방송에서는 캐롤라인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아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참가시켰다. 이것은 영국에서 유명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후 BBC는 6개월 동안 그들의 생활을 추적했다. 방송에서는 캐롤라인을 즐거운 일이 없어도 거울을 보며 웃게 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녀는 엄마가 머리를 헹글거나 옷을 거꾸로 입더라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6개월 후 그녀의 행복지수는 몰라보게 높아졌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이 변화했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코미디 비디오를 본 사람들에게서는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에 대항해 싸우는 자연 살상세포의 활동성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근육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유쾌하게 웃으면 면역세포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항체는 2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으면 몸 속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 근육이 움직이는데, 한 번의 웃음은 에어로빅 5분의 운동량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7.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 방법 제안

웃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보기만 해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만 같은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지게 한다. 그런 웃음의 효과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스트레스를 엉뚱하게 푼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나는 웃음요법의 생활 속의 적용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실천하지는 못한다. 웃음요법의 생활 속 적용을 통해 사람들이 작게나마 웃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웃음요법을 여러 곳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로, 활동 시간을 이용한 웃음 활용을 제안한다.

사회에서는 개인이 마련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간디청소년학교 학생들에게는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체조는 물론, 개인의 운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들보다 운동량도 적은 편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운동을 제안하여 웃음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1분 여 동안 웃으면 10분 간의 조깅 효과를 보게 된다는 말을 비롯하여 웃음으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런 웃음 효과를 이용한 크레이지 웃음운동법을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자신의 지금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행복한 생각을 하고 크게 웃는 것을 반복하는 크레이지 웃음운동법을 운동시간, 혹은 직장에서, 아무 때나 실천해 보자. 물론 모든 것은 꾸준히 반복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웃음운동법의 효과만 믿고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니, 운동도 웃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웃음 동아리, 또는 웃음 단체를 제안한다.

지금 간디청소년학교에 있는 개그동아리처럼 학생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동아리가 있어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웃음의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해 즐겁고 기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다. 활동 사항을 예로 들어보자면, 단체나 동아리 부원끼리 모여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연구하여 한 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등 웃음의 날을 만들어 웃음 축제를 여는 것이다. 축제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주거나 웃음 쇼를 하고, 웃음요법을 배워 사람들에게 웃음명상법, 크레이지 웃음운동법, 바디피드백 등 여러 가지 웃음요법을 배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건강 회복을 위한 웃음 활용 제안이다.

건강 회복을 위한 웃음 활용은 병원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요즘의 병원은 너무 삭막하다. 병에 걸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나 잠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우울하게 지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곳이 병원이다. 부정적인 사고나 우울한 감정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스트레스는 병을 낫지 않게 하는 최고의 천적이므로 병이 낫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실 힘들고 괴로운 병에 걸려 기분 좋게 웃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단순히 건강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암을 치료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웃음의 효과를 환자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우울해서 즐거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웃음소리 혹은 대중매체를 등을 이용한 웃음요법

을 권하고 싶다.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웃음보가 자극을 받아서 웃을 수 있으므로 환자가 웃음을 되찾기 쉬울 것이다. 병원 측에서는 웃음치료가 환자를 찾아가 웃음요법을 실행함으로써 환자의 증세를 나아지게 하는 데 한몫을 한다고 한다. 우리도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픈 가족의 기분을 이해하며 함께 우울해져 있지 말고 환자가 즐거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재롱을 피우거나 코믹 만화, 또는 코미디프로그램 등을 빌려와 환자와 함께 본다면 환자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고민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웃음 활용 제안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웃음은 고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오랜 시간 혼자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특히 간디청소년학교처럼 기숙사에서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과 생활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고민도 하게 된다. 웃음에는 고민을 잊어버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며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이런 효능을 이용한 웃음명상법을 사람들에게 권한다. 웃음명상법은 자신이 왜 그 일로 해 갈등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명상과 함께 하는 방법이다. 명상 중간에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웃어 보고, 한 번은 인상을 써보는 것을 3분 동안 계속 반복한 후 본격적으로 웃기 시작한다. 웃음은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시켜 준다. 기쁨에 겨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 보자.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 라고 말이다. 여럿이 모이면 혼자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웃는 것이 좋겠지만 내키지 않는다면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밝은 성격을 만들기 위한 웃음활용 제안이다.

평소 짜증과 화를 잘 내고 자신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밝은 성격과 밝은 인상을 만들면 그만이다. 웃음을 지으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밝은 성격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우울하면 표정이 굳어 있게 되지만 즐거우면 밝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밝지 못한 사람들은 안면 스트레칭, 웃음명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울한 감정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웃음피드백을 권하고 싶다.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동작을 취해도 좋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한마디를 크게 외치면서 온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밝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다. 아침에 세안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자신에게 잘 잤냐고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항상 웃고 다니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어느새 자신의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고 동시에 대인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화를 줄이기 위한 웃음 활용 제안이다.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대개 자식은 온갖 오만상을 다 쓰고 부모님께 짜증을 부리며 큰 목소리로 대든다. 하지만 나중에는 항상 부모님께 죄송해 한다. 부모님은 자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해 주지만 역시 자식은 마음이 편치 못하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 다툼을 하게 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며 다투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미안하고 경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웃음명상법, 또는 크레이지 웃음운동법을 권한다. 명상법이라고 해서 꼭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방법 속에 있는 것처럼 기본 좋은 생각을 하며 웃어 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인상을 쓰지 말고 밝은 미소로 대화하였으면 한다.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혼나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서로 웃음을 띠고 부드럽게 대화를 한다면 싸우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공부 모임에서 웃음을 활용하라는 제안이다.

공부 모임이란 여럿이 모여서 서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배우는 모임을 말하는데,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들어 더 많은 효과를 보게 하려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등 각 분야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뛰어나 다른 친구를 책임지고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웃음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학습 효과를 높여 주는 웃음 효과를 이용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모임을 만들었을 때 모임 친구들끼리 모두 함께 안면스트레칭을 하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 웃음 명상도 하고 웃음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웃음 공부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효과가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웃음요법을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내가 제시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작게나마 웃음요법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밝아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III. 결론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좋은 것을 놓치게 되기 마련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 정작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 좋은 것이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값 비싼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어찌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소박한 것일 지도 모른다. 웃음은 그렇다. 언제나 사람 안에 있고 가장 비싸지만 가장 소박하다.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식습관과 환경 문제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웃음치료가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은 건강이고 행복이라는 것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누구나 다 웃음요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면, 웃음요법으로 병을 이겨내 운명을 바꾼 사람들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웃음요법 또는 웃음요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밝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자료가 많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자료의 부족함 때문에 웃음요법의 실태와 역사 등에 관한 설명은 이곳저곳에서의 자료를 모아 내가 짜 맞춘 부분이 많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웃음요법의 방법도 자료가 아무에게나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인지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또 내가 중점이라고 두었던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가장 안타깝기도 한 한계점인 듯하다.

어떤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웃음치료사라는 분은 내 질문에 참 매정하게 대답해 주셔서 적지않은 실망과 짜증도 있었지만 다음 카페에서 알게 된 웃음치료사 분은 내 질문에 친절하게 응해 줘 정말 기분이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이런 논문을 또 쓰는 날이 온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놓은 뒤 부지런하게 더 좋은 논문을 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논문을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후부터라도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웃음이란 자신이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느껴야만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었으면 한다. 나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special thanks to...

가끔 문자를 보내셔서 논문의 압박을 알게 모르게 주셨던 아버지와 언제 어디서든 날 지켜봐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항상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논문을 지도해 주시며 "힘내, 열심히 해, 사랑해." 등등 힘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장 선생님과 항상 우리 3학년 곁에서 응원해 주고 지켜봐 주신 우리 병삼 쌤, 저 멀리 충주에서 맛있는 것 사다 주며 응원해 주신 우리 현숙 쌤,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멋진 응원해 주셨던 우리 태 쌤, 늦게까지 우리와 잠 못 이루고 함께 계셔 주며 응원해 주신 옥 쌤과 남감 쌤, 작은 코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신 코 쌤, 밝은 미소로 웃어주며 즐겁게 해주셨던 임주 쌤, 맛있는 것 해주며 영양보충을 시켜 주셨던 은주 쌤, 멋진 모습으로 기분 좋게 해주셨던 곰 쌤과 필

쌤, 양 쌤,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식당 문을 열어 주셨던 식당 쌤들, 멀리서 우리 논문 발표 응원해 준다고 발표 들으러 와 주신 감 똥, 아프고 피곤한 것을 관촬아지게 해주신 한자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윤하 쌤, 언영 쌤, 경환 쌤... 모든 쌤들 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논문 발표 들어 주고 멋진 이벤트 준비하느라 애쓴 사랑하는 1, 2학년 친구들, 밤마다 이불 깔아 주고 일찍 자라고 걱정해 주었던 우리 3호방 해지, 재원, 시내, 예나 너무 고맙고 사랑해.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년 친구들, 눈도 크고 귀엽고 사랑하는 깡지, 때로는 앞땀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탄, 강아지 같고 말랑말랑해 너무 귀여운 내 사랑 규, 드림을 치는 것이 멋있고 모든 이들에게 인기 많은 사랑하는 병건, 귀엽고 애교 많은 귀여운 내 사랑 늑나, 인기도 많고 기타를 치는 것도 멋있어 죽겠는 사랑하는 병우, 사진도 멋있게 찍을 줄 알고 애교 많고 예쁜 내 사랑 한솔, 매너 좋고 친절한 사랑하는 요술공주 밍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줄 아는 사랑하는 옹지, 개골개골 가람심기 등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랑하는 가람, 예쁘고 멋지기 까지 하고 그림도 정말 멋있는 내 사랑 유리, 멋있고 때로는 정말 자상하다 느껴지는 사랑하는 승안, 빠른 달리기에 모두를 놀래키고 재채기 소리에 또 한번 놀래키는 사랑하는 징, 귀엽고 착하고 멋있고 너무 사랑하는 뽕돌, 잘 걷는 것에 이어 안마도 너무 잘 하는 사랑하는 주희, 당황스럽지만 웃긴 개그로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사랑하는 원중, 귀엽고 독특한 스타일로 감동시키는 히예, 노래도 잘하고 이름도 멋있는 사랑하는 인범, 춤도 잘 추고 구라 캡 사진 잘 찍어 놀래 키는 사랑하는 수현, 멋진 개그로 모두를 감동시키는 사랑하는 현석, 항상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기쁨 조 내 사랑 수덕, 항상 멋있어 보이는 사랑하는 태규, 엄청난 괴력과 의외의 그림 실력에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랑하는 보그걸, 독특하고 멋진 상상력도 가진 사랑하는 승수, 노래 실력이 좋고 많은 표정으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랑하는 새옥, 멋진 목소리와 웃긴 모션으로 우리를 웃기는 사랑하는 용봉, 그리고 사랑하는 주나, 사랑하는 배솔, 다들 피곤해도 함께 웃고 떠드느라 수고했고, 너무너무 사랑해.

* 자료 출처

www.naver.com (지식검색, 웹 문서, 블로그)

www.rkl.co.kr (한국레크리에이션센터)

www.daum.net (검색 사이트)

검색을 통해 나온 인터넷 뉴스

버나드 쇼의 웃음(김봉정 지음, 브레인하우스 펴냄)

건강이 썩는 웃음 성공을 부르는 웃음(노만택 지음, 보성출판사 펴냄)

김형준 웃음치료사(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치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얻음)

기초 드럼 교본



이병건

1989년 07월 15일 서울 출생

2남 중 장남

제일유치원 - 성포초등학교 - 산본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2004년 4월 경기도 고입 검정고시 합격

혈액형 / RH+A형

취미 / 드럼

특기 / 드럼

소속 / '중3밴드' 드러머(간디락스타연합)

하고 싶은 말 / "졸업하기 싫다. 좀... 그렇다."

- 2004 졸업 논문
『기초 드럼 교본』
- 발표자 : 이병건
- 지도교사 : 이영민 선생님

차 례

1.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_ 265
2. 드럼의 기본 상식_ 265
 - 1) 드럼 세트와 각 명칭_ 265
 - 2) 드럼 튜닝하는 법_ 266
 - 3) 드럼 관리하는 법_ 266
 - 4) 기본 자세_ 267
 - 5) 스틱 잡는 법과 치는 법_ 268
 - 6) 드럼 악보 읽는 법과 적는 법_ 268
 - 7) 기본 악전_ 270
 - 8) 연습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들_ 272
3. 연습에 들어가면서_ 273
4. 연습 편_ 274
 - 1) 손, 발 연습_ 274
 - 2) 베이스와 스네어 드럼 연습_ 275
 - 3) 여러 가지 연습들_ 282
 - 4) 테그닉 편_ 283
5. 연습곡(3곡 정도)_ 290
6. 후기_ 293

기초 드럼 교본

1.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

내가 이 '기초 드럼 교본'을 만들게 된 동기는 현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드럼 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드럼에 대해 여러 가지 기본 상식들을 알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리듬 연주할 때 박자 다 틀리고 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학교 드러머들을 위해 '기초 드럼교본'을 만들었다.

이 드럼 교본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드럼을 제대로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사진들은 모두 내 모습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찍은 사진들이다. 이 교본은 일반 교본보다는 세련되지는 않지만 아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보기 쉽게 썼다.

2. 드럼의 기본 상식

1) 드럼 세트

그림 1의 드럼 세트는 야마하 드럼 세트이다. 이 드럼 세트는 가장 일반형 세트인데, 우리 학교에 있는 드럼 세트와 같다.

아래 기호는 드럼의 각각 세부 명칭의 약자이다. 하나하나 외워 두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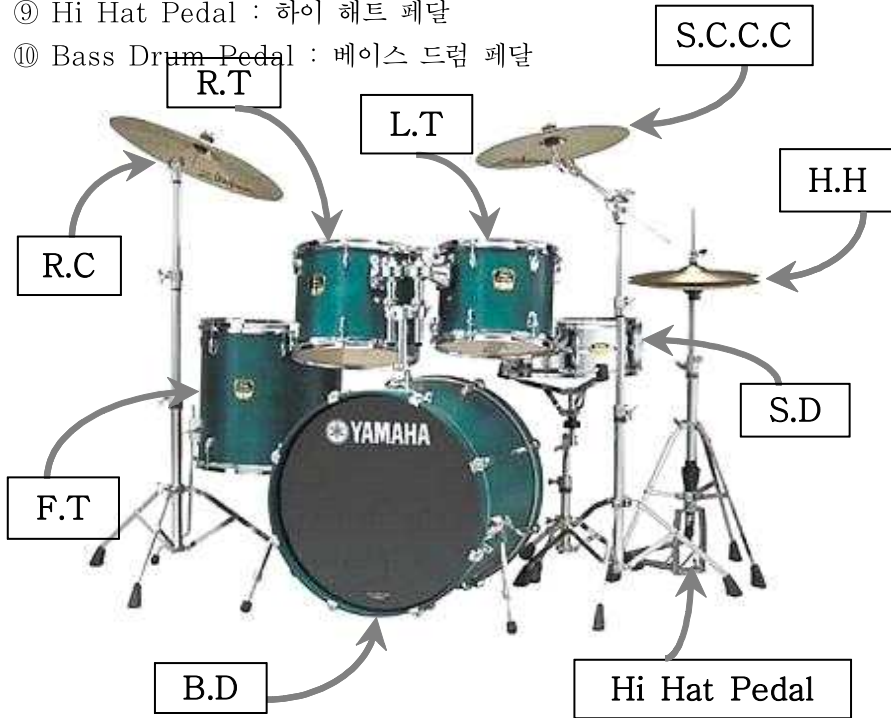
(1) 드럼 세트의 세부 명칭

- ① S.D : 스네어 드럼(Snare Drum)
- ② B.D : 베이스 드럼(Bass Drum)
- ③ R.C : 라이드 심벌(Ride Cymbal)
- ④ H.H : 하이 햇 심벌(Hi Hat Cymbal)
- ⑤ S.C : 사이드 심벌(Side Symbal) 또는 C.C : 크래쉬 심벌(Crash Symbal)
- ⑥ L.T : 왼쪽 탐탐(Left Tom-tom) 또는 S.T : 스몰 탐탐(Small Tom-tom)
- ⑦ R.T : 오른쪽 탐탐(Right Tom-tom) 또는 S.T : 스몰 탐탐(Small Tom-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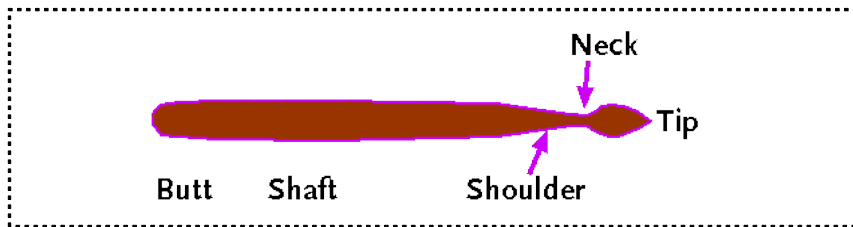
⑧ F.T : 플로어 탐탐(Floor Tom-tom) 또는 L.T : 라이지 탐탐(Large Tom-tom)

⑨ Hi Hat Pedal : 하이 해트 페달

⑩ Bass Drum Pedal : 베이스 드럼 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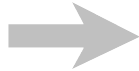
(그림 1 드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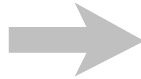
(2) 스틱의 각 부위별 명칭

2) 드럼 튜닝하는 법

튜닝이란 음을 조절하는 것인데, 일단 드럼의 스네어 드럼 조절하는 방법은 별 모양으로 대각선을 그리면서 조이는데, 한 번에 많이 조이면 안 되고, 90도 정도로 차례대로 조이면 된다. 음은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게 조이면 되고 플로어 탐과 오른쪽 탐과 왼쪽 탐은 도, 미, 솔 등의 음으로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피



[그림 2 베이스 드럼 밟는 방법]
아노 음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도, 미, 솔의 느낌으로 조율한다면 필인할 때 소리



[그림 3 하이햇 페달을 밟는 방법]
가 아주 자연스러워진다.

베이스 드럼 조율은 앞뒤 똑같이 어느 정도 조여 준 뒤, 베이스 드럼에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음을 하는데, 베이스 드럼통 안에 모포 같은 것을 넣어서 방음해 준다. 그리고 베이스 드럼 앞 부분에 모포가 닿는 부분을 조금만 조율해 주면 된다.

3) 드럼 관리하는 법

드럼 관리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만큼 소리가 나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일단 드럼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안 된다. 보기도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소리가 안 좋게 변할 수 있으니깐 항상 먼지를 닦아 내야 한다. 그리고 작사광선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드럼은 관리를 얼마만큼 소중히 하고 소중히 다루느냐에 따라서 음질도 안 나빠지고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 줘야 한다.

4) 기본 자세

드럼을 치려면 우선 자세부터 알아야 한다. 자세부터 제대로 잡아야 연주할 때도 편하게 칠 수 있는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칠 때도 불편하고, 장시간 드럼 연주할 때 매우 지치고 힘들어진다.

우선 몸 전체적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의자에 앉는데 의자 중앙에 꼬리뼈 정도가 올 수 있게 앉는다. 그리고 발을 각 페달 위에 올려놓는데 페달을 밟을 때, 발끝을 들어선

안 되고, 뒤꿈치도 치기 전과 친 후에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뒤꿈치를 계속 들고 치면 종아리에 무리가 가서 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붙이고, 항상 힘을 뺀 상태에서 무게감 있게 밟는다.

손도 마찬가지로 일단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가볍게 오른손은 하이햇에, 왼손은 오른손 밑으로 스네어 드럼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손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바운스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때리면 된다. 힘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양손의 밸런스도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은 손끝으로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만 넣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머리는 너무 흔들지 말고 드럼 전체를 바라보면 된다. 몸도 너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도 편해 보일 정도로 살짝 흔들어 주면 된다.

간단하게 기본 자세는 이 정도로 하고, 이 기본 자세들을 제대로 연습해 놓지 않으면 몸이 드럼을 연주하기에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 자세들은 항상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고, 몸이 기본 자세대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혀 봐야 한다.

5) 스틱 잡는 법과 치는 법

(1) 스틱 잡는 법

스틱을 잡는 법은 일단 스틱을 너무 꽉 잡으면 소리도 깨끗하지도 못하고 끊기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검지와 엄지손을 중심으로 스틱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1/3 가량 잡아 준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스틱을 옆으로 튀지 않게 받혀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매치드 그립 잡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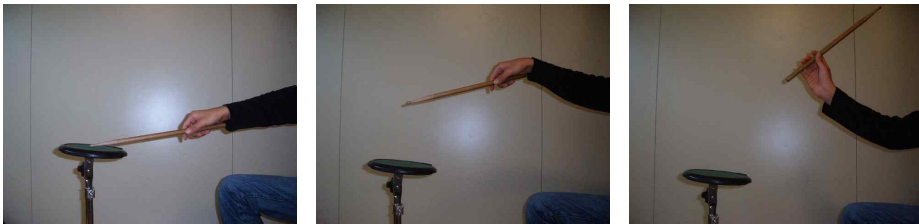
스틱을 잡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매치드 그립’과 또 하나는 ‘레귤러 그립’인데, 먼저 ‘매치드 그립’은 오른손, 왼손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잡는 방법이다. ‘레귤러 그립’보단 잡고 치는 법이 비교적 쉽고 더 강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레귤러 그립’은 양손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잡고 있는 그립이다.



[그림 6 스틱 잡는 법]

(2) 치는 법

일단,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손가락에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스틱을 받혀 준다. 이제 스틱을 치는데 스틱을 쥘 상태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유연하게 들어 올렸다가 무게감 있게 순간적으로 내려친다. 너무 힘을 줘서 치게 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때릴 때 손가락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고 다시 풀어 준다. 스틱을 칠 때 힘으로만 움직이면 힘들어지고 양손이 내는 소리도 딱딱한 느낌이 나게 되므로 힘은 필요할 때만 순간적으로 넣어 준다.



[그림 7 스틱으로 치는 법]

위에 나오는 사진처럼 반복한다.

6) 드럼악보 읽는 법과 적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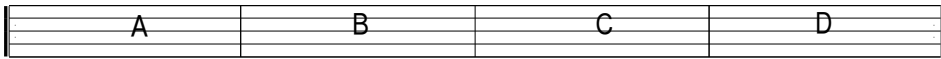
(1) 드럼 악보 읽는 법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무엇이든 읽고 연주할 수 있다.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박자도 악보만 읽을 수 있다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 악보를 읽을 수 없다면 쉬운 박자라도 따라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말은 하는데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책도 못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박자라도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연주할 수 있다. 때문에 악보를 읽는 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이다.



7) 기본 악전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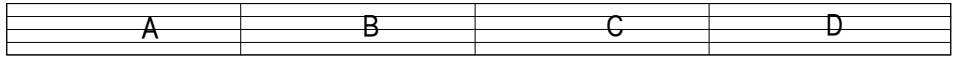
A - B - C - D - A - B - C - D

<2번>



A - B - C - A - B - D

<3번>



D.C

A - B - C - D - A - B - C - D

<4번>



D.S

A - B - C - D - E - B - C - D - F - G - H

1번 - 첫 번째 악보에는 도돌이표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가 나오면 한 번 더 반복하라는 말이다.

2번 - 두 번째 악보에는 나와 있는 순서대로 1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1을 건너뛰고 2로 넘어간다.


3번 - 세 번째 악보에는 D.C(다 카포)라는 기호가 있는데, 순서는 다 카포에서 곡의 첫 머리로 돌아가서 연주하라는 뜻이다.


4번 - 네 번째 악보에는 세뇨(8)라는 기호와 D.S(달 세뇨)라는 기호, 코(8)는 기호가 있다. 순서는 위의 순서대로 달 세뇨에서 세뇨로 가서 연주하다가 세뇨와 달 세


노의 중간에 위치한 코다에서 다음 코다로 건너뛴다.


위에 나오는 기호들은 악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 기호들이다. 이 기호들을 모른다면 악보의 순서나 곡의 흐름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몰라서 연주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악보를 그릴 때도 반복 기호들을 모르면 예를 들어 두세 장이면 다 그릴 수 있는 악보를 10장 넘게 그려야 하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의 반복 기호들은 머리 속에 기억해 두면 좋다. 그리고 드럼을 연습할 때 악보에 나오는 기호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익혀 두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곡들도 악보를 보고 연주하고 그릴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음표의 길이

온 음표 - 1박 2박 3박 4박 


2 분음표 - 1박 2박 


4 분음표 - 1박 

8 분음표 - 1/2박 

16분음표 - 1/4박 

● 쉼표의 길이

온 쉼표 - 1박 2박 3박 4박 

2 분쉼표 - 1박 2박 

4 분쉼표 - 1박 


8 분쉼표 - 1/2박 


16분쉼표 - 1/4박 

● 점음표와 점첨표

점 음 표 - 1박 2박 3박 4박 5박 6박 

점 2 분첨표 - 1박 2박 3박 

점 4 분음표 - 1박 1/2박 

점 8 분음표 - 1/2박 1/4박 

위에 음표와 첨표들의 각 박자 길이가 나오는데 드럼 악보에서도 많이 나온다. 알아 두면 여러 가지 어려운 박자나 필인을 쉽게 이해하고 악보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고 몇 박인지만 잘 알면 편하다.

음표에 '붓점'이란 것이 있는데, 각 음표에 붓점이 붙게 되면, 음표의 박자는 각 음표의 박자에 반박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음표에 붓점이 붙으면 온음표(4박)의 반박(2박)을 붙여서 6박이 되는 것처럼 각 음표의 반박씩만 더하면 된다.

8) 연습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

드럼을 제대로 연습하려면 드럼 패드와 메트로놈과 스틱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없으면 손으로 스틱 컨트롤 연습이 잘 되지 않고, 박자도 메트로놈으로 맞춰서 딱딱 맞도록 하는 연습과 스피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도는 소유하고 있어야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실력도 빨리 키울 수 있다.

(1) 드럼 패드

드럼 패드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스틱을 치면 아주 잘 튕긴다. 실제 드럼에서 도 통을 치면 스틱이 튕기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실제 드럼통을 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연습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드럼패드로 드럼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기 위해 치는데 패드로 연습할 때는 기본적인 박자인 RLRL이나 LRLR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오른발도 RLRL 이면 첫 번째 R에 한 번씩 밟아주는 식으로 시작해 점점 어려운 박자를 연습해 나가는 식으로 한 달 간만 꾸준히 연습해주면 손과 발의 움직임이 아주 유연해질 수가 있다.

(2) 메트로놈

메트로놈은 속도를 조절해 주는 기계로 템포(속도)를 조절해서 맞춰 주면 알아서 메트로놈이 똑딱 소리를 내는데, 박자 맞추는 연습도 되고 스피드 훈련도 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

(3) 드럼 스틱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것이 있어야 드럼도 치고 연습도 할 수 있다. 연습할 때는 매트로부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맞추고 패드를 놓고 그 위에 드럼 스틱으로 정확하게 열심히 친다. 이렇게도 연습을 하고 스틱은 작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허공에서도 열심히 스틱을 휘두르며 꾸준히 스틱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3. 연습에 들어가면서

내가 처음 드럼을 시작할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동안 배워 오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다. 그래서 드럼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써 보았다.

첫째로, 드럼을 시작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말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연습도 대충 끝내고 점점 하기 싫어져서 나중엔 짜증까지 나고 실력도 늘지 않게 된다. 내가 처음 드럼을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은 특히 자세 잡는 것이었다. 드럼을 시작하면서 자세를 잡을 때 스틱도 방망이 쥐듯 잡고 앉는 자세도 빼뺏고 온몸에 힘이 막 들어가 드럼을 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자세를 잡아서 제대로 드럼을 치려면 항상 드럼 연습을 할 때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꼼꼼히 살펴 보면서 자세를 잡아 가야 한다. 모든 것은 오직 연습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드럼에 관심도 가져서 힘들어도 끝까지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그만큼 실력도 쌓이게 된다.

둘째로, 많은 음악들을 들어 본다.

음악에 관련된 뮤직비디오나 DVD 같은 것들을 봐도 괜찮다. 많은 음악들을 들어서 자기가 맘에 드는 곡이 있으면, 그 곡에 나오는 드럼을 어떻게 치는 것인지, 계속 들어 봐서 리듬을 알아내 보면 새로운 것들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자기가 맘에 드는 곡들만 알아내서 쳐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나오는 리듬도 알아내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재미도 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아주 다양한 리듬들이 들리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아는 것들이 많아진다.

초보자들이 쉽게 칠 수 있는 곡이 Hoobastank의 'The reason'이란 곡이나 815의 'I love you'란 곡 등이 있는데, 이런 쉬운 곡들을 찾아 들어 보면서 쉽겠다 하는 곡들을 쳐 보기도 하고 곡에서 나오는 드럼을 악보로 직접 그려 보기도 하면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셋째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또 한다.

드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생긴다. 그럴 때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거기서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아쉬움만 남게 된다.

드럼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땐, 속으로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생

각이나 유명한 드러머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깊이 있고 실력 있는 드러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간다면, 더욱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되어 실제로 깊이 있고 실력 있는 드러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 습 편

1) 손, 발 연습

(1) 오른발 연습

The image shows ten staves of handwritten drum notation for right foot practice. Each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rhythmic patterns. The notation uses vertical lines for strokes and various symbols (such as 'x', 'o', and 'v') to indicate specific drum parts or techniques. The patterns progress from simple quarter notes to more complex eighth and sixteenth note combinations, including some triplet-like structures.



페달 밟는 자세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정확하게 소리도 무게감 있게 나오도록 한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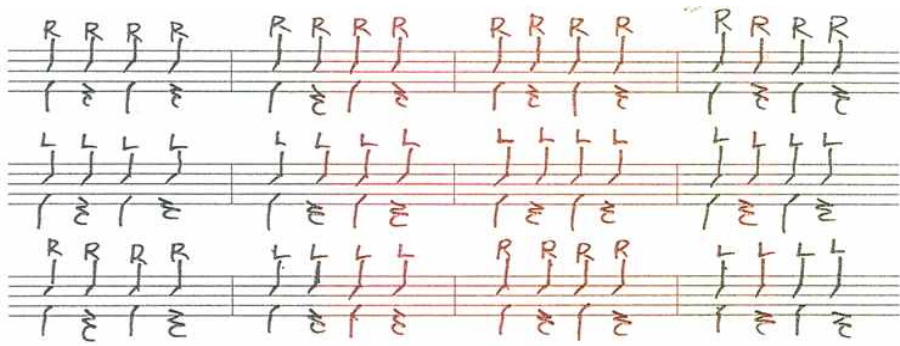
(2) 왼발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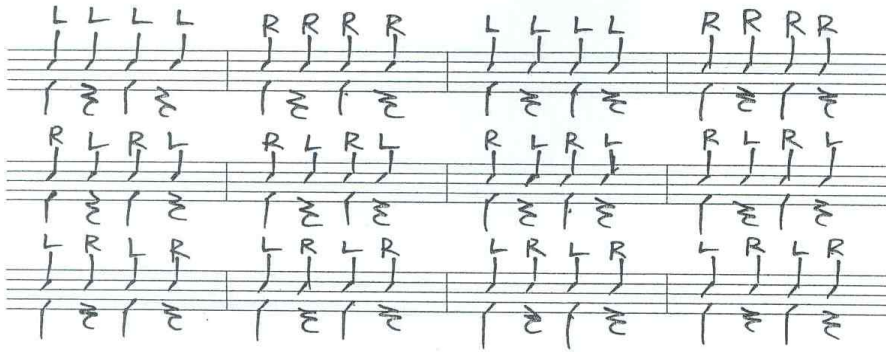


왼발 연습도 오른발 연습과 같은 방식으로 뒤꿈치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페달 밟는 위치도 정확하게 잡아서 밟는다. 왼발은 어느 리듬에서나 메트로놈 같은 역할도 하고 오른손이 라이드 심벌을 치거나 하이햇을 안 치고 있을 때도 밟아 주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야 한다.

2) 베이스와 스네어드럼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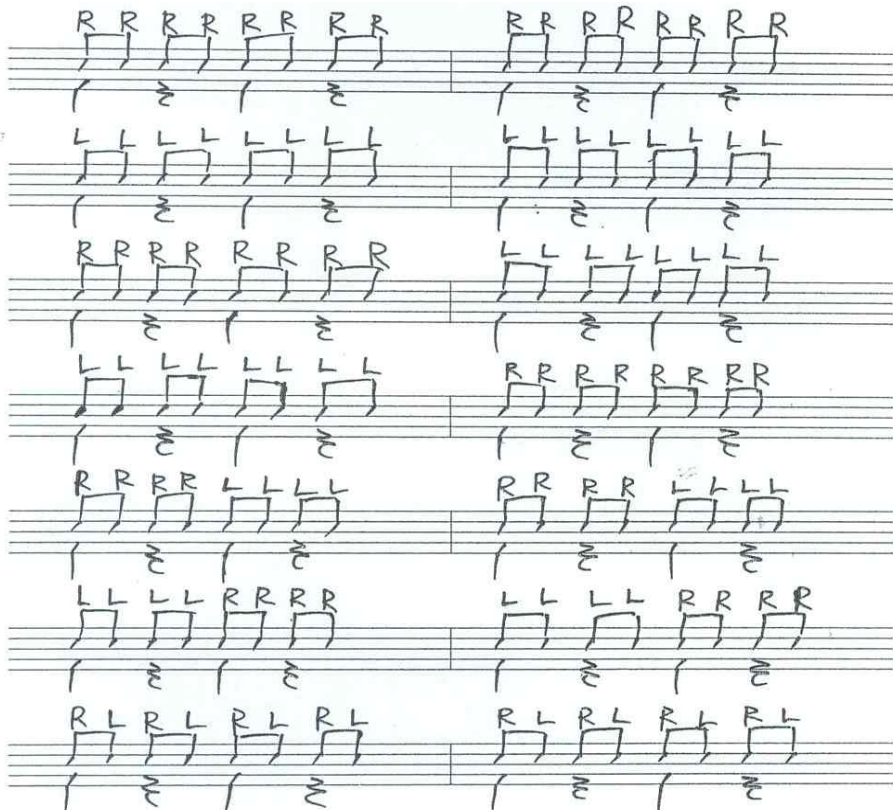
(1) 4분 음표 연습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럼에서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왼손 연습을 많이 해서 오른손과 똑같은 음을 칠 수 있게 양손이 일정한 소리로 정확하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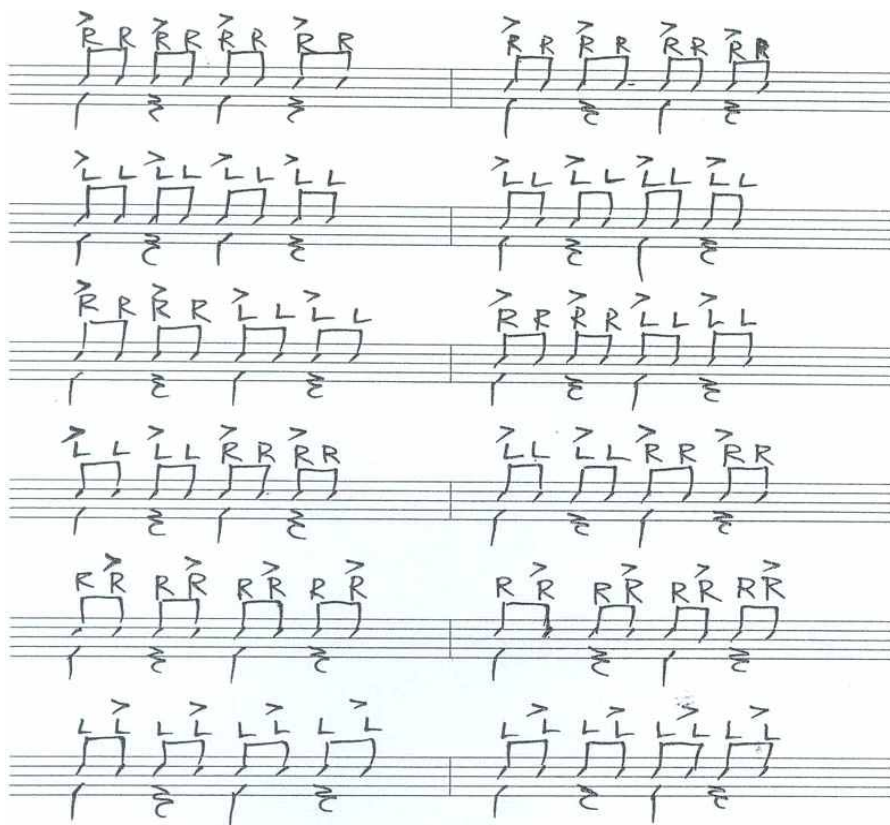
(2) 8분음표 연습





이런 연습들을 몸에 익혀 봐야 어려운 리듬도 쉽게 연주할 수 있다.

(3) 8분 음표 강약 연습



양손의 강, 약 소리가 뚜렷하게 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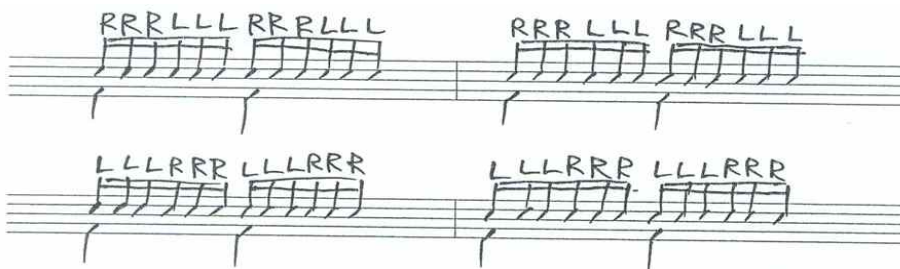
(4) 셋잇단음표 연습(3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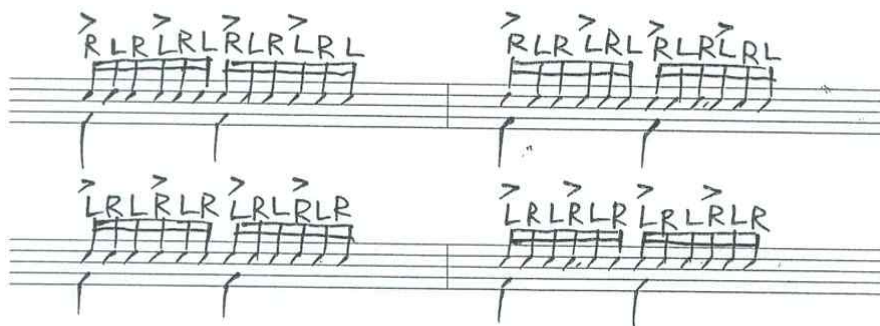
Handwritten drum notation for sixteenth-note exercises. It consists of five rows of two staves each. Each staff contains two measures of music. The notes are represented by vertical stems with flags, and the letters 'L' and 'R' are written above them to indicate left and right hand strokes. The exercises include patterns like LLLL, RRRR, and alternating L and R strokes.

(5) 6연음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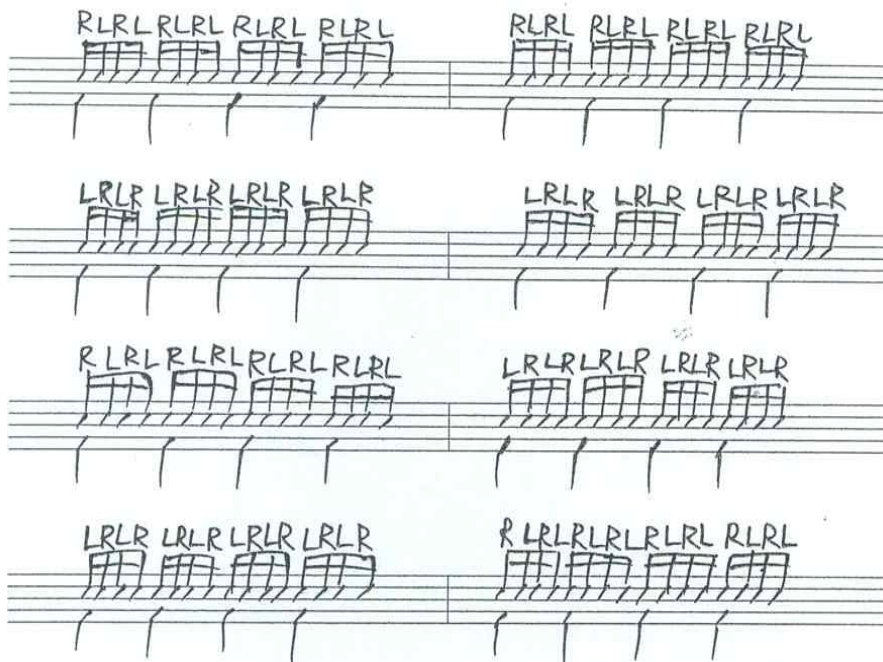
Handwritten drum notation for sixteenth-note exercises. It consists of four rows of two staves each. Each staff contains two measures of music. The notes are represented by vertical stems with flags, and the letters 'L' and 'R' are written above them to indicate left and right hand strokes. The exercises include patterns like RRRR, LLLL, and alternating R and L strokes.



(6) 6연음 강약 연습



(7) 16분 음표 연습



(8) 셔플리듬 연습

연습할 때 양 손을 바꿔서도 연습해 본다(RLRL - LRLR).

(9) 종합 연습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organized into two columns and eight rows. Each row contains two measures of music. The notation consists of rhythmic patterns represented by vertical stems and beams, with letters (R for Right, L for Left) placed above the notes to indicate the hand used. The patterns are as follows:

- Row 1: Left column: RLRRLR LLRLRR; Right column: LRL LRLRRL RLL
- Row 2: Left column: RRLRRLRRL RRL; Right column: LRL LLR LLR LLR
- Row 3: Left column: RLL RLL RLL RLL; Right column: LRR LRR LRR LRR
- Row 4: Left column: RLLRRLRRLRRL; Right column: LRR LLRR LLRR LLRR
- Row 5: Left column: RRR LLL RLRR LLL; Right column: LLL RLRR LLL RLRR
- Row 6: Left column: RLLRLLRL RLL RLLR; Right column: LRR LRR LR RLRR LRRL
- Row 7: Left column: R LR RL RL L; Right column: L RL LR LR R
- Row 8: Left column: R LL RL LR L; Right column: L RR LR RL R

3) 여러 가지 연습들

(1) 플램(flams) 연습

$\textcircled{L} = \begin{matrix} \text{L} \\ \text{R} \end{matrix}$ $\textcircled{R} = \begin{matrix} \text{L} \\ \text{R} \end{matrix}$

Staff 1: \textcircled{L} L L L \textcircled{R} L \textcircled{R} L L L \textcircled{R} L \textcircled{R} L L L
 Staff 2: \textcircled{R} L L \textcircled{R} R R \textcircled{L} R R R \textcircled{L} R R \textcircled{L} R R
 Staff 3: \textcircled{R} L \textcircled{R} L R \textcircled{L} R \textcircled{L} R L R \textcircled{L} R \textcircled{L} R L

(2) 파라디드 연습

Staff 1: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Staff 2: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Staff 3: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overset{\curvearrowleft}{L}RLL$ $\overset{\curvearrowright}{R}LRR$

(3) 더블 연습

Staff 1: R L R L R L R L R L R L R R L L R R L L R R L L
 Staff 2: L R L R L R L R L R L R L L R R L L R R L L R R

4) 테크닉 편

(1) 8비트 리듬

The image display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n 8-bit rhythm exercise. It consists of 16 staves, each containing two measures of music. The notation is written in a style characteristic of early digital music, using 'x' marks to represent notes and vertical lines for stems. Brackets are used to group notes into patterns. The rhythm is based on an 8-bit pattern, which typically consists of a sequence of 8 notes (e.g., 10101010). The score shows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groupings across the 16 staves, demonstrating different ways to interpret or play an 8-bit rhythm. Each staff begins with a double bar line and ends with a double bar line. The notation is clear and legible,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tes and the underlying 8-bit pattern.

This image shows a page of handwritten drum notation, organized into six systems. Each system consists of two staves. The notation uses 'x' marks to represent drum notes, with various bracket and bar symbols indicating phrasing and timing. The notation is arranged in two columns of six systems each.

(2) 16비트와 스네어 드럼 16비트 리듬

① 16비트 리듬

The image displays a handwritten drum notation exercise for a 16-bit rhythm. It is structured into 12 pairs of staves, arranged in two columns of six pairs each. Each pair consists of a top staff with rhythmic notation (stems and 'x' marks) and a bottom staff with rectangular boxes representing drum hits. The notation is organized into two columns of six pairs each, with a double bar line between the columns.

② 스네어 드럼 16비트 리듬

The image display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nare drum, consisting of 16 staves of music. Each staff is divided into two measures by a vertical bar line. The notation uses 'x' marks to represent drum hits, with stems and beams indicating the rhythm. The notation is dense and complex, featuring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accents. The first measure of each staff typically starts with a series of 'x' marks, followed by a more complex rhythmic pattern. The second measure continues this pattern, often with a different rhythmic structure. The notation is written in a clear, legible style, with consistent use of 'x' marks and stems.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professional or semi-professional musical score, likely intended for a drum set.

(3) 셔플 리듬

The image shows a series of 14 staves o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shuffle rhythm exercise. Each staff contains two measures. The notation uses 'x' for notes and 'r' for rests, with various rhythmic groupings and accents. The first measure of each staff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accents, and the second measure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accents and rests. Above the first measure of the first staff, there are three '3' symbols with arrows pointing to groups of notes, indicating a triplet or a specific rhythmic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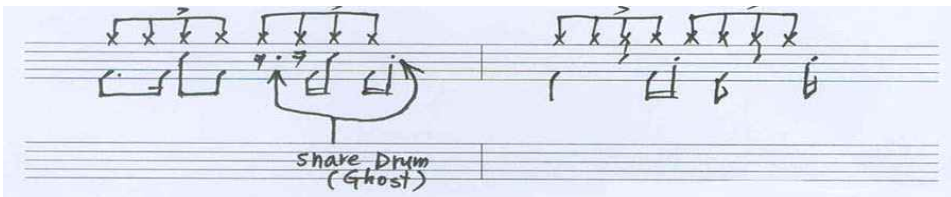
하이햇 페달도 섞어 가면서 연습해 보는 습관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리듬 연습할 때나 연주할 때도 하이햇 페달을 끌고루 섞어 가며 연습한다.

(4) 하이햇 페달을 이용한 리듬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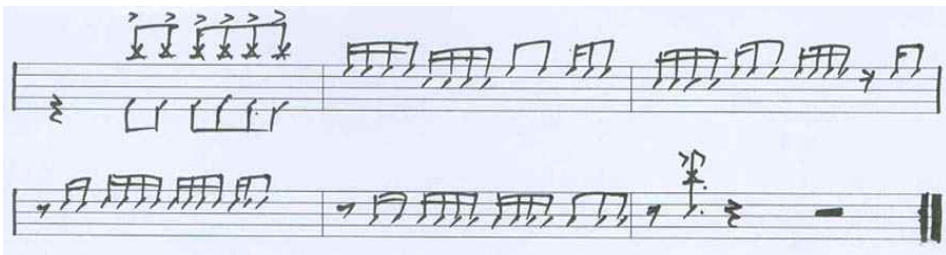
박자만 계속 연습하면 스틱 컨트롤 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처음 연습했던 스트로크 연습을 계속해 줘야 실력이 쌓인다.

(5) 고스트 리듬 연습



고스트 음은 소리가 날 듯 안 날 듯, 거의 살짝 소리가 나도록 친다.

(6) 간단한 드럼 솔로



이 드럼 솔로는 윤도현 밴드의 '가리지 좀 마'란 곡에 나오는데, 연습하는 데 쉬울 것

같이서 여기에 적어 보았다.

(7) 여러 가지 필인



이 필인들이 전부 스네어 드럼으로 이루어졌지만 자기가 혼자서 이곳저곳에 탐탐으로 바꿔 연습해 보면 좋다.

3. 연습곡

1) 연습곡 1(템포 = 132)

연습곡에 나오는 음악들은 모두 드럼과 베이스 기타 외 다른 악기들이 합주한 음악인데 아주 짧지만 왼손이 따라가기 힘든 곡들이다. 그래서 왼손 연습에 도움이 되는 곡들이기도 하다.

2) 연습곡 2(템포 = 132)

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연습곡 2' (Exercise 2) in 4/4 time, with a tempo of 132. The score is organized into 12 systems, each consisting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of each system features rhythmic notation, primarily using 'x' marks and beams to indicate pattern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The lower staff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notes and stems, often mirroring the rhythmic patterns above. The piece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4/4 time signature. It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dots, indicating the end of the exercise.

3) 연습곡 3(템포 = 112)

이 연습곡들에 나오는 리듬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라이드도 집어넣고 심벌도 넣고 하면서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6. 후기

이 '기초드럼교본'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완성해 가면서 새로운 것도 얻고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드럼이란 악기가 '막명악기'에 속한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막명악기'에 속하는 이유는 가죽 같은 것을 쳐서 소리 내는 타악기를 '막명악기'라고 한다. '막명악기'는 가죽을 당겨서 두들기는 소리가므로 세계 치는 소리의 음과 살살치는 음의 높낮이가 다르다. 그러나 '막명악기' 중 유일하게 팀파니란 악기만이 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체명악기'란 것이 있는데, 피아노나 실로폰처럼 건반 형식으로 된 타악기이다. '체명악기'는 쇠를 길고 짧게 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음 조절이 가능한 악기이다. 그래서 드럼이란 악기는 '막명악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직접 악보를 펜으로 쓴 일이었다. 악보 한 장 한 장을 그릴 때마다 무슨 악보를 넣을지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다 실 패해서 또 하고 또한 기억이 머리 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컴퓨터로 악보를 작성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혼자서 다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일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 컴퓨터에 완성된 나의 논문이 저장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내가 만든 드럼 교본이 드럼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나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었던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이 교재를 보고 후배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와주신 분들

부모님, 논문 지도 교사 이영민 선생님, 우리 학년 담임이신 김병삼 선생님 외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학교 친구들, 그리고 사진 찍어 준 원중이와 옆에서 말로 힘을 붙여 넣어 준 승우와 뒤에서 이름 넣어 달라고 한 은지, 그리고 우리 방 사람들 모두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자료〉

연습드럼교본 - Rhythm Section Drumming by Frank Corniola
인터넷 자료 - <http://www.drumboy.net>

간디학교의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이병우 _

1989년 07월 15일 경기도 출생

2남 중 차남

완산제일유치원 - 성포초등학교 - 산본초등학교 - 성지송학중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2004년 4월 경기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King of the math' 등

혈액형 / RH+A형

별명 / 메탁몽.

취미,특기 / 기타치기, 노는 거, 공부, 뱀 잡기, 수석 캐기 등

소속 / 간디중, 간디락스타연합, 병아리, 아가길드

좌우명 / “No pain, No gain”

하고 싶은 말 / “주님은 나의 힘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논문 졸라 짜나)”

- 2004 졸업 논문
『간디학교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 발표자 : 이병우
- 지도교사 :

차례

1. 논문을 쓰게 된 동기 및 목적_ 297
- II. 본론_ 297
 1. 놀이의 정의_ 297
 2. 간디학교의 놀이 분석_ 298
 - (1) 기숙사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_ 298
 - (2) 간디학교 안(기숙사 밖)에서 하는 놀이들_ 300
 - (3) 간디학교 밖(학교 주변)에서 하는 놀이들_ 301
 3. 놀이의 유형 분석_ 303
 - (1) 반공동체적 놀이_ 303
 - (2) 스포츠 / 레저형 놀이_ 303
- III. 결론_ 304
 1. 간디학교 놀이의 문제와 방향 제시_ 304
 2. 논문을 마치며_ 305

간디학교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I. 서론

1. 논문을 쓰게 된 동기 및 목적

간디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5학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6학년이 되면서 차츰 간디학교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산청에 같이 있었을 때였다. 나는 겨울 계절 학교에서 5박 6일 동안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었던 간디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알게 되었고, 간디학교를 가겠다는 결심 끝에 지금은 간디학교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서 간디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간디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입학에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간디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참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부분 중에서도 놀이를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을 소개한다면 간디학교를 알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완성된 이 논문이 간디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디학교 선생님들께는 학생들만의 은밀한 놀이까지 소개함으로써 보다 더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부모님들께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여 추측만 하던 학생들의 생활을 잘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되돌아봄으로써 반성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비록 사소한 놀이일지라도 그 놀이 속에서의 의미를 찾고 부분적인 평가를 통해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II. 본론

1. 놀이의 정의

인간의 생존과 관련 있는 활동과 '일'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활동.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이 없는 활동으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 활동이다. 일정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며, 정서적 공감력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다.

놀이는 피로를 풀어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생활에 탄력을 주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와 생활상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한 준비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다음 백과사전).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에서 식사, 수면, 호흡, 배설 등 직접 생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하고 '일'과 대립하는 개념을 가진 활동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생존을 위한 신체적 적응에 직접관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나 강제에 따르지 않는 행동 그 자체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 그 점에서 진지한 적응 행동, 일, 학업, 현실생활등과 대비된다. 놀이는 일반적으로 비적용적, 비실제적, 비생산적, 비수단적 (자기 목적적), 비현실적인 여분의 행동이라 하지만, 이들 개념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행동의 내용을 보고 놀이와 놀이가 아닌 행동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많은 행동이 행동 주체의 태도나 동기 여하에 따라 놀이로써도, 놀이가 아닌 행동으로서도 행해질 수 있다. 성인에게 놀이는 일을 떠난 여가 활동이라는 제 2의 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있어 그것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절대적인 기회이며, 어린이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의 촉진과 사회성과 창조성을 기르는 활동이다(백과사전).

위와 같이 놀이의 정의들을 조사해본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 생존과 관계되는 활동과 '일'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정의한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간디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간디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문화 탐방과 같은 단체 행사, 동아리 활동, 또는 청소나 묵학, 취침 등등, 주어진 시간 이외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모두 놀이라고 정의한다. 꼭 규칙이 정해져 있다 해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어떤 놀이가 있다면 그런 것도 놀이라고 한다.

2. 간디학교의 놀이 분석

1) 기숙사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1) 고무줄 서바이벌

이 놀이는 저녁 먹기 전이나 청소하기 전, 주말에는 아무 때나 진짜 할일 없을 때, 남자 기숙사에서 한다. 대부분 1, 2, 3학년 가운데에서 골고루 다 하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서바이벌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모은다. 보통 한 8

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많을 때는 10명도 넘어간다. 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하다. 고무줄과 종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종이를 접어 총알을 만든 다음 고무줄에 걸어 쏘는 것인데 제대로 맞으면 아주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맞으면 아플까 봐 가끔 오리털 파카까지 입고 할 때도 있다. 이 놀이를 하면 거의 기숙사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 뛰어다니므로 시끄러운 놀이이긴 하다. 그래서 종종 어떤 방은 아예 문을 잠가 버린다. 몇몇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긴 하다. 각각 팀을 갈라서 한 팀은 4호방, 또 다른 한 팀은 10호방에서 시작한다. 상대팀을 모두 전멸시키면 이기는 것인데, 하다 보면 재미있다.

고무줄 서바이벌은 아무래도 싸우는 놀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작은 충돌이 가끔 있지만 서로가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더 재미있을 것이고, 더욱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서바이벌을 할 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나이에 비해 조금 수준이 낮은(?) 놀이 같지만 앞으로 이 놀이가 좀 더 개선되어 안전하고 간단 인답게 게임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돌이 그다지 없는 놀이로 발전하면 좋을 것이다.

(2) 화투

어느 날 갑자기 ' 짹' 소리가 들려왔다. 화투 치는 소리였다. 어딜 돌아다녀도 거의 모두가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었다. 비록 아무 내기도 없이 승패만 결정하는 등, 도박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이 돈을 걸어 도박을 하는데 쓰이는 놀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렇지만 나도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는 방법을 차츰차츰 알게 되니 너무 재미있어졌다. 묵학 시간 때는 아예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사람들 다 나와서 중앙 복도에 앉아서 치고 있었다. 자리가 딱 차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다. 정말 놀라웠다. 다행히 지금은 기숙사 회의에서, 화투는 도박할 때 쓰이는 성인 놀이이며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화투도 언제든지 내기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지적을 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하지 않기로 규칙이 정해졌다. 선생님들께는, 이러한 놀이가 생겨도 우리들끼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알아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 지켜보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나는 너무도 감사드린다.

(3) 카드놀이

요즘에는 <유희왕>이라는 카드놀이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만화책을 보고 시작한 놀이인 것 같은데, <유희왕>이라는 만화책을 보지 못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방법을 배워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에 해 보았지만 영 복잡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 보통 2명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턴 방식으로 서로 카드에 그려져 있는 몬스터의 파워에 따라 상대방을 공격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카드놀이이다. 이 놀이도 역시 지나치게 집착하여 놀다 보면 묵학 시간에도 계속 하는 등 규칙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기숙사 회의에서, 청소 시간 이후부터 카드는 금지되고 아침 운동 끝나고부터 할 수 있게, 새로 정해졌다. 앞으로는 카드놀이 때문

에 정해진 생활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자제할 줄 아는 학생으로서 성숙하였으면 좋겠다.

(4) 동전치기

2003년도에 많이 했던 놀이다. 하는 방법은 동전을 이용하여 딱지치기 하듯이 동전을 쳐서 넘어가면 동전은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많이 이기면 돈은 점점 많이 생기지만 돈 욕심이 생기다 보니 역시 생활 규칙을 어기게 되고 몰래 계속 하게 되었다. 이것도 도박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크게 유행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없어진 놀이이다. 이런 도박성 놀이들이 처음엔 흥미롭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아무 의미도 없고 문제점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가 안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처음부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학교 안(기숙사 밖)에서 하는 놀이들

(1) 새컴

새컴은 새벽에 컴퓨터 몰래 하기를 줄인 말이다. 다 잠이 들었을 때 깜깜한 밤에 몇 명씩 모여서 전산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감 선생님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전산실에 들어가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문단속과 컴퓨터 모니터 밝기 조정, 시간 체크, 게임 깔고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옛날에는 전산실에 커튼이 쳐 있어서 하기 편했는데 지금은 다 걷어 버려서 좀 힘들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고 더 조심하게 된다.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고 싶어진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몰래 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다. 가게 되면 게임하느라 밤에 잠도 못 자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면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생활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놀이이다.(간디학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놀이라고 인정된다.)

(2) 식당 털기

취침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진다.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을 털지만 규칙을 어기는 재미 삼아 가는 경우도 있다. 시간은 12시~1시 사이에 주로 가게 되며, 보통 3~4명 정도 모여서 가게 된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숙사 뒷문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며 조용히 가기 위해 맨발을 이용한다. 주 메뉴는 보온밥통에 있는 따뜻한 밥과 참기름과 간장을 곁들여 비벼 먹고, 반찬으로는 냉장고 안의 여러 가지 반찬을 골라먹는다. 가끔 달걀도 있는데 하나만 슬쩍 해서 맛있게 밥에 풀어 비벼먹기도 한다. 아무리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 뒷정리를 깔끔히 했다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해 주시는 것 같다. 기숙사 생활 중에서 가장 재미있던 추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3) 탁구

태 선생님께서는 탁구를 잘 치신다. 그래서 '엣지' 라는 탁구 동아리도 이끄신다. 나는 '엣지' 동아리는 아니지만 탁구라켓을 빌려서 많이 하는 편이다. 작년부터 탁구 대회를 시작 했는데 참가 자격은 희망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며, 제비뽑기로 대진표가 작성되면 3전 2선승제로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입상하면 3등까지 상품으로 탁구공이 주어지는데, 개수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탁구대회 때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공장 시간 때 또는 방과 후에 시간이 남을 때 누구나 즐기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 때 강당 청소를 해야 하는데, 탁구대를 늦게 접어서 강당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 청소 시간이 되었을 때 알아서 정리할 수 있으면 모두가 좋을 것이다.

(4) 카펫볼

우리 학교 1층 신발장 옆에 카펫볼이라는 병삼 선생님께서 만드신 놀이가 있다. 이번 학기에 생긴 놀이이다. 공을 이용한 놀이인데 2명이 할 수 있다. 각각 공을 4개씩 가지고 공 하나로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공을 다 튕겨서 떨어뜨려야 한다. 밑에 공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공을 받쳐주는 것이 있다. 공을 떨어뜨리는 데 조건이 있다. 벽에 공을 한 번 튕기고 상대방 공을 맞춰 떨어뜨리면 된다. 공을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공이 하나가 남았을 경우에는 벽을 2번 튕기고 공을 맞춰 떨어뜨려야 이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정말 재미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놀이인 것 같다. 시간이 남을 때 수업 쉬는 시간 때나 심심할 때 많이 즐긴다.

3)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1) 뱀 사냥

주로 3학년 중에 나를 포함해 3명이 모여서 같이 뱀을 잡으러 다닌다. 이유는 일단, 뱀이 신기하고 또 귀엽기도 했지만, 건강원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잡게 되었다. 잡을 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경 선생님은 잡는 방법 등 주의할 점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다. 비 온 다음날 해뜰 때 날씨 좋은날에 뱀이 일광욕을 하러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한 2주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4마리나 잡게 되었다. 2마리는 살모사, 2마리는 꽃뱀이었다. 두 종 다 독사이다.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는 한 4만원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경 선생님께 부탁해 경운기 타고 덕산에 나가 건강원에 팔고 왔다. 우리는 실망했다. 겨우 2만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뱀을 팔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다. 뱀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겨우 돈 2만원에 3명씩 나눠 가지면 몇천 원 때문에 뱀 4마리가 희생당한다는 게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후회가 되었다. 이제부터 뱀은 잡긴 잡되 건강원에 팔지 않고 좀 관찰하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간디학교 정신, '자연 친화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 수석 캐기

우리 학교에서 정말 할 게 많다. 제천에서는 수석도 유명하고, 약초도 유명하고, 정말 좋다. 게다가 우리 학교 바로 앞이 개울가라서 돌 천지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되

는 멋진 돌이란 돌은 다 주워 와서 경 선생님께 보여드리고는 다 버린 적이 있다. 전부 쓸모없는 돌들만 주워 왔기 때문이다. 그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지만, 배우고 나니깐 어떤 게 좋은 돌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난 정말 재미있었다. 그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는 주어진 것 같다. 그것들은 더 모아서 수석 집에다 팔 예정이다. 정말 이런 일은 간디학교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이 놀이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어 수석 집에 파는 것보다 우리 학교를 멋지게 꾸며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수석을 캐는 게 자연을 파괴하는 건 아닐까 나도 궁금하다.

(3) 축구(간디 리그)

간디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구 리그이다. 나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빼고 4개의 조로 알맞게 팀을 나눠 날짜를 정해 한 주일에 걸쳐 경기를 한다. 전반전, 후반전 각각 20분~30분 정도 한다.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간디학교 전통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팀에 인원은 보통 6명 정도이다. 인원은 정말 적어도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6대 6이어도 볼 만한 경기가 된다. 모두가 친해지고 재밌게 놀라고 하는 건데, 몇 명 빠지면 좀 아쉬운 것 같다. 다음 번에도 리그 할 때는 축구를 잘 못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참가해서 더욱 즐거운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4) 농구

우리 학교에 농구 골대가 있긴 있지만 골대를 거의 한쪽 밖에 쓰지 않는다. 다른 쪽에는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공을 튀기기가 좀 그렇다. 아직 농구는 탁구나 축구처럼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없다. 그저 심심할 때 2~3명 정도 모여 농구를 하게 되는데, 팀을 갈라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투 바운드를 많이 한다. 투 바운드란 슛을 쏘았을 때 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링에 맞고 공이 땅에 2번 튀기는 자리에서 골을 넣은 사람이 계속 슛을 쏘게 되며, 노 골인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슛을 쏘게 된다. 단 링에 공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뺄차라 하여 1점씩 감점된다. 점수는 10점까지 하거나 많으면 20점까지도 한다. 그러나 주변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장난하다가 차 유리를 깨거나 창문을 깨거나 하는데, 조심해야 하고 만약 깨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5) 산 속에 아지트 만들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뒷담 같은 중요한 얘기하고 놀 때, 아무한테 보이지 않을 만한 좋은 장소 없을까 생각하다 한 5명 정도 모여서 아지트를 짓기로 하였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다니며 좋은 곳을 찾게 되었다. 좋긴 좋은데 장소 주변은 온통 잡풀 같은 게 많고 경사도 심한 산 속이었지만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장소였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모여서 열심히 땅을 다듬고 다듬어 예쁘게 5인용 넓이의 자리를 만들었다. 아지트를 지으면 거기서 잠도 자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하는데 며칠이 지나자 하기 귀찮고 게을러졌다. 그러다 결국 몇 사람에게 들기기도 하고 좀 실패한 것 같았다.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정말 큰일을 한 것 같았다. 다음에는 더욱 노력

해서 아지트가 멋지게 완공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멋진 추억이 될 것이다.

(6) 물놀이

물놀이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인 것 같다. 선생님들까지도 좋아하신다. 여름에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다. 간디학교 바로 앞에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가 따라서 도기 방향 쪽으로 500m 정도 쪽 올라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인다. 그 길로 내려가면 우측에 큰 바위가 있는 물웅덩이가 있는데, 바위 사이로 내려오는 물살을 따라 미끄럼을 탈 수도 있다. 놀기 딱 좋은 곳이 있어서 마음껏 더울 때 물놀이를 한다. 작년에는 물놀이하면서도 주변 개울가에 있는 다슬기도 잡아서 학교에 가져가 삶아 먹기도 했다. 도시 학생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간디학교만의 자랑인 것 같다.

3. 놀이의 유형 분석

위와 같이 기숙사 공간, 기숙사가 아닌 학교 공간, 학교를 벗어난 공간으로 놀이를 살펴본 결과 두드러진 분류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유형 하나는 규칙 준수나 공동체적 생활에 적절하지 않은, 이른바 반공동체적 성격의 놀이들이었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스포츠나 야외 활동과 이른바 스포츠/레저형 놀이들이 그것이다. 아래에서 각각의 유형별로 놀이들을 재분류해 보겠다.

1) 반공동체적 놀이

규칙에 위반되는 것과 규칙에는 위반은 되지 않으나 남들에게 많이 피해가 가는 부정적인 놀이들을 다음과 같이 반공동체적 놀이라 분류해 보았다.

(1) 고무줄 서바이벌

아직까지는 이 놀이에 대한 규칙 같은 건 없다. 규칙에는 위반은 안 되지만(규칙이 아직 없기 때문), 고무줄 총으로 사람을 일부러 쏘아 아프게 한다거나, 이 놀이가 진행될 때 기숙사 전체를 뛰어 다니기 때문에 이 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반공동체적 놀이로 분류하였다.

(2) 화투, 동전치기, 카드

기본적으로 이런 놀이들은 도박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역시 우리 학교, 기숙사 규칙에 위반되는 놀이이다.

(3) 새콤, 식당 털기

특히 취침 규칙을 어기는 놀이로 기숙사에서는 규칙이 위반되는 놀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놀이들이 아닐까 싶다. 새콤을 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면 식당도 털게 되고 밤에 규칙을 가장 많이 어기는 놀이이다. 아니, 기숙사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규칙이 아주 많이 위반되는 놀이 가운데 하나이다. 새콤이 위반하는 규칙들은 전산실 무단 침입에 학교

에서 금지된 게임까지 하게 되고, 취침시간까지 어기게 되므로 정말 많은 규칙이 위반되는 놀이이다. 만약 걸리게 된다면 전산실은 1학기 동안 출입 금지당한다.

2) 스포츠/레저

보통 스포츠/레저형의 놀이들은 신체적인 놀이들이 많고 야외에서 많이 하게 된다. 규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매우 건전한 놀이들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탁구, 축구, 농구

이 세 놀이들 모두 신체적인 스포츠 유형에 속하는 놀이들이다. 탁구는 강당에서 즐기지만, 축구나 농구는 야외에서 하는 놀이이다. 간디학교에서 탁구와 축구는 리그전도 하고, 모두가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농구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요번 학기에 농구 수업이 생기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2) 카펫볼

이번 학기 들어서 새로 생긴 간디학교의 놀이 시설이다. 1층 현관 신발장 거울 바로 옆에서 카펫볼을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김병삼 선생님께서 개발한 놀이라고 한다. 간디학교 학생들 모두 어느 때나 시간 남을 때 많이 하는 인기가 많은 놀이이다.

(3) 수석 캐기, 뱀 사냥

학교 밖에 나가야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들이다. 뱀은 학교 주변에도 많이 발견된다. 뱀은 거의 독사가 많이 발견되므로 위험이 크다. 수석은 개울가에서 많이 캔다. 수석을 캐서 덕산에 있는 수석을 파는 곳에 가져가 팔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멋지게 장식도 할 수 있다. 이 놀이들을 하려면 경 선생님께 가서 뱀을 잡는 방법, 또는 좋은 수석을 찾는 방법과 수석의 생김새 등 여러 가지를 배운 뒤 해야 한다.

(4) 물놀이

여름에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놀이이다. 대부분 점심때나 저녁 먹기 전에 가서 놀고 온다. 우리들은 도기 쪽 방향으로 쪽 올라가면 우리가 물놀이를 하는 장소가 있다. 미끄럼도 탈 수 있고, 약 10명 넘게 가도 충분히 놀 만한 정도의 크기다. 비가 온 뒤에 가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 있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그럴 땐 물놀이하기가 너무 위험하기도 하다.

(5) 산 속에 아지트 만들기

학교 뒷산이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 곳에 아지트를 짓는데, 짓는 방법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다. 대부분 한 4~5명 정도로 모여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 아지트를 지으면 그곳에서 서로 비밀스런 얘기도 하고 뒷담도 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것 같다. 간디학교의 교칙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

III. 결론

1. 간디학교 놀이의 문제와 방향 제시

지금까지 간디학교의 놀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니 반공동체적 유형과 스포츠/레저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반공동체적 유형의 놀이들이 기숙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놀이들을 고찰해 보고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반 공동체적 놀이에 대한 고찰

반 공동체유형의 놀이들은 모두 기숙사생활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반공동체 놀이가 기숙사에서 많이 유행하는지 생각해 보니 스포츠, 레저 유형의 놀이들을 잘 보면 모두 기숙사 밖,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규칙에는 모두 위반되지 않는 놀이들이다. 그런데 왜 기숙사에서는 모두 규칙에 위반되는 놀이들을 하게 되고 유행이 될까? 또 반 공동체유형의 놀이들은 계속 하고 싶어질까?

(1) 일탈욕구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탈을 한번쯤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즐기는 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의 생활이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새콤이나 식당 털기를 함으로써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루한 생활에서 일탈을 함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은 규칙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쾌감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일탈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들이 반공동체적인 놀이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콤이라든지 식당 털기 같은 놀이를 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놀이들이 필요하다.

(2) 기숙사 놀이 시설과 기구 부족

반공동체유형의 놀이가 계속 생겨나고 유행이 되고 있다. 그것도 기숙사에서 말이다. 간디학교 1층에는 탁구나 카펫볼 같은 놀이 시설이 있다. 이런 놀이 시설은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게 많이 한다. 예전에 탁구대가 1대였는데, 지금은 3대로 늘어나 더욱 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카펫볼은 이번 학기에 새로 생긴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인기가 많은 놀이이다. 이렇게 기숙사에서 장구나 바둑 또는 윗놀이 체스 등 이런 놀이 기구가 많이 생긴다면 위의 1번과 같은 일탈 욕구로 인한 반공동체유형의 놀이들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3) 우리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자

기숙사에 기본적인 놀이 시설과 기구가 생긴다 해도 일탈욕구로 인한 반공동체 놀이

가 근절된다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기존의 문화가 사라질 때는 새로운 대체문화가 생기게 마련인데, 기숙사에 다양한 규칙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시설이 향상된다 해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믿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즉, 공동체 의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기숙사에 여러 가지 놀이 시설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그에 따라 우리들은 반공동체적인 놀이들을 자제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규칙도 잘 지켜야 한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새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방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라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 같이 벌을 받는다거나 하면 더욱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문을 마치며

이상과 같이 한 20여 가지의 놀이들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각각의 놀이들 하나하나에는 그 놀이마다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이 놀이들을 분류, 정리하면서, 각 놀이들의 여러 단점들이 우리들끼리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고쳐지고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고 지켜봐 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간디학교에서는 많은 놀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텐데, 틀림없이 해서는 안 되는 놀이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도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좋은 쪽으로 놀이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들을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간디 놀이 문화의 멋진 전통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이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마친다.

레코딩 CD로 담아 본 간디 속의 나

- 노래에 깃든 나의 이야기 'and she is.....'



이새벽

1989년 05월 20일 군산 출생

1남 1녀중 장녀

YMCA 아기스포츠팀단 - 군산초등학교 - 경포초등학교 - 군산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2004년 4월 전북지구 고입검정고시 합격 - 산청간디학교(입학 예정)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상 수상, 간디인상 '뜨거운마음'상 수상

혈액형 / RH+A형

소속 /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 '역/사/사/랑', 몸짓동아리 '기지개',
싸이월드 젤리카메라 동호회 '말랑한 젤리가 좋아' 회원,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꾼다 '학생회', 으르렁 개가 주인을 몰다 '중3반', 경주 누씨 가문, 여자기숙사 복도동네
'3호방'

좌우명 / "긍정적 사고"

하고싶은 말 / "논문을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주길, 분명히 남는 것이 있을 터."

■ 2004 졸업 논문

『레코딩 CD로 담아 본 간디 속의 나』

- 노래에 깃든 나의 이야기 ‘and she is…….’

■ 발표자 : 이새벽

■ 지도교사 : 이영민 선생님

■ 차례

I. 서론_ 309_

1. 앨범 제작의 동기_ 309
2. 앨범 제작의 목표_ 309
3. 레코딩 CD란?_ 310

II. 본론_ 311

1. CD 노래 트랙 목록 및 가사_ 311
2. 곡 해설 및 부가 설명_ 313

III. 결론 _ 316

1. 녹음 과정 소개 및 후기_ 316
2. 미공개 곡 소개_ 317

IV. special thanks to_ 318

'레코딩 CD로 담아 본 간디 속의 나'

- 노래에 깃든 나의 이야기 'and she is……. -

1. 서론

1. 앨범 제작의 동기

나는 나의 노래를 사랑하고, 내 노래를 듣는 이를 사랑하고, 나에게 노래를 들려 주는 이를 사랑한다. 이제까지 내 노래, 내 목소리로 CD를 제작한다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고, 나는 나를 표현하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는 데다가 소유물을 만든다는 것은 더욱더 나에게 큰 의미였기 때문에 나의 노래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음악으로 나를 표현해 보고 싶었다. 또, 나의 지난 2년 반 과거와 나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또는 맺을 것이) 음악이었기 때문에 CD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앨범의 부제인 'and she is…….'는 그리고 그녀는… 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포괄적 의미로 담고 있으면서, 이 앨범 자체가 나를 또는 나의 3년을 표현해 주는 가장 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짓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이 학교에 있으면서 나는 '노래' 라는 것을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로 결정지었기 때문에 내 3년의 결과물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앨범 제작의 목표

우선 나는 이 앨범에 총 7곡을 수록하였다. 그중 5곡은 나의 간디생활 2년 반을 각각 학기별로 나누어서 그때 느낀 사소한 감정들을 또는 슬프고 기뻐던 일들을 테마를 정해 나누어 노래를 정하였다. 어떤 부분은 많은 간디 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떤 부분은 나의 혼자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였다.

또 단순히 나만의 사색만이 아니라 내 간디의 5학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의 간디인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리고 7곡 중의 1곡은 내가 직접 작사를 한 곡으로, 이것 또한 간디학교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생각해 왔던 부분을 가사로 옮겨보았다. 이 곡으로 내 마음을 또

는 간디학교에서의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앨범 제작을 하였다.

3. 레코딩 CD란?

1) 녹음(錄音, recording)

재생을 목적으로 음을 기록하는 일. 음을 기록하여 가지고 있다가 듣고 싶을 때 재생시켜 듣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는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이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1857년 L.스코트가 음에 의해서 진동하는 진동판에 붙인 작은 털로 그을음(soot) 종이에 음의 파형을 기록한 것이 레코딩의 시초이며, 1897년 T. A 에디슨이 원통에 감은 주석막(뜻 : 은종이, 알루미늄박)에 진동판에 붙인 작은 바늘로 음의 파형에 대응하는 홈을 새긴 다음, 재생하여 음을 내는 데 성공한 것이 축음기의 시초이다. 이와 같은 기계적인 녹음과는 달리 덴마크의 V. 파울센은 1898년 경에 자기녹음방법(뜻 : 음을 자기기록매체 위에 자기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발명하였다. 이것은 강선의 영구자화성질(뜻 : 자석이 아닌데 자석의 성질을 영구적으로 띠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써, 그는 처음에 모스부호를 녹음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이 방법의 기술이 크게 진전되었다.

그 밖에 녹음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필름 위에 광학적인 파형을 사진 인화 기술로 기록하여 광학계와 광전관(뜻 :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음을 재생하는 것이 있다. 1905년 E. 루머가 아크등의 빛을 전회전류로 변조하여 필름 위에 음파의 파형에 대응하는 농담의 기록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10년 프랑스의 E. 로스트가 토키(talkie:발성영화) 시스템을 발명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발전이 정지되었다가, 1926년 《돈 후안》의 영화 흥행 성공을 계기로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1920년 이후에 진공관을 이용하는 전자공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위의 세 가지 방식이 모두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운 녹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녹음 재생의 기술은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주파수 특성, 진폭특성, 과도특성 등이 개선되어 음을 매우 충실하게 녹음·재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잡음이 감소되어 SN비(뜻 : 신호 대 잡음비)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근래에 입체음향 방식이 점차 확립되어 녹음재생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이파이(hi-fi)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녹음이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

2)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싼 값에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 데이터 저장기구. CD-ROM 디스크는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빛이 나는 면으로 이루어진 직경 120mm의 원형

물체이다. 디스크의 한쪽 면만을 이용할 수 있다. CD-ROM 디스크는 640MB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책 26만 쪽, 또는 74분 분량의 음악이나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분량이다. CD-ROM에서는 일반 문서나 데이터를 오디오,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비디오, 즉 디지털 사진 이미지와 함께 저장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분야에 널리 쓰인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자료 분석하는 도중에 약간의 수정과 뜻 등을 포함함.)

II. 본론

1. CD 노래 트랙 목록 및 가사

1) 꿈꾸지 않으면(1학년 1학기)

(양 희창 작사, 장 혜선 작곡, 신 지현 노래)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 하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2) 파애(1학년 2학기)

(김윤아 작사, 김윤아 작곡, 자우림 노래)

손을 내밀어도 말을 걸어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각조각 부서지는 마음 부서진 내 마음은 레몬 과자 맛이 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곁에 다가가도 미소 지어 봐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나를 바라보지 않아
너무 너무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너에게선 체리 샴푸 맛이 나
왜 나의 맘을 부숴 왜 나의 맘을 부숴
그녀가 말했어 내가 널 잃어가고 있다고 부서진 마음의 조각에 널 묻어가고 있다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바라봐도 좋은 선물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조각조각 부서지는 마음 부서진 내 마음은 레몬 과자 맛이 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3) 공무도하가 (2학년 1학기)

(고조선 때에 진졸(津卒)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麗玉)이 공무를 켜며 부른 고대가요, 이상은 작곡, 이상은 노래)

님아 님아 내 님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님아 님아 내 님아 그 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님을 어이 할꼬.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님아 님아 내 님아 나를 두고 가지 마오.

님아 님아 내 님아 그 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님을 어이 할꼬.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공무도하 공경도하

님아 님아 내 님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님아 님아 내 님아 그예 물을 건너시네.

4) 언젠가는(2학년 2학기)

(이상은 작사, 이상은 작곡, 이상은 노래)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한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5) dancing queen(3학년 1학기)

(ABBA Frida 노래)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 in the Dancing Queen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the place to go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the swing

You come in to look for a King Anybody could be that guy

Night is young and the music's high With a bit of rock music, everything is
fine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seventeen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 in the Dancing Queen
You're a teaser, you turn 'em on Leave them burning and then you're gone
Looking out for another, anyone will do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반복

6) when a man loves a woman(bonus track)

When a man loves a woman
Can't keep his mind on nothin' else He'd trade the world
For a good thing he's found. If she is bad, he can't see it She can do no
wrong
Turn his back on his best friend If he puts her down
When a man loves a woman Spend his very last dime
Trying to hold on to what he needs He'd give up all his comforts
And sleep out in the rain If she said that's the way It ought to be
When a man loves a woman I give you everything I've got (yeah)
Trying to hold on To your precious love Baby please don't treat me bad
When a man loves a woman Deep down in his soul
She can bring him such misery If she is playing him for a fool
He's the last one to know Loving eyes can never see
Yes when a man loves a woman I now exactly how he feels
'Cause baby, baby, baby
When a man loves a woman

7) 창작곡(이 곳)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음 꽃 날리는 걸 본적 있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음 웃음소리 들은 적 있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곤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해

2. 곡 해설 및 부가 설명

1) 꿈꾸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1학년 1학기 무렵의 나는 이 가사 대로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닌 줄만 알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다. 졸업이라는 단어는 아직 내게는 생소한 단어였고, 나에게 있어 미래란 창창하고 아름다울 뿐이었으니까...

1학년 1학기. 가장 많이 불리고 불렀던 노래. 내 깨끗하고 어린 마음으로 가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던 노래. 언젠가 흘러다니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장성에서 보낸 내 예쁜 추억들을 온전히 다시 가슴에 담을 수 있었다. 그 가슴 아릿한 기억들과 함께 하며.

다시금 마냥 행복하고 꿈꾸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연습하였다. 하늘은 파랗고 높고, 때로는 울기도 하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이 곡을 첫 번째로 선택하게 해준 것이 아닐까. 내가 느끼던 진정한 행복감들을 먼저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란다. 우리 한번 멋지게 꿈꿔 보자.

2) 파애

이 노래는 가사보다 노래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내가 처음으로 노래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해준 노래이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학교를 옮기고 설렘 속에 있을 때 간략연이라는 익숙한 이름의 동아리 오디션 공고가 붙었다. 그 때 나는 이 곡을 한 번 들은 상태에서 오디션 보기 전에 클라이맥스 부분만 오디션 보기 전에 계속 되뇌었다.

“그녀가 말했어…. 그녀가 말했어….”

무슨 노래를 오디션에서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겨우 고르게 된 노래였는데 찍이나 괜찮았나보다. 합격이 될 줄이야. 그 때부터 간략연 보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줄곧 가먹을 만하면 학교 행사 때마다 달랑 기타 하나 가지고 무대에 오르곤 했다. 그리고 이 노래로 칭찬 받았을 때 “뮤지션이 되겠어.”라는 말을 내뱉은 적도 있었다. 그것이 실제로 내 꿈이 되기까지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겐 너무 소중한 곡이다. 꿈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줬으니.

3) 공무도하가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고 개인 취향이 논문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난 이 곡이 넣어진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꼭 부르고 싶은 노래였기 때문에 과감히 선택하게 되었다.

이 노래의 역사는 오래전 1학년 말부터 2학년 1학기 내내, 한참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현숙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다. 그 때까지 나는 ‘이상은’이라는 가수의 노래라고는 달랑 ‘담다디’ 밖에 모르고, 그것조차 ‘에이, 뭐야’ 하고는 라디오 채널을 돌리곤 했는데, 이 곡을 듣고 첫눈에 반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찾고 빠져들고 계속 취해 살았다. 나에게 있어 처음으로 아찔함을 맛보게 해준 곡이다.

2학년 1학기는 나름대로 꽤나 힘든 날들이었기 때문에 노래들을 여유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만든 CD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이상은과 나는 사실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그렇지만 지금 왠지 별로 후회스럽지 않고, 이상은 만큼 멋진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가 온전히 묻어나는 것 또

한 리메이크의 매력 아닐까.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팡팡 울려대는 큰 스피커 앞에서 조용히 사랑할 노래.
조금은 슬펐던 2학년 2학기의 딱딱한 기억들을 공유하며….

4) 언젠가는

이제 벌써 나는 3학년. 학교를 나가고 싶다고 투정부리는 것은 오래 전부터 그만두었다. 그러나 나도 한때는 누구나 겪는 지독한 외로움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지금은 웃음만 나올 뿐이지만, 그 때는 나름대로 무척 힘들었다. 여러 가지 일들 모두 단순한 내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생긴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때는 모든 게 맘에 안 들고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손 내밀면 빛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이제 와서는 다 지난 일인 나의 슬럼프는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내가 끝에 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나를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고 가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간디에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슬럼프를 잘 견뎌내었고, 끝도 없는 자책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만두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2학년 2학기 때의 이기적인 새벽을. 그리곤 다시 보듬어 업고 그녀와 함께 더욱더 나를 발전시키리….

세상에 아무도 없던 것만 같던 시간은 고스란히 소중하고 아릿한 추억들이 되기를.

5) Dancing queen

3학년 1학기는 그렇다. 혹시 다른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웃고 울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며 많이 정리하였던 학기였다.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seventeen

비록 17살은 아니지만 나는 젊고(젊다기 보다 어리고) 예쁘고, 달콤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해 온 일보다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는다. 여러 가지를 공존시키는 법을 배웠던 한 학기. 어느 노래보다 즐겁게 연습했던 나의 dancing queen이 듣는 이에게도 그대로 다가가 예쁜 미소를 지어 주기를….

6) 이 곳

4월 달에 검정고시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 방에서 잠깐 누워 있다가 창문을 무심코 열었는데 꽃잎이 바람 따라 팔랑팔랑 날아다녔다. 순간 이 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꽃잎처럼 나를 헤집고 다녔고, 그 때 잠깐 적었던 일기로 가사를 1분 만에 써냈다. 쉽게 쓴 가사만큼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사랑받고 싶던 그 날, 난 참으로 많이 행복했었다. 따뜻하고 속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날처럼….

이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싶다. 내게는 웃음소리 가득한 날이 울음소리

가득한 날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7) when a man loves a woman

마이클 볼튼이라는 노래라는 얘기만을 듣고 지레 겁먹었던 노래. 허스키한 그의 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내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었다. dancing queen으로 나의 5학기 테마는 끝이 났으나, 나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입가를 돌며 가끔 들리는 이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맨 처음, CD 녹음으로 앨범을 만든다고 했을 때, 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이기도 하다. 난 이 노래로 조금 더 많은 연령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메이크 곡을 완성하였다.

III. 결 론

1. 녹음 과정 소개 및 후기

9월 18일.

서울과 제천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던 찌는 듯한 더위를 느끼며, 양 손에 가방 2개씩 들고 그렇게 청담역 옆에 있는 에코이스 녹음실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된 나의 CD.

물론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다. 아저씨만 허락하시고 녹음실만 허락한다면 새 도록 부를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계속 이어진 노래연습 끝에 내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계속 되는 부족한 고음 처리와 낮은 곳에서의 두려움이 나를 옥죄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단시간에 작업을 끝내게 되었다.

우선 맨 처음으로 부르게 된 '꿈꾸지 않으면.' 이 곡을 부르면서 너무 부족한 나의 고음 처리 실력을 아프게 느끼면서 하마터면 그 좁은 녹음실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울 뻔하였다. 아저씨도 내 실력이 부족한 걸 아셨는지 나를 도닥이며 위로해 주셨다. 결국 처음으로 녹음하려던 '꿈꾸지 않으면'은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다. 반 키만 내렸어도 잘 녹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곡 '파에.'

비교적 많이 불러본 노래라 수월하게 녹음하였지만, 앞의 노래가 너무 힘들었던 탓인지 음정이 불안하였다. 그렇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는 곡

세 번째 곡 '공무도하가.'

준비해 간 MR이 너무 많이 미흡하였던 탓인지 노래를 부를 때 나의 목소리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모니터할 때마다 느껴져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녹음을 하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음정을 너무 틀리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번 앨범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곡이다 꼭 멋지게 소화해 내고 싶었는데...

네 번째 곡 언젠가는 코러스를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버렸다. 그래도 비교적 이 곡은 괜찮게 불렀기 때문에 아쉬움이라기보다 어색함이 마음에 남는다.

다섯 번째 곡, 'DANCING QUEEN.'

가장 맘에 들었던 곡 고음 처리가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곡이다. 밝게 부르려 노력하였고, 한 번 만에 OK 사인이 떨어져서 그런지 후련한 마음이 더 들었던 곡이었다.

여섯 번째 곡, '이 곳.'

'이 곳'을 녹음하는 게 '꿈꾸지 않으면' 만큼 힘들었다. 역시 너무나 높은 'E'음을 잡은 곡을 받아서인지 처음에 걱정한 것처럼 힘들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목 때문에도 그렇고 한번에 OK를 받고 끝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곡.

일곱 번째 보너스 곡, 'when a man loves a woman.'

자신이 있었던 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영어 발음은 어렵고 어려운 거구나!'라고 한번 더 생각하게 했던 곡이다. 몇 번 교정도 해보고, 나 혼자 읽어 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에게 영어의 발음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연습하여 다음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 과정이었다. 나에게 영원한 숙제인 고음 처리와 발음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띄어 가슴이 많이 아파서 녹음 뒤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청승맞게 많이도 울었다. 그렇지만 이 CD에 담긴 것 역시 내 최선의 힘을 바친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리고 다음 번에 또 좋은 기회가 닿는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 논문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조금 더 내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10년 뒤 멋진 내 모습을 기억하며...

2. 미공개 곡 소개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고 싶었지만, 실력 부족으로 수록하지 못하였던 아까운 곡들을 가사만 논문집에 넣어 보기로 하였다.

1) 나비

달랑달랑 방울을 달고 구름 쿠키와 보랏빛 무지개를 달고
 맑은 하늘과 달 사이에서 내 친구 나비가 왔어
 동화책에서 보았다며 지구를 무척이나 신기해 했어
 피아노 건반에서 뛰어놀다 미끄러져 버렸지 뭐야
 외계인 고양이 나비 파란 지구를 동경해 왔다고 했어
 언젠가는 그렇게 시리도록 파란 눈동자를 갖고 싶다고
 보랏빛 무지개는 나에게 선물로 주고 나는 나비에게 내 마음을 선물해 줬지
 하늘은 맑고 여름은 시작
 너와 나의 로맨스도 시작

2) 바닥

건반이 눌러도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처럼 바닥에 착 하고 붙어 버렸어
 바닥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놓아 주지 않아 라곤 했지만
 정답은 그 반대가 아닐까요.
 그래 나는 바닥을 너무 사랑해
 나에게 칼날을 쥐게 한 사람이 나를 휘두를 때마다.
 내 피를 보았으면 좋겠어.

3. special thanks to

열심히 불러준 나 자신에게,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힘드셨던 영민 쌤,
 먼 곳에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우리 엄마, 너무나 믿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한길, 할머니, 이모,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29명, 현민, 혜, 나눔, 태규, 병건, 병우, 재훈, 민기, 범린, 도
 일, 원중, 가람, 현석, 한솔, 강지, 진, 주희, 용안, 보경, 부연, 수현, 스더, 은지, 승안,
 승우 그리고 주나, 배솔, 병삼 쌤, 재킷 디자인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우리 유리,
 에코이스 녹음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교 쌤들, 사랑하는 1, 2학년들
 노래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혜선 님, 이상은 님, 김윤아 님, 아바 님, 마이클
 볼튼 님, 사랑하는 예쁜 친구들 단비, 수빈 멋진 오빠 이사크
 밥 해 놓고 기다릴게요, 조은비 님, 나 업고 가느라 힘들었을 진우 오빠, 칭찬 많이
 해주셨던 간략연 식구들, 너무나 소중한고 아끼는 그대 공룡, 그리고 앨범 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레쿠푸 왕의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론적 근거 제시



이승우 _

1989년 09월 28일 인천 출생

2남 중 차남

학력은 화려하지만 국가기밀.

혈액형 / RH+O형

취미, 특기 / 글쓰기, 낚시, 베이스 들고 원맨쇼(가끔 병우도 참여)

소속 / '지상 최악의 밴드' 베이스스트, 전 낚동회장, 아가길드, 간디中

좌우명 / "신묘한 말은 하나요, 신묘한 행동은 백이다."(이태백)

하고 싶은 말 / "막상 할 때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논문 끝나고 나니

후회가..."

■ 2004 졸업 논문

『쿠푸 왕의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론적 근거 제시』

■ 발표자 : 이승우

■ 지도교사 : 이임주 선생님

■ 차례

- I. 논문 동기 및 목적 _ 321
- II. 피라미드의 정의와 제작 과정 _ 321
 - 1. (이집트)피라미드란?_ 322
 - 1) 역사_ 322
 - 2) 구조_ 322
 - 3) 기원_ 323
 - 2. 현재까지 연구된 쿠푸 왕의
(이집트)피라미드 제작 과정_ 323
 - 3. 쿠푸 왕에 대해서_ 324
- III. 나의 의문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_ 325
 - 1. 이집트의 지리적 환경_ 325
 - 2.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_ 325
- IV 결론 : 나의 의문점과 근거 제시_ 326
- V. 논문 후기_ 329
 - 참고 문헌

쿠푸 왕의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론적 근거 제시

I. 논문 동기 및 목적

언제부터 이집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에 이집트에 대한 관심과, 마야라든지 인도 등 영적과 가까운 나라의 관심이 유별났다. 아마 가끔씩 내 영혼을 후려치는 듯한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인접한 나라에 감명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린 놈이 귀짜란 소리를 조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내 생각에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히 고대 이집트의 역사라든지 문화, 건축물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조금씩 자세히 알아가면서 약간의 피로와 동시에 느껴지는 만족감은 나를 짜릿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 대표적인 하나, 쿠푸의 피라미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몇몇 피라미드의 신비를 다 풀었다던 이집트 서적에 나와 있는 쿠푸 왕의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을 보면, 내가 보기에 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이집트에 관심이 있었다지만, 난 그 학자들에 비해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 그런 대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발간 된 서적을 겨우 내가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에 의문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잘못된 피라미드 연구에 의문을 던져 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충분한 자료를 통해 의의를 재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제한이 없을 수 없다. 내가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 가서 직접 피라미드를 제작하는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관계로 내가 던진 의문은 이렇다, 라고 확연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 서적들에 의의를 던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논문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II. 피라미드의 정의와 제작 과정

나의 의문을 제시하기 전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피라미드에 의문이 들게 한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과 간략한 피라미드의 정의를 알아보겠다.

1. (이집트)피라미드란?26)

사각뿔 모양의 석조건조물로서 왕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이름은 그리스 어인 피라미스(pyramis)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고대 이집트어의 기하학 용어 페르 엠우스(per-em-us : 우스로부터의 수직선), 또는 그리스어의 모양이 비슷한 과자 이름에서 기인하였다는 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고대 이집트어 이름은 메르(mer)로서 상승 또는 높은 곳을 뜻하였다.

처음에는 왕의 무덤으로 건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왕족의 무덤으로도 축조되었다. 피라미드의 출현은 왕 무덤의 독자적인 형태가 창출되었다기보다는 파라오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낸다.

1) 역사

피라미드 형상은 단번에 실현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변천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 선사시대는 죽은 사람을 묻고, 그 위에 토사(土沙)로 둔덕을 만들어 덮는 매장법이 있었다. BC 3000년 무렵부터 왕조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스타바(의자 형 무덤)가 왕 무덤이 되었고, 뒤에 벽돌로 된 상부구조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구조도 견고해졌는데, 이것은 지하의 매장 실을 보호하고, 무덤의 존재를 나타내며, 죽은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하부 구조는 차츰 암반 속에 방을 만드는 형태가 생겨나고, 또 묘실에 넣은 음식물용의 돌 항아리가 존중되어 돌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였다. 피라미드 건조의 전성기는 기제의 3대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고왕국시대로서 규모나 기술면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일명 피라미드 시대라 불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80여 기의 피라미드는 대부분이 고왕국의 수도 멤피스 서쪽의 사막 지대 동쪽 끝 아부·로아슈에서 기제·사카라를 거쳐 메이둠에 이르는 피라미드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중 왕국시대에는 화이옴 지방이나 테베에도 보인다.

2) 구조

왕의 미라를 보호하고 껌문거리(副葬品)²⁷⁾를 안치함과 동시에 현세에는 신의 화신으로서 우주 질서를 스스로 유지하고, 죽은 뒤에는 신들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보증하는 존재가 되는 파라오를 위한 공양과 제의(祭儀)의 장으로 피라미드 북쪽에 장제전²⁸⁾(葬祭

1) 다음 백과사전에서 발췌

27) 무덤 안에 시체를 안치할 때 함께 넣어 매장하는 물품. 부장품이라고도 한다.

28) 고대 이집트에서 왕을 제사 지내던 곳.

殿:上神殿)이 건조되고, 동쪽에 세드 제(祭)를 행하는 신전·소 신전·중정(中庭)이, 남쪽에는 제단이 있는 대중정이 축조되고, 이것들을 높이 10m, 동서 277m, 남북 545m의 직사각형의 주벽(周壁)으로 둘러 장대한 무덤을 형성하였다. 하부는 지상 건축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지하 27m 되는 곳에 왕의 미라를 넣은 7m²의 널방²⁹⁾(玄室) 외에 조상(彫像)을 넣은 특별실, 공물(供物)·꺼묻거리를 넣는 많은 방, 이것을 잇는 복도, 왕의 활동을 묘사한 벽면의 부조 등이 상부의 피라미드보다 먼저 암반 속에 만들어졌다.

상부는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남북축의 한 변 545m, 다른 변 277m, 높이 10m의 직사각형 위벽(圍壁)이 세워졌고, 위벽 안에 신전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위벽은 이집트왕권의 상징인 뱀의 조상으로 장식되고, 14곳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으나, 13곳은 열리지 않았고, 한 곳만이 입궐용으로 여닫게 되어 있었다. 이 피라미드 복합체를 둘러싸고 왕비의 소 피라미드, 왕족·귀족의 마스타바(의자형 무덤)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현세의 국가질서를 내세에 투영하고 있다.

3) 기원

최고의 피라미드는 사카라에서 발견된 제 3 왕조 2대 왕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재상 임호테프가 설계하였다. 처음에는 밑변 62.9m, 높이 8.3m의 사각형 마스타바(의자형 무덤) 중앙에 깊이 28m의 구덩(豎穴)을 파고 그 밑에 매장실을 만들었다. 그 다음 5차례 증축공사를 하여 올라갈수록 상단이 작아지는 마스타바(의자형 무덤)를 6단 포개놓은 모양의 밑변 109×126m, 높이 62m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완성하였는데, 피라미드의 원형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헬리오폴리스를 중심으로 예로부터 있던 태양신 숭배가 피안(彼岸)의 신앙과 결부된 결과로 계단은 태양의 아들인 국왕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동서축의 변을 길게 한 것은 남북축의 변을 길게 한 초기 왕조의 마스타바와 대조를 이루는데, 태양신의 교리에 따라서 동서축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조세르를 계승한 세켄케트는 사카라에, 다음 왕 카바와 그 다음 왕 네브카는 자위에트 엘 아리안에 각각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2. 현재까지 연구된 쿠푸왕의 피라미드 제작 과정

30) 처음에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피라미드의 위치 선정을 카(이집트의 에네르기)가 충만한 곳에 하였다. 그 다음은 그 곳에서 정북의 방향을 찾기 위해 부지의 중앙쯤에 주위 언덕들을 가릴 만큼 원형으로 벽을 높이 쌓고, 윗면을 수평으로 만들어 완

29) 무덤에서 관을 안치하는 네모진 방.

30) 피라미드-인간의 숭고한 노동과 상상력의 결정체(테이비드 맥컬레이)에서 발췌.

벽한 지평선이 되게 하였다. 벽이 완성된 후, 사제들이 벽 안쪽에 있는 둥근 마당의 중앙에 서서 동쪽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모습을 관찰했다. 벽 너머에서 별이 떠오르면 벽에 그 위치를 표시한 다음, 표시한 지점에서 마당의 중심까지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별이 둥근 선을 그리며 하늘을 지나가다가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별이 벽 너머로 가면 사제들은 그 위치를 다시 벽에 표시하고 표시한 지점에서 마당의 중심까지 선을 또 하나 그었다. 그 둥근 마당의 중심에서 처음 두선의 한가운데를 향해 선을 그으면 정북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개의 방으로 구성된 대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는 계속 계획을 바꾸면서 이루어졌다. 즉 작업 책임자가 먼저 '낮은 방'을 팠고, 그것에 실망하여, '왕비의 방'을 만들었으며, 여전히 불만스러운 그는 두 번째 계획을 포기하면서, 세 번째의 결정적인 '왕의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노예로 부릴 석공과, 측량기사, 벽돌공, 십장, 회반죽공, 목수 등 일꾼들을 모은다. 그 다음은 설계사들이 기하학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그리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인부들이 구리나 현무암으로 된 기구들로 피라미드의 재료가 될 돌을 잘랐다. 설계도가 완성되고 그 설계도에 승인이 내려지면, 선정된 자리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깨끗이 치운 후, 잘려진 돌을 통나무 위에 놓고 밧줄로 묶어 굴러 채석장에서 배동의 교통수단으로 가서 피라미드가 완성될 장소로 돌을 운반한다.

그 다음 피라미드를 빙 돌면서 돌을 쌓는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피라미드를 빙 둘러서 경사로를 만들게 된다. 혹은 일직선의 경사로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점점 넓이가 줄어드는 식으로 돌을 쌓는다. 중간에 파라오의 방위에 압력을 분산시키는 쉼기 꼴 모양의 장치를 놓거나, 파라오의 방으로 가는 대회랑에 통풍구멍 등을 만들어 가는 것을 주의하면서 돌을 쌓는다.(나중에는(약 4왕조 이후)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방을 대회랑 끝에 뚜껑 문을 만들어 파라오의 방을 못 찾게 한다던가, 가짜 묘실 등을 추가 하였다.) 돌이 다 쌓이면 마지막에 캡 스톤이라 불리는 뾰족한 돌을 얹었으며, 피라미드의 완공식을 거행했다. 의식이 끝나면, 가장 윗부분부터 경사로를 제거하였다.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도장가와 도안가들이 피라미드 안에 각각의 장식을 그려 넣었다. 보통 그 시대의 파라오의 그림과, 파라오가 어떤 기록적인 일을 했는지(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을 항상 괴롭히는 히타이트인과 누비아인들을 물리쳐 평화조약을 맺게 하였다는 것 등이 있다.) 등이었다. 이러면 30년에 걸쳐서 하나의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쿠푸 왕의 피라미드 옆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배이며, 왕이 평소에 타고 다녔던 태양선을 묻는다. 이 배는 길이가 43미터이다. 이 배를 묻은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에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3. 쿠푸 왕이란?

그리스어로 케옵스, 이집트어로 쿠푸인 이 왕은 '신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혹은 '크눔³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피라미드의 건축가인 이 파라오는 묘하게도 초상이 단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아마 백성들이 그에 대해 느낀 증오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가장 미움을 많이 산 파라오인 아케나톤의 초상화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의 상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쿠푸 체제에 대한 역사(기원전 2551~2528) 또한 어둠에 묻혀 있다. 단지 그가 베두원 족의 기슭에 대항해 시나이 광산을 보호했으며, 상 이집트에 있는 텐데라와 델타에 있는 부바스티스의 신전들을 보존했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시절의 비문들에서도, 위대한 피라미드 건축가 쿠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III. 나의 의문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이집트의 지리적 환경

해발고도 200~300m의 대지와 나일 강 골짜기 및 삼각주, 시나이 반도 남부와 홍해 연변의 산지, 남서부 카비르 산지에 있는 1,000m가 넘는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일 삼각주를 제외하면 해안평야는 좁다. 지형은 특징상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2.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우 다양한 종교를 가졌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지만, 그에 앞서 파라오를 현실에 강림한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파라오는 자신의 마술적 의지로 신들과 대화하여 난관을 타개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 거의가 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어둠에 숨어사는 양심을 배신해 버린 범죄자들은 대개 파라오의 심판을 받았다.

앞에서 말한 태양선과 관련 있는 믿음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이 매일 두 차례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여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여행이고, 두 번째 여행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여행이다. 이 두 차례의 여행에서 태양신이 타고 다니는 배를 태양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왕이 생전에 타던 배이며, 동시에 왕의 미라를 운반 했던 이 배에서 태양선을 연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영인 바와 혼 카를 믿었는데, 바는 천국에 속한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새가 되어 햇살을 타고 천국에 오른다고 한다. 반면, 카는 지상에 속하는 것으로

31) 엘레판틴 도시의 숫양 신

로, 죽음과 함께 일단 육체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 육체를 찾아 되돌아오게 되는데, 고대의 이집트 인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믿었다. 미라를 만든 이유도 카가 나중에 돌아와 부활할 수 있는 온전한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시리스의 신화와 비슷하다. 고대 이집트 인들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시리스 신화는 그리스 저술가 플루타르코스의 작품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대하여〉라는 작품 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게브와 누트 부부는 오시리스, 이시스, 네프티스, 세트의 네 남매를 낳았는데,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하는 풍습에 의해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세트는 네프티스와 부부가 되었다.

여동생 이시스를 아내로 맞이한 오시리스는 28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오시리스는 이집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이집트는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했다.

한편, 왕위를 노린 동생 세트는 오시리스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짰다. 그 당시 이집트 인들은 죽은 후에 훌륭한 관에 장사 지내지기를 원했는데 세트는 이 인습을 이용, 형 오시리스의 키에 맞는 관을 만들었다. 궁궐의 한 연회에서 세트는 관이 맞는 사람에게 그 관을 주겠노라고 제안하였는데, 전부 맞지 않자 마지막으로 오시리스가 관에 들어가 보았다. 그 순간 세트는 관 뚜껑을 덮고 나일 강에 던져 버렸다.

익사한 오시리스의 시체가 들어 있는 관은 델타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들어 마침내 시리아 해안(혹은 레바논 해안)의 비블로스에 도착했다. 이 관은 그곳에서 자라던 무화과 나무줄기에 걸렸는데, 이 나무줄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이 나무속에 가려지게 되었다. 나중에 비블로스 궁전을 만들 때 이 관이 들어 있던 나무줄기가 궁전의 기둥으로 쓰였다. 한편, 비탄에 잠겨 관을 찾아 헤매던 이시스는 이 소문을 듣고 그 관을 되찾아 숲속에 감춰 두었다. 그러나 사냥을 하다가 이시스가 감춰둔 관을 발견한 세트는 화를 내며 오시리스의 시체를 14토막으로 찢어 이집트 곳곳에 버렸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막 난 시체 조각을 모을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후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을 거행하여 사자의 왕으로 부활시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시리스의 토막 난 시체 가운데 생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을 못 찾은 이시스는 나일 강의 진흙으로 모형틀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 정액을 받았다고 한다.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체와 결합하여 낳은 호루스는 성장하여 마침내 세트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IV. 결론 : 나의 의문점과 근거 제시

32) 이집트(정규영)에서 발췌.

요즘 쿠푸 왕의 피라미드에 더 이상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서적들은 과거에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은 현대 과학과 고고학의 발전으로 모두 풀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앞의 이론적 근거와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을 토대로 한 나의 의문을 보자면 이렇다.

1. 돌의 운반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 나무로 받침을 해서 돌을 옮겼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유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는 무화과나무(이 경우에도 크기가 굉장히 큰 나무만) 정도밖에 통나무로 쓸 것이 없었다. 대추야자나무 역시 이집트인들의 주 식량원이었기 때문에 잘랐을 리가 만무하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가시가 나 있거나, 껍질이 너무 우둘투둘한(야자수) 나무 밖에는 별로 나무가 없었다. 레바논 등과 같은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고 쳐도 엄청난 무게의 바위에 눌린 나무들이 부서져 버린다. 그러므로 채석장에서 돌을 옮길 때 나무로 받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자 언덕에서 남방으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스완의 그 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배가 보통 배가 아닌 40톤이 넘는 튼튼하고 큰 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돌을 통나무로 옮긴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못하는 바이다.

2. 너무나도 정확한 부지 선택

경도 상, 그 곳은 지구상에서 육지가 가장 많고, 바다는 가장 적은 곳이다. 그 곳은 또한 지구의 땅을 정확히 둘로 나누고 있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부지 선택이 정확하다. 1992년 10월 기자의 대 피라미드는 강도 6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갔을 때, 단지 약간 흔들렸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약 5,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25cm쯤 가라앉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200년간 12cm나 가라앉았다고 한다. 몇몇 학자들은 지금의 금속 수맥탐지기와 비슷한 아카시아 가지로 만든 수맥탐지기로 수맥이 없는 땅에 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래에 수맥이 지나지 않는다고 지진에 잘 견디고, 단지 1.25cm밖에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지 선택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이다.

3. 노예제도

책들이나 영화(이집트의 왕자 등)에서는 이집트 인들을 피라미드 공사에 노예로 부렸다고 나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러한 폭군의 제도는 고대 이집트가 그다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이며, 한 장인의 일지에서 나온 봉급을 받

있다는 기록이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인들은 파라오를 지상에 강림한 신의 화신이라 믿고 있었으므로, 피라미드 짓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로 활약할 수 있다.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은 노예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피라미드의 완벽성은 종속적이며 기계적인 노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집트는 여성의 권위가 인정되는 개방적인 사회였으며, 근처의 히타이트 족이 이집트에 노예제도를 도입해서 침략하기 쉽게 만들려는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는 자유로운 나라였다.

4. 지금의 피라미드 서적들을 보면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파라오의 신적인 요소만을 극찬하고 있다. 정북 방향으로 놓은 피라미드 모형에 녹슨 면도날을 놓으면 면도날이 다시 날카로워진다. 음식물들은 매우 천천히 부패하거나 건조하게 말라붙어 버린다. 이는 피라미드 모양이 공명이나 진동의 장을 일으켜 급속한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때 당시에 피라미드가 아니었다면, 현재로서도 알아내기 힘든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발견 당시에도 인정되지 않았던, 초고도의 과학이나 혹은 마법이었다. 피라미드에는 단지 신적인 요소와 웅장함이 있다는 것에 피라미드에는 마술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신화들을 살펴보면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이며, 동시에 마법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고대 이집트 인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쿠푸 왕의 피라미드 서적들에는 고대 이집트 인들이 기하학을 다룰 수 있다고 써어 있다. 그것도 현대의 기하학에 맞먹는 수준의 마법적인 기하학이 써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하학은 그렇게 이집트 인들이 많은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현대의 기하학에 비교하면 초기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인들은 기하학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피라미드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단지 과거의 경험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지었다는 것은 극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도 힘든 일이다. 이는 풀리지 않은 비밀 중의 하나이다.

6. 쿠푸 왕의 피라미드 서적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은 약 30년이 걸린다. 하지만 석조 블록 하나를 캐고 다듬고 이동하고 제자리에 놓는 데 평균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 하루에는 10개의 블록을 1년에는 3,650개의 블록을 쌓을 수 있다.(쿠푸 왕의 대 피라미드는 약 250만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쿠푸 왕의 피라미드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15년이 되어야 한다. 715년이면 그 동안 쿠푸 왕의 미라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헤로도토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거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7. 철기 시대가 왔을 때, 피라미드를 쌓을 돌을 만들기 위해 몇 톤의 돌들을 자르는 것은 아마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쿠푸 왕의 피라미드 시대에는 제일 강한 연장이 청동연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5톤에서 무게가 10톤에 이르는 돌을 오차 없이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다듬는 것은 현대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중 왕국 시대의 베니하 산의 무덤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7m 높이의 거대한 돌에 172명이 붙어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이 있다. 도구로는 썰매 형 판목, 통나무, 킴목, 지렛대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라미드를 축조하던 시대에도 바퀴는 있었지만, 건축 공사장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도르래나 기중기, 짐승이 끄는 수레도 이용되지 않았다. 도구는 단순했다. 굳은 돌덩이들, 청동 끌, 망치, 톱, 송곳 등이 전부였다. 피라미드의 제작을 겨우 확인되지 않은 이론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8.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는 왕의 미라가 안치된 현실이 대부분 지표면이나 지표 밑에 있으나 특이하게 쿠푸 왕의 현실만은 피라미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유리로 된 모형 피라미드를 만들어 어둠 속에서 진동을 비추는 결과 빛이 한 점으로 모아졌는데, 바로 그 위치에 현실이 있다는 실험도 있다. 이 위치는 우주의 기가 모아지는 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위대한 마술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며, 쿠푸 왕의 피라미드의 위대한 마술을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곳에 왕의 현실을 만들었는지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서적들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9.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과 별개의 것이고, 미약한 것이긴 하나 피라미드 옆에 묻혔던 태양선을 만드는 데에는, 단 하나의 쇠못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무와 나무는 구멍을 뚫은 후 전부 끈으로 묶어 만들었다는 것을 책에서 설명해야 하고, 그 이유 역시 설명해야 옳을 것이다. 마술과 신의 나라라고 할 만한 이집트에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고대의 기록들은 더욱 활용, 검토되어야 하며, 책들은 상업적 용도보다는 책들의 목적에 맞게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10. 보통의 피라미드 서적들이 헤로도토스의 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헤로도토스가 저급한 일화를 즐겨 기록했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설은 많은 사실을 담고 있으나, 그에 대한 많은 것들 역시 거짓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의 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11. 존경받아 마땅해야 할 쿠푸 왕의 대한 수많은 험담들. 헤로도토스는 쿠푸에 대해 이렇게 썼다.“우선, 쿠푸는 모든 성전의 문을 닫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막았다. 그러고는 모두가 그를 위해서만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파렴치가 극에 달하는 일

을 저지르기도 했다. 돈이 없게 되자, 그는 딸을 갈보 집에 넣고는, 그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놓으라고 명했다.”하지만 이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집트 인들은 25세기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쿠푸를 숭배하였다. 이것은 쿠푸 왕에 대한 설명에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비석에서 쿠푸를 경배했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V. 논문 후기

나는 이집트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논문을 쓰면서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결국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논문을 쓰며 임주 쌤에게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이 논문을 혼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중간발표가 끝나고 안심이 되어 조금씩 논문을 완성시켜 나가서 임주 쌤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겠다는 정신이 해이해져 있다가 논문이 거의 완성됐을 때 임주 쌤께서 화를 내서 기억이 났다. 그래도 임주 쌤이 아니었으면, 초반에 틀을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중간발표도 망쳤을 것이다. 이상한 녀석의 논문 보조 선생님이 되신 임주 쌤께 사과를 올리겠다. 그리고 내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임주 쌤에게 한번 보여 드리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문항을 결정하여 설문조사를 해 많이 미안하기도 했다. 설문지를 왜 돌려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써준 분들께 부끄럽지만 감사를 올린다.

이 논문은 기존에 나와 있는 서적들의 경솔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도로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을 썼지만, 의외로 뜻밖의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쿠푸 왕의 피라미드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기존 대개의 서적들이 더욱더 쿠푸 왕의 피라미드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내용을 발간하였으면 한다. 대 피라미드는 아직도 그 모든 신비를 내 보이지 않았다. 쿠푸 왕의 피라미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집트 학자들은 더욱더 이집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하학적 상징에 대한 깊은 지식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special thank to

나를 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이집트 대 학자 크리스티앙 자크님. 전산실 옆 자리에서 잡담을 나누며 활력을 불어 넣어준 은지, 논문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던 병우, 병건, 지켜봐 주신 부모님. 도와주신 임주쌤, 그리고 내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나들(me's)이 모두 하나의 이승우로 동화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

참고 문헌

다음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피라미드-인간의 숭고한 노동과 상상력의 결정체 (데이비드 벅켈레이), 이집트(정규영), 빛의 돌(크리스티앙 자크), 람세스(크리스티앙 자크), 파라오제국의 파노라마(크리스티앙 자크), 나일 강 위로 흐르는 빛의 도시(크리스티앙 자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



이에스더 _

1989년 07월 11일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남

무남독녀 외동딸

오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 오호초등학교(도중 폐교) - 길곡초등학교 - 영산여자중학교(자퇴)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 2004년 4월 경남지구 고입검정고시 합격.

혈액형 / RH+A형이 아닌 RH+O형

별명 / 애수덕, 수덕, 덕수, 에스트랄로피테쿠스, 똥배, E.T, 수저, The trax더, 러블리호동,

손쌈 뽀뽀뽀

취미 / 책 읽기, 낫잠 자기, 산책하기

소속 / 간디청소년중학교 3학년, 여자기숙사, '오르렁 개가 주인을 몰다' 반, 로망의

'안티프라민', 벼락부자, 연가, 감감무소식 '슈팅스타'

학교싶은 말 /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 2004 졸업 논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

■ 발표자 : 이에스더

■ 지도교사 : 양희창 선생님

■ 차례

I. 서론_ 333

II. 본론_ 334

1. 아폴론적인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_ 334

2. 학교 교육과정은 가치 중립적인가_ 335

3. 제도권 학교 커리큘럼 비판_ 336

4.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_ 338

III. 결론_ 341

후기_ 342

spacial thanks to..._ 34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

1. 서론

“나는 왜 간디학교에 왔는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이것은 간디학교에 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지금의 나의 대답은 ‘행복하다’이다. 그렇다면 내가 간디학교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간디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그것과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간디학교의 교육방법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간디 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간디 인으로서 간디학교의 교육상이 무엇인지 탐구하려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간디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한 학교의 교육 이상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제도권 학교의 것과 비교해서 과연 간디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면이 제도권 학교와 차별화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나는 간디 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따라서 나는 페미니즘³³⁾적 관점에서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그 이유는 제도권 학교의 교육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동일한 교육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 학교는 거의 같은 방식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표준화된 인간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표준, 즉 그들 학교의 이상적 인간으로서 기준은 ‘남성 지향적’ 인간인 것이다.

약간의 억측인지 모르지만 나는 감히 제도권 교육은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교육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혹 간디학교 역시 자신도 모르게 여성을 차별하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것을 분석하려고 한다.

33) feminism이란 일반적으로 여성주의 또는 여권주의라고 번역되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성의 성차는 인정하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성주의적 운동과 생각을 의미한다.

II. 본론

많은 이들은 우리 동양세계보다 서양세계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은 것으로 이해한다.³⁴⁾ 그러나 과연 그럴까. 좀더 깊게 동·서양을 비교하면 서구사회가 훨씬 더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서양의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남자)의 성을 따른다. 서양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구체적으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는 이성³⁵⁾의 시대를 의미한다. 즉,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도구가 서양인들에게 중요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았던 시대인 것이다. 그 이전 시대인 중세시대와 비교하면 계몽주의 시대는 서양 역사에서 한 단계 진보된 보다 건전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한 것은 이성과 합리성이다. 인간은 이러한 이성과 합리성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높은 생활상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운 사회는 항상 건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성 중심의 세계는 이성 외의 다른 것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이성 외의 다른 것(예를 들어 감성 같은 것)을 저속한 것으로 차별하였다. 그 결과 서양사회는 지금까지 이성 중심적인 문화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합리성이 모든 것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성적인 문화와 세계관은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성 중심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더 이상 인간의 미래를 책임지는 윤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성이 철저히 억압된 채 이성만이 강조된 사회에서 모든 것이 메마르고 건조한 마치 기계 부속과 같은 것이 되었다.

1. 아폴론적인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

전인적 인간이란 어떤 상태의 인간을 말함인가. 인간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오늘을 살고 미래를 계획한다. 반성과 계획,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 중에서 이성의 역할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

34) 여기서 서양세계의 여성억압에 대해 논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뿐, 여성 억압의 역사에서 동양이 서양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현 교육과정이 서양교육의 교육과정에 그 뿌리가 있기에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은 자연히 서양의 성차별의 역사를 비판해야만 한다.

35) 이성과 합리성은 서양 근대정신을 대표한다. 중세에 신앙이 중요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서양 근대정신은 이성을 통한 진보된 삶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여러 기능 중 하나였던 이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소외시키거나 억압하였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정신운동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차별화된다.

즉, 인간은 이성의 작용인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고 자신의 세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느끼는' 작용이다. 인간은 대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감성으로 느끼고 그것과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간다. 인간에게 감성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로봇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반성하고 설계하며 분석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과, 세계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감성의 기능을 모두 같은 무게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간에게 있어서 아폴론적인 요소³⁶⁾(이성의 기능)만 강조되고 디오니소스적 요소(감성적 기능)가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느새 인간에게는 아폴론적인 것만 지나치게 남아 있고,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작아지게 되었다. 즉, 감성이 빈약하고 그 대신 이성적 활동만 커진 불균형한 인간이 현대인의 모습이 되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용하려고 할 뿐 자신의 세계와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절름발이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이런 절름발이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을 계속해서 양산해 내고 있으며, 그러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 교과과정도 그렇게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제도권 학교의 교과과정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2. 학교교육 과정은 가치 중립적인가

그러나 교육적으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성 중심적 세계관이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성=남성, 감성=여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이성이 감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다음의 도식³⁷⁾과 영국의 학자 벰(Bem)이 구분해 놓은 여성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³⁸⁾이 그것을 증명한다.

1) 이성/감성, 합리/불합리, 문화/자연, 진리/비진리, 의식/무의식, 중심/

36)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다.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로서 최고신의 상징으로 서양사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비유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디오니소스는 축제와 술의 신으로서 인간의 감성적인 면을 비유할 때 상징으로 사용된다.

37) 도식이란 그림으로 그린 양식이나 도형으로 <여성학 강의>라는 문헌에서 제 3장 성역할의 사회화 65쪽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38)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은 영국의 학자 벰이 구분해 놓은 바 있으며, '여성학 강의' 제 3장 성역할의 사회화에서 출저한 것이다.

주변... 남성/여성

여성의 특성- 양보를 잘 한다. 명랑하다. 수줍어한다. 애정을 갖는다. 아침을 잘 한다. 총성스럽다. 이해심이 많다. 온정적이다. 안전하다.

남성의 특성- 자신감이 있다. 신념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리더십이 있다. 모험심이 많다. 자기 충족적이다. 공격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야망이 있다. 경쟁적이다.

이처럼 이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과 일치시키고 감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으로 정해놓음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전술했듯이, 영국의 학자 뱀은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정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제작한 바 있다. 이 '성 역할 검사'는 자신의 성과 부합³⁹⁾하는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 각각 7점 정도로 측정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성의 특성을 점수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학교는 '이성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적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위의 도표에서처럼 앞의 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뒤의 것은 저속⁴⁰⁾한 것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즉,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남성의 속성으로 열등한 것은 여성의 속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성 중심적 교육은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적 교육으로 변질되어 더 이상 학교에서 양성이 건강하게 존중되는 전인적인 인간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 결과 제도권 교육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남성 지향성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남성화되어 가게 된다.

3. 제도권 학교의 커리큘럼 비판

앞에서 전술했듯이 계몽주의 이후 서구사회는 남성=이성 여성=감성으로 규정하였고, 여성적 요소를 교묘하게 차별하였다. 그 이유는 서구사회가 철저히 이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도 역시 이성이 되었다. 즉 이성적인 것이 가장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 이성이 된 사회에서 이성은 다른 것과 차별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러한 이성의 가치를 보편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런 노력은 바로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즉 최상의 가치인 이성을 주입시키는

39)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40) 낮고 속되다는 언어.

것, 다시 말해서 '이성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성을 계발하는 교육, 이성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제도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이성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면 할수록 이성 중심적인 가치에 동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감성적인 면이 감소되게 된다.

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이런 학교교육, 즉 학교의 교과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학교교육에 충실하면 할수록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남성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자신도 모르게 남성화되어 간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면 이러한 것이 단지 내 개인의 우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도권 학교에 예체능 과목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예체능 교사들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⁴¹⁾하는 한 예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교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대표적으로 특히 수학과 과학은 이성을 계발하는데 가장 적절한 학문이다. 그래서 제도권 학교는 이러한 학문들을 장려하고, 시험을 치게 해서 학생들을 '이성적'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보충수업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짜여져 있고, 음악이나 미술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충할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계발해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예체능 교육은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있다. 다음의 제도권 학교의 수업 시간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영산 여고 시간표] 42)

구분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월	수학1	HR	일어	수학1	윤리와 사상	생활경제	미술과 생활	영어
화	수학1	수학	영어	윤리와 사상	문학	문학	한문	한국지리
수	영어	수학1	영어	문학	생활경제	한국지리	한문	특/적 문학
목	영어	화학	영어	문학	일어	수학1	CA	특/적 사회문화
금	문학	영어	화학	윤리와 사상	문학	수학1	한국지리	특/적 국사

41) 증거를 내세워 증명함. 거증 알리바이를 입증하다.

42) 제도권 학교의 사례로 제시한 영산여자고등학교와 창녕고등학교는 창녕군 내에 소재하는 인문계 학교로서 방학 중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한 학교들이다.

토	윤리와 사상	수학1	문학	영어	한국지리			
---	--------	-----	----	----	------	--	--	--

위아래 2학교의 시간표에서 보듯이 국, 영, 수는 매일 공부해야 할 학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그 외의 과목이 많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간표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나마 시간표대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예체능 시간에 국, 영, 수를 보강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⁴³⁾ 비밀이 되었다. 게다가 추가로 보충수업 역시 그렇게 구성되었으니 교과과정의 불균형은 병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창녕고등학교 시간표]

구분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월	영어	화학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경제지리	수학1	HR	영어
화	영어	수학1	문학	생활경제	경제지리	영어	한문	화학
수	문학	수학1	윤리와 사상	미술과 생활	영어	문학	일어	특/적 한국지리
목	문학	영어	문학	일어	생활경제	한문	수학1	특/적 한국지리
금	수학1	문학	영어	한국지리	문학	수학1	CA	특/적 경제지리
토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수학1	영어			

또한, 일반 제도권 학교의 교육 목적은 '입시'이기 때문에 감성 교과라 할지라도 수업은 입시를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감성의 회복이 힘든 실정으로 이성을 계발하는 이성적 교과라 할지라도 '책으로 여는 세상', '밝은 말길 찾기', '문화 유적 답사' 등 좀 더 실질적인 교육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창의성과 비판 정신, 발표력 등을 향상시키는 간디학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육과정에 의해 실행되는 제도권 학교교육에서 진정으로 인간을 만드는 '사람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교육의 목표인 전인적인 인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교육과정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제 나는 간디 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대안교육의 희망을 걸고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간디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43) 사실을 버젓하게 드러내 놓은 상태를 말함.

4. 간디학교의 커리큘럼 분석

◎ 간디청소년학교 시간표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간디학교는 지식교과와 감성교과의 비중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감성'이라는 교과가 자체로 교과과정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보아 감성교과가 체계적이고 폭 넓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성' 시간에 있는 감성 교과들을 과목 별로 분류해 보았다.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주를 여는 시간	국, 영, 수 2A	국, 영, 수 1A	사, 과 1	국, 영, 수 1A	학급활동
2교시	국, 영, 수 1A	국, 영, 수 2A	국, 영, 수 1A	사, 과 1	국, 영, 수 1B	동아리
3교시	사, 과 1A	국, 영, 수 2B	사, 과 1	사, 과 1	국, 영, 수 2A	동아리
4교시	국, 영, 수 1B	국, 영, 수 2B	사, 과 1	사, 과 1	국, 영, 수 2B	동아리
5교시	교양	감성	자립심화	체, 음, 미 2	철학	
6교시						
7교시	체, 음, 미1	자립기초			가족회의	
8교시						
9교시				문화의 밤		
10교시						

아래의 것은 감성교과에 과목별로 개설된 교과목 표이다.

체육	요가, 야구, 배드민턴
	골목놀이, 배구, 재즈댄스, 농구, 등산교실.
음악	뮤지컬1, 뮤지컬2, 음악놀이1, 음악놀이2.
미술	회화감상1, 회화감상2, 창작공예1, 창작공예2.
자립기초	텃밭 가꾸기, 목공,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1, 옷 만들기 2
자립심화	생태농업, 목공 심화, 옷 만들기 심화, 음식 심화
교양	생활한문1, 생활한문2, 컴퓨터 입문, 홈페이지 만들기, 수화(초급), 수화(중급), 영화 속의 과학, 핸드 메이드1, 핸드 메이드2, 팀 프로젝트
감성	우리가락1, 우리가락2, 가야금, 퓨전음악, 연극의 이해, 락 음악의 이해, 만화

철학 / 음식 / 회화감상 / 뮤지컬 / 등반/ 목공예 / 창작공예 / 옷 만들기 /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수업 / 텃밭 가꾸기 / 퓨전음악 / 골목놀이44) 등

위의 과목들은 제도권 학교에서는 낯선 것들이다. 그 이유는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 과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 사실 '교육'이란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닌가. 즉 '교육'='사람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 교육의 교과과정은 '사람 만드는 교육'에 얼마나 충실한가 의심스럽다. 입시에 유능한 학생이 곧 전인적인 인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권 교과과정은 다양한 인간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제한된 것만을 발전시킨다. 반면에 간디학교는 실험적으로 전인교육에 충실한 교과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간디학교 교과과정은 제도권 학교가 간과한 측면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와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그것은 곧 '감성교육의 회복'이다. 요리, 회화감상, 뮤지컬, 창작공예,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서 간디 인은 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 수업으로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과 창의성 있는 인간으로 교육되어 간다.

5) 설문조사 45)

간디학교가 얼마나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했는가, 또는 양성평등⁴⁶⁾을 위한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 설문지 요약

- A) 평소에 수업 중이나 일상 활동 중 '남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16) ② 없다(11) ③ 잘 모르겠다(2)
- B) 선생님들의 강의나 언행 중 '양성평등'과 모순⁴⁷⁾되는 것이 있을까요?
 ① 있다(11) ② 없다(16) ③ 잘 모르겠다(2)
- C) 선생님들이 '양성평등'을 추구하시는 것 같나요?
 ① 그렇다(18) ② 아니다(3) ③ 잘 모르겠다(8)

(2) 선생님들 설문지 요약

- A) 평소 수업 중이나 일상 활동 중 양성평등을 실천하십니까?
 ① 그렇다(6) ② 보통이다(2) ③ 아니다
- B)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교과과정이 전인적 교육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44) 위의 과목들은 간디학교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45) 간디학교의 양성평등에 관한 설문조사는 2004년 9월 17일~18일 양 일 간에 걸쳐서 학생 29명,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논문의 수준을 위해 학생의 경우 2, 3학년으로 제한하였다.

46)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의미.

47)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음.

- ① 그렇다(8) ② 아니다

C) '남여 차별'을 은연중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6) ② 없다(2)

D) 실제 교육활동에 하심에 있어 '양성평등'의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6) ② 아니다(2)

E) 그 교육 내용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8) ② 그렇지 않다

(3) 설문조사 결과

양성평등에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간디학교의 교육환경은 대체로 바람직한 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양성평등을 느끼는 체감도⁴⁸⁾가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결과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 본 교사의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한 의지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간디학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결과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교사들의 양성평등에 관한 의지가 제도권 학교의 교사들보다 적극적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더욱이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성차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문 응답 교사 전원이 응답한 것은 간디학교 교사들의 교육철학과 양성평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약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육이상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사와의 양성평등의 체감도는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간디학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선행 연구⁴⁹⁾된 페미니즘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실 여성을 '차별화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교육 기회에 있어서 여성의 불평등,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이전 연구의 대부분의 주제였다. 따라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접근한 교육 관련 서적들과 논문들은 여성 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8) 몸에 어떤 감각의 느낌의 정도.

49) 앞서서 발표된 연구.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에 있어서 여성은 과거처럼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여성도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성과 같은 수준의 균등⁵⁰⁾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로 여성의 억압을 말하는 것은 약간의 시대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초점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 교육 현장에서 여성해방⁵¹⁾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 있다. 즉 교육에서의 여성에 대한 형식상의 해방은 진정한 여성해방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나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교육의 문제점은 '기회균등' 뒤에 숨어서 영원히 여성을 억압하려는 '남성주의 교육'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즉 여성을 차별하는 교육보다 '여성을 남성화시키는 교육'이 우리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이고 모욕적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다. 제도권 학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과과정을 통해 여성에게 '남성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서서히 잃어 간다. 십여 년 간의 제도교육은 남성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의 교육을 은연중 강요하였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어느덧 남자가 되어 간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히도 나는 여성을 교묘히 억압하는 비교육적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고, 제도권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간디학교가 준 선물이다. 그러나 간디학교는 여성 억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가?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본 간디학교는 여러 차원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와 교육철학이 제도권 학교와 차별이 되고, 더욱이 완전히 차별화된 교과과정은 학생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심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실험'이라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대안이 충족되면 또 하나의 대안을 추구하는 대안학교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남성 중심적 교육이 극복되고 양성이 같이 존중되는 보다 인간화된 교육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간디학교의 미래는 열려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 후기

정말로 못 쓸 것만 같았던 논문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짧은 한 달 간이었지만(방학 때는 거의 하지 않은 관계로) 논문이란 거대한 돌덩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젠 불면증, 무기력함, 막막함, 괴로움, (가끔씩은) 자괴감과 아주 '웬수 같은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내게 너무도 벅찼던 논문인지라 함부로 건드렸다가 불에 확 데인 느

50) 수량이나 상태 따위가 차별 없이 고름, 기회 균등/ 균등하게 분배하다.

51) 여성이 겪어온 여러 가지 사회적 속박을 없애 자유롭게 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위치를 찾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김처럼 논문을 쓰면서 계속 얼얼한 느낌이었는데, 후다닥 한 편의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논문을 끝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종이에다 계속 끄적거리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쳐다보지도 않고, 또 이젠 그다지 이불을 원하지 않는 절 보면서 힘차게 기지개를 피며 오랫동안 잊어왔던 상쾌함을 느껴 봅니다.

힘들게 쓴 만큼 제게 더 없이 값진 논문입니다. 비록 시간도 부족하고 처음부터 제게 베풀던 주제여서 아직은 저에겐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지만요.

저를 비롯해서 중3 모두에게….

spacial thanks to…….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담당 선생님이신 양희창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후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새내기 여성학
- 페미니즘 교육 이론
- 여성학 강의
- 인형의 집
- 이갈리아의 딸들
- 쥬이쌍쓰- 그녀들의 심장
- 미래에서 온 편지
- 발도르프 학교의 감성 교육
- 교육학 이론
- IF(여성 잡지)

인터넷 자료

www.naver.com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진

이름 : 정진

생년월일 : 1989.4.6(+)

별명 : 하나도 없음

혈액형 : Rh B+

취미 : 독서

좌우명 : 제대로 살자!

소속 : 간디학교

■ 2004 졸업 논문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발표자 : 정진

■ 지도교사 : 태영철 선생님

차 례

I. 서론_ 347

1. 동기 및 목적_ 347

2. 시간여행에 대한 간단한 본론 설명_ 348

II. 본론_ 348

1장. 시간여행에 대해서_ 348

1) 시간여행이란 무엇인가?_ 348

2장. 상대성이론의 설명_ 349

1) 상대성이론의 이해_ 349

2) 시간여행에 적용되는 상대성이론_ 351

3장. 시간여행은 가능한가?_ 351

1) 시간여행은 가능한가?_ 351

2) 시간여행은 가능하다._ 362

3)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_ 365

4) 영화로 보는 시간여행의 모순 찾기_ 356

III. 결론_ 359

1. 시간여행에 대한 나의 의견 정리_ 359

2. 논문을 마치며_ 360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1. 서론

1. 동기 및 목적

어릴 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시간을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후회했던 적이 적지 않다. 물론 어릴 때 상상했던 철없는 생각이고, 그 때는 시간여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그 때의 상상이 지금의 나에게 시간여행이라는 모험에 빠지게 한 것 같다.

나는 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이 단순히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일 뿐이라도,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혹은 시간여행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만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나의 후배들에게 말이다.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참고할 만한 선배들의 논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논문은 물리학 쪽, 그러니까 이과 분야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분야로 논문을 다뤘던 내력이 별로 없다. 그나마 있는 것도 논문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문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참고할 만한 논문이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논문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비록 모자라긴 하지만 내년에 혹은 수년 후에 논문을 쓰게 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 내가 이것을 아주 힘들게 공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쓰려고 한다. 따라서 어려운 이론 부분이나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논문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논문을 쓰는데 대부분의 자료를 서적을 이용해 연구하였다. 내가 참고한 서적들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몇 번이고 다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는 인터넷과 방학 때 만난 아는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또,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들을 통해 왜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이것에 대한 것은 3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다.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무리인 부분이 적잖게 있었다. 아직 중학교 과정의 물리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나에게 시간여행이란 너무나도 벽찬 존재였다. 또, 무모하

게 주제를 잡은 터라 사전지식도 턱없이 모자라 배짱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시간여행'이란 단어만으로도 주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점차 범위를 좁혀 '시간여행'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인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논문을 쓰도록 하였다.

2. 시간여행에 대한 간단한 본론 설명

시간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다들 한번쯤 잘못을 저지르고는 시간을 되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왜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그 사실이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를 연구해 보려 한다.

시간여행은 H. G. 웰스의 멋진 과학소설로 인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하기도 전에 시간을 4차원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의 소설은 『시간여행』이라는 단순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전개하여 물리학계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시간여행은 물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거리임이 틀림없다. 이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또 세계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여행이 가장 흥미로운 이유는 모두들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과거로 돌아가 히틀러를 살해해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다면, 미래로 가 이미 개발된 암 치료약을 가져와 암에 걸린 이들을 치료한다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반대 가설들이 있고, 불가능하다 것을 뒷받침해 주는 패러독스⁵²⁾와 역설들이 있다. 나는 이 역설들을 뒷받침하여 시간여행이 불가능함을 연구해 논문을 완성하겠다.

II. 본론

1장. 시간여행에 대하여

1) 시간여행이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 이 단어들은 너무 추상적이다. '현재'가 일정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라면, '과거'는 '현재'라는 자동차가 지나온 길이고, '미래'는 이 자동차가 달릴 길이다. 이들 중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는 '현재'가 지나감으로서 점점 더 늘어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현재'였던 것이 지금은 '과거'인 것이다. 지금으로

52) 패러독스 : 일어날 수 없거나 사실일 수 없는 것.

부터 1나노초 전도 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럼 '현재'는 어떤가? 현재도 계속 바뀐다. "지금이 현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되고, 조금만 지나면 '현재'에서는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재'가 된다. 이것 역시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럼 '미래'의 경우를 보자. '미래' 역시 부정확하다. 자동차가 길대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옆으로 이탈한다거나 '미래'와 다른 일을 한다면 이것은 '미래'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

시간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이 따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였던 것이 어느 순간에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다. 시간여행은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보통 시간여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들 말한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대단한 발견으로 인해 이론적사실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그 이론이 실제로 가능한지 증명되지 않았고, 인간이 시간여행을 했을 때의 안정성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시험 단계조차 생각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내가 다룰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나 광속 이상으로 움직여 가는 방법, 그리고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이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현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이론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후자의 방법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 이것들 존재의 유무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천체여서 이것들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그 전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냐는 것부터 의문점이다. 이것들에 들어간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천체들이 존재하고 통과하여 과거 또는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도 많은 희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장. 상대성이론의 설명

1) 상대성이론의 이해

상대성이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한두 번 그보다 더 여러 번 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이론이 다른 이론에 비해 특별히 사랑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상대성이론이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고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일부 밝혀 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여행'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는 아직 상대성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이유는 나의 사전 지식이

모자라서도 있겠지만, 상대성이론의 오묘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약간의 개념만을 잡았을 뿐이다. 그래도 역시 상대성이론은 기본 지식을 요구한다. 특히 일반상대성이론일 경우는 더하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과 물리학 과정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나는 중학교 과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직접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서적과 인터넷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1905년에 발표한 '진공 속을 달리는 빛의 속도는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라는 핵심을 가진 특수상대성이론과 1916년에 발표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게 한다.'라는 핵심을 가진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기존에 있던 고전물리학⁵³⁾을 뒤엎는 현상을 일으켰다. 고전물리학의 중심이 되었던 뉴턴의 대표적인 3가지 운동법칙이 있다. [제1법칙]관성의 법칙⁵⁴⁾, [제2법칙] $f=ma$ (운동방정식)⁵⁵⁾, [제3법칙]작용-반작용의 법칙⁵⁶⁾이 그것이다. 이 법칙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변함없는 공식이다. 하지만 이 법칙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빛에 대한 것이다. 빛은 관찰자가 어디에 어떻게 있던 항상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린다.

만일, 우리가 초속 15만km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린 빛과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과 빛은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였다.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 15만km/s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30만km/s로 움직이는 빛을 보았을 때 우리의 눈에는 빛이 15만km/s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빛의 속도는 여전히 30만k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설명을 들어 보자.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다른 차가 옆을 시속 120km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차가 시속 100km 옆의 차도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서로 봤을 때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관성계에서는 정상이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다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빛이 가는 방향으로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쫓아가려고 해도 빛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일정한 속도(초속 30만km)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성이론에 아주 중요한 가정이고 또, 정밀한 실험을 거쳐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다.

53) 고전물리학 : 뉴턴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18세기의 물리학

54) [제 1법칙] 관성의 법칙 : 물체가 외부의 작용을 받지 않는 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55) [제 2법칙] $f=ma$ (운동 방정식) :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는 그 힘에 비례한 가속도를 받는다.(이 때, f 는 힘 m 은 질량 a 는 가속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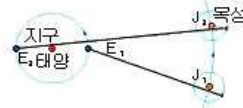
56) [제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 두 물체가 서로 힘을 미치고 있을 때, 한쪽 물체가 받는 힘과 반대쪽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나타내는 법칙.

2) 시간여행에 적용되는 상대성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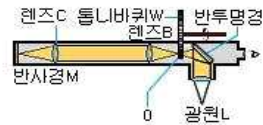
상대성이론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간여행을 제대로 다룬 것은 특수상대성이론이다. 물론 일반상대성이론에도 적지 않은 부분에 시간여행을 - 시간과 공간을 다룬 내용 - 다루었지만 그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무척 어렵기 때문에 특수상대성이론에 나타나 있는 시간여행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수상대성이론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근거는 빛의 속도에 있다. 빛의 속도는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상수의 하나이다. 빛은, 실험실의 레이저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별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관측자나 광원의 상대운동⁵⁷⁾에도 무관하게 일정하여, 최초로 빛의 속도를 유한한 값⁵⁸⁾으로 구한 사람은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뢰머(O.C.Romer)이다. 목성의 한 위성에 대한 관측을 계속 하던 중, 목성의 위성이 목성과 지구의 사이에 정렬하는 주기가 지구가 목성을 향하여 다가갈 때와 멀어질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현상을 뢰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가정 하에 설명하였고, E_H한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었다. 그 속도는 2.1x10⁸m/sec로 실제의 값보다 1/3 정도 작은 값이다. 이 오차는 그 당시의 천문학에서의 거리측정의 부정확성 때문이었다. 오른쪽의 그림이 뢰머가 빛의 속도를 측정한 방법이다.

【그림1】 뢰머의 광속 측정법



【그림2】 뢰머의 광속 측정장치



3장.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1)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여행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 내 실수를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또는 미래로 가 불치병을 앓아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등등 현재에서 불만족스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불만족해 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려면 과거 혹은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되돌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시간여행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도의 사건의 시간여행은 인과율⁵⁹⁾에 위반하지 않지만, 당신이 과거로 가서 아

57) 광원 상대운동 : 빛이 출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

58) 옛날의 물리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이라고 생각하여 멀리 떨어진 별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즉각 관측된다고 생각했었다.

직 어린 소녀인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소녀가 죽었다면 당신의 어머니는 태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당신도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지도 못하였고, 당신의 할머니를 죽일 수도 없다. 이 역설은 보통 '할머니 역설' 이라고 부른다.

시간여행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역설, 패러독스들이 참 많다. 이런 패러독스들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그래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패러독스는 시간여행자가 과거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여행해서 과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때는 아무런 패러독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간 것 자체부터 과거가 변화되는 것이 때문에 아무런 패러독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시간여행은 가능하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낸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모순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아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설 중 일부이다.

(1) UFO

이것의 뜻은 미확인 비행 물체(Unidentified Flying Object)이다. 우리는 단순히 '외계에서 온 우주인들이 타고 온 비행물체이다.'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미래에서 시간여행을 온 미래인 일 것이다'라는 가정이 나오고 있다.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한 타임머신 형태는 단 한 가지, 원반 형태뿐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연한 일치일까? 미래에서 온 미래인들은 단지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지 미래인은 이미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이다.

(2) 타키온

광속 이상의 속도를 우리는 '타키온'이라고 부른다. '타키온'이란 광속보다 빠른 입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만든 입자에 대한 명칭이다. 보통 '타키온'이라고 하면 빛의 4.7배의 속도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 입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이것의 질량은 허수⁶⁰⁾의 값을 가져야 한다. 타키온의 질량이 허수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성이론에 있다.

(이 식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의 움직이는 물질(입자)의 질량에 관한 공식(질량증가공식)이다. 이 때, m 은 v 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질의 질량,

59) 인과율 : 원인이 되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자른 상태가 필연적으로 따라 일어난다는 법칙. 원인과 결과.

60) 허수 :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 $i = \sqrt{-1}$

$$m = \frac{m_0}{\sqrt{1 - (v/c)^2}} \quad (14)$$

m_0 은 물질의 정지질량, c 는 광속도이다.)

이 식에 대입하여 움직이는 물질이 빛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라고 한다면, 분모 안의 수가 양수가 되고 ($1 - (v/c)^2 > 0$), 분수는 양수가 된다. 하지만 타키온은 빛의 속도를 넘기 때문에 분모가 음수가 되어 ($1 - (v/c)^2 < 0$) 분수 전체가 음수가 된다. 따라서 물질이 v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질량은 음수, 즉 허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진 타키온이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조건이 되면 광속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타키온을 만들었다.

빛보다 빠른 물질에 대한 아이디어는 독일의 수리 물리학자 아놀드 쯔머펠트(1868-1915)가 처음 냈다. 그리고 제럴드 파인버그가 '빠르다'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 '타키스(tachys)'에서 따와 타키온의 이름을 지었다. 이 입자와 유사한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호주의 R. 클레이와 R. 크라우치이다. 이들은 우주선사위(61)를 관측하던 중 이 사위를 검출하기 수백만 분의 1초만큼 빨리 약한 신호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것이 타키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1973년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타키온이 아니었고 아직까지 타키온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 이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타키온이 존재하기에는 이에 따른 모순이 많다.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빛의 속도보다 느려질 수 없다. 또, 관성계(62)에 있는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빛의 속도가 되려면 질량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질량이 없는 물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는 벽이라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연계에서 타키온이 존재하려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타키온의 질량은 허수가 되어야 한다. 또, 에너지를 얻을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클 때 빛의 속도가 되고, 에너지를 모두 잃게 되면(0이 되면) 타키온의 속도는 무한대가 된다. 실수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에너지를 얻을수록 속도가 커지지만 타키온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해지고 블랙홀의 중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타키온은 수학적으로나 상상해 볼 수 있는 입자지만, 이를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1970년 미국의 물리학자 발티는 타키온의 질량이 허수(-)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가속기를 이용해 실험을 할 때 질량의 공급이 음(-)인 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허수에 공급을 하면 음이 되고, 만약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면 그 입자가 바로 타키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티의 실험은 허사였다.

61) 우주선사위 : 우주선(cosmic ray)이 지구의 재기에 진입할 때 생기는 힘으로 인해 원자핵이 붕괴되어 대기 중의 원자핵과 부딪쳐 많은 소립자들이 사위기에서 뿜어 나오는 물처럼 나타나는 현상.

62) 관성계 :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이론에서 확립하였다.

지구 밖에서는 우주선(cosmic ray)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것들은 20km상공에서 대기 원자와 충돌하면서 전자⁶³)와 감마선⁶⁴)을 만들어 낸다. 1974년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 클레이는 전자와 감마선이 만들어질 때 타키온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입자들 가운데 비행속도보다 더 빨리 도착한 입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러므로 타키온을 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3)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

우주에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진 세 개의 구멍이 있다. 웜홀(warm hole)⁶⁵), 블랙홀(black hole)⁶⁶), 화이트홀(white hole)⁶⁷)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블랙홀을 제외한 다른 두 구멍은 아직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웜홀은 블랙홀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를 연결하면서 생겨난다. 여기서의 다른 우주는 화이트홀이 있는 우주이다. 이것 때문에 웜홀은 시간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웜홀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천체이며, 존재한다고 해도 불안정하게 생겼고 아주 순식간에 생겼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란 절대 쉽지 않다.

별이 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력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압력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력은 무한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한 별은 힘의 균형이 깨져 중력붕괴⁶⁸)를 일으켜 계속 쪼그라들게 되고 마침내 한 점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것이다. 이 블랙홀의 반지름을 우리는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⁶⁹)이라고 정의하였다.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은 천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이 되려면 반지름은 약 1cm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질량이 지구의 30만 배가 되는 태양의 경우는 3km가 된다. 이 블랙홀은 중력의 세기가 무한대인 것이 특징이다. 블랙홀이 검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자유로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하다.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깐 당연히 검게 보이는 것이다.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것에 있다.

63) 전자 : 원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소립자(작은 입자). 음전하(-)를 가지고 질량이 매우 작으며 안정돼 있다.

64) 감마선 :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한 가지. 의료용 금속 결함 탐지기에 쓰인다.

65) 웜홀 :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 하는 우주 안의 가상의 통로.

66) 블랙홀 : 항성이 수축을 해 그 안의 중력은 무한대가 되어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탈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일 빨아들이기만 하는 천체.

67) 화이트홀 :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놓기만 하는 천체. 아직은 미확인 천체이다.

68) 중력붕괴 : 중력과 압력의 비례가 맞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항성이 중력에 의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현상.

69)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 : 슈바르츠실트가 정의한 블랙홀의 반지름.

이와 반대로 화이트홀은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상상 속의 천체이다.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세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질이 그 내부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화이트홀이라고 부른다. 이로서 블랙홀에서 빨아들인 물체들이 웜홀을 통해 다시 다른 세계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웜홀을 중심으로 볼 때 서로의 반대쪽에 있다.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의 수명이 매우 짧다고 한다. 즉 화이트홀에서는 물체(빛)의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 순식간에 블랙홀로 바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태양의 크기만 한 화이트홀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수명은 1만 분의 1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웜홀로 인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하다. 웜홀이 존재하는 시간도 짧은데 게다가 화이트홀까지 그렇다면 이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시간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블랙홀로 들어가 웜홀을 통과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화이트홀일 때 도착하지 못하여 웜홀 속에 갇혀 버린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음에 틀림없다.

3)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이유

만약에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당신의 집 마당에 있는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치자. 자, 여기서 또, 패러독스가 일어난다. 과거에서 버드나무를 베었다면 당신이 현재에서 보았던 버드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거에서 베었다라면 현재에는 없어야 할 텐데, 당신이 오기 전의 현재에는 분명히 버드나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설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아직 우리는 미래에서 과거로 온 미래인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미래에도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아 과거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타임머신은 발명될 수 없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밖에 흐를 수 없는 1차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 시간의 본성에 따른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물이 자연 상태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듯이 시간도 한 방향으로 흐를 뿐이다. 즉,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방향을 지닐 뿐이다.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만들더라도 이런 시간의 비가역성⁷⁰⁾을 바꾸어 놓을 수 없으므로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져야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원칙적으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공식에서 잘 볼 수

70) 시간의 비가역성 :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한다.

$$m = \frac{m_0}{\sqrt{1 - \left(\frac{v}{c}\right)^2}} \quad (1.40)$$

아인슈타인의 질량 공식

가 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공식에서는 만약 물체의 속도가 광속보다 크거나 같으면 운동 중인 물체의 질량이 음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어 버린다. 잘 알다시피 질량은 무한대나 음이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4) 영화로 보는 시간여행의 모순

공상과학 소설이나 SF영화를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물론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나, 이 소설이나 영화의 설정을 보면 타임머신을 만들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진행을 위해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이로 인해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1) 백 투더 퓨처 1,2,3(Back To The Future 1,2,3)

이 영화는 1985년의 오래된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과거를 바꿀 수 있었다. 또, 미래를 보고 와서 현재를 바꿀 수 있었다. 언뜻 보면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것은 모순이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꾼다.'이다. 이때 현재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많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도록 하자.

· 과거로 갈 수 없다.

당신이 당신의 할머니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적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은 할머니인 그 소녀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당신의 할머니가 죽었다면 당신의 어머니는 태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당신도 태어나지 못한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당신은 시간여행을 해서 할머니를 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할머니 역설'이다. 이 역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역설이다.

위의 역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할머니를 살해하지 않고 죽을 뻔 한 것을 살려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 '할머니 패러독스'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있어선 안 되는 당신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할머니가 혹은 세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과거로 간 당신으로 인해 현재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의 시간이 틀어져 다른 미래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당신의 얘기를 하거나 당신을 한 순간 이라도 본 사람의 시간이 틀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바꿀 수도 없다.

·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여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약간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다. 동화 속에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를 가설로 세운 것이다. 우린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마음대로 과거로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지 볼 수만 있을 뿐이다. 우린 과거에서는 영혼과 같은 상태

가 되어, 과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린 비록 볼 수밖에 없겠지만, 과거로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아무런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웃긴 얘기이다. 아무리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동화에 들어가면 재미있을 이야기이다.

· **과거로 여행을 함으로써 과거의 공간은 소멸되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다.**

이 가설은 우습게도 첫 번째 가설과는 정반대의 가설이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 아직 이론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했으므로 우린 알 수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다. 둘 중 하나라도 증명이 되는 날까지 우린 알 수 없다. 이 가설은 좀 우스운 구석이 있다.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쓰이는 것이 이 가설인데, 역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당신이 과거로 가면 당신은 마음대로 과거를 바꿀 수 있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 그것에 알맞은 현재가 생성돼 있는 것이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흥미로운 사건 전개를 위해 이렇게 설정은 하지만 이걸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앞에서 말했던 ‘할머니 역설’ 같은 것을 소화해 낼 수 없고, 이 가정이 성립하면 온 우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과거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은 이 가운데 검증되고 증명되어 인정받은 가설은 하나도 없지만 먼 미래에는 증명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미래를 보고와 현재를 바꾼다.’가 있다.

· **미래를 보고와 현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패러독스가 하나 있다. 자, 여기에 스승과 제자가 있다. 스승이 타임머신을 만들어 타임머신을 타고 수년 후의 미래로 갔다. 스승은 미래에 자신의 제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았다. 그것은 매우 획기적인 논문이고 온 세계 사람들이 놀란 만한 것이었다. 스승은 그 논문을 보고 현재로 되돌아와서 제자에게 이 논문을 가르쳤다. 그리고 스승이 갔던 미래의 시대가 되자 제자는 그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 여기서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누구의 것인가? 만약 제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제자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스승은 제자가 쓴 논문을 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스승의 것도 아니다. 시간여행을 다루면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2) 12몽키즈(12Monkeys)

2035년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멸종되자 바이러스를 피해 지하세계로 피해 있던 과학자들은 같이 있던 범죄자 제임스를 2025년의 과거로 보낸다. 제임스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12몽키즈’의 정체를 밝힌다. 타임머신을 타고 바이러스를 추적한 제임스는 ‘12몽키즈’의 실체와 바이러스를 확장시킨 범인을 잡는다. 이 때, 제임스가 과거로 갔을 때는 옛날의 제임스와 시간여행을 한 제임스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즉, 두 명의 제임스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에 과거의 제임스와 시간여행자인 제임스가 만나게 된다면(과거의 제임스를 제임스 1, 시간여행자인 제임스를 제임스 2라고 해 두자.) 제임스 1은 2035년에 자신이 과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제임스가 2035년이 되었는데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임스 2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막았다면 제임스 1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 때, 모순이 생긴다. 제임스 1이 2035년에 2025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2025년에 제임스 1이 제임스 2를 만난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다.

(3) 레트로 액티브(Ratro Active)

고속도로에서 작은 사고를 낸 카렌은 지나가던 젊은 부부 프랭크와 레이안의 자동차에 도움을 청해 견인차가 있는 곳까지 함께 가게 된다. 여행 중 간이 휴게소에 들른 프랭크는 그 곳에서 레이안의 간통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다 권총으로 레이안을 쏘아 죽이고 만다. 프랭크가 카렌마저 쏘려고 했지만 카렌은 도망쳐 가속화 연구소에 이르게 된다.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시간여행 구역으로 들어간 카렌은 20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고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다시 주어졌지만 일은 건잡을 수 없이 커지기만 한다. 카렌은 자신의 시간여행으로 빚어진 엄청난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간여행 구역으로 들어간다. 카렌이 들어간 시간여행 구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타임머신이랑 약간 다르다.

카렌이 시간여행 구역에 들어감으로써 20분 전의 카렌은 소멸되고, 대신 현재의 카렌이 과거의 카렌을 대체한다. 다시 말해, 카렌은 시간여행을 했다고 보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표현에 더 어울릴 것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패러독스를 보자. 이 가정은 카렌을 소멸시킴으로 같은 공간에 동일 인물이 있는 모순은 막았다. 하지만, 카렌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로 보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카렌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로 가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카렌은 과거에서 미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는 겨우 20분 전으로 돌아가 20분이 지나면 카렌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카렌이 태어나기 전으로 가는 것은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만약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여행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카렌이 있는 곳은 과거에 있으니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 영화 역시 재미를 위해 시간여행에 대한 모순을 일으킨 것이다.

거의 모든 영화에 나오는 이론들은 거의 다 잘못된 것이다. 패러독스나 인과율을 위반하는 과학적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영화들에 나오는 이론이 틀렸긴 하지만 영화고 하니까 재미를 위해서는 이런 것쯤이야 양보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III. 결론

1. 시간여행에 대한 나의 의견 정리

결론만 말하자면 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거창하고 화려한 이론들에 비해 우리의 과학기술은 거의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빛의 속도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과학 기술로 양성자⁷¹⁾를 빛의 속도의 99.999% 정도 가속시켰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성자의 경우이다. 양성자의 무게는 거의 나가지 않지만 만약 로봇이나 인간을 태워서 간다는 건 정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것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사람이나 중량의 로봇을 빛의 속도로 가까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같은 물체라도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가 가지는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만큼 더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사람이 타고 있을 때의 속력을 빛의 0.1% 정도의 속력밖에 내지 못한다. 이론상 가능한 최고 속도는 빛의 속도의 20%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시간지연현상⁷²⁾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고작 해봐야 몇 초 아주 많아 봤자 몇 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속도밖에 낼 수 없게 된다면 시간여행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빠르면 2050년 정도에는 빛의 속도에 30~4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운 점은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것뿐이지 에너지 낭비나 공해 같은 걸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 광속의 30~40%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기계는 질량이 커지지만 압력을 견뎌 낼 수 있지 때문에 만만찮은 유지비가 들 것이다. 이것은 빠른 속도의 이로운 점 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괜히 개발하여 지구를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된다.

2. 논문을 마치며

나는 이 논문의 주제를 시간여행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오래 전부터 알고 싶었던 상대성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흥미로운 시간여행, 이 모든 게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이 논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에는 내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깊이 알지 못하였던 점이다. 약간 무리하고 주제를 잡은 것도 있고, 너무 막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내려와 내 머리가 한동안 정지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으로 인해 나름대로

71) 양성자 : 보통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양전하(+)전하를 가진 입자. 그 크기는 전자(보통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음전하를 가진 입자)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72) 시간지연 현상 :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질의 시간이 늦게 가는 현상. 빛의 속도일 때는 시간이 가지 않고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타키온) 시간을 거꾸로 가게 된다.

얻은 것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스스로 보고서가 아닌 논문(이름만이라도)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확인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이해'였다. 알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기어이 이해해 보려고 몇 십 분 동안 쳐다만 보고 있던 일. 같은 글을 몇 번씩 계속계속 읽어 가는 일. 모두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너무 많은 자료가 있었다. 역시 상대성이론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론이다 보니 이에 대한 설명은 막대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느 샌가 광대한 지식에 파묻혀 나올 수가 없었다.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많고 많은 가설들이 있어 그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었다. 그래서 추리고 또 추려내어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나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시간여행에는 뭐라고 할 명쾌한 답이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일어나지 않을 공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시간여행이었기에 나로서 뭐라고 정의할 순 없다. 내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있어서 주관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쓴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많이 힘들게 논문을 쓴 것만큼 나는 이 논문을 마친 나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

〈참고 자료와 참고 도서〉

-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성이론(베리 파커 / 양문)
- 시간여행 가이드(클리퍼드 피코비 / 코키토)
- 아인슈타인의 우주로 떠나는 시간여행(J.리처드 고트 / 한승)
- 과학 동아 2004년 1월호(동아 사이언스)
 - 참고 사이트
- 물리의 이해 <http://physica.gsnu.ac.kr/>
- 서울대 물리학과 <http://phy.snu.ac.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나뭇가지 공예

- 나비와 잡자리, 그리고.....



정현석

1989년 06월 19일 서울 출생
외동아들

혈액형 / RH+B형(아빠와 같은 혈액형임)

취미 / 중민이 이름 이상하게 한 번 부르게 해서 당황케 하기, 서술, 리스 괴롭히기,

운동, 플스2 게임 관심 갖기

특기 / 남이 때리는 걸 막기

소속 / 개그동아리, 너째나째

좌우명 / “한번 끝까지 가 보면 계속 끝까지 간다.”

■ 2004 졸업 논문

『나뭇가지 공예』 - 나비와 잠자리, 그리고... -

■ 발표자 : 정현석

■ 지도교사 : 김병삼 선생님

■ 차례

I. 서론_ 363

II. 본론_ 363

1. 나뭇가지로 만들 수 있는 곤충의 종류_ 363

2. 나뭇가지 공예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 소개_ 363

3. 나뭇가지 공예 작품 제작_ 365

4. 나뭇가지 공예의 장점_ 367

III. 마무리 _ 367

1. 나뭇가지 공예를 하면서 느낀 점_ 367

2. 논문을 끝마치면서_ 368

나뭇가지 공예

- 나비와 잠자리, 그리고... -

I. 서론

이 작품을 논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숲 속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단순히 버리거나 태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뭇가지들도 모아서 재활용하면 멋진 작품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깨고, 어떠한 물건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고 싶다.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나뭇가지 공예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깨달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본론에서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공예작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준비물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나뭇가지로 만들 수 있는 곤충의 종류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곤충들 중에는 잠자리, 나뭇잎 대벌레, 개아재비, 공벌레, 지네, 대벌레, 나비, 뽕등이, 방아깨비, 소금쟁이, 섬 서구 메뚜기, 달팽이 등이 있다.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곤충들 중에는 전갈, 집게, 장수하늘소, 여치, 쇠똥구리, 사슴벌레, 소 등에, 매미 물장군, 애 사마 귀불이 등이 있다.

2. 나뭇가지 공예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 소개

1) 얇은 나뭇가지들

얇은 나뭇가지들은 곤충들의 다리와 더듬이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또는 작은 곤충들의 꼬리 부분 혹은 몸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얇은 나뭇가지도 세밀한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므로 없



으면 안 될 것 같다.

2) 단풍나무 씨앗

단풍나무 씨앗은 우리가 만들기 쉬운 곤충들의 날개 역할을 해 준다. 예로 들면 잠자리 날개를 들 수 있다.



3) 드릴

드릴은 곤충들의 몸체에 필요에 따라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일 방심하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드릴로 구멍을 뚫으려고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4) 길이가 짧은 통나무

길이가 짧은 통나무들은 작품의 형태가 멋있게 나오도록 해 준다. 주로 곤충의 몸체를 만드는데 크게 쓰임새가 있다. 사람이 옷을 멋있게 입으려고, 거울 보고 멋을 부리는 것처럼 길이가 짧은 통나무들도 톱으로 아무렇게나 자를 수 있어도 정성을 들이면 망치지 않고 작품으로 멋있게 나올 수 있다.



5) 핀

핀은 여러 마디로 나뉜 곤충들의 몸통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6) 작은 톱

길이가 짧은 통나무들의 몸통을 고른 간격으로 자르는 역할을 한다.

7) 본드

본드는 얇은 나뭇가지로 잘라 만든 다리를 몸통에다가 붙여 주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로 많이 나뉜 몸통을 붙여 주는 역할도 해 준다.



3. 나뭇가지 공예 작품 제작

1) 나뭇가지 공예 만드는 과정

(1) 적당한 크기의 나뭇가지를 공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이즈로 자른다.



(2) 자른 나무를 종류별로 모아 놓는다.



(3) 야외에서 단풍나무 씨앗과 얇은 가지 모으기를 한다.



(4) 곤충 만들기-조립 : 섬 서구 메뚜기의 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5) 곤충을 배치할 판을 만든다.



(6) 곤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진 곤충들을 배치하고 마무리한다.

(7) 완성된 모습



3. 나뭇가지 공예의 장점

나뭇가지 공예를 하면서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취미로는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취미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이고, 내가 만든 나뭇가지 공예를 통해 주변에서 사소하게 보아 넘겼던 것들을 한 번 더 관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나뭇가지 공예의 장점을 한 들자면, 색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뭇가지 공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자기가 어떤 것이든 마음먹으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방아깨비든, 잠자리든, 사슴벌레든, 나만의 다양한 생각을 나뭇가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보통 일반 공예 같은 경우는 문방구에서 사거나 돈을 많이 낭비하고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데, 나뭇가지 공예는 버려지는 나뭇가지와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재활용하여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장점이 될 수 있다.

나뭇가지 공예가 보다 발달하여 앞으로는 박물관 같은 데에서도 관련된 모양을 만들어 전시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시 등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보다 더 나뭇가지 공예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III. 마무리

1. 나뭇가지 공예를 하면서 느낀 점

내가 만든 20여 점의 나뭇가지 공예품을 통해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일이나 즐거웠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런 점들을 논문 발표 때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우선 나뭇가지로 만든 곤충 약 20여 개들을 만들면서 갖게 된 심정은, 처음 작품을 보면 "이 많은 나뭇가지 공예들은 만들기가 그냥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결코 만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보통 창작공예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심정처럼 나뭇가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그런 심정과 내 심정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또 원래는 30여 개들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벅차고 해서 수를 10개 정도 줄여서 20개 가량을 만들어 보았다. 20여 개를 만들다 보니 사실은 빨리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20여 개를 만드는 것도 벅찼다.

나뭇가지 공예가 졸업 작품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걸 다 팽개치고, 오로지 논문 작품 제작과 발표 연습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다.

2. 논문을 끝마치면서

이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다. 맨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을 본론 내용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다.

우선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206호 방 식구들, 1, 2학년 남자 후배들, 신경 많이 써 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많이 도와주신 병삼 쌤과 희숙 쌤, 제 곁에 항상 응원해 주신 태 쌤, 락 쌤, 손 쌤, 희창 쌤에게도 감사하다.

중 3들 남는 기간 동안 파이팅. 감사합니다.

규방공예

- 직물 회화의 절정을 이룬 보자기



지혜

1997년 12월 15일 '꽃 필경'
현재 탐라국 거주
1남 1녀중 차녀
혈액형 / RH+B형
예림유치원-토일초등학교-인현초등학교-수지초등학교-인현초등학교
-제천간디청소년학교(졸업 예정)-2004년 4월 경기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수학교과협의회에서 발행한 상 수상
별명 / 우키, 똥배, 감당이, 인상파
취미 / 기타 치기, 멍하게 있기, 구라치기, 에스더 괴롭히기, 태클 걸기, 음악감상
특기 / 구라치기, 벽락치기
소속 / 몸짓동아리'기지개',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역사사랑',
'간디콕스타연합' 개그스쿨 1기
하고 싶은 말 / "병삼쌤 그리고 모든 간디인 사랑해요"
좌우명 / "웃고 살자"

■ 2004 졸업 논문

『규방공예』 - 직물 회화의 절정을 이룬 보자기 -

■ 발표자 : 지 혜

■ 지도교사 : 오영란 선생님

■ 차례

I. 서론_ 371

II. 본론_ 371

1. 규방공예의 정의와 역사_ 371

2. 규방공예에 쓰이는 전통색상(오방색)에 담겨 있는 뜻과
쓰임새_ 372

1) 오방색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_ 373

3. 규방공예의 종류_ 373

1) 보자기의 정의_ 374

2) 조각보의 역사_ 374

3) 보자기의 종류_ 375

4. 후기_ 376

Special Thanks to..._ 376

규방공예

- 직물 회화의 절정을 이룬 보자기 -

I. 서론

사실 나는 규방공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 뒤 규방공예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이번에 영란 쌤을 통해서가 처음이다. 영란 쌤이 어떤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 하셔서 읽게 됐는데, 그 책엔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옛 여인들의 알뜰함과 지혜로움이 잘 나와 있었는데 그런 점을 너무 본받고 싶었다. 천 한 조각이라도 버리기 아까워 그걸 기워서 만든 보자기나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요즘엔 비싼 물건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그런 시대에서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남들이 쉽게 안 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퀼트에도 관심이 있었던 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통인 규방공예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단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기계화된 문명의 흐름 속에서 좀더 편리하고 정교한 직물이나 의류를 대량으로 접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전의 소박하고 창의적이며 전통적인 손맛을 살려내어 보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규방공예의 보자기는 이런 나의 의도와 일치되어 작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II. 본론

1. 규방공예의 정의와 역사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규방이라는 의미는 '규수들의 방'을 의미한다. 그러니깐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 여인들이 생활하던 내실을 뜻하는 말이다. 그 규방 안에서 인내와 절제의 생활을 보낸 여인들은 오직 의식주를 꾸리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그 규방 안에서의 인내와 땀과 절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에 따라 여인들의 창조적 에너지는 '바느질과 자수문화'를 꽃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의 열정과 에너지를 규방 안에서 손으로 꾸려내는 바느질문화로 표출되어 자리잡게 되었다. 여자들이라고 열정과 꿈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열정과 꿈들을 억누르고 규방 안에서 예술적 에너지를 빌어야 그 많은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했던 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이 만들어 낸 것

이다. 여인들은 그렇게 해서 정성스레 가족들의 옷을 짓거나 버선을 만들고, 수를 놓아 장식하거나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규방은 여성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공간이었지만 여성들의 숨겨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의무를 규정짓는 장소여인들의 숨겨진 능력의 꽃을 피우는 곳이 되기까지 여인들의 인내와 고집은 대단하고 긴 세월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르지만 규방공예의 기본적인원리는 서양의 퀼트와 많이 비슷하다. 하지만 쪽빛 등 우리의 고운 빛깔과 우아함의 규방공예는 한국전통의 멋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남자들에겐 문방사우가 있듯이 여자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규중칠우가 있다.

조선시대 후기 고대 수필에 등장하는 규중칠우를 알아보면, 규중 여인의 벗으로 의인화하여 표현된 규중공예품의 각각 쓰임새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놓음을 알 수 있다.

규중칠우에는 실(청홍각시), 바늘(세요각시), 골무(감투할미), 가위(교두각시), 자(척부인), 인두(인화낭자), 다리미(울낭자)가 있다.

2. 규방공예에 쓰이는 전통 색상(오방색)에 담겨 있는 뜻과 쓰임새

오방색은 음양오행을 나타낸 색이다. 나무는 청(靑), 쇠는 백(白), 불은 적(赤), 흙은 황(黃)으로 대응된다. 색의 조화는 곧 천지만물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온전해야 개인의 무병장수와 집안의 화평이 온다고 믿었다. 간장항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운 금줄을 두르는 것은 나쁜 기운의 근절을 막기 위한 것이며, 팔죽, 시루떡도 음의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 재료로 붉은 빛이 나는 황토를 사용하였으며, 새해가 되면 한해의 안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기복과 벽사의 의미에서 붉은 부적을 그려 붙였다. 또 목조건물에는 단청을 칠하여 건물의 보존과 장식은 물론 왕궁과 사찰의 위엄을 표현하였다. 오행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낳아 주기도 하며 극(剋)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물고 물리며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행에는 오색이 따르고 또한 방위가 따르게 된다.

1) 오방색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



금줄을 쳤던 것이다.

황색은 오행 가운데 토(土)로 우주의 중심에 해당한다. 무극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의 가운데에 있는 색으로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었다. 가장 고귀한 황색으로 임금만이 옷을 해 입을 수 있었다. 적색 계열의 색채와 같은 용도, 즉 귀신을 쫓거나 병을 방지하는데 쓰이기도 했는데 신성 공간인 제의 장소나 해산 후에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백색은 오행 가운데 금(金)으로 서쪽에 해당한다.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는 색이기도 하다. 청정과 순결, 광명과 도의의 표상으로 태양의 색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을 쫓는 의미에서 유채색의 옷을 입히지 않고 백색의 옷만을 입혔다.



적색은 오행 가운데 화(火)로 만물이 무성한 남쪽에 해당한다. 적색은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으로 상징되었으며 주술적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색인데 귀신을 쫓는데 주로 이용하였다.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팔의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으며, 간장을 담글 때 빨간 고추를 띄웠고, 아들을 앓을 때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문 밖에 붉은 고추를 달았던 것이다.



청색은 오행 가운데 목(木)으로 동쪽에 해당하고 만물이 생성하는 풍성한 봄의 색을 의미한다.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하며,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차례상을 물리고 나면 받게 되는 다식 역시 음양오행이 완벽하게 구현된 음식. 검은색 흑임자, 노란색 송홧가루, 붉은색 오미자, 푸른색 가루 녹차로 곱게 색을 낸 다식은 맑은 녹차와 더불어 신년 한 해가 평안하게 시작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다)



흑색은 오행 가운데 수(水)를 뜻하며 북쪽에 해당되는 흑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으로 겨울을 의미한다. 다음(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소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하고 있음을 말한다. 흑색은 음의 색으로 쓰여서 일찍부터 백색과 함께 금지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음의 색으로 사용을 꺼렸으나 민간에서는 전복 병거지, 복건, 신부의 도투락댕기, 제복에 흑색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3. 규방공예 종류

규방공예의 종류는 한복, 자수, 여러 장신구, 주머니, 골무, 매듭공예, 천연염색, 자투리 으로 만든 보자기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품목들이었고, 그것을 자체 제작할 수 있음은 여성들의 기본 소양으로 여겨졌다. 언젠가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쓰일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 안에 여인으로서의 자신과 꿈과 소망을 담아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생활용품들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1) 보자기의 정의

보자기는 주거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 물건을 싸두거나 덮기 위하여 형겅으로 네모 지게 만 것으로 그 가운데 작은 것을 보자기라 한다. 전통적 의미의 보자기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성과 미적인 효과를 들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보자기의 기능성보단 미적 효과의 측면으로 많이 보게 되었다. 보자기 본래의 용도보다는 그 예술적 가치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조각보이다. 조각보는 서양의 몬드리안보다 1백 년 앞선 우리만의 신조형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보자기의 어원을 보면, 한자로 보자기는 보(褌), 보자(褌子), 복(福)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보자기에 복을 싸 둔다는 민간 신앙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음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조각 천을 공들여 만든 것은 복을 비는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의례적 측면으로 사람 사이에 오가는 물건을 덮어 보호하여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각듯한 예를 다함으로 보자기의 의미를 부여했다.

2) 조각보에 대한 역사

조각보는 옛날에 '쪽보'라고도 불렸었다. 그리고 요즘 흔히들 보는 조각보처럼 큰 베를 싹둑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옷을 짓고 남은 조각 천을 이용했다. 이것을 두고 '물자 절약'이라고 말할 하지만 실을 베 한 조각이라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베가 흔하고 값싼 것이 아니었다. 손수 짜야만 가족의 의복을 장만할 수 있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은 한 필의 삼베, 모시, 명주 따위의 옷감이 되어 나오기까지 길고 긴 노동과 한없는 공을 들였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천 한 조각이라도 버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지엄한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 손이 간 것들에 마음을 많이 담아 두었다. 조각보를 '폐품에서 태어난 예술'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버려지는 것을 막연하게 기워서 써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감히 버려서는 안 되었기에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생명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해 주는 방법으로 조각보를 만든 것이다. 그러했으니 쓰이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 조각보를 펴보면 반듯한 것도 있지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선이 조금씩 삐뚤어진 것이 많다. 요즘으로 보면 파격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천이 귀하다 보니 번듯한 것을 잘라 쓰지 않고 약간 삐뚤어진 것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조각보들의 어수룩한 모양새가 우릴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옛 조각보가 아름다운 것은 이처럼 자연 발생적인 데 있다. 현대 조각보가 옛 조각보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버려질 운명인 가지각색의 보잘것없는 조각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할 줄 알았던 옛 여인들의 능숙한 솜씨는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3) 보자기의 종류

홀보 - 안감을 대지 않은 보.

겹보 - 안감과 겹감 두 겹으로 만든 보.

숨보 - 깨지거나 흠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숨을 두고 안감을 댄 보.

누비보 - 직선이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숨을 넣어 누빈 보.

조각보 - 조각 천을 이어서 만든 보.

식지보 - 바탕천에 기름종이(식지)를 대거나 식지만으로 만든 보.

전통 보자기는 사용계층, 구조, 문양의 유무, 용도, 색상, 문양의 종류, 재료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구조적 특징의 따른 분류 - 안감을 대지 않은 홀보, 안감과 겹감 두 겹으로 댄 겹보, 깨지거나 흠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숨을 두고 안감을 댄 숨보, 직선이나 기하학적 패턴으로 누벼서 만든 누비보,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식지를 대거나 식지만으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문양의 유무의 따른 분류 - 크게 무문보와 유문보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유문보는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로 문양을 놓은 수보, 문양이 있는 천으로 만든 직문보, 천 바탕에 금박으로 문양을 찍은 금박보, 천 바탕에 당채 등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당채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용도에 따른 분류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덮개보, 경대보, 밥상보, 이불보, 옷감보, 책보 등이 있으며 의례용 보에 쓰이는 폐백보, 사주보, 예단보, 기러기보 등의 혼례용보와 종교의 식용보 및 특수용 보가 있다.

* 색상에 따른 분류 - 청홍보, 소색보, 환색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문양 종류에 따른 분류 - 용 무늬가 놓인 용문보, 꿩과 나무 등이 수놓인 화목문보, 문자가 수놓인 문자문보 등이 있다.

* 재료에 따른 분류 - 명주보, 비단보, 면직보, 모시보 등이 있다.

* 폭 수에 따른 분류 - 한 폭 보, 두 폭 보, 세 폭 보 등으로 나뉘었는데, 짜두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 한 폭에서 아홉 폭까지 있었다. 한 폭의 넓이는 명주의 폭을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가 35cm 내외였다.

4. 후기

시대가 좋아져서 기술이 많이 발달한 요즘에는 손쉽게 옷이나 이불 등의 의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는 옛 여인들이 바느질로 하나하나 기워서 만들었

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요즘 쉽게 만드는 의류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많이 살아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는 바느질이 정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만들다 보니, 옛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고생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금세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품들도 물론 내가 게으르게 한 탓도 있지만 무려 한 달이나 걸려서 완성할 수 있었다. 또 그저 힘들기만 할 거라는 생각도 잠시 작품을 만들면서 점점 그 전통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천이 하나하나 기워지면서 모양 틀이 잡히는 그 기분이란 지금까지 만들면서 쌓여 왔던 것들이 다 풀릴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규방공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 오히려 더 관심이 생기고, 이 논문이 끝나고도 시간이 있다면 남은 천으로 보자기나 다른 공예품을 계속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자료 출처>

<http://cafe.daum.net/golmoo>

네이버 지식인

참고 문헌 : 한국인의 솜씨, 규방공예

Special Thanks to...

담당 쌤 하시느라 집에도 늦게 가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신 영란쌤, 진짜 좋은 막강 중3들, 병삼쌤, 여러 모로 많이 도와준 우리 가족들, 같은 방 쓰면서 고생해 준 유림, 지은, 혜영, 현수, 그 외에 여러 쌤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모두모두 고마워요♡

다큐멘터리 진주 시장의 고단한 하루



최영안

1990년 01월 11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출생
2남 1녀 중 장녀

YMCA 유치원 - 봉곡초등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2004년 4월 경남지구 고입검정고시 합격.

혈액형 / RH+O형

별명 / 최갑독, 용수, 용봉, 골룸... (모르겠다, 많아서)

취미 / 캠코더 가지고 놀기, ऐ한 이야기 하면서 보경이랑 놀기, 영화 보기

특기 / ऐ한 짓 하기, 뜯개질, 타로점 보기

소속 / '여.우.하.품'전 회장, 으르렁 개가 꽃미남 주인을 몰다 반,
지구특공대, 코사감과 러브레터 제작진.

좌우명 / "푸딩의 맛은 먹어 봐야 안다."

하고싶은 말 / "너무나 길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직접 찾아 오시오."

- 2004 졸업 논문
『진주 시장의 고단한 하루』
- 발표자 : 최용안
- 지도교사 : 양희창 선생님

차 례

- I. 서론 _ 379
- II. 본론 _ 379
 - 1.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_ 379
 - 1) 다큐멘터리의 정의 _ 379
 - 2) 다큐멘터리의 역사 _ 380
 - 3) 한국독립다큐멘터리의 역사와 경향 _ 381
 - 2. 5일장이란 _ 383
 - 1) 5일장의 역사 _ 383
 - 2) 5일장의 변천 _ 384
 - (1) 5일장의 변천 _ 384
 - (2) 5일장의 역할 변화 _ 384
 - (3) 5일장의 여러 모습들 _ 385
- III. 결론 _ 386
 - 1. 다큐멘터리 설명 _ 386
 - 1) 시놉시스 _ 386
 - 2) 제작 일지 _ 387
 - 3) 논문을 마치면서 _ 388
 - * 참고 자료 _ 389

다큐멘터리 진주 시장의 하루

I. 서론

나는 이 논문을 찍기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캠코더라는 기계로 무언가를 찍어 본 적이 없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빼고는 그야말로 영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든 까닭은 다큐멘터리가 극영화보다 어렵긴 하나 극영화를 하기 위해선 다큐멘터리가 기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일장을 찍은 이유도 간단하다.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5일장은 내 곁에 있었던 곳이었고, 다른 주제보다 5일장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5일장을 주제로 삼은 또 다른 이유는 다큐멘터리란 사실을 기록하여 알려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선불리 그럴싸하다고 아무 주제나 선택한다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서 열리던 5일장을 주제로 했다. 하지만 5일장이 익숙하다 해도 그리 깊이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방법(다큐)에서도 주제에서 나에게 도전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II. 본론

1.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1) 다큐멘터리의 정의

다큐멘터리의 어원은 문서, 증서를 뜻하는 라틴어 documentum이다. 주로 문학 또는 영화용어로 쓰인다. 문학에서는 기록문학과 거의 같은 뜻이며, 기록하는 주인공에 가공 인물을 등장시키는 일과 같은 허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하게는 문장이나 방송 또는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제작 또는 구성한 주제와 줄거리가 있는 기록물이라고도 말한다. 이 외에도 사람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 또는 현실의 창조적 처리 - 존 그리어슨⁷³⁾의 정의

- (2) 비허구적인 영화(논픽션 필름) - 프랭크 비버⁷⁴⁾의 <영화사전>
- (3) 어떤 사건이나 문화 현상의 실제적 모습과 가치 등을 예술적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묘사하는 것 - 웹스터 사전
- (4) 사실에 입각한 촬영 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재구성(재현 포함)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기록하는 모든 방법 - 1948년 제 1회 다큐멘터리 세계연맹회의

이 외에도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만 실제 또는 사실에 기초를 둔 촬영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작품에 나타나는 감독의 시각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달라지니,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다큐멘터리의 역사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뤼미에르 형제가 에디슨의 <키네스코프>를 기초로 현재의 영화와 같은 원리로 필름을 스크린에 영사하는 장치를 발명하여, 1895년 2월 촬영기 겸 영사기 <시네마토그래프>의 특허를 받아, 1895년 12월 28일부터 파리에서 처음 유료로 상영한 <공장의 출구>로 대성공을 거두고부터이다. 이듬해부터는 이들 형제가 카메라맨을 외국에 파견시켜 선전과 촬영을 하는 등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 영화의 기초를 쌓았다. 뤼미에르 형제들의 작품은 1~2분짜리 짧은 기록영화가 전부이다. 작품은 「공장의 출구」 「갓난아기의 식사」 「열차의 도착」 등 일상생활이나 가두풍경을 실사한 짧은 기록영화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뤼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관중들은 더 이상 호스를 뿌리며 치는 장난⁷⁵⁾과 같은 판에 박은 영화들에 싫증을 내었고, 기록영화는 비인기 장르로 전락했다. 그나마 기록영화의 한 부분인 뉴스영화는 정기적으로 상영되었으나, 기록영화를 보려고 일부러 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1922)나 발터 루트만의 「베를린, 대도시 교향악」(1927) 같은 걸작도 관객의 외면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걸쳐 영국의 기록 영화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존 그리어슨(‘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주인공)의 지휘 아래,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 단체인 ‘지피오 필름 유니트’는 서정적 요소와 논평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바실라이트의 「실론의 노래」(1934)와 「야간 우편」(1936)이 대표적이다.

73) 존 그리어슨 다큐멘터리의 아버지라 불린다.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 단체인 ‘지피오 필름 유니트’를 만들어 강력한 힘을 가진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 ‘실론의 노래’(1934)와 ‘야간우편’(1936)이 대표작이다.

74) 프랭크 비버 미국의 사진작가이고, ‘미국인들’이라는 사진집 간행 후 날카로운 기록정신이 창출해 낸 독자적인 스타일이 주목받아 젊은 세대의 사진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75) 호스를 뿌리며 치는 장난 초기의 영화들 중 하나. 정원사가 호수로 물을 뿌리다가 일어나는 일을 재미있게 보여 줘 그 당시 히트를 쳤다.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큐멘터리는 다시 침체상태에 빠진다. 속도 경쟁에서 텔레비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어 주제는 예술이나 여행담, 홍보 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형카메라가 등장하고 사회의식이 달라지면서 1960년을 시점으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은 장루쉬 감독으로 삶의 진실을 찾아 주변을 탐색하는 '탐험가'로서, 극적 요소나 인위적 장치를 완전히 배제한 채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네마베리테'76)의 효시인 「어떤 여름의 기록」(1961)은 그이 말처럼 '진실을 카메라에 담는 실험'이었다. 그리고 크리스 마르케감독의 「아름다운 5월」은 감독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이용하여 삶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또, 마치 '벽에 붙은 파리'처럼 초경량 카메라와 녹음 기자재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벌어지는 상황을 주관적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찍는 기법은 드류 어소시에이트의 「프라이어머리」(1960),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티티켓 풍자극」(1967), 메이슬스 형제의 「세일즈맨」(1969) 등에서 잘 나타난다. 요즘에는 촬영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져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중, 대표할 만한 다큐멘터리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과 '볼링포콜롬바인'이 있다.

3)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역사와 경향

위의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궁금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독립 다큐멘터리의 역사와 경향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독립 다큐멘터리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82년에 제작된 「판놀이 아리랑」을 독립 다큐멘터리의 시작점으로 한다고 해도 겨우 15년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인데도 우리나라의 독립 다큐멘터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고 많은 작품과 사건들을 남겼다.

먼저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운동매체로서의 다큐멘터리라는 점이다. 다큐멘터리라는 매체가 어떠한 사건이나 그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점들을 훨씬 뛰어넘는, 즉 80년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소재나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소재의 대부분이 노동자 혹은 노동자들의 투쟁, 열사나 그들의 투쟁들에 대한 내

4) 시네마 베리테 프랑스어로 '영화의 진실'이라는 뜻이며 196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영화운동. 일상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과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주었다. 감독은 일반적인 동시녹음 촬영기법을 따르지 않고, 먼저 실제 대화, 인터뷰, 의견 등을 녹음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소재를 고른 다음, 거기에 어울리는 시각적 소재를 흔히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실에서 편집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만든다.

용 등이고, 그 주제 또한 그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는 선전선동적인 작품들이다. 요컨대 사회변혁 수단으로서의 다큐멘터리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독립 다큐멘터리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영상을 선택한 것이었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폭로라는 개념이 많은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독립영화 단체의 대부분이 다큐멘터리 단체라는 사실로 잘 드러난다. 애초에 독립영화는 극영화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남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은 다큐멘터리 제작 단체이며, 당시에 제작된 극영화의 주제나 소재 역시도 다큐멘터리와 일치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물론 1992년을 기준으로 다큐멘터리의 소재나 주제의 폭이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운동매체로서의 다큐멘터리라는 전통은 우리 나라에선 아직도 그 의미를 잃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매체의 선택 즉 필름보다는 비디오라는 매체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점이다. ('보임'의 대표인 변영주 감독도 비디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 아마도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도 제정적인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디오라는 매체의 효용성이 크게 작용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소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동성과 순발력 있는 촬영이 가능해야 했다. 또한 대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규모 인원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동시녹음이 가능하고 적은 빛에도 촬영이 가능한 점, 제작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비디오라는 매체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가 가능한 매체라는 점이 비디오라는 매체를 주목하게 만든 정당한 이유일 것이다. 현재는 DV(디지털비디오 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 매체의 제약조건이 훨씬 줄어들어든 상황이며, 비디오라는 매체의 가능성은 더욱 열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배급이나 유통이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즉 '음비법(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한 검열에 의해 강요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노동자 뉴스 제작단'의 「총과업 속도」가 합법적으로 출시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본에 의한 검열까지 가세한 상황이다(Q채널의 제2회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레드 헌트」 상영취소 사건). 설사 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지가 절단 난 작품이 될 게 뻔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검열은 수용자들이 독립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법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6년 푸른영상 압수수색과 김동원 대표 연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악법을 통한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한 탄압은 작품 생산자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수

용자와의 연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독립 다큐멘터리의 존립 근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은 각 단체들마다 차별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작비 지원은커녕 순수 제작비마저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은 독립 다큐멘터리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 현실이다. 덧붙이자면 우리 나라의 다큐멘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었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더 주어야 한다고 본다.

2. 5일장

1) 5일장의 역사

우리 나라의 장(場)은 삼국시대에도 기록을 보일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헌상 기록은 신라시대 경덕왕 이후 구 백제지방에서 유행한 백제가요인 『정읍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정읍사는 행상의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근심하여 부른 가요라는 점에서 남자의 장기 행상을 상상할 수 있다.

장시는 집약적 농업기술의 보급이 앞서 있던 하삼도 지방인 무안, 나주 등 전라도 지방에서 15세기 말 ‘장문’(場門)이라 부르며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었고, 장시 개설 초기에는 ‘예전에 없었던 것’이라 하여 금압정책(禁壓政策)으로 장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나 이 시기 농촌 사회에 농민교역이 성장하고 물화유통(物貨流通)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일부 수령들의 흉황타개(凶荒打開), 굶주린 백성, 흉년에 구차(苟且)한 백성구원의 한 방법으로 일부 폐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인정되어 명맥만 유지되었다고 한다. 15세기 말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 형성, 유지되어 온 장시는 다른 도로 퍼지면서 16세기 초에 충청도와 경상도에 기근 때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위한 민원이라 하여 정식으로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부 이남 지방까지 급속히 증가하여 종종 때 방방곡곡에 장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장시가 열리는 것은 서울 도성 내에 사방의 물화가 원활하게 집산(集散)되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어지러운 국내 정치 틈새에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곳에서부터 개설되어 17세기 초에는 중부 이북 지방인 황해도, 평안도 지방까지 확대·발전하였다. 『만기요람』 77)에는 19세기 초 8도 327개 군, 현에 1,061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임원경제』 78)에는 순조 30년(1830년)경에 1,052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5일마다 열리는 5일형 장시는 905개소, 10일형은 125개소 15일형은 18개소, 3일형은 4개소였으며, 장시의 분포는 경상도가 268개소로 가

77) 1808년에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들어 찬진한 책,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6)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박물학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도 한다. 이 책은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예와 취미를 기르는 백과전서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장 많았고, 51개소의 강원도와 42개소의 함경도가 적었다.

5일장의 유래는 이와 같이 장시가 월 6회, 매 5일마다 열리는 5일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장시를 5일장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옛 것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민속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2) 5일장의 변천

(1) 5일장의 변천

조선의 5일장은 일제 초기인 1914년, 시장 규칙 공포에 따라 '제1호 시장'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정기시(場市)로 가장 중요한 상업 기관으로서 기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 정기시는 공설시장, 도매시장, 곡물시장 등의 개설로 서서히 변화되었다. 일제시대의 시장의 총수는 평균 1,100~1,600개소로서 서민들의 상업자본 수탈로서 식민지 시기에 장터는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기시장은 해방 이후 휴전이 될 때까지는 사회적 혼란으로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으며, 5~60년대에는 농촌 인구의 증가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대 때문에 크게 성장하였다. 정기시장의 수는 1950년대 668개소, 1960년대 후반에는 1,090개소, 1973년에는 1,085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유통질서의 커다란 변혁 속에 5일장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 조사된 자료를 보면 1988년도 752개소, 1991년도 686개소, 1997년 537개소로 대폭 감소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민속장이 자취를 감추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갈수록 많은 5일장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5일장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

(2) 장터의 역할 변화

조선 후기 대부분의 지방장시가 5일마다 열리어 보통 여섯 번 개장되면서, 장시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조정과 지방수령까지도 직업에 따라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방장시는 적어도 5일에 한 번 상인과 일반 민인들이 한데 모이고 따로 흩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수공업자의 공산품이 교환되고, 산간의 산물과 곡창지대의 곡물, 해안과 내륙의 산물 등이 교역되었다. 따라서 지방장시는 물화교역의 장, 상품생산의 장, 정보교환 및 수집과 홍보의 장, 오락과 유희의 장, 민인(民人) 모임 및 안집의 장 등으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당시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에 지방마다 장날을 고루 다니는, 봇짐을 지고 다니는 보부상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런 장터는 단순한 시장 거래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녔다. 장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현재에 일컫는 시장의 의미와는 구별된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이웃마을 가기가 용이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시장이 마을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므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마을 사이에 인간 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역할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단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 그 오일장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비해 지금은 그런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따위의 것들이 통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5일장 속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5일장의 역할일 것이다. 5일장의 그러한 점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5일장의 여러 모습들

(1) 새벽 몇 시부터 장이 열릴까요?

서부시장(5일장)은 새벽 6시 30분에 가 보았는데,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 7시쯤에 다시 가 보니 노점상들이 많이 와 있었다. 7시부터 장이 열린다.

금요시장(금요일마다 열린다.)은 새벽 6시 40분이 넘어서 왔는데도 일찍 온 사람들도 정도밖에 없었다. 근처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사는 아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9시 정도부터 열린다고 한다. 상당히 늦게 열린다.

(2)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시간

서부시장 5일장에서 장사하시는 여러 할머니들의 말에 따르면 9~10시 사이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9시 20분에 가 보았더니 그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10시 10분전 쯤 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왔다.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차 버린다. 금요장은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잘 된다. 더 잘 되는 시간은 저녁 때.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거의 줄을 서서 다녀야 할 정도이다. 아마도 11시 12시 사이에 많이 오는 이유는 그 곳이 주로 30~40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들, 딸, 남편, 전부 출근하고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난 바로 뒤라서 그런 것 같다.

(3) 각 장(서부시장 5일장, 금요장)에 오는 사람들의 나이

서부시장 5일장에 주로 50대~60대의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할머니들께서 손수레를 하나씩 끌고 오시는 게 특징이다.

금요장에 젊은 주부들이 많이 온다. 아파트가 많이 모인 곳이라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유모차에 탄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 5~6대 할머니들은 거의 안 보인다.

(4) 상인들의 하루 수입

서부시장 5일장. 파는 물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은 대충 5만원 쯤 번다. 금요시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물건이 싱싱하고 살아 있다며 굉장히 인기 있는 생선가게는 다 팔리고 일찍 문 닫고 갈 정도로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떤 곳은 파지만 쫓는다.

(5) 다들 어디서 오는 걸까.

서부시장 5일장의 상인들은 다 그 근처에서 오신다. 자기가 차려 놓은 노점상 바로 옆이 집인 경우도 있고, 원지나 문산 등 가까운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

금요일시장. 삼천포에서 가게를 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영업하기 좋은 자리 얻으려면 금요일시장 조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6) 모두 파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대부분의 5일장들은 해가 지면 다들 돌아간다.

서부시장 5일장은 8시가 되면 다 닫는다. 조금 빨리 돌아가는 경우는 7시. 그러니까 7시에 나와서 7시에 들어간다. 집에 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딸이나 아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경우. 자기가 장 열릴 때 가지고 왔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경우. 생선장수 같은 경우는 트럭에 싣고 간다.

금요일장은 물건을 다 판 사람은 먼저 돌아간다. 어쨌거나 이곳도 7시쯤 되어서 파장을 하는 듯 하다. 6시쯤 간 적은 있는데 이 때는 거의 파장이 되지 않고 아직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떨이를 많이 해서 떨이하는 거 사려고 주부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6시부터라고 한다.

III. 결론

1. 다큐멘터리 설명

■ 자작 다큐멘터리 「진주시장의 고단한 하루」

■ 제작년도 : 2004년

■ 제작 / 연출 / 촬영 : 최용안

■ 편집 : 최용안의 집

■ 출연 : 시장 속 사람들

■ 장르 : 다큐멘터리

1) 시놉시스

작품을 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부분은 시놉시스. 도대체 어떤 줄거리로 5일장이라는 주제를 담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다. 그래서 5일장에 가기 싫은 적도 있었고, 두려워서 안 간 적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시놉시스는 편집을 하면서 정해졌다. 편집을 하며 찍은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니, 불경기라는 것,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났다.

「진주시장의 고단한 하루」는 진주시장의 하루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불경기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영상을 통해 나타낸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볼 수 있다. 편집하면서 그 부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2) 제작일지

■ 8월 17일

5일장에 전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캠코더를 들고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어떻게 찍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심난했다. 한마디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일단 찍으러 온 거니까'라는 생각에 찍기 시작했다.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전부 다 찍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 용곤이와 함께 갔는데, 나중에 내가 큰 맘 먹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니까 동생이 부끄러워했다. 할머니님 두 분을 인터뷰하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았다. 일단 인터뷰를 해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에 올 때에는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무릅쓰고 미흡하지만 촬영은 했으니까 말이다.

■ 8월 27일

8월 22일은 내가 단식중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간단 말인가. 그래서 그 날은 가지 않고 오늘 다 찍기로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엄마와 함께 먼저 중앙시장으로 갔다. 중앙시장에 가 보니 이미 장이 열려 있어서 장이 막 시작되는, 펼쳐지는 모습을 찍진 못했다. 그래서 콩나물 다듬는 할머니나, 물건파시는 분들을 찍고, 서부시장 5일장으로 갔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아쉬웠다.

그리고 바로 서부시장 5일장으로 갔다. 그때 시간이 6시 30분쯤이었었는데, 장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나중에 7시쯤 다시 오기로 하고 금요일시장으로 갔더니 그 곳은 아예 장사꾼마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나마 한두 명 와 있는 사람들을 찍고 다시 서부시장으로 가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학원 건물 위에 올라가서 찍기도 하고 5일장을 한바퀴 돌면서 장 열리는 모습을 찍기도 했다. 찍을 만한 장면이 많아서 기뻐다. 날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민망했지만 말이다.

그런 뒤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밥을 많이 먹은 후 사람이 많이 온다는 시간인 9시 20분쯤 다시 서부시장 5일장으로 갔다. 뜻밖에 동물 파는 할머니님과 인터뷰를 했다. 대답을 아주 잘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얼마 후 다른 아주머니(상인)와도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행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민망했다.

그리고 집으로가 한숨 잔 후 금요일시장에 가서 엄마가 아시는 분들이 장보시는 걸 밀착취재 했는데, 아는 사람이라서 더 부끄러웠다. 그래서 제대로 찍지 못하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다음에 또 비슷한 것을 찍게 된다면, '절대로 아는 사람과 함께 가진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다. 그렇게 겨우 다 찍고, 5시까지 쉬다가 파장을 찍고 7시부터는 서부시장 파장을 찍었다.

오늘 찍은 것이 1시간 20분쯤 됐는데, 이게 내 졸업논문 작품의 98% 가량을 차지하

게 될 듯 하다. 좀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몰아 찍지 말고 차근차근 찍었으면 더 완성도가 높아 졌을 텐데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일단 촬영을 다 끝내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 9월 11일

편집한다고 외박 신청하고 나온 지도 꽤 되는데, 컴퓨터에선 여전히 캡처(캡처란 캠코더에 찍은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가 말썽을 부렸다. 안용수 아저씨께서 결국 원인을 찾았는데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캠코더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단다. 시간이 급한데 캠코더를 수리해서 쓸 수는 없다고 하니 안용수 아저씨께서 어찌어찌 임시방편으로 조절해 주셨다. 행여 컴퓨터며 캠코더가 멈출까 마음을 졸이며 캡처를 시작했다. 동생들도 아빠도 작업하는 동안엔 얼씬도 못 하게 말리고 엄마가 다 되어 가냐고 묻는 말마다 신경질을 부러가며 간신히 캡처를 끝냈다. 이어서 컴퓨터에 옮겨온 영상물에 음악을 깔고 글자를 써 놓고 하는 편집 작업을 시작했다. 곁에서 엄마가 조언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편집이 3분의 2 가량 끝났다. 계속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엄마도 새벽 4시가 되자 그만하자고 했고, 나도 피곤해서 점심 부분까지만 편집하고 잤다.

■ 9월 12일

아침에 일어나 남은 편집을 다한 뒤, 가족들에게 보여 주고는 인코딩(동영상을 변하게 해서 동영상 용량을 줄이는 것)을 하여 동영상 압축을 하고 VCD를 구웠다. 그러나 화질이 너무나 안 좋아서 다시 인코딩해서 데이터 시디로 구웠는데, 어느새 다음날 새벽 5시가 되어 버렸다. 편집은 정말정말 정말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도 작품은 완전히 끝냈으니 내일 학교 가는 일만 남았다. ^^

3) 논문을 마치면서

나는 캠코더를 잡아본 것이 올해 처음이고 동영상을 편집해 본 것도 올해가 처음인 생초보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작품이 나오고 나니 중학생, 그것도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본 초보의 작품치고는 썩 괜찮은 작품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론 굉장히 기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주제도 안 잡고 인터뷰할 때 내 경험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기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들 찍히는 것을 꺼려하여 찍을 때 힘들었다. 그리고 아직 내 자신이 경험도 많이 없고, 미흡한 점이 아주 많아서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다. 내가 좀더 빨리 감을 잡고 촬영을 일찍 시작했다면 좀더 정리가 잘 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편집할 때 컴퓨터가 좀더 빨리 고쳐졌다면 더 정성을 들여 작품을 완성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작품을 낸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니까 더 이상 아쉬운 점은 생각하지 않

으려고 한다. 내 힘으로 해낸 것이 많다는 것도 만족스럽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내가 인터뷰를 할 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찍는 걸 허락해 주셨던 분들, 내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를 고쳐 준 안용수 아저씨, 나에게 편집의 기초를 가르쳐준 영수 삼촌, 밀착취재에 응해 주신 김숙희, 이은주 아줌마.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할 때 촬영을 할 때 피곤한데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준 엄마, 그리고 말없이 속 태우며 응원하신 아빠, 컴퓨터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아무 불평 없던 동생들, 곁에서 격려해 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자료〉

〈한국의 시장 4권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대구 편〉

주영하, 전성현, 강재석 지음, 공간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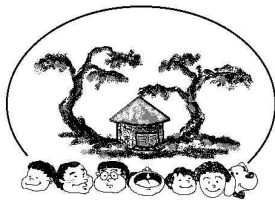
〈영화의 유혹〉 존 노튼, 애덤스미스 지음, 예담.

김진우 졸업논문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

네이버 <http://www.naver.com/>

야후코리아 <http://kr.yahoo.com>

한국정기시장 중앙회 <http://www.minsokjang.com/>



약



한수현

1990년 04월 19일 서울 출생
2녀 중 차녀

리락유치원 - 소망유치원 - 아카데미유치원 - YMCA유치원 - 만산초등학교 -
중앙초등학교 - 성지송학중학교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개인상, 독서금상 등

혈액형 / ... 불명확

별명 / F1, C3, 전지현, 옥쟁이할망구, 쑤히언, 소혀 등

취미 / 음악감상, 독서, 잡자기

특기 / 옥, 운동, 잡자기, 줄기, 수업시간에 자는 거 안 걸리기

소속 / '낙오자밴드' 베이스스트, 제천간디청소년학교 3학년, 개그스쿨1기

이상형 / 손 이쁘고, 노래 잘 부르고,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얼굴 잘 생기면 더 좋고...

좌우명 /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하고 싶은 말 / "막강 중 3 사랑해!"

■ 2004 졸업 논문

『약』

■ 발표자 : 한수현

■ 지도교사 : 김현숙 선생님

차 례

I. 서론_ 393

1.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_ 393

II. 본론_ 393

1. 양약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_ 393

1) 약의 부작용_ 393

2) 약 먹을 때 주의할 것_ 395

2. 신문이나 뉴스가 말한 양약_ 396

3. 설문지를 돌린 결과나 통계_ 397

1) 설문지의 내용_ 397

2) 설문지의 통계_ 397

3) 설문지의 결과_ 398

4. 설문지 통계 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증상의 치료법 제시_ 399

5.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나 치료_ 399

6.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이 아닌, 만약을 대비한 치료 방법 제시_ 400

III. 결론_ 401

1.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_ 401

2. Special Thanks to_ 401

약

I. 서론

1.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던 나는 병원을 많이 갔던 건 당연한 일이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많이 먹게 됐다. 그러다보니 피부가 민감한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한동안 많이 아파도 약을 안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이나 과일을 먹다 보니까 약보다는 한결 더 몸이 빨리 치유되고 부작용도 없다는 걸 느꼈다.

약을 많이 먹으면서 나빠졌던 몸, 그래서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대안을 찾는 것이었다. 약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아플 때 약을 대신한 '대안을 찾자'라는 것이 이번 논문을 쓰게 된 이유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자연 친화적인 간디학교에 다니다 보니 대안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다. 그런 만큼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약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대안을 내고 싶었다. 이런 이유들이 내가 이 논문 주제를 약으로 잡고 쓰게 된 계기이다.

II. 본론

1. 양약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1) 약의 부작용

(1) 감기약

거의 모든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은 현기증, 졸음, 운동신경의 둔화, 주의력 산만 등을 유발하므로 과다복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운전 중이나 기계 조작 시에 졸음을 불러오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복용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코 막힘이 심해 숨쉬기 어려울 때 코 뚫는 약이라 하여 사용하는 분무 형태의

약물인 오프리빈이나 나리스타 등은 자주 사용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환각을 목적으로 텍스트로메트로판이 들어 있는 리미라나 루비킹과 같은 구하기 쉬운 기침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이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마르며, 삼키기 힘들어지고, 위장 장애, 혈압상승,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중대한 현실적 문제나 감정적 문제가 대두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2) 흥분제

많은 사람들이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곤을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암페타민과 카페인과 같은 흥분제를 사용한다. 많은 흥분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반복적인 사용은 중독으로 이끌 수 있다. 강도 있는 흥분제의 생산이 문제이다. 이용 가능한 흥분제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락적 약물로서 사용되는 가장 비싼 코카인은 심리적인 의존을 야기한다.

(3) 진정제

진정제는 잠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낮 동안 진정하기 위해, 또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처방을 하기도 한다.

(4) 진통제

진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장 장애와 피부 과민 반응이다. 특히 위장 장애가 가장 흔한 경우로 위염, 속쓰림, 위궤양, 복통, 설사, 구역, 구토 등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피부 과민 반응으로 스티븐스-존슨(피부 점막안 증후군) 증후군, 리엘(중독성 표피 괴사증) 증후군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천식, 속, 황달, 발열, 비출혈, 두통, 현기증, 우울,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5)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주요 부작용은 쇼크, 내성균의 조성, 균교대 현상, 유전자에 대한 영향, 혈액장애, 간 장애, 위장관 출혈, 청각 장애 등이 있다. 새로운 항생제 주사 중에는 술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다. 항생제의 위험성 중에서 내성균의 조성, 균교대 현상,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항생제에만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다. 또한 항생제는 신장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태리의 베로나 대학 소아과학부 Fanos 교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항생제의 투여 또는 항생제와 다른 약의 혼합 투여 시 신장에 주는 위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저체중 신생아에게 흔히 투여되는 항생제가 신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6) 두통약

두통약에 든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성분은 심하면 간세포를 망가트리고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수면제보다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슈도에페드린'이란 성분이 들어있는 콧물 감기약의 경우도 주의 사항은 필요하다. 이 성분이 든 약은 편두통이나 심장병, 고혈압 환자가 복용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7) 피임약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 시와 비슷한 호르몬 상태가 되므로, 몸이 붓고 유방이 팽팽해 지기도 한다.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복용 시작 2~3개월 후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피임약을 먹다가 끊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배란 및 월경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90%에서 3개월 이내에 배란이 재개되며, 혹 3개월이 지나도 무배란,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병원에서 배란 약을 처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임약은 임신능력이나 기형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피임약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며, 사용이 간편하고 성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피임약은 피임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생리통을 경감시키고,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해 줄 수 있으며, 난소암과 자궁 내막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리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과다월경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다.

고혈압, 당뇨, 간염, 정맥혈전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등을 피임약 사용을 금해야 한다. 1년을 복용하였을 때 실패율(임신율)이 약 3%라고 한다.

2) 약 먹을 때 주의할 것

(1) 비타민제

비타민제는 차와 먹지 말자. 비타민제나 빈혈 치료제(헤모페론)를 복용할 때는 녹차나 홍차 등을 삼가는 게 좋다. 녹차나 홍차에 함유된 타닌 성분이 약물의 고유 성분을 변화시켜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2) 변비약

변비약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변비약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변비약은 보통 대장에서 약효를 내도록 코팅이 되어 있다.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대장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위에서 다 녹아 버려 복통이나 위경련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3) 감기약

감기약, 소화제는 우유를 싫어한다. 아진탈, 노루모, 메디자임 같은 소화제나 알드린, 아루포스, 로겔, 노이시린 같은 제산제를 복용할 때는 우유·치즈·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 섭취를 삼가야 한다. 우유에 들어 있는 칼슘이 약의 흡수를 막기 때문이다. 감기약이나 변비약도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감기약이나 변비약에 들어 있는 ‘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유제품과 작용해 약이 20~30% 정도밖에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약을 먹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유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

2. 신문이나 뉴스가 말한 양약

1) 양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한약과 생약은 괜찮다

『2004/09/13 오전 11:16 | 건강 | 미용/건강』

양약과 한약의 증상에 따른 효능과 한계를 잘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약물도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모든 약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약이건 양약이건 간에 약효와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피린’과 같은 양약도 위 출혈 및 위장 장애, 혈액 응고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가령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자’와 같은 한약재도 본의 아니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는 환자가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약물복용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만성질환자들은 약으로는 완치는 안 되지만, 거의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에 “양약은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데..., 또는 양약을 오래 먹으면 위장을 버릴 텐데...” 하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양약으로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 한약이나 건강식품으로 완치시켜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만성간염이나 간암처럼 특효약이 없는 경우에는 한약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약은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고 장기간 복용해도 상관없으나, 양약은 오래 복용하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양약을 복용했을 때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양약이 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한약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성간염환자가 한약을 먹고 간 기능이 더 나빠지거나, 한약으로 인해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양약, 한약 모

두가 한계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약이나 한약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찰 하에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효능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모든 약물은 의사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복용법을 알고 복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PPA 감기약 소동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사업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 결과는 다음 달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EH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들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 중 PPA 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3. 설문지를 돌린 결과나 통계

1) 설문지 내용

- [1]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
- [2] 위 [1] 번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양약(감기약, 진통제 등) 2. 한약(침, 뜸 등)
 3. 자가치료(잔다, 휴식을 취한다 등) 4. 민간요법(차를 마신다, 지압을 한다 등)
 5. 기타
- [3] 위 [2]번에 양약을 선택하신 경우 며칠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복용하십니까?
- [4] 위 [2]번에서 양약을 선택하신 경우 어떤 종류의 약을 제일 많이 드십니까 ?
- [5] 평소에 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좋다 (2) 그저 그렇다 (3) 안 좋다 (4) 기타
- [6] 위 [5]번에서 ? 번을 선택하신 이유를 적어 주세요.
- [7] 학교에서 아플 때 주는 약 대신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설문지 통계

75명의 학생 중 51명의 학생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었다

- [1]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
감기 59%, 설사(변비) 12%, 복통 29%
- [2] 위 [1]번에서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2개까지)
1. 양약(감기약, 진통제 등) 27%
2. 한약(침, 뜸 등) 12%
3. 자가치료(잔다, 휴식을 취한다 등) 47%
4. 민간요법(차를 마신다, 지압을 한다 등) 11%
5. 기타(나을 때까지 기다린다 2%, 요가 1%)
- [3] 위 [2]번에 양약을 선택하신 경우, 며칠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복용하십니까 ?
하루 1알 43%, 하루 3알 9%, 3일 3알 24%, 5일 3알 14%, 오래오래 10%
- [4] 위 [2]번에서 양약을 선택하신 경우, 어떤 종류의 약을 제일 많이 드십니까 ?
진통제 27%, 변비약 7.6%, 감기약 53.7%, 피로회복제 4%, 두통약 7.7%
- [5] 평소에 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10% (2) 그저 그렇다 43% (3) 안 좋다 47% (4) 기타 0
- [6] 위 [5]번에서 ? 번을 선택하신 이유를 적어주세요 ,
(1) 효과 좋다 12.8%
(2) 약을 먹을 일이 없다 2.2%, 먹은 후 휴식 필요 2%, 안 먹어도 낫는다 2%, 효과 없다 8%
(3) 화학 약품 10%, 부작용 23%, 면역력 저하 23%, 개인적 사정 10%,
(4) 모르겠다 5%, 몸에 정말 안 좋다 2%
- [7] 학교에서 아플 때 주는 약 대신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결관리 13%, 수지침 13%, 자가치료 50%, 요가 13%, 올바른 식습관 5%,
팔 굽혀 펴기 2%, 안 아프는 것 2%, 파라다이스 2%

3) 설문지 결과

[간디학교 학생 75명 중 51명이 설문지를 작성해 준 결과]

-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감기, 설사, 복통
-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양약이나 자가치료

- 양약을 복용하는 시기나 양은 3일 동안 식후 1알
- 가장 많이 먹는 약의 종류는 감기약이 50% 이상
- 양약에 대한 시각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 이유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부작용이 나타나며, 먹은 후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
- 양약 말고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은 청결 관리나 자가치료로 잠을 자는 것,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수지침을 맞는 것
- 다른 의견으로는 파라다이스를 가는 것, 요가, 팔굽혀 펴기 등이 있다

4. 설문지를 통계 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증상의 치료법 제시

1) 감기 치료법

(1) 유자차 : 유자는 비타민C 함유량이 많아 피부에 좋으며 감기의 특효약이다. 과음한 다음날 먹으면 알코올 해독작용도 한다. 빗갈이 곱고 겉모양이 깨끗한 유자를 골라 잘 씻은 후 5mm 두께로 썰어 쪼개로 설탕을 넣어 재워 놓았다가 물을 넣고 끓여 마시면 된다

(2)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3)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들 영양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4) 열이 날 때는 간장의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고,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며, 비타민(A, B1, C), 나트륨 등의 소비량도 늘어나므로 이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2) 설사 치료법

(1) 소화기에 자극을 주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잘 빵지 않은 거친 죽, 튀김음식, 콩, 날야채, 카페인 음식, 알코올, 탄산음료, 감자 등)

(2)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300cc 정도의 음료수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며, 맑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다.

3) 복통 치료법

(1) 마늘, 사과, 박하 등을 생으로 먹는다.

(2) 들깨 메밀과 햇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

(3) 지압요법으로는 배에 있는 경혈인 중완(명치와 배꼽 중간), 천추(배꼽 양 옆으로 손가락 3개 정도 이동한 위치), 관원(배꼽과 치골 중간)과 등에 있는 경혈인 간수(9번째 흉추 아래에서 양 옆으로 손가락 2개 정도 이동한 위치), 비수(11번째 흉추 아래에서 양 옆으로 손가락 2개 정도 이동한 위치)를 따뜻하게 해 천천히 문지르고 부드럽

운 천으로 마사지한다.

4) 생리통 치료법

(1) 민간요법으로 구절초, 생강, 대추를 같이 달여서 먹거나 약쥬를 달여서 마시거나 찜질을 하고 익모초를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좋다.

5.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나 치료

1) 신경성 소화불량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신경성 소화불량은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인사에 대한 불안감, 상사와의 나쁜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 수행이 잘 안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술이나 고스톱과 같은 해소 방법보다는 스포츠나 음악 감상 등과 같이 생활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해소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2) 편두통 치료법

(1)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조

의자에 앉은 자세로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 폈다 한다. 똑바로 앉아 양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 앉은 자세에서 머리만을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2) 서서 하는 체조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뒤로 젖히며 가슴을 내민 다음 숨을 들이마신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숨을 뱉어낸다. 선 자세에서 목을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6.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이 아닌, 만약을 대비한 치료 방법 제시

1) 변비 치료법

(1) 음식을 많이 먹는다

변비에 걸리게 되면 화장실을 가기가 두려우니까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대변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쓰레기이다. 집에서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으면 버리듯이 장 속에도 음식 찌꺼기인 대변이 많이 쌓여야 장의 운동이 촉진되어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게 된다. 그러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 중에서도 소화

되고 난 뒤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음식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야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대변을 보기가 쉬워진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찌꺼기도 많고, 또 섬유질 사이에 공간도 많아서 대변이 너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해서 대변이 쉽게 나오도록 도와준다.

찌꺼기가 많이 생길 음식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과일, 채소류가 있고, 찌꺼기가 적게 생길 음식으로는 인스턴트 음식, 고기류가 있다.

기타 커피, 녹차 등도 변비에는 좋지 않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변비가 많다. 인스턴트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소화된 뒤에도 찌꺼기가 거의 없다. 육류도 마찬가지이다.

2) 불면증 치료법

잘 때 발은 따뜻하게 해 주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숙면을 도와준다고 한다. 아로마테라피라는 초는 향기를 이용해 숙면을 도와줄 수도 있다.

3) 부 록

(1) 키 크는 방법

가. 귓구멍 입구의 아래쪽에 접시같이 부드러운 뼈가 있다. 이 곳을 지압하면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나. 엄지발가락의 도톰한 부분을 꼭꼭 눌러본다.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두통 등에도 효과가 있다.

다. 허리에서 척추 좌우로 3~4cm 떨어진 곳에 있는 2개의 지압점을 눌러 준다.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뼈가 빨리 자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III. 결론

1.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

우선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건 사실이다. 약에 관심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줄은 모르고 잡았던 약이라는 논문 주제... 무식하게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애들과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해 가면서, 아침에는 졸면서 공강 시간에 자는 이런 경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나름대로 나는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내가 졸업하기 위해 쓰는 논문 때문에 밤을 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즐기고 추억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왔다.

지금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애들도 역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다. 그리고 졸음을 참지 못하는 애들은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기도 한다.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은 당연히 내가 알고 싶어 했던 약에 대한 것, 다행히도 내 궁금증을 풀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건, 논문이란 건 정말 할 게 못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든다는 것.

2. Special Thanks to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허접한 논문이 됐지만, 제 논문을 맡아 주신 사랑하는 현숙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논문의 아픔을 나눴던 막강 중3 (!) 스페셜로 논문 도와준 용안이와 유리, 그리고 말로만 도와준 병우, 그 외에도 아주 많지만, 다 고맙고,
맨날 취침당번 못 할 때 같이 해준 민채, 우리 방 우리 예쁜 윤정이,
그리고 청소로 빨래 못 해도 말없이 해주는 예인이랑 유리랑 현이,
그리고 내 논문 설문지해 준 우리 51명의 아이들(!)
정말 다 사랑하고 다 고맙고 이제는 졸업할 일만 남았네...